

# 밀양민요집 1권



## 책을 내면서

이 땅에 노래가 흐르지 않는 고장이 어디 있으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밀양의 노래는 밀양아리랑 가락만큼이나 흥겹고 유장하다. 을자(乙字)로 흐르는 밀양강의 물길이 가락의 흥취를 돋우고, 화악산의 바람이 아리랑 가락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먼 가야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의 내력을 노랫가락으로 풀어낸 곳이 밀양이다. 가야와 신라의 왕들이 연꽃을 감상하던 국농소(國農沼)는 연밥 따는 처녀의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여전히 들썩이고, 한국전쟁기 민중들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우여곡절도 밀양의 노래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런 까닭에 민요는 지역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밀양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터에 대한 내력이 노랫가락과 더불어 흘러온 셈이다.

드넓은 평야를 가슴에 품은 밀양은 농경문화의 저수지다. 밀양백중놀이와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등의 민속예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농경사회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를 내거나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등의 고단한 노동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일터에서 부르는 노래가 유달리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농한기라 하더라도 노동으로부터 쉬이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이 고단함을 견디게 해준 바탕이 곧 민요였다. 그만큼 민요는 묵묵히 마을을 지키던 당산나무처럼 사시장철 푸른 지역민의 숨결과 삶의 애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작년에 이어 밀양지역문화총서 연속 기획 5~6권으로 발간한 『密陽民謡集』은 크게 여섯 매듭으로 이루어졌다. 첫머리에 내세운 ‘밀양의 노래’는 밀양의 지역가치를 오롯이 담고 있는 마당으로, 이 지역의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예향(藝鄉)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마련된 ‘일터에서 부르는 노래’는 농경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삶의 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당이다. 양으로도 가장 많아 밀양 지역의 속살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두루 발견할 수 있는 ‘의례에서 부르는 노래’, ‘놀면서 부르는 노래’, ‘아이들의 노래’, ‘신민요와 창가’도 별도의 마당을 마련하여 한데 묶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 밀양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함께 엿볼 수 있으리라 본다.

책을 엎으면서 노래 곳곳에 드러나던 해석의 빙벽(冰壁)을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았다.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았으나, 힘이 닿는 대로 세세하게 뜻을 풀어 독자의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 지역의 속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말은 이근열, 김문기 선생의 각별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뜬약볕이 내리쬐던 길바닥을 마다하지 않고 사연 많은 노래를 들려주던 밀양 지역민들에게도 넉넉한 인사를 드린다. 이 어르신들이야말로 아직까지 우리네 구술공동체의 지반을 넉넉하게 받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이 분들의 구슬땀이 책 곳곳에 스며들어 농경문화의 전통을 옛날까지도 생생하게 전하리라 믿는다. 그동안 총서 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밀양시와 세종문화사 편집실 김미화 선생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0년 12월  
정인년(庚寅年)을 보내면서  
편집위원 삼가 적음

## 일러두기

### 1. 편집 방향

- 1) 『密陽民謡集』(이하 민요집)은 밀양 지역의 민요를 망라하여 전체 두 권으로 기획되었다.
- 2) 민요집은 기존에 발행된 구비문학자료집, 민요집, 읍면 단위의 향토지, 지역에서 발간된 매체 등 각종 문현에 수록된 밀양 지역의 민요를 저본으로 삼고, 현지 조사를 통해 내용을 대폭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3) 문현 소재 민요는 철저한 대교(對校) 작업을 거쳐 수록하되, 다음 몇 가지 원칙을 따랐다.
  - ① 수집 가능한 모든 문현을 검토하여 밀양 지역 민요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 ② 기준 판본의 원래 모습을 충실히 따르되, 여러 문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민요는 내용이 풍부한 것을 골라 수록하였다. 또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노랫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함께 수록하여 내용의 다양성을 살리고자 했다. 특히 모내기 노래는 제보자에 따라 내용의 진폭이 워낙 큰 까닭에 원전의 각편들을 편집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였다.

아울러 비슷한 노래라 하더라도 구연 현장이 다른 경우에는 분류를 달리하여 수록하였다.

③ 제목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자가 새로운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④ 내용이나 표기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오류는 수정하였으며, 연과 행은 내용에 걸맞게 재편하였다.

⑤ 가장의 현장성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돋고자 했다.

4) 현지 조사는 2009년 6월 20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밀양 지역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5) 노래의 끝에 조사자, 제보자(이름, 성별, 나이, 주소), 채록일자를 밝혀 두었다. 다만, 주소는 ‘리(里)’와 ‘동(洞)’ 단위까지만 밝히고, 채록 장소를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의 행정 명칭을 따랐다.

6) 민요의 출처는 권말에 「민요 죽보기」를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두었다. 따라서 본문에는 별도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와 관련된 사항만을 간단하게 표시하였다. 문헌에서 조사자나 제보자, 채록일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밝혔다.

7) 수록 범위가 가장 넓은 『韓國口碑文學大系』 8-7, 8-8(1983) 소재 민요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허락을 얻어 수록하였으며, 저작권이 동기관에 있음을 밝혀둔다. 다른 문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표기 원칙

- 1) 민요집은 기존 판본의 표기 방식을 따르되,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한자는 괄호에 넣어 표기하였으며, 본문에서 거듭 사용된 한자는 처음에만 괄호에 넣고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하였다.
- 2) 띠어쓰기나 맞춤법은 현행 어문 규정을 따랐으며, 노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줄표와 말줄임표 등의 각종 부호는 현행 표기 원칙을 따랐다.
- 3) 가창의 현장성을 오롯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노래는 후렴이나 뽑는 소리, 꺾는 소리, 떠는 소리 등의 시김새까지 모두 살렸다. 구연자가 말로 풀어낸 부분 또한 글자모양을 달리하여 표시해 두었다.
- 4) 밀양 지역의 어휘와 문체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역말은 가능한 한 살리되, 별도로 뜻풀이를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다.
- 5) 외래어는 가능한 한 원문의 형태를 살려 표기하였다.

## 차 례

책을 내면서

일러두기

1. 편집 방향
2. 표기 원칙

제1부 밀양의 노래 | 35

제1장 밀양아리랑 | 37

1.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37
2.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 47
3. 내 마음에 핀 꽃은 울긋불긋 • 50
4. 영 클렀네 영 클렀네 • 54
5. 아리 놓고 쓰리 놓고 • 55
6.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 56
7. 금선아 옥선아 • 60
8. 니 잘났나 내 잘났나 • 61
9. 가는 님 허리를 담싹 안고 • 63
10. 우리 님 살던 곳이라서 여기 왔지 • 64
11. 제비란 놈이 재주가 좋아 • 65
12. 아리아리랑 얼씨구 노다 가세 • 65

제2장 밀양의 경관 | 68

1. 밀양의 고적 • 68
2. 밀양의 승경 • 82

제3장 밀양의 민속 | 98

1. 밀양백중놀이 • 98
2. 무안용호놀이 • 101
3. 법흥상원놀이 • 102
4. 감내계줄당기기 • 120

제2부 일터에서 부르는 노래 | 125

제1장 모내기 노래 | 127

제1절 모밟기와 모찌기 • 127

1. 청명곡우 돌아왔다 • 127
2. 한강에 모를 부어 • 128
3. 하늘에 목화를 심어 • 130
4. 일월 해님이 돋아 와도 • 132
5. 이 못자리 조르자 • 133
6. 이 못자리 잡아 가소 • 134
7. 이 못자리 들어내자 • 135
8. 이 못자리 둘러싸자 • 135
9. 새야 새야 청조새야 • 135

제2절 모심기 • 136

1. 편편 뛰는 금붕어야 • 136
2. 물꼬는 청청 헐어 놓고 • 141
3. 모야 모야 노랑모야 • 146
4. 아침이슬 채전밭에 • 151
5. 알곰삼삼 고운 독에 • 155
6. 금실금실 영화로다 • 159
7. 모시적삼 안섶 안에 • 163
8. 낭창낭창 벼랑 끝에 • 166
9. 서울이라 왕대밭에 • 170
10. 명주바지 잔줄바지 • 173
11. 알곰삼삼 고운 처녀 • 176
12. 처녀 둘이 도망가네 • 179
13. 잡나락이 절반이네 • 182
14. 다풀다풀 다박머리 • 185
15. 풍당풍당 찰수제비 • 187
16. 유월이라 두 달인데 • 190
17. 찔레꽃을 살콤 데쳐 • 193
18. 머리 좋고 실한 처녀 • 195
19. 저기 가는 저 구름은 • 198
20. 남창 북창 열고 보니 • 200
21. 알쏭달쏭 유자 줌치 • 202
22. 슬퍼 우는 송낙새야 • 204
23. 찔레꽃은 장가가고 • 206
24. 우리 도련님 병이 나서 • 209
25. 반달만큼 남았구나 • 211

26. 장기판만큼 남았구나 • 213
27. 영창문을 반만 열고 • 215
28. 연줄 가네 연줄 가네 • 217
29. 연약한 부시로 딸깍 쳐서 • 219
30. 서울이라 나무 없어 • 221
31. 임이 죽어서 연자 되어 • 223
32. 저기 가는 저 구름에 • 225
33. 서울 갔던 선비님요 • 227
34. 침자질하는 저 큰아가 • 229
35. 유자 탱자 의논 좋아 • 231
36. 비 묻었네 비 묻었네 • 233
37. 물 밑에 소라고등 • 234
38. 임의 품에 자고 나니 • 236
39. 파랑 부채 반보따리 • 237
40. 짜구야 짜구야 쪼지 마라 • 239
41. 시누이 남편 밥 담다가 • 240
42. 니 치마 내 치마 질반치마 • 242
43. 주천당 모롱이 돌아가니 • 244
44. 골목골목 그물 치자 • 245
45. 사랑 앞에 화초 심어 • 246
46. 연밥 따는 저 큰아가 • 247
47. 반달 동실 떠오르네 • 248
48. 신 사 주소 신 사 주소 • 249
49. 첨아 첨아 요내 첨아 • 250
50. 동남풍이 살랑 불어 • 251
51. 일천 석이나 쏟아 주소 • 252
52. 중아 중아 도사중아 • 253

53. 일색 처녀 들락날락 • 254
54. 아리랑 춘자야 술 걸러라 • 255
55. 배꽃일래 배꽃일래 • 256
56. 총각 처녀 장난말이 • 257
57. 진주 덕산 안사랑에 • 257
58. 총각들 먹던 청실배는 • 258
59. 국화정자 놀러 가자 • 259
60. 복덕밭에 수은을 잊고 • 260
61. 하늘 천자 땅 지자에 • 260
62. 우리 엄마 재주 좋아 • 261
63. 여기 꽂고 저기 꽂고 • 262
64. 백설 같은 흰나비는 • 262
65.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 • 263
66. 세모시 삼가래 뱅 틀어쥐고 • 264
67. 장수 장수 황배장수 • 264
68. 달이 떴네 달이 떴네 • 265
69. 농사법은 있건마는 • 266
70. 설설이 어디 갔노 • 266
71. 강남에 강대추 • 267
72. 남산 밑에 논 쳐 놓고 • 268
73. 청실네 홍실네 배나무 밑에 • 268
74. 이 삼 삼아서 옷 해 입고 • 269
75. 산천초목이 불이 붙어 • 269
76. 새야 새야 파랑새야 • 270
77. 미나리라 시평꽃은 • 270
78. 우리 님의 동창 밖에 • 270
79. 사랑 앞에 중이 와서 • 271

80. 담장 안에 화초를 심어 • 271
81. 사랑 앞의 배는 • 271
82. 놋젓가락 세 칸 집에 • 272
83. 저기 가는 저 상주는 • 272
84. 너는 죽어 약쑥 되고 • 272
85. 연 같이 너른 들에 • 273
86. 속곳 가랑이 피 묻었네 • 273
87. 진주 덕산 진 골목에 • 274
88. 우선 씨를 받아 • 274
89. 산도 산도 고적산에 • 274
90. 노랑모에 짹이 나와 • 275
91. 들 가운데 정자를 심어 • 275
92. 딸을 낳아 곱게 길러 • 275
93. 니가 가고 나 죽게 되나 • 276
94. 삼천리를 갈 수 있나 • 276
95. 우수 경첩 철 맞추어 • 277
96. 이 산 저 산 다 녹으니 • 277
97. 한강수에다 배를 놓고 • 277
98. 세우 살살 오는 날에 • 278
99.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 278
100. 낫은 갈아서 바지게 담고 • 279
101. 김해 무척산에 나무를 심어 • 279
102. 사래 길고 광 넓은 밭에 • 280
103. 새문 밖 따복대는 • 280
104.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 280
105. 글소리 깡깡 울려 나네 • 281
106. 뒷동산 고목나무 • 281

107. 여우같은 시누이야 • 282
108. 울타리 밑에 돌삼을 심어 • 282
109. 총각 쓰는 잔글씨는 • 282
110. 저기 가는 선비 중에 • 283
111. 서울이라 대청 끝에 • 283
112. 저 건너 황새등에 • 284
113. 나비야 나비야 범나비야 • 284
114. 해 돋았네 해 돋았네 • 284
115. 봄이 오면 진달래요 • 284
116. 저 건너 청산 청기와집 밑에 • 285
117. 공명출세 부러워 말고 • 285
118. 오실토실 잘 익은 곡식 • 285
119. 양산 하고 뒷골짝에 • 286
120. 서울이라 한량 고개 • 286
121. 참나무라 심은 밭에 • 286
122. 반물치마 반자개미 • 287
123. 일본에서 나왔다 삼나무는 • 287
124. 내 떠다 주던 궁초댕기 • 288
125. 딸 있거든 사위 보소 • 288
126. 웅지 빠진 갓을 쓰고 • 288
127. 동해바다 벗사공은 • 289
128. 남천수 물이 펄펄 넘어 • 289
129. 낙동강 배 선주야 • 289
130. 한강수 푸려 하니 • 290
131. 삼대독자 외동아들 • 290
132. 지포치마 소복단장 • 290
133. 우리집 유임이는 • 291

134. 병풍 치고 불 켠 방에 • 291
135. 두껍아 웅두껍아 • 292
136. 청천 하늘에 구름 모아 • 292
137. 저 건너 저 산 눈이 와서 • 292
138. 오뉴월에 흘린 땀이 • 293
139. 뒷동산에 썩은 나무 • 293
140. 밤중 밤중 야밤중에 • 293
141. 한 칸 두 칸 떼어 놓아 • 294
142.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 294
143. 살림살이 가난하다고 • 294
144. 거제 봉산 박달나무 • 295
145. 밀양 상남 넓은 들에 • 295
146. 울 너머 담 너머 • 295
147. 별이 떴네 별이 떴네 • 296
148. 까마귀 깍깍 울면 • 296
149. 산도 산도 봄철인가 • 296
150. 이 등 저 등 등창 나고 • 297
151. 경상감사 맏딸애기 • 297
152. 우리 들 너희 들에 • 297
153. 낮에는 품에 놀고 • 298
154. 안개 잣은 골에 • 298
155. 저 건너 나리반석 • 298
156. 들 가운데 정자를 심어 • 299
157. 친한 친구 해가 지니 • 299
158. 앵두나무 북받침은 • 299
159. 사월이라 초파일에 • 300
160. 아나 농부야 • 300

161. 도롱이 삿갓을 짚어져라 • 300
162. 불산 같이 더운 날에 • 301
163. 저 건너 청산 비가 와서 • 301
164. 산 높고 골 깊은데 • 301
165. 금년 시절 대동하면 • 302
166. 해발룸해발룸 꼬장바지 • 302
167. 서답은 벗어 놓고 • 302
168. 서울이라 유달아기 • 303
169. 도라지 병풍 여닫이 속에 • 303
170. 남창 북창 선창 밑에 • 303
171. 알쏭달쏭 유자 수건 • 304
172. 점심참이 늦게 오네 • 304
173. 오늘 낮의 점심 반찬 • 311
174. 석양은 펄펄 재를 넘고 • 314
175.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 316
176.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 321
177. 저녁을 먹고 씩 나서니 • 326
178. 초롱아 초롱아 영사초롱 • 329
179. 말은 가자 굽을 치고 • 331
180. 오늘 해는 다 졌는데 • 332

제2장 김매기 노래 | 333

제1절 논매기 • 333

1. 널널널 상사디야 • 333
2. 어럴럴 상사디야 • 335
3. 어얼얼얼 상사디야 • 338

4. 어헐럴러 상사디야 • 338
5. 어 허아 위위아 위여 • 339
6. 오후헤야 오후디야 오 • 342
7. 아이고 아이고 • 343

제2절 밭매기 • 349

1. 한 살 먹어 엄마 죽고 • 349
2. 시집간 사흘 만에 • 355
3.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 357
4. 미 같이 질은 밭을 • 359
5. 춘아 춘아 옥단춘아 • 359
6. 춘아 춘아 민경춘아 • 361
7. 성아 성아 올케성아 • 368

제3장 보리타작 노래 | 371

1. 오헤야 오헤야 • 371
2. 옹헤야 옹헤야 • 375
3. 예화 예화 • 379
4. 업헤이야 업헤이야 • 381
5. 엉헤야 엉헤야 • 383
6. 어화 어화 • 383
7. 애해 • 385
8. 열씨구 잘한다 • 385
9. 여기 때려라 • 386
10. 앞집에 제수씨도 • 387
11. 애어 헤이여 • 387

제4장 작두 노래 | 389

1. 오호호 작두야 • 389
2. 어허허어 작두야 • 391
3. 어허 작두야 • 392

제5장 길쌈 노래 | 395

제1절 삼 삼기 • 395

1. 진주낭군 노래 • 395
2. 첫날밤 얘기 낳은 신부 노래 • 406
3. 혼펫날 신부 죽는 노래 • 412
4. 김선달네 맏딸 잘났다 소문 듣고 • 418
5. 시앗 본 노래 • 422
6. 액운얘기 노래 • 424
7. 못난 신부 노래 • 425
8. 쌍금쌍금 쌍가락지 • 428
9. 양산백과 축영대 • 433
10. 성아 성아 사촌성아 • 434
11. 엄마 엄마 울 엄마 • 439
12. 아황여영 죽은 곳에 • 441
13. 우리 엄마 나를 키워 • 443
14. 처자 노래를 하여 볼까 • 444
15. 시집살이 말도 많고 • 445
16. 만리풍상 울 아버지 • 445
17. 딸을 낳아 곱게 길러 • 446
18. 원수로다 원수로다 • 446
19. 독수공방 더욱 쉽다 • 447

20. 산천이라 무덤골에 • 448
21. 갑오년 흉년에 • 449
22. 석탄 백탄 타는 데 • 449
23. 저 건너 고목나무는 • 450
24. 전라도라 계명산에 • 450
25. 두렁 밑에 나시꽃은 • 451
26. 첨의 집은 꽃밭이요 • 451
27. 거제 봉산 높은 정기 • 453
28. 죽일 년아 살릴 년아 • 454
29. 너와 내가 만날 적에 • 454

제2절 물레질 • 455

1. 오로롱보로롱 물레야 • 455
2. 물레야 빙빙 돌아라 • 455

제3절 베짜기 • 456

1. 월하에 놀던 선녀 • 456
2. 천상에 놀던 각시 • 459
3. 월광전에 베틀 놓자 • 461
4. 베틀 노래를 하여 볼까 • 462
5. 달 가운데 계수나무 • 463
6. 천상에 놀던 앵화 • 465
7. 베틀 다리는 사형제 • 467
8. 베 짜는 아가씨 • 469
9. 낮에 짜는 일광단 • 471
10. 그 베 짜서 누 줄랑고 • 471
11. 옥황님께 죄를 짓고 • 472
12. 놓고 짜고 들고 짜고 • 472

제6장 어사용 | 474

1. 에 흑쭈구여 • 474
2. 지리동산 갈가마구야 • 475
3. 가자 가자 백로 가자 • 476
4. 태산 같은 짐을 지고 • 477
5. 마귀야 마귀야 가마귀야 • 477
6. 구야 구야 갈가마구야 • 478
7. 어떤 사람 팔자 좋아 • 479
8. 아이고 정강이야 다리야 • 479
9. 어화 친구 벗님네여 • 480
10. 혜혜이 혜이 내 팔자야 • 481
11. 후추어 에이호호호호 • 482
12. 허허 팔자야 내 팔자야 • 483
13. 은행나무 황장목도 • 483
14.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아 • 484
15. 높은 산에는 눈 날리고 • 486

제7장 나물 캐는 노래 | 487

1. 서산 밖에 서처자야 • 487
2. 남산 밑에 남도령아 • 494
3.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 495
4. 뒷동산천 올라가서 • 496
5. 광주리야 놓 되거라 • 497
6. 영동아 지신아 • 497
7. 어화 처정청 고사리 꺾자 • 499

제8장 나락 가는 노래 | 501

1. 어허허 목매야 • 501
2. 어허 목마야 • 507
3. 오후오후 방아야 • 508
4. 오후호 방애야 • 509
5. 야호호 방아야 • 511
6. 오후 방아야 • 512
7. 쿵더쿵 쿵더쿵 • 512

제9장 터다지는 노래 | 514

1. 에이러 룻차 • 514
2. 천 근 들어 망깨는 • 517
3. 어이야라차아 • 518
4. 열두 자 말목은 물밑에 놀고 • 526
5. 망깨는 공중에 놀고 • 527
6. 에이여라 망깨놀이 • 528
7. 오후 딸꾸야 • 530
8. 어이야루 망깨야 • 531
9. 목도 노래 • 532

제10장 아기 보는 노래 | 533

제1절 아기 어르기 • 533

1. 금자동아 옥자동아 • 533
2. 불매 불매 불매야 • 539
3. 알강달강 서울 가서 • 544
4. 금을 주어 너를 살까 • 550

5.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 551

제2절 아기 쟤우기 • 551

1. 자장자장 자장자장 • 551
2. 자장자장 워리자장 • 554
3. 자장자장 자는구나 • 555
4. 자장자장 물레자장 • 556
5. 아가 아가 울지 마라 • 557
6. 자장자장 우리 개야 • 557
7. 개야 개야 검정개야 • 559

민요 죽보기 | 560

제3부 의례에서 부르는 노래

제1장 세시풍속

1. 지신밟기
2. 월령가
3. 윷노래
4. 단오노래

제2장 통과의례

제1절 혼례

1. 시집간 첫날밤에
2. 공자 맹자는 내 아들이오
3. 막걸리 한 잔에 웃음이 나고
4. 이 방 저 방 양방 중에
5. 잡으시오 잡으시오
6. 사람 좋네 사람 좋네
7. 앵두 같이 맑은 사랑

제2절 수연

1. 경사로다 경사로다
2. 공자 맹자 내 아들아
3. 동네 원아 내 아들아
4. 일월 같은 내 아들아
5. 오늘날 내 생일에
6. 이 때 저 때 어느 때고
7. 나라님의 나무를 심어

제3절 장례

1. 나무야 어미타불

2. 나무야 에헤이에 타불
3. 어널 어널 어허널
4. 에헤에헤호 에호 넘자 에헤호
5. 에헤에홍 에화 넘차 에홍
6. 에헤 에헤홍 어화 넘차 에헤홍
7. 에헤 어헤오홍 에와 넘차 에에홍
8. 에헤헤헤 에헤헤호 어와 넘차 어헤호
9. 어널 어널 어허널
10. 콩콩콩 달구야 오호호 달구야
11. 목마르다 어허 딸꾸야
12. 선천지 후천지는

### 제3장 축원

#### 제1절 민간신앙

1. 헛쉐! 귀신아
2. 울 너머 울진귀신
3. 어진 삼신 제왕님요
4.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5. 배야 배야 똥똥배야
6. 기일 노래
7. 농신체 축원문
8. 가을굿 축원문

#### 제2절 불교

1. 회심곡
2. 염불가
3. 극락왕생가

### 제4부 놀면서 부르는 노래

#### 제1장 말놀이

1. 기억나은 디귿리을

2. 하늘 천 따 지
3. 앞동산 봄 춘 자
4. 마산 가서 쇠배 보고
5. 아이고지고 곡천장
6. 가자 가자 감나무
7. 시집살이 말도 많고
8. 이 박 저 박 깐치박
9. 이바구 대바구 간대바구
10. 이약 디약 빤대약
11. 저 건너 건너 산에

#### 제2장 타령

1. 각설이타령
2. 장타령
3. 담배타령
4. 화투타령
5. 징금이타령
6. 돈타령
7. 방아타령
8. 노리개타령
9. 범벅타령
10. 신세타령
11. 큰애기타령
12. 통소타령
13. 능실타령
14. 까투리타령

#### 제3장 사랑가

1. 잠든 사랑아
2. 사랑이 좋더냐
3. 아하둥둥 내 사랑아
4. 신작로 넓어서 길 가기 좋고
5. 길가 집 담장은
6. 총각 처녀 정드는 데는

7. 삼각산 중머리 비 온동 만동
8. 양산 읍내 물레방아
9. 유심의 바람은 저절로 돌고
10. 노방주 손수건에다
11. 저 건너 저 집이
12. 날 데려 가거라
13. 시계야 침수는
14. 무단히 싫더나
15. 술과 담배는
16. 달아 두렷한 달아
17. 호호작작 범나비
18. 사랑 앞에 국화꽃은
19. 만고일색은 너 하나이고
20. 곱고 고운 내 얼굴도
21. 저 건너 저 무덤이
22. 새는 새는 나무에 자고
23. 니가 나만큼
24. 우수 경첩에
25. 천길 만길 똑 떨어져 살아도
26. 니 텏이 내 텏이
27. 산골 중놈들아
28. 만첩산중 고드름은
29. 담 넘어갈 때는
30. 송죽같이 굳은 절개
31. 파릇파릇 봄배추는
32. 산이 높아야
33. 산 차지 들 차지
34. 삽오야 보름달은
35. 말을 타고서
36. 어디 갔다 이제 왔나
37. 우리 오빠 장가는
38. 울 너며 담 너며
39. 배추 씻는 저 큰아가
40. 지초 캐는 저 큰아가
41. 이제 서른세 칸 집에

42. 나무 베는 남도령아
43. 오동나무 열매는
44. 쪼이나 쪼이나
45. 영감할멈 정드는 데는
46. 저기 가는 저 할마시
47. 국화를 줄까 명화를 줄까
48. 찾아가자 찾아가자
49. 열두 살 먹은 것도 기생이라고
50. 부산 갈보야 몸치장 말아라
51. 댕기 댕기 궁초댕기
52. 댕기 댕기 갑사댕기
53. 한 냥 주고 떠온 댕기
54. 구야 구야 서잿구야
55. 우리 오빠 떠다 주는
56. 대를 심어 대를 심어
57. 해는 따서 곁 받치고
58. 비연비연 삼베연아
59. 바람 잡아 베틀 놓고
60. 주천당 세모진 나무
61. 녹수청산 세모진 나무
62. 당신캉 나캉 변치 말고
63. 붉다 하는 목단꽃은
64. 구월 구월 국화꽃은
65. 꽃 보고 탐내지 마라
66. 나비야 나비야 범나비야
67. 나비야 청산을 가자
68. 백설 같은 흰나비는
69. 뒷동산 범나비야
70. 시어머니 잔소리
71. 작년 같은 풍년에도
72. 낚시 한 자리 매었더니
73. 호박을 심어서 나풀나풀
74. 평양 기생 하월이
75. 풍덩풍덩 깊은 수렁
76. 산이 높아야

77. 회양회양 싸리꽃은
78. 처남 처남 내 처남아
79.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고
80. 대천바다 한가운데
81. 옹지새야 종지새야

#### 제4장 이별가

1.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2. 아리랑 고개가 얼마나 좋아
3. 간다 못 간다
4. 시집 한번 못 가고
5. 간 데 족족
6. 기차 떠난 서울역에는
7. 팔공산 달이나 밝아
8. 임은 잡고서 낙루를 하고
9. 종로 사거리 솔 때우는 영감아
10. 나비 없는 동산에
11. 말은 가자고 굽을 치는데
12. 싫거든 두어라
13. 옛날 옛적에 과거야 짓은
14. 내가 가면은 아주 가나
15. 술을 먹거든
16. 가기 싫은 시집을 가니
17. 아리랑 고개에다 정거장 지어
18. 무정한 기차야
19. 축담 밑에 국화를 심어
20. 인간 설움 많은 중에
21. 우미인가

#### 제5장 청춘가

1. 노세 젊어서 놀아
2. 놀려 가세 놀려 가세
3. 놀기 좋기는
4. 우리가 살더라

5. 좌중은 초면이요
6. 총각의 사정은 처녀가 알고
7. 배는 크다 해원수하니
8. 고향이 따로 있나
9. 이팔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10. 요녀리 가지나
11. 앞들에도 울긋불긋
12. 달아 달아 밝은 달아
13. 참깨 들깨 노는데
14. 영남루 났고요
15. 시어머니 죽고 나니

#### 제6장 수십가

1.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2. 높은 상상봉에
3. 저 건너라 황버들 밑에
4. 축담 밑에 모깃불은
5. 쓸쓸히 대 끝에
6. 나물 먹고 물 마시고
7. 꽃을 심어 꽃을 심어
8. 수렁 밑에 메꽃은
9. 부모은공 쓰려 하니 눈물이 흐르니
10. 알뜰히 살뜰히 그리던 님을
11. 지척에다 임을 두고
12. 님아 님아 무심한 님아
13. 손목 없는 우리 엄마
14. 발 없는 구름은

#### 제7장 한탄가

1. 여자 유행 가소롭다
2. 시어머니 죽으라고
3. 내 딸 죽고 내 사우야
4. 너그 엄마 어디 갔노
5. 우리야 부모는

6. 좋아 좋아 도시중아
7. 내 발이 육발이라도
8. 쥐야 쥐야 금성쥐야
9. 쪼바리 쫑쫑
10. 옥이야 같은 자식 정은
11. 겹동 양복 나올 때는
12. 자애사
13. 사친가
14. 칠십 회상곡
15. 이내 팔자 내 신세는

#### 제8장 탄로가

1. 새끼 백발은
2. 세월아 네월아
3. 세월아 봄철아
4. 꽃이라도 낙화가 되면
5. 부유 같은 이 세상에
6. 동쪽 뜨는 해는
7. 수야모야 다 모인 곳에
8. 어려서 글 못 배운 죄로
9.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10. 백구야 경충 날지 마라
11. 명사십리 해당화야
12. 이팔청춘 소년들아
13. 함평 천지 늙은 몸이
14. 머리 센 데 먹칠하고
15. 영감아 영감아 죽지 마라
16. 삼천갑자 동방삭은
17. 영웅일래 영웅일래
18. 백발이 재촉하니
19. 뒷동산천 고목나무
20. 천지우주 창조간에
21. 슬프고 슬프도다

## 제9장 권주가

1. 잡으시오 잡으시오
2. 사랑 앞에 국화를 심어
3. 사위 사위 내 사위야

## 제10장 기타

1. 우리 오빠 잘 났다고
2. 우리 형제 심은 솔을
3. 사돈 사돈 우리 사돈
4. 우리 장인 거동 보소
5. 시아버지 방귀는
6. 신작로 가에다 포플러 심어
7. 뒷동산 줄밤나무
8. 열들이 어울려서 홍당목 치마
9. 문경새재 박달나무
10.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11. 떡노래
12. 곁방살이 말도 많고
13. 밀양 빨래 노래
14.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15. 논두렁 밑의 가재야
16. 떴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
17. 옥황상제 노래
18. 피난을 갑시다
19. 상놈 제문

## 제5부 아이들의 노래

### 제1장 몸짓놀이

1.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2. 땡기땡기
3. 아침바람 찬바람에
4. 하나 하면 할머니가

5. 진짝쿵 단짝쿵
6. 아침 먹은 동무야
7. 암개구리 수개구리

#### 제2장 만들기

1. 두꺼비집 짓기
2. 소꿉놀이

#### 제3장 놀리기

1. 방귀 편 아이 놀리기
2. 이 빠진 아이 놀리기
3. 동물 놀리기
4. 늙은이 놀리기

#### 제4장 기원하기

1. 새 이 다오
2. 비야 비야 오지 마라

#### 제5장 기타

1. 새야 새야 포랑새야
2. 하늘 천 따 지
3. 가시나야 씨름할래

#### 제6부 신민요와 창가

##### 제1장 신민요

1. 성주풀이
2. 창부타령
3. 노들강변
4. 경복궁타령
5. 도라지타령
6. 제주도타령
7. 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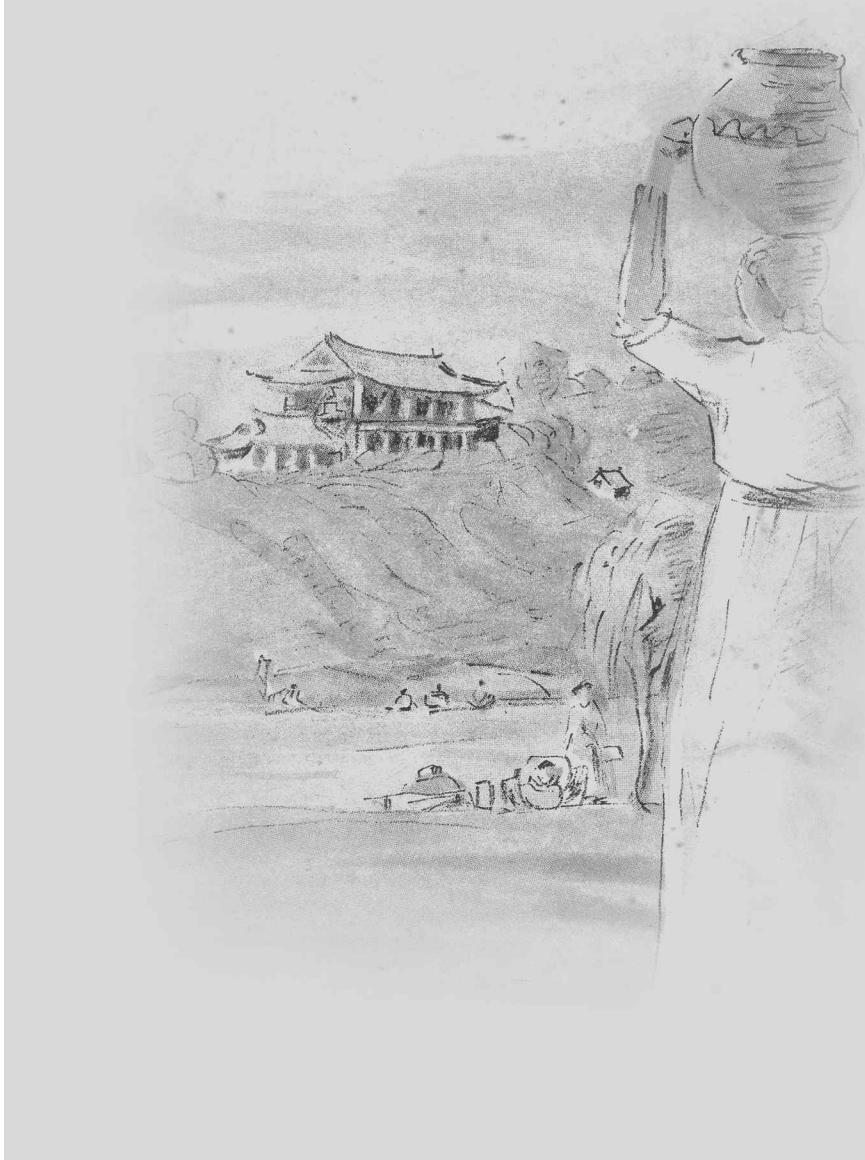
## 제2장 창가

1. 백두산을 찾아가자
2. 앞동산에 핀 꽃은
3. 날 저무는 하늘에
4. 임진강 나루터에
5. 공비 토별로 떠나간 이내 몸은



제1부

## 밀양의 노래





## 제1장 밀양아리랑

### 1.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넹기주소  
남천강<sup>1</sup> 굽이쳐서 영남루<sup>2</sup>를 감돌고  
허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sup>3</sup>을 비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넹기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주봉(여, 90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1 남천강(南川江)은 밀양의 중심부를 읊자(乙字) 모양으로 휘돌아 흐르는 강으로, 달리 밀양강(密陽江), 응천강(凝川江), 읊자강(乙字江)이라고도 부른다.

2 영남루(嶺南樓)는 조선시대 밀양부의 객사인 밀주관에 부속되었던 건물로, 밀양강 위에 우뚝 서서 진주 촉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3대 누각으로 일컬어진다.

3 아랑각(阿娘閣)은 아랑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그 정절을 기려 영남루 아래 대숲에 세운 사당을 말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영남루 구부구부 구부로 도니  
아랑각 춘향이 춤 잘 춘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순희(여, 79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3)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영남루 명승을 찾아드니  
아랑<sup>4</sup>에 애화가 여기 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석암(여, 78세, 상남면 예림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4 밀양부사의 딸로 유모와 통인의 품에 빠져 영남루 구경을 나왔다가 통인에게 찔려 죽은 ‘아랑전설’의 주인공. 「밀양아리랑」도 아랑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④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이 아랑각을 비추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넹기주소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냈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넹기주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순조(여, 76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⑤

밀양의 영남루 경치가 좋아  
십삼 도 건달군이 다 모여든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냈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냈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호박은 늙으면 맛이 좋고  
사람은 늙으면 썰 곳이 없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십오야 보름달은 구름 속에 놀고  
뒷집의 처녀는 내 품에 논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냐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태룡<sup>5</sup>의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  
뒷집의 아가씨는 나를 안고 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냐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안장환(무안면 무안리) 제보  
1958년 9월 채록

(6)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냐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5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마을이름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저 건네 저 집이 정든 네 집인데  
지 안 가고 내 안 가니 수천 리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시상<sup>6</sup>아 끝날까지 다 보아준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 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우수야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서방님 말씀에 내 마음 풀린다

|| 6 세상의 지역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술가치<sup>7</sup> 담장은 높아야 좋고  
술집에 아주마씨 고와야 좋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일본아 대판아 얼마나 좋아  
꽃 같은 날 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꽃 같은 날 두고 왜 한 번도 안 오나  
아이구야 보고파서 환장을 하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날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7 소나무 가지의 지역말

청천에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아라  
살뜰한 내 청춘 다 늙어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이성희(여, 70세, 청도면 고법리) 제보  
1984년 채록

⑦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저 건너 대숲은 의의(依依)한데<sup>8</sup>  
아랑의 서러운 넋이 애달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 8 풀이 무성하여 싱싱하게 푸른데

채색으로 단청된 아랑각은  
아랑의 유흔이 깃들어 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치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아랑의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촉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논개의 충혼이 어리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남천강은 말없이 흘러만 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밀양의 아랑각은 아랑의 넋을 위로코  
진주의 의암은 논개충절 빛내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팔강적인 영남루 웅장한 모습  
반공에 우뚝 서 기관을 자랑<sup>9</sup>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송운대사<sup>10</sup> 비각을 구경하고  
경치 좋은 표충사 들어나갈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영남루 남천강 아랑각은  
영남의 명승인 밀양의 자랑

9 반공중에 우뚝 서서 그 모습을 자랑하네

10 임진왜란 때 승병장이 되어 왜적을 물리쳤던 사명대사 임응규(任應奎)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임동권, 『한국민요집』 III(집문당, 1975)

(8)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쪼끔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용궁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우택(남, 70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9)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처마<sup>11</sup>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로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류종목, 김현수 조사  
신진청(남, 64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 2.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 11 치마의 지역말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량 사인데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시화나 년풍에<sup>12</sup> 목화풍년 들면  
열석 새<sup>13</sup> 무명짜리 혼수차림 하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김태갑 수집, 리현기 창(唱)  
『민요집성』(연변인민출판사, 1981)

②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12 시화연풍(時和年豐)은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드는 것을 말한다.

13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한 새는 날실 여든 올을 이른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양명숙(여, 70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③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넹기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주봉(여, 90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윤희(여, 78세, 상남면 예림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5)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금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 님이 오실 때는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랑다꿍 쓰리랑다꿍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금옥(여, 63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 3. 내 마음에 편 꽂은 울긋불긋

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들판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내 마음에 핀 꽃은 울긋불긋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담 넘어갈 때는 큰마음 먹고  
문고리 잡고선 발발 떤다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물명주<sup>14</sup> 단속곳<sup>15</sup> 줄 맞춰 입고  
유리영창<sup>16</sup> 반만 열고 낮잠 잔다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네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양인이 정 들면 다 잘났지  
(은전지화<sup>17</sup> 구리백동<sup>18</sup> 제 잘 났지)

14 얇은 남빛 명주실로 짠 피복

15 물을 들인 명주로 만든 속옷

16 유리(琉璃)와 영창(影窓)이 결합된 유리창의 지역말

17 은전지화(銀錢紙貨)는 은으로 만든 돈과 종이로 만든 돈을 말한다.

18 구리와 백동은 주로 동전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며, 여기서는 동전을 이른다.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술이라고 생기거든 취치를<sup>19</sup> 말고  
임이라고 생기거든 이별을 마라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경상남도지』 하(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②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정 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 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울 넘어 총각의 각피리<sup>20</sup> 소리  
물 깃는 처녀의 한숨 소리

19 취하지를

20 뿔피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열시구 아라리가 났네

잊으리라 잊으리라 굳은 맹서하였건만  
창외삼경 세우시<sup>21</sup>엔 또 못 잊어 우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열시구 아라리가 났네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웃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열시구 아라리가 났네

천 리를 갈까나 만 리를 갈까나  
임을 따라 간다면 어데던지 가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열시구 아라리가 났네

네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양인이 정 들면 다 잘 났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열시구 아라리가 났네

21 창외삼경(窓外三更) 세우시(細雨時). 깊은 밤 창밖에 보슬비 내릴 때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가  
뒷동산 소나무 매아미나 울어 줄거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냈네

성경린 · 장사훈 공편, 『조선의 민요』(국제음악문화사, 1949)

#### 4. 영 글렀네 영 글렀네

①

영 글렀네 영 글렀네 영 글렀네  
가매 타고 시집가기는 영 글렀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아리랑 고개다가 고구마로 심고  
오는 총각 가는 처녀 다 뽑아 묵고  
와다시<sup>22</sup> 뚝을 거는 한 뿌리도 없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정자(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22 ‘나’의 일본말

③

우리 님은 날 마다꼬<sup>23</sup> 부산연락<sup>24</sup>을 탔는데  
에야아 우리 님은 날 마다꼬 부산연락을 탔는데  
우리 님을 만낼라고 날랜 기차를 탔는데  
우리 님은 날 마다꼬 저 바다 우에 연락선을 타고 달아났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남학성(여, 82세, 상남면 예림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 5. 아리 놓고 쓰리 놓고

①

아리 놓고 쓰리 놓고 닦 잡아 놓고  
소고기 육장<sup>25</sup>에 밥 말아놓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순희(여, 79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23 마다하고,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고

24 부산을 오가는 연락선(連絡船), 또는 1905년 이후 나라 잊은 시대에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를 오간 부관연락선(釜關連絡船)을 가리킨 듯하다.

25 육장(肉漿)은 새나 짐승의 고기를 끓인 국물을 말한다.

②

아리 놓고 쓰리 놓고 달 잡아 놓고  
정든 님이 오시는데 밥 말아놓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서방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좋으면은  
아들 놓을라 힘을 썼던 딸을 낳아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6.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가마타고 장가가기가 다 틀렸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간다 간다 간다가요 나는 가요  
한양랑군 버리고 나는 가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가는 님의 허리를 거금쳐안고<sup>26</sup>  
가지만 말라고 생야단 한다

26 부동켜안고

김태갑 수집, 우체강 창(唱)  
『민요집성』(연변인민출판사, 1981)

②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넹기주소

총각낭군 안알라꼬<sup>27</sup> 웃다리 궁걸<sup>28</sup> 뚫다가  
호박넝쿨<sup>29</sup>에 걸려서 삼년 징역을 산단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넹기주소

우리가 살면은 몇 백년 사나  
먹고나 씌고나 놀아보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넹기주소

우리 오래비 장가는 내명년<sup>30</sup>에 가고

27 안으려고

28 구멍의 지역말

29 호박넝쿨

오동통통통 딱아 팔아서 날 치아주소<sup>31</sup>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넹기주소

친정살림 알뜰히 살면 내 살림 되나  
오동통통통 딱아 팔아서 날 치아주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넹기주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영무(남, 73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우리 낭군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30 내명년(來明年). 올해의 다음다음 해 또는 뒤에 오는 해  
31 시집보내 주오

시오마시 죽으라고 축원을 했더니  
친정부모 죽었다고 전보가 왔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삼 동시 사 동시<sup>32</sup> 다 모이거라  
시오마시 잡아다가 단지곰<sup>33</sup>을 해 목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영무(남, 73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7. 금선아 옥선아

①

금선아 옥선아 니 어디 가노  
인물이 잘나서 청로<sup>34</sup>에 간다  
잘나고 못나고 여부가 있나  
화장품에 돈 딜이면<sup>35</sup> 다 잘 났지

32 셋째 동서 넷째 동서. 동서(同壻)는 시이주버니나 시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또는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33 약으로 쓰기 위하여 닦, 토끼, 구렁이 따위를 단지에 넣어 진한 국물이 나오도록 푹 삶거나 또는 그런 국을 말한다.

34 청루(靑樓). 창기(娼妓)나 창녀들이 있는 집

35 들이면. 딜이다는 들이다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옥자야 금자야 니 어데 가노  
인물이 잘나서 청로로 간다  
청로로 가지 말고 내 따라가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니 업어 주꾸마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임종연(여, 69세, 교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 8. 니 잘났나 내 잘났나

①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이가 잘나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산천이 고와서 나 여기 왔나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냈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야 경첩<sup>36</sup>에 대동강 풀리고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김태갑 수집, 신옥화 창(唱)  
『민요집성』(연변인민출판사, 1981)

②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가 잘나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산천초목은 젊어나 가고  
우리의 청춘은 늙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6 경첩(驚蟄)은 24절기의 하나로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에 든다.

산천이 고와서 내 여기 왔나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야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김성민 채보, 우제강 창(唱)  
『민요곡집』(연변인민출판사, 1982)

(3)  
니 잘났나 내 잘났나 누누가 잘 났노  
운전지화 구리백동 돈 지 잘났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넹기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주봉(여, 90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9. 가는 님 허리를 담싹 안고

가는 님 허리를 어디담싹<sup>37</sup> 안고

37 바짝 보듬어. 담싹 또는 납작은 월각 달려들어 냉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을 이른다.

죽이라 살리라 사생결판 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 고개를 날 넘겨주소

아깝다 내 청춘 시집 한번 못가고  
요 모냥 저 꿀로 다 늙어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 고개를 날 넘겨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남학성(여, 82세, 상남면 예림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 10. 우리 님 살던 곳이라서 여기 왔지

에해야아 산천이 고와서 내가 여기 왔나  
우런<sup>38</sup> 님을 살던 곳이라서 내가 여기 왔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열 놈이 자빠라져도<sup>39</sup> 나는 놀아 볼라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남학성(여, 82세, 상남면 예림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38 우리

39 자빠라지다는 자빠지다의 지역말

## 11. 제비란 놈이 재주가 좋아

제비란 놈이 재주가 좋아 우편부 배달로 돌리고  
황새란 놈이 다리가 질어<sup>40</sup> 밀양아 영남을 돋단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개  
정든 님 고개는 반고개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2. 아리아리랑 열씨구 노다 가세

십오야 밝은 달이 님 없으면

|| 40 질다는 길다의 지역말

단장에 상사<sup>41</sup>로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아리랑 얼시구 노다 가세

심산금곡 깊은 곳에 오작이 한 쌍이  
입에 물고 논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아리랑 얼시구 노다 가세

내가 잘나 네가 잘나 그 누가 잘나  
구리백통<sup>42</sup> 지전<sup>43</sup>이라야 일색이지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아리랑 얼시구 노다 가세

저기 저기 저 산이 계룡산이더냐  
오동지<sup>44</sup> 설달에 오곡이 피었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아리랑 얼시구 노다 가세

엇던에 잡놈이 니 좋다더냐  
알고 나면 원수로구나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났네

41 단장(斷腸)의 상사(相思).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리움에 사무쳐

42 구리백동

43 지전(紙錢)은 종이돈을 말한다.

44 음력 11월 10일이 채 못 되어 드는 동지로, 아기동지, 애동지라고 한다.

아리아리랑 얼시구 노다 가세

임동권, 『한국민요집』 I (집문당, 1961)

## 제2장 밀양의 경관

### 1. 밀양의 고적

①

용두산(龍頭山)<sup>1</sup> 굽이돌아 남천강(南川江) 자아내니  
마암산(馬巖山)<sup>2</sup> 가루막아 을자강(乙字江)<sup>3</sup> 이루었고  
추화산(推火山)<sup>4</sup> 등에 지고 종남산<sup>5</sup> 바라보는  
밀양의 영남루는 영남의 제일루(第一樓)라

부북면 쿨밭<sup>6</sup> 뒷산 밀산군<sup>7</sup> 옛터이요

1 가곡동에 있는 산. 자씨산(慈氏山)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멈춘 것이 마치 잡자는 용의 머리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부북면과 상남면의 경계에 있는 산. 바위가 밀양강으로 쑥 들어간 것이 마치 물을 마시는 말과 같은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밀양의 중심부를 을자(乙字) 모양으로 휘돌아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밀양강, 응천강, 남천강이라고도 부른다.

4 교동에 있는 해발 240m의 산. 밀양의 옛 이름인 추화군도 이 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려왕건을 도와 건국에 공을 세운 장군인 손공훈이 적을 막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산 정상에는 경남 기념물 94호인 추화산성이 있다.

5 부북면 사포리에 위치한 해발 683m의 산으로, 옛날 밀양부의 남쪽에 있어 남산이라 부르다가 종남산이 되었다. 의적 종남이가 숨어 살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전하기도 한다.

6 부북면 대전리(大田里). 대전과 신전을 경계로 흐르는 용심천에서 용이 승천하였다 고 전하는데 용의 승천에는 구름이 끼게 마련인 데다 밭이 많은 곳이라 하여 운전(雲田)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7 밀양의 옛 지명인 밀성군(密城郡)

날이테 밑<sup>8</sup> 한골리<sup>9</sup>는 점필재 나신 터라  
화악산<sup>10</sup>물 모두 모아 퇴로못<sup>11</sup> 되고 나니  
달다 하던 감냇물<sup>12</sup>도 이름만 남았구나

유천강<sup>13</sup> 맑은 물가 상동면 박연정<sup>14</sup>은  
만년송 자랑 보다 노는 고기 더욱 좋고<sup>15</sup>  
이서국(伊西國)<sup>16</sup> 마전암(馬轉巖)<sup>17</sup>과 임란 때 낙화듬<sup>18</sup>은  
말 없는 바위건만 이름만은 아직 있네

8 나루터 밑

9 부북면 제대리의 마을이름. 조선전기의 학자로 문장과 학술로 영남학파의 시조가 된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출생한 곳이다.

10 청도면과 부북면의 경계에 있는 해발 931.5m의 산으로, 밀양의 진산(鎮山: 고을을 지켜주는 중심산)이다. 남쪽의 한재천이나 요고천 등 밀양강의 지류가 발원하는 곳인데, 운주암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기우연이 있다.

11 부북면 퇴로리에 있는 못으로, 가산저수지를 말한다. 1931년에 축조되었으며 둘레가 10리나 되는 저수지다.

12 부북면 감천리 마을 중심을 흐르는 개천. 김종직이 태어난 후부터 넷불맛이 달아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개가 많이 잡혀 감내게줄당기기(경남무형문화재 7호)라는 민속놀이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13 상동면 유천리에 흐르는 강

14 상도면 고정리 모정마을 강가에 있는 정자. 양무공 김태허(金太虛, 1555~1620)가 임란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던 곳으로,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이 높다.

15 만년송이 자태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노는 고기가 좋다는 뜻

16 청도면 지역에 있었던 삼한시대 변진(弁辰) 계통의 부족국가. 297년에 신라의 금성(金城)을 공격하다, 신라 14대 유례왕에 의해 점령을 당하여 구도성(仇刀城)이 되었다.

17 옛날 이서국이 신라에게 패하여 병사와 말이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18 상동면 고정리 북쪽산의 절벽 이름. 임란 때 여홍 민씨를 비롯한 여인들이 왜병을 피해 절벽에서 꽃처럼 떨어진 곳이라 하여 ‘낙화데미’라 부르기도 한다.

동북천 모인 물이 산외면 경계디니  
숲도 짙다 동북 숲은 긴숲<sup>19</sup>서 다안<sup>20</sup>까지  
살기 좋다 금물곳물<sup>21</sup> 은백인<sup>22</sup> 보한<sup>23</sup> 쌀과  
밀양강 은미희<sup>24</sup>는 경상감사 안 부립다

밤 대추 실과<sup>25</sup> 많고 산수 고운 산내면은  
삼복<sup>26</sup>얼음 얼음골과 호박소 이름 높다  
석골사<sup>27</sup> 석골폭포 천 길이 요란하고  
폭포가 구만 되니 이름도 작은 금강

천왕산<sup>28</sup> 좋거니와 단장면 물도 맑다  
재약산 표충사는 동방제일 선찰<sup>29</sup>이라  
서산과 송운기터<sup>30</sup> 충의를 자랑한다

19 산외면 남기리 기회마을의 긴 소나무 숲. 마을주민들이 북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방수림으로 조성한 것으로, 길이 1,500m 폭 200m에 수령 150년이 넘는 소나무 숲이다.

20 산외면 다죽리 다원(茶院)마을

21 금물고(琴勿古) 들판의 잘못인 듯하다. 금물곳들은 산외면 금천리 곧 와야(瓦野)마을 앞에 있는 ‘금교들’의 속어로, 달리 ‘욕요’라 부르기도 한다.

22 은이 박힌 뾰얀 또는 은백(銀白)의

23 보얀(빛깔이 보기 좋게 흰)

24 은어(銀魚)회

25 실과(實果)는 과일을 말한다.

26 삼복(三伏)은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여름철 몹시 더운 기간을 이르는 말이다.

27 산내면 원서리 운문산에 있는 절. 560년에 신라 승 비허(備虛)가 창건했다고 하며, 이 절 바로 아래 사시사찰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석골폭포가 있다.

28 표충사 주변의 사람들은 재약산(載藥山) 또는 재약산(載嶽山)이라 하고, 얼음골 주변에서는 천황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29 선찰(禪刹)은 선종의 절을 일컫는다.

30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 사명대사 송운(松雲, 1544~1610), 기허대사 영

명은 짧고 의는 기니 배우자 영전에서

경부선 삼랑진은 교통의 요지이요  
깐춘<sup>31</sup>과 광나리<sup>32</sup>는 왜적 막던 싸움터라  
동해용왕 다 화해서 미륵과 돌이 되니  
이름은 만어사요 돌마다 쇠소리라

상남면 들어가는 예림<sup>33</sup>다리 좁다마는  
종남산 등에 지고 운렛들<sup>34</sup> 참 넓구나  
고려 때 싸움터인 병구<sup>35</sup>는 예림 있고  
쌀도 많이 나지마는 맥문동<sup>36</sup> 많다 하네

규(靈圭, ?~1592). 서산대사는 1552년 승과에 급제한 뒤 봉은사 주지가 되었다가 73세 때 임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일으켜 한양 수복에 큰 공을 세웠다. 사명대사는 스승 서산대사와 함께 왜군과 싸웠고, 1604년 탐적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토쿠가와 이에야쓰(徳川家康)와 강화를 맺어 조선후기 통신사의 길을 열었으며, 기허대사도 의병장 조현과 함께 청주를 수복한 승병장이다. 단장면 표충사에 영정으로 모셔져 있다.

31 삼랑진읍 검서리에 있는 작원관(鵠院關)을 일컫는 말이다. 작원관은 영남지방의 사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세운 숙박과 검문을 위한 시설로, 임진왜란 때 밀양부사 박진(朴晉, 1560~1597)이 300명의 인원으로 1만 8천명의 왜병과 맞서 싸운 곳이다.

32 광탄(廣灘)의 지역말. 밀양강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류로, 상선(商船)이 자주 정박하여 자못 번화하였다.

33 상남면 예림리. 밀양시 활성 2동에 있었던 점필재원을 옮겨 예림서원으로 바꾸면서 마을이름도 바뀌었다고 전한다.

34 예림의 가장 안쪽 산밑에 있는 마을 들판. 운례(運禮)는 읊자(乙字)형으로 굽이 돌아 흘러온 밀양강 물이 이 마을 앞에 이르러 멈출지 않고 ‘운세대로 흐른다’는 의미의 운류(運流)가 운례로 표기된 것이라고 한다.

35 병구(兵丘)는 예림에 있는 옛 지명으로, 고려 말 김훤(金咺, 1234~1305)이 부북면 재항리 출신의 조천(趙阡) 일당을 토벌할 때 병영을 주둔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36 외떡잎 식물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밀양의 대표적 특산물이다.

하남면 들어가니 고적도 참 많고나  
가락의 구형왕<sup>37</sup>이 정남정<sup>38</sup>서 항복하고  
사다함<sup>39</sup> 가야친 곳 파서막<sup>40</sup> 있건만은  
신라왕 유람하던 국농늪<sup>41</sup> 간곳없네

초동면 통바위<sup>42</sup>는 변춘정<sup>43</sup> 사신 데요  
검암리 이궁대<sup>44</sup>는 신라 때 궁터라지  
덕대산<sup>45</sup> 옛 성터 지금은 흔적 없고  
소구령<sup>46</sup> 폭포수에 약물 찾아 많이 온다

37 구형왕(仇衡王). 구해왕(仇亥王)으로도 불리며 금관가야서 싸우려 했으나, 군사적 열세로 대항하여 싸울 수 없어 틸지이질금(脫知爾叱今)을 보내 국내에 머물게 하고 왕자와 상손(上孫) 졸지공(卒支公) 등을 신라로 들어가 항복을 하였다.

38 정남정(定南亭)은 신라왕이 가락국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仇衡王)의 항복을 받고, 이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39 사다함(斯多含)은 신라의 화랑으로, 이사부가 가야국을 정벌할 때 출정하여 큰 공을 세웠다.

40 파서막(破西幕)은 하남읍 파서리로 신라왕이 가야를 격파하기 세운 군막이 있던 곳이다.

41 국농늪. 국농소(國農沼)는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와 초동면 금포리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삼한 시대 이래 수산지(守山池)가 있던 곳이다. 신라 시대 임금이 이궁대(離宮臺)에 행차하여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하며 벗놀이를 하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42 초동면 성만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통암(桶巖)이라고도 함. 마을 뒷산에 통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변계량이 살았던 곳이라 한다.

43 변계량(卞季良, 1369~1430). 밀양시 초동면에서 생장한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20여 년 간 문형(文衡)을 지냈으며, 아버지 변옥란(卞玉蘭)과 형 변중량(卞仲良)을 함께 기린 변씨삼현비각(卞氏三賢碑閣)이 초동면 신호리 대구마을 길가에 세워져 있다.

44 초동면 검암리 곡강 마을. 하남읍 수산에서 초동면으로 가는 첫 마을로 뒷산이 이궁대인데, 원래는 신라 임금의 행궁(行宮: 임금의 궁 밖 행차 시 임시로 머무는 별궁)이었으나, 신라가 가야를 정벌할 때 진을 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45 하남읍 남전리와 성만리의 경계에 있는 해발 630m의 산. 신라 시대 덕녀(德女)라는 처녀가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었다 하여 덕녀산이라고도 하는데, 정상 부근에는 덕대산성이 있다.

46 소구령(小龜齡)은 변계량의 출생지로 알려진 초동면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대구말동에서 보면 마을의 형세가 조그만 거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사명당 나신 동네 무안면 고나리<sup>47</sup>요  
홍세원 삼비문<sup>48</sup>은 이 나라 자랑이라  
충신과 열녀 효자 한 곳에 함께 난  
이름은 삼강동<sup>49</sup>에 충렬목<sup>50</sup> 들머리라

옛날은 풍각<sup>51</sup>이다 지금은 청도면에  
이름은 당숲인데 숲은 하나 안 보이네  
안장사(鞍裝寺)<sup>52</sup> 운주여래(雲住如來) 억만 암 절도 많다  
천주사<sup>53</sup> 고려탑은 고려 문학 자취이다

『향토문화』 창간호(밀양고적보준회, 1953)

예부터 약물로 유명한 높이 약 15m의 폭포가 있다.

47 무안면 고나리. 고나리는 사명대사가 아버지 임수성(任守城)과 어머니 달성서씨(達城徐氏) 사이에서 태어난 고향으로, 지금은 사명대사 생가지와 기념관이 잘 조성되어 있다.

48 땀흘리는 비석으로 유명한 표충비가 있는 곳을 향해 들어서는 무안면 홍제사(弘濟寺)의 정문. 표충비(경남유형문화재 15호)는 1742년 사명대사의 5세 법손인 남봉선사가 경산에서 가져온 흑납석으로 만든 것으로 사명대사는 물론 서산대사와 기허선사의 사적도 기록하고 있어 삼비(三碑)라 일컫는다.

49 삼강동(三綱洞). 임진왜란을 맞아 충의의 표상인 민족의 스승 사명대사와 병조판서 손인갑(孫仁甲)과 그의 아들 손약해(孫若海), 그리고 제보 도승지 노개방(盧蓋邦)과 그의 부인 열녀 이씨 등 충효열이 동일한 시대에 한곳에서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0 무안면 삼강동 입구인 중산리 들녁을 일컫는 말이다. 동래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노개방이 임란 때 어미를 뺏기 위해 잡시 들렀다가 말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아내의 손목을 치고 갔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조선시대에는 밀양군에 속해 있다가 1906년에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속되었다.

52 청도면 안곡리 안장산 계곡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절. 신도들의 밥 공양에 불만을 품은 공양승들이 절 앞의 흰 바위를 부수어 버린 바람에 빈대가 들끓어 망했다고 전해지는 절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53 청도면 소태리에 있는 천죽사(天竹寺).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높이 4.63m의 소태리 5층석탑(보물 312호)이 있다.

②

용두산 굽어돌아 남천강 자아내니  
마암산 가로막아 을자강 이루었고  
추화산 등에 지고 종남산 바라보는  
밀양에 영남루는 영남에 제일이라

부북면 쿨밭 뒷산 밀산군 옛터이요  
나리테길 한골리는 점필재 나신 터라  
화악산 물 모두 모아 퇴로못 되고 나니  
달다 하던 감내물도 이름은 남았구나

유천강 맑은 물이 상동면 박연정은  
맑은 지송 자랑보다 노는 고기 더욱 좋고  
이서국 마전암과 임란 때 낙화들은  
마음은 바위건만은 이름은 아직 있네

동북천 모인 물이 산외면 경계되어  
숲도 깊다 긴늪 숲은 긴숲서 다완<sup>54</sup>까지  
살기 좋다 금물곳들 은백인 보안 쌀은  
밀양강 은어회는 경상감사 안 부럽다

밤 대추 실과 많고 산수 고운 산내면은

|| 54 다완

삼복 여름 얼음골과 호박수 이름 좋고  
석골사 석골폭포 천 길이 요란하고  
폭포가 구만 리니 이름도 작은 금강

천왕산 좋거니와 단장면 물도 맑다  
재악산 표충사는 동방제일 선찰이라  
서산과 송운 기허 충의를 자랑한다  
명은 짧고 의는 기니 배우자 영전에서

경부선 삼랑진은 교통에 요지요  
깐촌과 강나루는 왜적 막던 싸움터라  
동해용왕 대화해서 미륵과 돌이 되니  
이름은 만어사요 돌마다 쇠소리다

상남면 들어가는 예림다리 좁다마는  
종남산 등에 지고 운례들 참 넓구나  
고려 때 싸움터인 병구는 예림 있고  
쌀도 많이 나지만 맥문동 많이 난다

하남면 들어가는 고적도 참 많구나  
가락에 구령왕이 정남정서 항복하고  
사다함 가야 친 곳 파서막 있거마는  
신라왕 유람하던 궁노숲 간곳없네

초동면 통바위는 변춘정 사신데요  
검암리 이궁터는 신라 때 궁터라지  
떡대산 옛성터는 지금은 흔적 없고  
소구령 폭포수에 약물 찾아 많이 온다

사명당 나신 동이 무안면 고나리요  
홍제전 삼비문은 이 나라 자랑이라  
충신과 열녀효자 한 곳에 함께 나니  
이름은 삼강동에 충렬목 들이라

옛날은 풍각이다 지금은 청도면이요  
이름은 당숲인데 숲은 하나 안 보이네  
안장사 운주여래 억만 암 절도 많다  
천주사 고려탑은 고려문화 자취이다

한태문, 이순옥,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조사  
이현일(남, 79세, 초동면 검암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③

용두산 구부돌아 남천강 자아내니  
마암산 가로막혀 새을자강을 이루어놓고  
추화산 등에 지고 종남산 바라보니  
밀양 하고도 영남루는 영남에서 제일루라

부북면 굴밭 뒷산은 밀산군의 옛터인데  
날이테 밑 한골에는 점필재 선생의 탄생지요  
화악산물 모두 모아 퇴로못 되고 나니  
달다 하는 감천물 이름만은 아즉 있네

유천강 맑은 물가 상동면 박연정아  
만년송 자랑 보다 노는 고기 더욱 좋고  
이서국 마전암과 임란 때 낙화듬은  
말 없는 바위건만 이름만은 아즉 있네

동북천 모여난 물이 산외면의 경계가 되어  
숲도 짙다 동북숲은 긴늪에서 다원까지  
살기 좋다 금몰곳들 은 박힌 보한 쌀과  
밀양강 은어회는 경상감사도 안 부럽다

밤 대추 실과 많고 산수 고운 산내면에  
삼복여름 얼음골과 호박소가 이름 높다  
석골사 석골폭포 천 길에 요란하고  
폭포가 구만 리나 되니 이름도 작은 금강이라

천황산 좋거니와 단장면에는 물도 맑고  
재약산 표충사는 동방제일 선찰이라  
서산과 송운기허 충의를 자랑한다  
명은 짧고 의는 기니 영전에서 뜻 배우자

경부선 삼랑진은 교통 하고도 요지인데  
깐촌과 광나리는 왜적 막던 싸움터라  
동해 용황이 대화에서 미륵과 돌이 되니  
이름은 만여산데 돌마다 쇠소리라

상남면 들어가는 예림 다리가 좁다 해도  
종남산 등에 지고 운옛들이 참 넓구나  
고려 때 싸움터인 병구는 예림 있고  
쌀도 많이 나지마는 맥문동이 많다 하네

하남면 들어가니 고적도 참 많구나  
가야의 형왕이 정남정서 항복하고  
사다함 가야 친 곳은 파서막 있거마는  
신라왕이 유람하시던 국노숲은 간곳없네

초동면 통바위는 변춘정 사신 데요  
점암리 이궁대는 신라 때의 궁터라지  
덕대산 옛성터 지금은 흔적 없어도  
소구령 폭포수에 약물 찾아 모여든다

사명당 나신 동네 무안면 괴나리요  
호제연 삼비문 온 나라에 자랑이라  
충신과 열녀효자 이곳에서 함께 나니  
이름도 삼강동에 충열목 드로리라

옛날은 풍각인데 지금은 청도면에  
이름은 당숲인데 숲은 하나도 안 보이네  
안장사 운주여래 억만 암 절도 많고  
천주사 고려탑은 고려 영화의 자취란가

김재복(남, 52세, 산외면 엄광리) 제보  
1984년 채록

④

용두산 굽어들어 남천강 자산인가  
남산이 가로막아 읊자강을 이루었고  
추화산이 등을 지고 종남산 바래보니  
밀양의 영남루는 경남의 제일루라

부북면 굴밭 뒷산 밀성군 옛 터라  
화악산물 모두 모아 퇴로못 되고 보니  
달달한 감랫물을 이름만 남아 있고  
나루터와 한글리에 점필재 나신 터라

유천강 맑은 물과 상동면 박연정은  
만년송 자란 곳에 노던 고기 더욱 좋다  
이서국 마전암 인간대<sup>55</sup>는 말 없는 바위만 아직 있고

동북천 모인 물이 산외면 건너 되니

55 ‘임란 때 남화듬은’의 잘못인 듯하다.

진늪서 다원까지 살기 좋다 검은곳들  
은백인 뾰안 쌀밥 밀양강 은어회는  
경상감사 안 부립다

밤 대추 실과 흔코 산수 고운 산내면은  
유월 삼복 열음물과 호박소 이름 높다  
석골사<sup>56</sup> 석골폭포 천 길이 요란하니  
폭포가 그만 되니 이름이 적은 긴가

금강산 종거리 단장면 물도 맑다  
재악산 표충사 동방에서 제일 선찰사라  
서산과 송운은 충렬을 자랑하고  
이름은 길고 명은 짧아 배우자 영전에

경부선 삼랑진 교통의 요지요  
강차가<sup>57</sup> 강나루에 애뜸<sup>58</sup> 났던 싸움터라  
동해용왕이 대화해<sup>59</sup> 미륵과 돌이 되니  
이름은 만어사<sup>60</sup>인데 돌마다 쇠소리라

56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운문산(雲門山)에 있는 신라 말 고려 초에 건립된 절로, 절 앞에 약 10미터 높이의 석골폭포가 있다.

57 까치원 또는 작원(鶴院)으로 보인다.

58 애뜸

59 대화(大化)해. 크게 변하여

60 만어사(萬魚寺).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만어산에 있는 절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어산불영(魚山佛影)조에 동해의 물고기와 용이 변하여 골짜기에 가득 찬 돌이 되었는데, 그 돌에서 쇠북과 경쇠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상남 가는 예림 다리 좁다마는 빙구는 예림이요  
울밀들 참 넓구나 신라 때 싸움터라  
쌀도 많이 나지마는 맥문동 많다 하네

하남면 들어가니 고적도 참 많구나  
가락에 구월왕은 정남정(定南亭)서 항복받고  
사다함 가야 친 곳 파서막(破西幕) 있건마는  
신라왕 유람하던 궁노숲은 간데없고

초동면 동방이 변충신 나신 터라  
이궁대 검암이 신라 때 공터라 지금은 흔적 없고  
소구릉 폭포수는 약물 찾아 많이 오네

사명대사 나신 곳은 무안면 괴나리요  
홍재문과 삼비문은 이 나라의 자랑이요  
충신과 열녀 효자 한 곳에 함께 나니  
이름은 삼강동이라 하였는데 충렬목을 이루리라

청도면 당숲 우는 숲도 많건마는  
(기억이 나지 않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금조(여, 78세, 상동면 가곡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2. 밀양의 승경

영남루<sup>61</sup>

①

밀양 영남루 경치가 좋아서  
하이끼리<sup>62</sup> 멋쟁이들 (좋다꼬!) 다 모아들었구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정자(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남천강에 흐른 물은 영남루를 휙감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돈다  
에헤라 등게 디어라 아니 못 노니라  
느능기철<sup>63</sup>을 하여도 나는 못 노리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춘자(여, 65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61 이 노래는 놀 때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일부로, 밀양의 장소성이 잘 드러나는 까닭에 밀양의 노래로 분류하였다.

62 하이칼라는 서구적 옷차림의 멋쟁이를 부르는 말이다.

63 제보자는 ‘노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③

영남루에 경치가 좋아 섬섬옥수를 쥐어 있고  
남천강 푸른 저 물은 용두목을 흘러지고  
아깝다 이내 청춘 간곳없이도 흘러진다  
에 리리리리 리리리 리리리리리리야  
나는 죽어 철까치<sup>64</sup> 되고 당신은 죽어 기차가 되자  
기차가 울면 날 온 줄 알고 철까치 울면 니 온 줄 알고  
널리리리리리리 좋다 요령게 좋다가는 논 팔겠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부적(여, 86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국농늪[國農沼]<sup>65</sup>

①

밀양아 삼랑 궁노늪은 가라왕에 유람터요  
칠보야 단장 곱기 하고 왕에 행차 구경가세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64 철로의 지역말

65 이 노래는 모심기 노래 가운데 불려진 일부분으로 밀양의 장소성이 잘 드러나므로 밀양의 노래로 분류하였다.

(2)

밀양아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sup>66</sup>  
연밥일랑 딸까 말까 연줄이나 끊지 마소

한태문, 이순옥,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조사  
석기연(여, 78세),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3)

밀량아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이사 따나마나 연줄일랑 끊지 마라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4)

밀양아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으는 내 따주께 요내 품에 잡들거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소연(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5)

밀양에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그 연밥을 내 따주께 요내 품에 잡드소

|| 66 큰아기. 다 자란 계집아이 또는 다 큰 처녀

한태문, 이순옥, 정훈식, 류경자, 조수미, 김남희 조사  
김갑순(여, 92세, 교동) 제보  
2009년 7월 27일 채록

⑥

밀양 삼당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줄밥 내 따줄게 요내 품에 잠 들거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⑦

밀양아 삼당 국노늪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 줄밥은 내 따줌세 백년해로 내캉 사세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⑧

밀양 삼당 구송늪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 줄밥 내 다 따주마 백년해로 내캉 하자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⑨

밀양이라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기  
누 간장을 녹힐라꼬이 눈매조차 저리 곱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⑩

밀양아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 줄밥은 내 따주면 요내 품안에 잠들거라  
잠들기는 어렵잖소만은 연밥 따기가 늦어오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⑪

밀양아 삼당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 줄밥 내 따주마 내 품안에 잠들어라  
잠들기는 어렵잖고 연밥 따기가 늦어온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⑫

밀양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수자<sup>67</sup>야  
연밥으는 내 따주마 백년가약 맺어나 볼까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서삼수(남, 80세), 김월분(여, 69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67 수자(豎子)는 원래 더벅머리 총각을 말하나 여기서는 처녀의 뜻이다.

1981년 7월 28일 채록

⑬

밀양아 삼당아 국노술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연밥은 내 따주마 백년부부 매단보자<sup>68</sup>

신의근(남, 66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⑭

밀양아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너거 집은 어데 두고 해 다진데 연밥 따노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태아(여, 87세, 청도면 이산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⑮

밀양에 삼당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너그 집은 어데다 두고 해다진데 연밥 따노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중립(남, 57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⑯

밀양 삼당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석자야 수건을 목에 걸고 뒤따라간 무덤이라

|| 68 맷어보자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중립(남, 57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⑯

밀양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잎을랑 까서 줍치 집고<sup>69</sup> 꽃을랑 걷어 저를 삼고

임동권, 『한국민요집』 II(집문당, 1974)

⑰

밀양 삼랑 궁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잎을랑 까서 줍치 집고 꽃을랑 걷어 저를 삼고

이상정(남, 69세, 가곡동) 제보

⑲

밀양 삼랑 궁노숲에 슬피 우는 송낙새야  
거지 봉산 어디 두고 야산 중에 슬피 우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 69 주머니를 집고, 줍치는 주머니, 집다는 집다의 지역말

## 무안

①

진등산<sup>70</sup> 꼭대기에 수학<sup>71</sup>이 놀고  
진등산 밑에는 무안이란다  
에헤라 여기가 무안이라네  
에헤라 이것이 자랑이란다

종남산 중허리 실안개 돌고  
앞강물 맑은 데 은어 뛰논다  
에헤라 여기가 무안이라네  
에헤라 이것이 자랑이란다

앞동산 수목에 송학이 놀고  
뜸북골 치마바위<sup>72</sup>에 신선이 논다  
에헤라 여기가 무안이라네  
에헤라 이것이 자랑이란다

70 무안면 동부리의 뒷산으로 산등성이가 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내진천(來進川)을 중심으로 좌청룡(左青龍)의 형세를 지녀, 우백호(右白虎)의 형세인 질부산과 짹을 이룬다.

71 송학(松鶴)

72 뜰북골은 무안면 부로리 왼편에 있는 첫 번째 골짜기로, 산세가 뜰부기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있는 가로 1.15m, 세로 1m 가량의 큰 바위들을 치마바위라 하는데, 안이옹의 11대조 할머니가 고향소식이 궁금해 함안으로부터 치마폭에 싸서 가져온 것이라 한다.

진등산 우뚝 솟아 청룡이 놀고  
질부산 주춤 앉아 백호가 놔다  
에해라 여기가 무안이라네  
에해라 이것이 자랑이란다

임대장<sup>73</sup> 빗돌에 땀이 나면  
이 강산 안에서 큰일이 난다  
에해라 여기가 무안이라네  
에해라 이것이 자랑이란다

무안교회 우렁찬 종소리  
복음 소식을 전하여 준다  
에해라 여기가 무안이라네  
에해라 이것이 자랑이란다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②

진등산 만데기<sup>74</sup> 수학이 놀면  
무안 천지에 영화가 온다  
에라 요것이 무안이라네  
에라 요것이 자랑이라네  
종남산 만뎅이 구름이 돌면

73 사명대사는 속명이 임응규(任應奎)로 임진왜란 대 승병장이 되어 왜적을 물리쳤다.  
74 만데이. 산마루의 지역말

무안 천지엔 눈비가 온다  
에라 요것이 자랑이라네  
에라 요것이 무안이라네  
삼천만 민족이 다 울고 울면  
임대장 벗돌에 땀이 난다  
에라 요것이 자랑이라네  
에라 요것이 무안이라네

정성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수운(남, 61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수산

①

다리 다리 수산 다리<sup>75</sup> 이용뱀<sup>76</sup>이가 설립 다리  
인부야 대야 낳연 다리 사공들은 원수 다리  
수산에서는 근본 다리 만중생달 화륜 다리<sup>77</sup>  
청년들은 수명 다리 부부야간에 유람 다리  
처녀총각들은 연애 다리 어린아해들은 노는 다리  
화류계 여급들은 도망 다리 백수에 노인들은 극락 다리

75 수산 다리는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와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사이 낙동강에 놓인 큰 교각으로 이 다리가 준공된 후 생긴 노래라고 한다.

76 이용범(李龍範)은 대동공업 사장으로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77 만중생(萬衆生)들 사륜(四輪)다리

이 다리 저 다리 다 제끼두고 복판 다리가 요지로다<sup>78</sup>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필주(여, 59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2)

다리 다리 수산 다리 이영뱀이 선심 다리  
일본사람 엮은 다리 만중생의 적선 다리  
처녀총각 연애 다리 어린 아기 노는 다리  
아내 나는 극락 다리 나무아미타불

한태문, 이순옥,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3)

다리 다리 수산 다리 이용범 놓던 다리  
만인간이 적선 다리 나 많은 사람은 극락 다리  
젊은 사람은 수명 다리 처지<sup>79</sup>총각은 연애 다리  
타국 놈은 지옥 다리 나무아미타불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남이(여, 69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78 이 다리 저 다리 제쳐두고 가운데 다리 즉, 남자의 성기가 가장 중요하도다.  
79 처녀의 지역말

④

다리 다리 수산 다리 우리나라 걷는 다리  
젊은 청년은 수명 다리 처자총각은 연애 다리  
백수노인은 극락 다리 나무관시음보살

류종목, 성재옥 조사  
오순남(여, 8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⑤

밀양 수산 다리 이 오마니 선심 다리  
나라에는 충신 다리 할만네는 극락 다리  
젊안 사람은 귀경<sup>80</sup> 다리 총각처니는 연이<sup>81</sup> 다리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박현이(여, 74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단장

국화전(菊花田)<sup>82</sup> 서물(庶物)<sup>83</sup>한 산 진주동(進舟洞)<sup>84</sup> 배를 모아  
지사동(智士洞)<sup>85</sup> 학서학지<sup>86</sup> 무릉동(武陵洞) 돌아들어

80 구경

81 연애

82 국화전은 단장면 국전리에 있는 마을로, 국전(菊田)이라고도 한다.

83 서물은 주물(呪物)이란 말로, 국화전 마을 앞에 있는 비보책(裨補策)의 일환으로  
돌을 쌓아 만든 조산방(造山防)을 가리킨다.

84 진주동은 국전 아랫마을이다.

85 지사동은 200여 년 전에 서당이 있던 곳이다.

86 학서학지(學書學知), 곧 글을 배우고 지식을 배운다는 뜻으로, 약 2백 여 년전 이

가실<sup>87</sup>에 백로 앓고 용포(龍浦)<sup>88</sup>에 꿈을 꾸니 소태동<sup>89</sup> 부가(富家)로다  
부엉덤<sup>90</sup> 노적봉(露積峰)<sup>91</sup>은 단정(丹亭)<sup>92</sup> 항상 정기(精氣) 타고  
용회동(龍回洞) 슬쩍 건너 사연리(沙淵里) 모랫길에  
도화 일지(桃花一枝) 꺾어 들고 승학동(乘鶴洞)<sup>93</sup> 학을 타고  
동화전(桐花田) 건너 들고 당모랭이<sup>94</sup> 돌아들어  
정각산(鼎角山)<sup>95</sup> 슬푼 넘어 정승동(政丞洞)<sup>96</sup> 쉬어 가자  
도래재<sup>97</sup> 돌아 재악산(載嶽山)<sup>98</sup> 죽립가람(竹林伽藍)<sup>99</sup>  
표충사(表忠寺) 들어오니  
구절장삼(九節長衫)<sup>100</sup> 노선사는 백팔염주 목에 걸고  
아미타불 염불하니 극락세계 여기로다  
파리답(芭籬叢)<sup>101</sup> 지슬<sup>102</sup> 따라 삼거리<sup>103</sup> 업어 내려

마을에 능성(綾城) 구씨(具氏)의 사당이 있었던 유래를 말한다.

87 가실은 무릉리에 있는 마을로, 노곡(蘆谷)이라고도 한다. 마을 앞 습지대에 갈대  
가 많은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88 용포는 마을 이름이다.

89 소태동(小台洞)은 태동 마을을 말한다.

90 부엉덤은 단장천 남쪽 강가에 있는 절벽으로, 이 절벽에 부엉이가 많이 산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91 노적봉은 경주산, 정질미산[競珠山]을 말한다.

92 단정은 단장마을을 이른다.

93 사연분동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산허리에 위치했던 마을 이름으로, 지금은 마을  
이 없어졌다.

94 당모랭이는 동화전에서 아불로 가는 중간 산모롱이로, 이곳에 당산나무와 당집이  
있어 생긴 이름이다.

95 정각산은 아불 골마 뒷산을 말한다.

96 정승동은 귀내 안마을로, 고려 공민왕 때 안성군(安城君) 김용이 귀양 온 곳이다.

97 도래재는 원구천에서 사내면 남명리로 넘어가는 재를 말하며, 회령(回嶺)이라고  
도 한다.

98 재악산은 현재 천황산이라 불리는 표충사 뒷산을 말한다.

99 표충사(영정사)를 이른다.

100 구절장삼은 아홉 마디의 대나무 지팡이와 길게 드리워 입는 적삼을 말한다.

101 파리답은 짐승 따위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나 돌담 따위를 설치해 놓

귀내[龜川]<sup>104</sup>에 고기 낚아 범도연(泛棹淵)<sup>105</sup> 둑을 달아  
벼락덤<sup>106</sup> 떨어지니 평리(平里)<sup>107</sup>가 앞에 있네  
순풍시절(順風時節) 호시절(好時節)에 풍류동(風流洞)<sup>108</sup>이 그 아닌가  
바오달<sup>109</sup> 백마산성<sup>110</sup> 창의용사(倡義勇士) 결사보국 성터만은 아직  
있네  
고야천(姑射川)<sup>111</sup> 맑은 물에 은어 떼는 뛰고 노네  
덕달리(德達里)<sup>112</sup> 가립들<sup>113</sup>에 새 말띠기<sup>114</sup> 구경하고  
사회동(四熙洞)<sup>115</sup> 건너들어  
변자당(卞慈堂) 나팔고개<sup>116</sup> 잠시 쉬고 일어나서  
농암(籠巖) 청석(青石)<sup>117</sup> 놀이 가자

은 논을 말한다.

102 기슭의 경남 지역말

103 삼거리는 구천리에 있는 마을로, 삼거마을이라고도 한다.

104 귀내는 원구천의 옛 지명이다.

105 범도연은 범도리의 중심 마을로, 마을 앞에 호수처럼 생긴 소가 있어 마을의 지형  
이 마치 물위에 떠 있는 둑단배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106 고례리 평리 마을 맞은편에 있던 마을이다.

107 고례리 평리마을

108 평리 위 산간마을을 말한다.

109 평리뒷산 고지대에 있는 마을 이름, 바드리 또는 소월리(所月里)라고도 한다.

110 백마산성(白馬山城)은 바드리 마을 뒤 백마산에 있는 산성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  
곳에서 의병들이 결사 항전했다.

111 고례리에 있는 시내로, 농암대에서 흘러내린다.

112 고례리에 있는 마을이다.

113 덕달리의 들 이름이다. 밀양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114 말띠기는 말뚝의 지역말로, 봄에 논두렁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말뚝을 박  
는다.

115 덕달리 건너 마을로, 지금은 수몰되었다.

116 사회동에서 농암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나팔 모양의 고개로, 이곳에 밀양 변씨 할  
머니당이 있었으나 지금부터 200년 전 밀양 변씨가 세거(世居)했던 곳이나, 지금  
은 수몰되었다.

117 농암대의 바위와 맑은 냇물

농암대(籠巖臺) 구경하고 오목골<sup>118</sup> 치밟아서 열두들<sup>119</sup> 넘어서면  
연화동(蓮花洞)<sup>120</sup> 꽃밭 속은 용소(龍沼)<sup>121</sup>로 둘러 있고  
사지(沙旨) 상봉(上峰)<sup>122</sup> 상상봉(上上峰)<sup>123</sup>에  
상원암(上元岩)<sup>124</sup>이 번뜩 드네  
벼구[法貴] 삼동(三洞)<sup>125</sup> 니리 들어  
귀미[龜尾] 사촌(沙村)<sup>126</sup> 양어금<sup>127</sup>에  
칠리수(七里水)<sup>128</sup>가 합수되니 귀호[龜湖]<sup>129</sup>에는 거북 뜨고  
칠탄정(七灘亭)<sup>130</sup> 구비 돌아 등잔소(燈盞沼)<sup>131</sup> 니리 흘러  
수십 짙<sup>132</sup> 장송(長松)<sup>133</sup> 아래 월연대<sup>134</sup>가 솟아 있고  
놀기 좋다 금시당(今是堂)<sup>135</sup>은 좌우로 둘러 있네

118 고례에서 국화전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119 국전리 안에 있는 마을이다.

120 감물리의 옛 이름이다.

121 감물리 뜻이 생기기 이전에 현지에 있던 깊은 소(沼)를 말한다.

122 사지와 상봉마을을 말한다.

123 만여산(萬魚山) 정상을 가리킨다.

124 구미 뒷산(칠탄산)에 있는 바위로, 마당바우라고도 한다.

125 벼구 삼동은 안법리에 있는 큰골과 안포동 및 법흥리에 있는 법산 등 세 마을을 아울러 부르는 이름이다.

126 미촌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127 양쪽 사이 중간의 뜻이다.

128 칠리수(七里水)는 재악산(載嶽山)의 영정수(靈井水), 배냇수(梨川水), 금오산(金烏山)의 국화수(菊花水), 연화봉(蓮花峯)의 연화수, 백운산(白雲山)의 구연수(臼淵水), 구만산(九萬山)의 구만수, 정각산(鼎角山)의 발례수(發禮水)를 묶어서 일컫는 말이다.

129 구미 앞들, 예전에는 호수였다.

130 미촌리 칠리탄(七里灘) 남쪽 언덕 위에 있는 누정을 말한다.

131 칠탄정 동쪽에 있는 소로, 언덕에 있는 바위가 등잔같이 생긴 것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132 길의 지역말

133 월연대 주위에 옛날에 울창했던 송림을 말한다.

134 용평동 월영연(月影淵) 북쪽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누대(樓臺)를 말한다.

135 활성동에 있는 정자로, 조선조 명종조에 좌승지를 역임한 금시당(今是堂) 이광진

용두소(龍頭沼)<sup>136</sup> 흐른 물에 정자선(亭子船)<sup>137</sup> 올라 보니  
진홍단장(眞紅丹粧) 기생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네  
남천강 얼른 내려 영남루 서푼 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마암산(馬岩山)<sup>138</sup>이 헌산(軒山)<sup>139</sup> 되고 아북산(衙北山)<sup>140</sup>이 진산  
(鎮山)<sup>141</sup>이네  
아동산(衙東山)<sup>142</sup> 돋은 해가 날티[日峴]<sup>143</sup>에 해 기우니  
만풍(晚風)에 디린바람<sup>144</sup> 백발(白髮)만 휘날리네

『밀양문학』 15집(밀양문화회, 2002)

- (李光軫)의 별업(별장)이다,  
136 가곡동 용두산 자락에 있는 깊은 소(沼)  
137 정자(亭子)처럼 만든 누선(樓船, 다락이 있는 배)의 한 가지  
138 사포리와 예림리 사이에 있는 말 모양의 산  
139 풍수에서 마루에서 마주 바라다 보이는 산을 말한다.  
140 누에가 알을 실은 형상이라 하여 아복산(蛾伏山)이라고도 한다.  
141 풍수에서 각 고을의 배후에서 그 곳을 진호하는 주산(主山)을 말한다.  
142 봉황이 춤추는 형상이라 하여 무봉산(舞鳳山)이라고도 한다.  
143 마흘리 고개를 말한다.  
144 해질녘에 소소히 부는 바람

## 제3장 밀양의 민속

### 1. 밀양백중놀이<sup>1</sup>

#### 모심기소리

(인자 모심기부터 노래 먼저 할께. 답을 할 줄 모르이까네 내가 답을 받아 가면서 한 데이. 딱 다섯 가지거덩. 논매기 노래도 다섯 가지. 시간을 오래 안 끌거덩. 우리 백중 놀이 할 때도 그 뭐 문서는 억수로 많이 있어도 딱 다섯 가지 이상 안 해요. 그러면 인자 모심기부터 한데이. 악기가 인자 휘모리 되기<sup>2</sup> 뚜드리대면은 막둡니다, 일꾼들이 이. 좌상<sup>3</sup>은 인자 삿갓 씌고 나발 불미 돌고, 그리 가지고 인자 빙 돈다고 인정하고. 그리 가지고 악기가 끊어졌다 하면 인자 내가 모심기 노래 인자 춤추고 나오미 노래 부르지요.)

한강수에 모를 부어 모찌내기<sup>4</sup>가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를 심어 목화 따기가 난감하네

1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한 용(龍)날에 밀양의 머슴들이 주체가 되어 농신(農神)에 대한 고사를 비롯해 다양한 놀이를 벌이는 밀양의 민속놀이(경남중요무형문화재 68호). 앞놀음, 놀이마당, 신풀이마당, 화합마당 등 총 4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되게’의 지역말

3 좌상(座上).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으뜸가는 사람

4 모를 내기 위하여 모판에서 모를 뽑는 일을 모찌기라 한다.

물길랑 처정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로 갔소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첨우야 방에 놀로 갔지

밀양아 삼랑 궁노耨은 가라왕의 유람터요  
칠보야 단장 곱게 하고 왕의 행차 구경 가세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분통 같은 저 젖 보소  
많이 보면 병 날끼고 실낱만침<sup>5</sup> 보고 가소

석양은 펄펄 재를 넘고 내 갈 길이 천리로다  
말큰<sup>6</sup> 가자꼬 굽이를 치고 님은 잡고 낙루하네

한태문, 이순옥,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사  
김경호(남,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 논매기소리

아이고 영감아 우리 영감아  
병자년 승년<sup>7</sup>에 콩지름<sup>8</sup> 갱죽<sup>9</sup> 열아홉 그릇<sup>10</sup> 먹고  
뒤뜰 논에 새 보러 가서

5 실의 올 만큼만. 아주 조금만의 뜻

6 말은

7 흉년

8 콩나물의 지역말

9 시래기 따위의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

10 그릇의 지역말

메띠기 뒷달가지<sup>11</sup> 채이<sup>12</sup> 죽은 영감아  
위이! 위이! 아아 이이 웨에 에  
원통하고 불쌍하다  
영감 죽고 간 날 밤에 꿈을 꾸니  
속곳 밑이 촉촉하네  
위이! 위이! 아아 이이 웨에 에  
어화 친구 벗님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위이! 위이! 아아 이이웨에 에  
오뉴월 삼복 더우<sup>13</sup> 불같이도 덥운 날에  
밭도 매고 논도 매니  
땀이 난다 땀이 난다 구슬 같은 땀이 난다 우우호오 에  
위이! 위이! 하아 이이 웨에 에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불이 탄다 으어호오 어  
위이! 위이! 하아 이이 웨에 에  
열심으로 농사지어 부모봉양 하신 후에  
나라에게 충성하자 으 어호오 에  
위이! 위이! 하아 이이 웨에에  
이! 호호호호호호호호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11 뒷다리. 달가지는 다리의 지역말

12 채이다는 차이다와 같은 말

13 더위의 지역말

김경호(남, 81세), 김일만(남, 71세), 최해용(남, 7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 2. 무안용호놀이<sup>14</sup>

지신밟기

어여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누리세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방신장<sup>15</sup>께 비나이다  
동방에 청제장군 서방에 백제장군  
남방에 적제장군 북방에 흑제장군  
중앙에 황제장군 황제장군께 비나이다  
농사는 천하지대본 하늘 아래 또 있는가  
신농씨<sup>16</sup>의 본을 받아 높은 데는 밭을 치고  
얕은 데는 논을 쳐서 부귀영화 누려보세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잡귀잡신 물러가고 만복은 이리 주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인자 뚜드리고 그립니다. 휘모리 뚜드리고 인자)

14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3~4일간 악귀를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총 6마당의 무안 민속놀이(경남중요무형문화재 2호). 진동산 쪽의 마을이 동부로 용촌(龍村)이고, 질부산 쪽의 마을이 서부로 호촌(虎村)이 되어 용과 호랑이로 서로 맞서면서 줄머리에 놓인 대장기를 먼저 빼는 쪽이 승리한다.

15 동쪽의 청제(青帝), 서쪽의 백제(白帝), 남쪽의 적제(赤帝), 북쪽의 흑제(黑帝), 중앙의 황제(黃帝) 등 다섯 방위를 지키는 신

16 신농씨(神農氏). 중국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삼황(三皇)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농업, 의료, 악사(樂師), 주조(鑄造)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우택(남, 70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 3. 법흥상원놀이<sup>17]</sup>

#### 지신밟기

오토풀이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 밟아 놀루자<sup>18</sup>  
놀루세 놀루세 오방지신을 놀루세  
동에 동방에 청제장군 청제장군을 모셔놓고  
서에 서방에 백제장군 백제장군을 모셔놓고  
남에 남방에 적제장군 적제장군을 모셔놓고  
북에 북방에 흑제장군 흑제장군을 모셔놓고  
놀루자 놀루자 천년만년 놀루자  
화악산 정기 받아 구천보살 둘러싸고  
동쪽으로 뻗은 줄기 용두산 굽이쳐서  
서쪽으로 뻗은 줄기 마암산 가로막아  
을자강이 되었구나 을자강이 되었구나  
추화산 등에 지고 종남산 바라보는

17 정월대보름에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앞 넓은 마당에 모여 마을과 집안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단장면 법흥마을의 민속놀이(경남중요무형문화재 16호). 당산제, 지신밟기, 헌신랑 다루기, 장작윷놀이, 다리밟기, 달집태우기와 콩.getOutputStream, 판굿 등 총 7개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18 누르자

밀양에라 영남루는 영남의 제일루요  
명지로다 명지로다 이 자리가 명지로다  
잡귀잡신은 물 알로<sup>19</sup> 만복은 이리로  
잡귀잡신은 물 알로 만복은 이리로

당산풀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께 비나이다  
일년삼백육십오일 다달이도 드는 액살  
하루 같이 막아주소  
정월이라 드는 액은 보름달로 막아주소  
이월이라 드는 액은 한식으로 막아주소  
삼월이라 드는 액은 삼진날로 막아주소  
사월이라 드는 액은 초팔일로 막아주소  
오월이라 드는 액은 오월단오로 막아주소  
육월이라 드는 액은 육월유두로 막아주소  
칠월이라 드는 액은 칠월칠석으로 막아주소  
팔월이라 드는 액은 추석으로 막아주소  
구월이라 드는 액은 구월중구로 막아주소  
시월이라 드는 액은 시월천마<sup>20</sup>로 막아주소  
동짓달이라 드는 액은 동짓달 동지로 막아주소  
섣달이라 드는 액은 그믐제석으로 막아주소

19 아래로

20 시월천마(十月天馬). 10월의 첫 말날[馬日]에 올리는 고사. 이날 천마(天馬)와 수레를 관장하는 마조(馬祖)에게 제사지내면 마조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속설이 전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께 비나이다  
드는 액은 막아주고 오는 복은 받아주소

용왕풀이  
용왕님요 용왕님요  
남해용왕 서해용왕님네 동해용왕 북해용왕님네  
물위에 용왕님네 물밑에 용왕님네  
천하도 용왕님네 지하도 용왕님네  
접시물도 용왕님네 낫물도 용왕님네  
샘물도 용왕님네  
오늘 이 동네사람들이 용왕님께 비나이다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 갈지라도  
집집마다 집안에 다 좋도록 해 주이소

(당산제에 이어 뒷산에 있는 찬못샘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과일, 나물, 조기, 건어, 미역국, 메 등 제수를 차린 다음, 비손을 하면서 마을의 무사태평과 소원성취를 빌며, 소지를 올린 뒤 제수는 시냇물에 뿌린다. 이때 아낙네들은 무당과 함께 용왕굿을 한다.)

문풀이  
이 집 대주<sup>21</sup> 문 여시오 신복 되셔 들어간다  
금년 한해 태평세월 만복은 두등실  
복 사시오 복 사시오 이 집 대주 복 사시오  
(그러면서 드간다 말이라. 그 다음 대문 열어주면)

21 대주(大主). 무당이 굿하는 집이나 단골로 다니는 집의 바깥주인을 이르는 말이다.

성주풀이

지신아 지신아 지신 飘아 눌리자  
천년성주 만년성주 성주 근본 알아보자  
성주 부친 개화부<sup>22</sup>요 성주 모친은 옥실부인<sup>23</sup>  
성주 부인 거동보소 영감이 사십인데  
한점 혈육 전혀 없어 불공이나 드려보자  
명산대천 찾아가서 사면으로 살펴보니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백일기도 드려보자  
한달 가고 두달 가니 온 집안이 화초로다  
세월이 여루하야<sup>24</sup> 십삭<sup>25</sup>이 잠시로다  
십삭이 지나가니 귀동자가 탄생하네  
금자동아 은자동아 칠기동산 보배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은을 준들 너를 사랴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허둥둥 내 사랑아  
귀동자 이름 질 때 어느 누가 지어줄꼬  
우리나라 임금님이 성주라고 불렀다고  
이 성주 거동 보소 금실금실 장성하야  
글공부에 힘쓸라고 칠 세부터 글을 배워  
십오 세에 통달하니 세상천지 만물통지<sup>26</sup>  
우리나라 임금님이 귀양 가라 영이 내려

22 무속신앙에서 개화부인은 성주의 부인이며, 성주의 부친 천궁대왕이라고도 한다.

23 옥진부인(玉眞夫人). 민속에서 하늘에 산다는 선녀로 성주의 모친이라 한다. 심청 전에서는 심청의 모 괴씨가 사후 옥진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24 여류(如流). 세월이 매우 빠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십삭(十朔). 열 달

26 만물통지(萬物通知). 만물을 두루 통달해 암

은하수 넓은 바다 꽃배 한 척을 띄워놓고  
삼년 목을 양석<sup>27</sup> 실고 삼년 입을 옷을 실어  
아버님요 잘 계세요 어머님요 잘 계세요  
부모형제 잘 있으소 불초성주 귀양 가요  
만경창파 넓은 바다 꽃배 타고 작별한다  
이물<sup>28</sup>에 임사공아 고물<sup>29</sup>에 고사공아  
술렁술렁 배 저어라 향토섬을 찾아가자  
세월이 여루하야 향토섬에 도착하니  
산도 설고 물도 설고 까막깐치<sup>30</sup> 더욱 쉽다  
세월이 여루하야 이삼 년이 잠깐이라  
새야 새야 청조새<sup>31</sup>야 나의 고향을 가거들랑  
불초<sup>32</sup>성주는 잘 있다고 소식이나 전해다오  
가랑잎을 종이 삼고 솔갱이<sup>33</sup>로 봇을 삼아  
만지장서 원정지<sup>34</sup>에 청조새 다리에 묶었더니  
두 날개를 훨훨 날아 나의 고향을 가건마는  
나는 언제 춘풍 만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세월이 여루하야 고향땅에 돌아왔소

27 양식

28 배의 머리로 달리 선두(船頭), 선수(船首)라고도 한다.

29 배의 뒷부분

30 까마귀와 까치. 깐치는 까치의 지역말

31 청조(青鳥)새. 중국 서쪽 곤륜산 정상에 거주하는 여자신선인 서왕모가 나타날 때 항상 먼저 와서 그 사실을 알려 준다고 하여 서왕모의 사자(심부름꾼)로 불린다.

32 불초(不肖).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33 솔가지의 지역말

34 만지장서(滿紙長書) 원정지(原情紙). 사연을 많이 담은 긴 편지와 하소연을 적은 편지

아버님요 잘 계셨소 어머님요 잘 계셨소  
고향산천 잘 있었나 불초성주 돌아왔다  
귀양살이 삼 년만에 솔씨 서 말 줗어다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등<sup>35</sup> 저등을 훌쳤더니<sup>36</sup>  
밤이 되면은 이슬 맞고 낮이 되면은 태양 받아  
금실금실 자라나서 행자목(杏子木)<sup>37</sup>이 되였구나  
행자목이 자라나서 황장목(黃腸木)<sup>38</sup>이 되였구나  
앞집에 김대목아 뒷집에 박대목아  
좋은 연장 골라 메고 재목 내로 가여보자  
뒷동산에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가락같이도 곧은 나무 칠중(七重)으로 둘러섰네  
김대목 거동 보소 박대목의 거동 보소  
연장망태 땅에 놓고 것도 벗어 낭개<sup>39</sup> 걸고  
웃도 벗어 낭개 걸고 명주 수건 둘러쓰고  
목접으로 불을 피워 향초 한대 피어 물고  
내 텁 너 텁 가져다가 나무뿌리에 걸어놓고  
땡기주소 텁질이야 밀어주소 텁질이야  
그 나무 눕는 소리 천지가 진동하네  
김대목 거동 보소 박대목의 거동 보소  
한 손에는 먹통 들고 한 손에는 잣대 들고

35 가운데가 솟아서 불룩하게 언덕이 진 곳

36 훌어 뿐렸더니

37 은행나무

38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던, 질이 좋은 소나무

39 나무의 지역말

앞동네 주민들아 뒷동네 초패<sup>40</sup>들아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술을 먹고  
재목 운송 하여다가 넓은 땅에 모아주소  
김대목 거동 보소 박대목의 거동 보소  
굽은 나무 등을 치고 곧은 나물 배를 깎아  
사모기둥 사보도리<sup>41</sup> 공단 갓 달아놓고  
가락같이 곧은 나무 서까래로 마련하고  
이 재목이 있을진대 집터 하나 구해보자  
이 집에라 대주양반 이 집터를 잡을려고  
높은 짹지<sup>42</sup> 자주 놀려 급히 남산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연화봉 내린 줄기  
연화봉 정기 받아 이 집터가 대명지라  
뒤에 산이 수북 솟어 노죽봉<sup>43</sup>이 되어 있고  
오롱조롱 부수리는 자식봉이 되어 있고  
사방 산에 둘러싸여 만대유전 할 터로다  
용머리에 터를 닦아 호박주추<sup>44</sup> 들어놓고  
사모기둥 사보도리 입 구자(口字)로 집을 세워  
정실부인 거동 보소 상량제를 지낼려고  
만반제수 제물 지어 백옥반에 차린 후에  
거동 보소 자정<sup>45</sup> 보소 대주양반 자정 보소

40 초패(樵牌). 나무꾼들

41 네모 도리. 도리는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를 말한다.

42 짹팡이

43 노죽봉(露積峯)

44 주추는 기둥 밑에 괴는 돌 따위의 물건을 말한다.

향사에 도포 입으시고 홍갑사띠를 메고  
두 무릎 마주 끓고 상량님전에 비나이다  
상량제를 지낸 후에 팔조목을 돌아가서  
서까래를 걸어놓고 오색토로 알매<sup>46</sup> 치고  
태극으로 기와 얹고 사모에다 풍경 달고  
동남풍이 불어오면 풍경소리 요란하다  
일육수<sup>47</sup>가 북문이요 이칠하<sup>48</sup>가 남문인데  
남문을 열어놓고 성주님을 모셔보자  
연화봉 은하수에 배 세척이 들어온다  
첫째 배를 바라보니 조왕님이 타신 배요  
둘째 배를 바라보니 오토지신(五土地神)<sup>49</sup> 타신 배라  
셋째 배를 바라보니 이집 성주 타신 배라  
여차여차 오는 소리 천지가 진동한다  
이 가문 이 명당에 성주님이 들오신다  
호사(豪奢) 보소 자정 보소 성주님의 호사 보소  
앞에는 금봉채<sup>50</sup>요 뒤에는 죽살배<sup>51</sup>라  
성주님 모신 후에 자순이나 흥순하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님전 비나이다

45 좌정(坐定). 자리를 잡아 앉는 것으로 남을 높일 때나 점잖게 이를 때 쓴다.

46 기와를 이을 때 산 자 위에 이겨서 까는 흙

47 일육수(一六水). 북방을 상징하는 수 1과 6, 오행(五行) 중 북방을 상징하는 수(水)를 묶어 우주 생성과 운행을 설명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48 이칠화(二七火). 남방을 상징하는 수 2와 7, 오행 중 남방을 상징하는 화(火)를 묶어 우주 생성과 운행을 설명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49 오방지신

50 금봉채(金鳳釦). 머리 부분에 봉황의 모양을 새겨서 만든 금비녀

51 죽절(竹節)비녀. 대나무로 만든 깊싼 비녀

성주님전 은덕으로 관재구설 막아주소  
원근 부정을 막아주소 이웃 부정 막아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님전 비나이다  
잡귀잡신은 다 몰아내고 만복은 이리로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누리자

조왕풀이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아 밟아서 놀루세  
모셔 보자 모셔 보자 조왕님을 모셔 보자  
조왕님을 모실려고 좋은 날을 가려 받아  
대문에 기도하고 오색토로 금토 놓고  
상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손발 씻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왕님전에 비나이다  
서천국에 계신 조왕 우리 조선 생길 적에  
연잎선 배를 몰아 대천바다에 띄워놓고  
연잎선 배를 타고 우리 조선 바라보니  
남북이 삼천리요 삼해 바다가 삼만리라  
우리 조선 생길 적에 화덕전<sup>52</sup>에 좌중하고  
좌중하신 조왕님네 금수강산에 조왕님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왕님전에 비나이다  
삼팔목<sup>53</sup>을 베어내어 조왕님전에 바치시고

52 쇠붙이나 흙으로 아궁이처럼 만들어 솔을 걸고 쓰게 만든 물건

53 원래 동방(東方)을 상징하는 말이나, 여기선 동방의 나무란 뜻으로 사용한 듯하다. 수와 오행(五行)의 관계를 동방삼팔목(東方三八木) 남방이칠화(南方二七火) 서방사구금(西方四九金) 북방일육수(北方一六水) 중앙오십토(中央五十土) 등으로 설명한다.

백탕숯<sup>54</sup>을 구워내어 만등수에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왕님전에 비나이다  
황하수 손에 떠서 조왕님전에 바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왕님전에 비나이다  
물명당에 물 맑히고 조왕님전에 비나이다  
불명당에 불 밝히고 조왕님전에 비나이다  
백옥반 고사상에 만반제물 차려놓고  
팔선녀가 둘러앉아 조왕님전에 춤을 춘다  
조왕님 좌중 후에 악한 살을 막아주소  
이 맥에 정경부인 동서남북 가시거든  
자국자국 향내 내여 걸음마다 복을 타소  
일년삼백육십오일 관재구설을 막아주소  
이웃 부정 막아주소 원근 부정을 막아주소  
잡귀잡신은 다 몰아내고 만복은 이리 주소

#### 장독풀이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리자  
태고 때가 언제라고 실농시<sup>55</sup>가 어디 갔소  
우리나라 농부들아 농사짓기에 힘씁시다  
지게 목발에 소를 몰고 농기구도 둘러메고  
앞뜰에 논을 갈고 뒤팸에 밭을 갈아  
우리나라 실농시가 뒤팸에 씨를 뿌려

54 백탄(白炭). 빛깔이 맑지 못하고 흰 화력이 매우 센 참숯

55 신농씨(神農氏)

밤이 되면 이슬 맞고 낮이면 태양 받아  
금실금실 자라나서 열매 한쌍 열었구나  
금실금실 열린 열매 열매이름이 무엇인고  
우리나라 공자님이 콩 태자(太字)라 운을 띄워  
우리나라 농부님요 콩이라고 불러주소  
일년 농사 지은 콩을 장을 잔뜩 담아보자  
옥황선녀 내려와서 좋은 날 가려 받아  
김해라 명토 땅에 소금 한 척 가져다가  
황하수 좋은 물에 장 한 독을 담아놓고  
은하수 좋은 물에 장 한 독을 담아놓고  
은독에는장을 담고 놋독에도장을 담고  
은독에 담은장도 꿀맛같이 되어주소  
놋독에 담은장도 꿀맛같이 되어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독님전 비나이다  
막아주소 막아주소 영장까지 막아주소  
찔레꽃은 피더라도 곳가지<sup>56</sup>는 피지 마소  
일년 삼백육십오일 하루 같이 점지하소  
잡귀잡신은 다 몰아내고 만복은 이리로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밟아 눌리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 단장면 법흥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56 골마지. 간장, 고추장, 술, 초, 김치 등 물기 많은 발효성 식품의 겉 표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흰색 막

### 현신랑 다루기

이방 저방 양방 중에 꽃을 길러 나 준 장모  
첫째 잔은 인정주요 둘째 잔은 인사주요  
셋째 잔은 만수무강주구라  
옥이야 같은 자식 정은 며들아가 앗아가고  
문풍지 꽃풍지 발라 주듯 우리 장모 따슨 손길  
두고두고 어루만져 외손 보고 달래주소

(제보자: 요거는 원래 장모 노랜데 사위가 부릅니다. 남자가, 사위가 부르고 그 다음에 사위 노래는 장모가 부릅니다. 사위하고 장모가 같이 나와서 부릅니다. 장모 노래가 끝나면 바로 사위가 받아서 바로 갑니다.)

찹쌀 백미 삼백 석에 앵미 같은 가린 사위<sup>57</sup>  
진주 남강 버들 숲에 구슬 같은 내 사우야  
은잔 옥잔 옥류잔에 철철 넘게 부은 술은  
서로 부어 나눠 들고 어화둥둥 내 사우야  
어화둥둥 내 사우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 단장면 법흥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 널뛰기

고운 처녀 올라간다 옥황상제 문 열어라

57 앵미는 쌀에 섞여 있는, 빛깔이 붉고 질이 나쁜 쌀을 말하므로, 많은 쌀 가운데 질이 나쁜 쌀을 가려내듯 가려 뽑은 사위란 뜻이다.

우리 아바이 떠온 댕기 우리 어매 접은 댕기

우리 동생 눈물댕기 내한테는 좋은 댕기

우리 오라바이 분주댕기

성 안에 널뛰다가 성 밖에 잃은 댕기

열다섯 서지꾼<sup>58</sup> 주운 댕기 나를 주라

치맛자락 마주칠 때 너를 주마 너를 주마

도솔 걸고 큰솔 걸고<sup>59</sup> 살림 살 때 너를 주마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 단장면 법흥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옻놀이

도 첫도는 유복<sup>60</sup>이다

개 개는 장원이다 양산 통도사에 극락 개다 가오리 연장 두 개다

걸 걸푼걸푼 넘어간다

옻 옻이야 사지야 곰의 뼈다구야 어린애 촛대뼈<sup>61</sup>야

모 모야 모야 오복이 굴러온다 상남 왜놈이 논을 맨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 단장면 법흥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58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꾼

59 동솔 걸고 큰솔 걸고. 동솔은 옹당솔(작고 오목한 솔)의 지역말

60 유복(有福). 옻놀이에서 첫 도를 치면 복이 있어 이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61 경골 또는 정강이뼈라고도 하는 종아리 안쪽의 긴 뼈를 이르는 말

### 달맞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쾌지나침침나네  
용연산에 비친 달아 쾌지나침침나네  
만어사의 정기 받아 쾌지나침침나네  
우리 동네 복 내리소서 쾌지나침침나네  
천금 같은 우리 얘기 쾌지나침침나네  
국가에는 충성동아 쾌지나침침나네  
부모에게 효자동아 쾌지나침침나네  
형제간에 우애동아 쾌지나침침나네  
일가친척 화목동아 쾌지나침침나네  
동네방네 유신동<sup>62</sup>아 쾌지나침침나네  
뿌리같이 깊은 정은 쾌지나침침나네  
태산같이 높을소냐 쾌지나침침나네  
하해같이 깊을소냐 쾌지나침침나네  
태산같이 굳세거라 쾌지나침침나네  
하해같이 멀치거라 쾌지나침침나네

(제보자: 모두 나와서 달집 불 지르기 전에 인자 한바탕 이리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나중에 인자 달집을 불 지르고, 그런게 액운을 전체 불사르면서 거기에 연도 결고 헌옷가지도 달집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달집을 그하면 그 해는 액운이 전체적으로 물러간다는 그런 뜻에서 그 전에 한바탕 노는 그런 노랩니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쾌지나침침나네

62 유신동(有信童)은 신의가 있는 아이란 뜻이다.

앞산 위에 달이 뜬다 쾌지나칭칭나네  
저 달은 뉘 달인고 쾌지나칭칭나네  
옥황님의 달이라네 쾌지나칭칭나네  
은자동아 금자동아 쾌지나칭칭나네  
해님 같은 보배동아 쾌지나칭칭나네  
수명장수 부귀동아 쾌지나칭칭나네  
꽃 같은 고운 얼굴 쾌지나칭칭나네  
온을 주면 너를 사리 쾌지나칭칭나네  
금을 준들 너를 사리 쾌지나칭칭나네  
앞들 뒤들 넓은 들에 쾌지나칭칭나네  
오곡백과가 알이 차서 쾌지나칭칭나네  
알뜰살뜰 우리 살림 쾌지나칭칭나네  
걱정일랑 덜어주소 쾌지나칭칭나네  
달도 밝다 명랑해라 쾌지나칭칭나네  
청도 밀양 가구지라 쾌지나칭칭나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 어사용

구야 구야 까마구야 허어허어  
기리동산에 까마구야 허어  
너무 높이 뜨지 마라

아차 한번 떨어지면  
속새피기<sup>63</sup> 눈 찔린더 어어어허어  
어찌 구야 이후후후후  
바늘같은 약한 몸에 태산같은 짐을 지고 오호오  
고국산천 넘나드니 이하이  
땀이 난다 땀이 난다 구슬 같은 땀이 난더  
배는 고파 등에 붙고 오호오 목은 말라 불이 붙네 혀 이허어  
어찌 구야 이후후후후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덕현(남, 78세, 단장면 법홍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 다리밟기

(제보자: 팔을 다섯 알정도 손에 들고 다리를 건너면서 일 년 동안 다리 안 아프게  
해 달라고, 달 노래인 쾌지나칭칭나네 1절을 하면서. 다리 밟는 데는 노래는 안 하거  
든. 인자 풍물 치고 춤추면서 건네 왔다 하지.)

### 내 다리 쇠다리 되게 해 주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 단장면 법홍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63 속새는 억새, 피기는 포기의 지역말

## 축문

기능평가용

유세차!

단기 4338년 10월 7일 당산제주 ○○○은

삼가 당산님전에 고하나이다

당산님께서는 더없이 높은 데 계시사

법흥마을을 복되게 잘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높고 높으신 은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마을은 밀양의 동방에 자리하여

만어산 줄기 따라 남쪽으로 뻗어 터를 닦은 뒤

수천 년을 이루고 있사옵니다

그동안 선사 아래로 마을 이름이 여러 번 바뀌고

지금은 밀양에서 이름난 큰 마을로

발돋움하게 되었사옵니다

많은 도움의 은덕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더욱 풍요로운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삼백여 주민 모두 건강한 시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당산님이시여! 굽이 살피시어 그동안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마시며 기름진 땅에서 풍년농사 바라보며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밝은 빛을 계속 내려 주시기 바라옵니다

아울러 오늘 고유제에 이어 함께 이루어질 상원놀이 심사도

기능 신청인 모두가 화합하여 합격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간소한 제전을 드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단기 4338년 10월 7일 제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 단장면 법흥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아리랑 대축제용  
유세차!  
단기 4342년 기축년 5월 ○일 법흥상원놀이 보준회는  
삼가 당산님전에 고하나이다  
당산님께서는 더없이 높은데 계시사  
법흥마을을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높이 높으신 은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마을은 밀양의 동방에 자리하여  
만어산 줄기 따라 남쪽으로 뻗어 터를 닦은 뒤  
수천 년을 이루고 있사옵니다  
그동안 선사 아래로 마을 이름이 여러 번 바뀌고  
지금은 밀양에서 이름난 큰 마을로  
발돋움하게 되었사옵니다  
많은 도움의 은덕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더욱 풍요로운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삼백여 주민 모두 건강한 시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당산님이시여! 굽이 살피시어 그동안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마시며 기름진 땅에서 풍년농사 바라보며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밝은 빛을 계속 내려 주시기 바라옵니다  
아울러 오늘 고유제에 이어 함께 이루어질 밀양 아리랑대축제  
무형문화재 공연을 시민과 함께 화합의 장이 되면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간소한 제전을 드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단기 4342년 5월 ○일 제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기복(남, 49세, 단장면 법흥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 4. 감내게줄당기기<sup>64</sup>

지신밟기  
여루여루 지신아 지신 밟아 눌루자  
눌루자 눌루자 오토지신을 눌루자  
동에 동방에 청제장군 청제장군 모셔놓고

64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주민의 화합과 인근 마을과의 화합을 위해 창안된 부북면  
감내[甘川]의 민속놀이(경남중요무형문화재 7호). 감내에는 예부터 계가 많았는데,  
서로 좋은 계집이터를 차지하려고 싸워 인심이 흥흉해지자, 마을 어른들이 계 모양  
의 줄을 만들어 당겨 이긴 쪽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데서 이 놀이가 유래하였다.  
앞놀이, 본놀이, 뒷놀이의 총 3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에 서방에 백제장군 백제장군 모셔놓고  
남에 남방에 적제장군 적제장군 모셔놓고  
북에 북방에 흑제장군 흑제장군 모셔놓고  
중앙에라 황제장군 황제장군을 모셔놓고  
눌루자 눌루자 오토지신을 눌루자  
잡귀잡신은 물 알로 만복은 이리로  
잡귀잡신은 물 알로 만복은 이리로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경호(남,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 줄디리기

자! 줄 디리자! (하면 막 확! 하고 합성 하는 기라)  
위여차 줄 디리자 위여차 줄 받아라  
위여차 줄 받아라 위여차 줄 받아라  
동네사람 다 나와서 위여차 줄 받아라  
남녀노소 합심하여 위여차 줄 받아라  
천발만발 디리 모아 위여차 줄 받아라  
천추만대 이어가세 위여차 줄 받아라  
이 줄 다려 이긴다면 위여차 줄 받아라  
우리 마을 좋을씨고 위여차 줄 받아라  
전천년 후천년에 위여차 줄 받아라  
우리나라 생긴 후에 위여차 줄 받아라  
화악산 정기 받아 위여차 줄 받아라

밀양 땅이 생겼구나 위여차 줄 받아라  
용두산 굽우돌아 위여차 줄 받아라  
금시당<sup>65</sup>을 바라보니 위여차 줄 받아라  
칠골 물이 합수하여 위여차 줄 받아라  
남천강을 흘러내려 위여차 줄 받아라  
마암산이 가로 막아 위여차 줄 받아라  
을자강이 되었구나 위여차 줄 받아라  
추화산성 등에 지고 위여차 줄 받아라  
종남산을 바라보니 위여차 줄 받아라  
밀양에 영남루가 위여차 줄 받아라  
영남에서 제일루요 위여차 줄 받아라  
영남뜰 반석 위에 위여차 줄 받아라  
석화가 만발하니 위여차 줄 받아라  
팔도 선비 위여차 줄 받아라  
꽃을 찾아 바라본다 위여차 줄 받아라  
영남루 죽엽 속에 위여차 줄 받아라  
아랑각이 찬란하다 위여차 줄 받아라  
중천에 밝은 달은 위여차 줄 받아라  
아랑각을 비취 주네 위여차 줄 받아라  
밀양 땅이 명지로다 위여차 줄 받아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경호(남, 81세), 김일만(남, 71세), 최해용(남, 7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밀양아리랑

(뚜드리고 이러다가, 이걸 지게라고 가정하고)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끗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냈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냈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물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홍당목 치마는 뿐어야 좋다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냈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우리 집에 저 문동<sup>66</sup>은 콩밭 골만 탄다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담 넘어 갈 때는 큰맘을 먹고  
문고리 잡고서 빨빨 떤다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냐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아리당다꿍 쓰리당다꿍 아라리가 냐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경호(남,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66 문동이. 여기서는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2부

## 일터에서 부르는 노래





## 제1장 모내기 노래

### 제1절 모밟기와 모찌기

#### 1. 청명곡우 돌아왔다

청명곡우 돌아왔다 갹자리캐서 모밟자<sup>1</sup>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sup>2</sup> 하고 모밟자  
이랴 자랴<sup>3</sup> 훌찡기<sup>4</sup> 큰머슴아 노루개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 하고 모밟자  
우장 삿갓 곰방대 작은머슴들 노루개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 하고 모밟자

1 이른 봄 풀잎과 나뭇잎 등을 무논에 넣고 밟아 거름으로 만든 후, 여기에다 못자리를 만든다. 풀을 캐는 것을 ‘갱자리캔다’고 하며, 모를 오지게 키우기 위해 밀대낫으로 풀뿌리까지 캐서 거름으로 삼는데 이를 ‘밀대질한다’고 한다. 이처럼 볍씨를 뿐리기 전에 못자리 만드는 일을 ‘모밟는다’고 한다.

2 노리개

3 “이라, 이러”는 마소를 몰아 쫓거나 끌어 당기는 소리이며, “자라, 저라”는 소를 윈편으로 몰 때에 하는 소리다.

4 극쟁이.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로, 쟁기와 비슷하나 쟁깃술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끌이 무디다. 소 한 마리로 끌어 쟁기로 갈아 놓은 논밭에 골을 타거나, 흙이 얇은 논밭을 가는 데 쓴다.

올랑졸랑 조래기<sup>5</sup> 정기꾼<sup>6</sup>의 노루개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 하고 모밟자  
긴 담뱃대 쌈지는 우리 할부지 노루개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 하고 모밟자  
우루릉 부루릉 물레질 우리 할매 노루개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 하고 모밟자  
우리 아부지 노루개 지게 목발이 노루개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 하고 모밟자  
우리 엄마 노루개 살림살이가 노루개  
모밟자 모밟자 노루개 하고 모밟자

신의근(남, 78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1992년 2월 9일 채록

## 2. 한강에 모를 부어

①

한강에다가 모를 부여 모껴내기가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를 심어 목화 따기가 난감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소연(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5 쌀을 이는데 쓰는 기구 조리의 지역말

6 정기는 ‘정지’와 함께 부엌의 지역말로, 정기꾼은 부엌살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한강수에 물을 부여 모찌내기가 황송하다  
하늘에라 목화로 같아 목화 따기가 황송하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③

한강에다 모를 부여 모찌내기도 극난(極難)이요  
하늘에다 목화를 심어 목화 따기도 극난이요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④

한강수에다 모를 부여 모찌내기가 난감하다  
뒷밭에 목화 숨거<sup>7</sup> 목화 따기 난감하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⑤

하늘에다 목화를 심어 목화 따기가 난감하다  
한강수에다 모를 부여 모찌내기도 난감하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의한(여, 78세, 삼문동) 제보

7 숨다는 심다의 지역말

2010년 6월 30일 채록

⑥

연당안 못에다 모를 부여 모찌내기가 난감하다  
하늘에다가 목화를 숭거 목화 따기가 난감하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부적(여, 86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⑦

바다 곁은 이 모구자리 모찔 일이 난감하다  
하늘에다 모를 부여 모찔 일이 난감하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3. 하늘에 목화를 심어

①

이 논배미<sup>8</sup> 모를 부여 모찌내기 난감하네  
한강수에 모를 부여 모찌내기 난감하네  
하늘에는 목화를 심어 목화 따기 난감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8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의 하나하나의 구역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바다야 같은 이 뜻자리 모껴내기가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를 심어 목화 따기가 난감하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복순(여, 81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바다 같은 모구자리<sup>9</sup> 들어내기가 어렵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 따기 어렵다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④

벽상(壁上)에다 상추를 갈아 상추 뜯기가 난감하네  
연당 안에 뜻을 파서 빨래하기가 난감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9 뜻자리. 벼씨를 뿌려 모를 기르는 곳으로, 모판이라고도 한다.

#### 4. 일월 해님이 돋아 와도

①

일월 해님이 돋았는데 이슬 갤 줄 모르던고  
명앗대<sup>10</sup>를 꺾어 들고 이슬 털러 가자시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인숙(여, 7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일월 해님 돋아와도 이슬 털 줄 모르는고  
매화야 대를 꺾어 잡고 이슬 털로 나가세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일월아 해님이 돋아와도 이슬 털 줄 모르더냐  
매화야 한 가지 꺾어 잡고 이슬 털로 가자스라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④

일월 해님이 돋아와도 이슬 털줄 모르더라

10 ‘는장이’라고도 불리는 명아주의 줄기. 옛날에는 환갑을 맞은 노인에게 축하선물로  
명아주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는데, 옛 문헌에서 흔히 등장하는 청려장(靑藜杖)은  
바로 이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를 말한다.

매화야 가지를 꺾어 쥐고 이슬 털로 가자시라

류종복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5)

일어라 해님이 돋아와도 이슬 털줄 모리던가

매화야 한 가지 덕꺼<sup>11</sup> 잡고 이슬 털로 가자쓸라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5. 이 못자리 조르자

①

절우자 절우자 요 모구자리로 절우자<sup>12</sup>

절우자 절우자 유지장판을 절우자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②

조라자 조라자 이 모구자리로 조라자

조라자 조라자 주인놈 상투로 조라자

11 꺾어

12 모를 찌자. 절우다는 모찌기(모를 내기 위해 모판에서 모를 뽑는 것)를 말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3)

조루자 조루자 시누부 냄편을 조루자  
조루자 조루자 시누부 멀키<sup>13</sup>로 조루자  
(어뜩<sup>14</sup> 찌자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소연(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6. 이 못자리 잡아 가소

이승채사 연명수<sup>15</sup>야 이 모구자리 잡아가소  
저승채사 강림도령<sup>16</sup> 이 모구자리 잡아가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순금(여, 9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13 머리카락의 지역말

14 빨리의 지역말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양을 가리키는  
'꾀득'과 비슷한 말이다.

15 저승차사가 이승에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올 때 저승차사 해원맥, 이승차사 이덕춘과  
염라차사 강림도령 등 세 차사가 오는데, 그 가운데 이승차사 이덕춘을 일컫는 듯  
하다. 연명수(延命水)는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물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수명  
연장과 관련된 일을 맡은 차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6 포악한 지방 사또의 명으로 염라대왕을 부르러 갔다가 염라대왕의 눈에 들어 저승  
차사 중에서도 으뜸인 염라차사가 된 인물

## 7. 이 못자리 들어내자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 모구자리를 들어내자  
들어내자 들어내자 시누부<sup>17</sup> 올키<sup>18</sup>를 들어내자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8. 이 못자리 둘러싸자

둘러서자 둘러서자 이 모구자리 둘러서자  
둘러서자 둘러서자 곤달비산을 둘러서자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9. 새야 새야 청조새야

①

새야 새야 청조새야 니 어데 자고 이제 오노  
낙동강 칠백 리 수풀 속에 숲속에서 자고 오네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17 시누이의 지역말  
18 올케의 지역말

②

참나무야 수풀 속에 방하<sup>19</sup>야 내로 가자시라  
물도 좋고 정자 좋데 방하야 걸로 가자시라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제2절 모심기

### 1. 편편 뛰는 금붕어야

①

서월<sup>20</sup>이라 연당못에 홀홀 뛰는 금붕애야  
금붕애 잡아서 휘<sup>21</sup> 쳐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여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서월이라 연당 못에 풀풀 뛰는 금붕어야

19 방아(곡식 따위를 짚거나 빙는 기구나 설비)의 지역말  
20 서울  
21 회의 지역말

금붕어 잡아다 희 기리놓고<sup>22</sup> 순금씨 불러 술 부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서울이라 연당못에 풀풀 뛰는 금붕어 봐라  
그 붕어 잡아서 희<sup>23</sup> 그리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어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서울이라 연당못에 펄펄뛰는 금붕어야  
그 붕어 잡아 희 그려놓고 춘향 불러 권주하네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유남예(여, 67세, 연금리 내금) 제보  
1981년 1월 14일 채록

⑤

사랑 앞에 연당못에 펄펄뛰는 금붕어야  
금붕어 잡아서 희 쳐놓고 춘향이 불러 권주하자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22 기리다는 그리다의 지역말로, 여기서는 '희를 쳐놓고'라는 뜻이다.

23 희의 지역말

1981년 7월 30일 채록

(6)

서월이라 연등못에 풀풀 뛰는 금붕어 봐라  
금붕어 잡아다 회 쳐놓고 춘향이 불러다가 술 부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무임(여, 63세, 산외면 금곡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

서월이라 금당못에 풀풀 뛰는 저 봉아 봐라  
그 봉아 잡아서 회 쳐놓고 춘향아 불러 술 부어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차점(여, 79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8)

서울이라 안동못에 풀풀뛰는 금붕어야  
금붕어 잡아다 회 그리놓고 석주가<sup>24</sup> 불러 술 부아라

류종목, 성재우 조사  
안차립(여, 71세),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24 색주가(色酒家)는 젊은 여자를 두고 술과 함께 몸을 팔게 하는 집 또는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한다.

⑨

서월이라 연못 안에 풀풀 뛰는 금붕어야  
금붕어 잡아다 휘 기리놓고 춘향이 불러 술 따라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⑩

서월이라 한골못에 풀풀 뛰는 금붕어야  
금붕어 잡아 히 기리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⑪

서울이라 한 골목에 풀풀대는<sup>25</sup> 금붕어야  
금붕아 잡아다 히 쳐놓고 춘향이 불러 춤추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순덕(여, 75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⑫

서울이라 한골못에 펄펄 뛰는 금붕어 보소  
금붕어 잡아서 혜 쳐놓고 큰아기 불러 술 부어라

|| 25 날쌔고 기운차게 자꾸 뛰는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⑬

서울이라 한골못에 금붕어 노는 구경 가세  
금붕어 잡아 회 쳐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어라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⑭

우리야 도련님 원당못에 풀풀 뛰는 금붕어야  
금붕아 잡어서 휘 쳐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⑮

애기야 도련님 연당못에 풀풀 뛰는 금붕어야  
금붕어 잡아다 회 기리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어라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⑯

서울이라 큰대밭에 풀풀 뛰는 금붕어야  
그 붕어 잡아다가 회 쳐놓고 춘향이 불러다 술 부어라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중립(남, 57세, 상남면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⑯

우리 오빠 연당못에 금붕어 낚는 구경 가자  
금붕어 잡아 히 길이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어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⑰

사랑 앞에 연못안에 벌벌 기는 금붕어야  
금붕어 잡아서 회 쳐놓고 춘향이 불러서 술 부어라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⑲

애기초당 연못가에 펄펄 뛰는 금붕어야  
금붕어 잡아 희 쳐놓고 큰애기 손에 술을 먹자

임동권, 『한국민요집』 V(집문당, 1980)

## 2. 물꼬는 청청 헐어 놓고

①

물걸랑 쳐정쳐정 헐어 제치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가노  
문어야 전복 손에 들고 첨으야 집에 놀러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안분미(여, 82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물길랑 쳐절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노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첨우야 집에 놀러 갔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③

물길랑 쳐정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소  
문어야 전복 손에 들고 첨우 방에 놀러 갔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④

물기<sup>26</sup>는 쳐정처정 헐아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 갔노  
문어야 대장부 손에 들고 첨으야 집에 놀로 갔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복순 (여, 81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26 물꼬(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

(5)

물길랑 쳐절헐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소  
문어야 대장부 손에 들고 첨오 방에 놀로 갔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문덕일(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6)

물길랑 쳐정처정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노  
문어 장부 손에 들고 첨으야 방에 놀려 갔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류현수(남, 84세, 무안면 판곡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7)

물기야 청청 열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노  
물이야 짹지<sup>27</sup>를 손에 들고 첨으야 방에 놀로 갔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8)

물길랑 청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 갔노  
등 님에다 첨을 두고 첨우야 방에 사행 갔네

27 물꼬를 열어 놓는 작대기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명말수(여, 78세, 하남읍 수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⑨

물길랑 청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 갔노  
등 넘에다 첹을 두고 첹우 집에 놀러 갔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⑩

이 물기 저 물기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로 갔소  
등 넘에다 첹을 두고 첹의 집에 놀러 갔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⑪

이 물기 저 물기 툭 파놓고 지인네 양반 어디 갔소  
문애야 대전복 손에 들고 첹우야 집에 놀러 갔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⑫

이 물기 저 물기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노

이내야 대장부 손에 들고 첨우 방에 놀러 갔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⑬

물길랑 치정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 갔노  
문어야 전복이야 들고 처갓집에 놀러 갔다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⑭

이 물끼 저 물끼 헐어놓고 쥐인네 양반 어디로 갔나  
문어야 전복 외와 들고 수영방<sup>28</sup>에 놀로 간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서삼수(남, 80세,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⑮

이 물끼 저 물끼 처지렁 청청 다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로 갔노  
문어야 대장부 손에 잡고 첨의 방에 놀러 갔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28 제보자는 첨의 방을 잘못 불렀다고 했다.

⑯

물끼 물끼 헐어야 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 갔노  
대장부 문에야 손에 들고 첨우야 방에 놀러 갔네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이순학(여, 81세), 이쾌남(여, 67세), 배차순(여, 50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⑰

물끼랑 쳐정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 갔노  
우산 살부팽이를 집고 주점에 놀러 갔다  
(둘 넘어다 첨을 두고 첨의 방에 놀러 갔다.)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⑱

물콜랑 청청 흘어나 놓고 주네 양반 어데 갔노  
문우야 전복을 오리나 들고 등 넘에다 첨을 두고  
낮으로는 놀러 가고 밤으로는 자리 가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수연(여, 65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3. 모야 모야 노랑모야

①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이달 크고 훗달 크고 내훗달에 열매 연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우복준(여, 82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이달 크고 훗달 커서 칠팔월에 열매 연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천병수(남, 77세, 부북면 무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이달 크고 저달 크고 구시월에 열매 여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형출(여, 72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모야 모야 나락모야 니 언제 커서 환상<sup>29</sup>할래  
이달 가고 훗달 가면 내훗달에는 환상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전점수(여, 82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29 환상(還上)은 봄에 곡식을 구어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던 환곡(還穀)과 같은 말이다.

(5)

모야 모야 노랑모야 너 언제커서 환상할래  
이달 크고 훗달 크고 새달 초승<sup>30</sup>에 환상하지

류종목, 성재옥 조사  
류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6)

모야 모야 나락모야 니 언제 커서 환상할래  
이달 크고 훗달 크고 칠팔월에 환상할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7)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환상할래  
이달 크고 훗달 크고 구시월에 환상할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성연(여,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8)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환생할래  
이달 크고 훗달 크고 내훗달에 환생할래

30 음력으로 그달 초하루부터 처음 며칠 동안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여환순(여, 79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⑨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환생하리  
이달 크고 훗달 커서 칠팔월에 환생하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순선(여, 83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⑩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환생할래  
이달 크고 훗달 크고 구시월에 환생할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영애(여, 78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⑪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가 황천 갈래  
이달 크고 후달 크고 구시월에 황천 가지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⑫

모야 모야 노랑모여 니 언제 커서 화성할래

이달 크고 훗달 크고 칠팔월에 화성하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부적(여, 86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⑬

모야 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이달 크고 훗달 크면 구시월에 환승할래  
(어이! 못줄 넘가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덕순(여,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8월 26일 채록

⑭

이 논배미 모를 숨가 언제 커여 장성할꼬  
이달 크고 훗달 크고 구시월에 장성하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갑순(여, 9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⑮

모야 모야 노랑모야 너 언제 커서 영화 볼래  
오월 유월 두달 커서 칠팔월에 영화 본다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잔잎이 나와 영화로다

신의근(남, 66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 4. 아침이슬 채전밭에

①

아침이슬 채전<sup>31</sup>밭에 눈매 고운 저 큰아가  
누 간장을 녹일라고 눈매조차 저리 곱노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여환순(여, 79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아츰이슬 채전밭에 눈매 곱운 저 처녀야  
누 간장을 녹일라고 눈매조창 저리 곱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③

아츰이슬 채전밭에 눈매 고운 저 처자야  
누 간장을 녹일라고 눈매조창 저리 곱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④

아침이슬 채전밭에 눈매 곰운 저 처녀야

31 채전(菜田)은 채소밭을 이른다.

누 간장을 녹힐라꼬 그다지 곱게 생겼는가  
(요거는 아침에 카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덕순(여,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8월 26일 채록

⑤

아측<sup>32</sup>이슬 채전밭에 부릿대<sup>33</sup> 꺾는 저 큰아가  
누 간장을 녹힐라꼬 눈매조창 저리 곱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⑥

아첨이<sup>34</sup>슬 채전밭에 부릿대 꺾는 저 큰아가  
잎을랑 훑어서 광주리다 담고 줄기 한쌍 나를 줌세

류종목 조사  
유영준(남, 58세, 삼문동) 제보  
1981년 채록

⑦

아침이<sup>35</sup>슬 채전밭에 부릇대 끊는 저 큰아가  
잎을랑 훑어 광주리 담고 줄길랑 끊어 나를 주소

임동권, 『한국민요집』 II(집문당, 1974)

32 아침의 지역말로 아첨, 아츰이라고도 한다.

33 부루는 상추의 지역말. 부릇대는 상춧대를 말하며, 부리똥이라고도 한다.

(8)

아침이슬 채전밭에 부리똥 꺾는 저 큰아가  
꺾던 부리똥 제끼두고 고개만 살콤 들어보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명필수(여, 78세, 하남읍 수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9)

아침이슬 채전밭에 부릇대 끊은 저 큰아가  
잎을랑 훑어 광주리 담고 줄길랑 훑어 나를 주소  
에야디야 에야디야 상사디야  
에야디야 에야디야 상사디야

이상정(남, 69세, 밀양읍 가곡동) 제보

(10)

아죽이슬 찬이슬에 상추 뜯는 저 큰아가  
잎을랑 뚝 따서 광지리 담고 줄길랑 한쌍 나를 주소  
(총각처녀캉 연애 걸라꼬 안 카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⑪

아침이슬 상추밭에 상추 뜯는 저 큰악아  
잎을랑 뜯어 광주리 담고 줄기는 한쌍 나를 주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⑫

아침이슬 채전밭에 부리똥 꺾는 저 처녀야  
인물이사 좋다마는 상물<sup>34</sup>이라 못 씨겠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복순(여, 81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⑬

아츰<sup>35</sup>이슬 채전밭에 부릇대 꺾는 저 큰아가  
인물이사 좋지마는 상물이라 못 쓸레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정자(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⑭

아츰이슬 채진밭에 부릇대 꺾는 저 큰아가  
부릇대 한 삼 좋지마는 홍당목 처매<sup>36</sup> 어룽진다

34 천한 집안 사람이라는 뜻인 듯하다.

35 아침의 지역말

36 처마의 지역말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5. 알곰삼삼 고운 독에

①

알곰삼삼<sup>37</sup> 곱운 독에 누룩을 질러 청감주<sup>38</sup>야  
팔모로 깎았다 유리잔에 나비야 한쌍 권주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하늬(여, 82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알곰아삼삼 곰운 독에 누룩을 빚어 청감조야  
팔모로 깎았다 유리잔에 나비 한쌍 춤을 추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알곰아삼삼 곰운 독에 누룩을 비비<sup>39</sup> 청감주라

37 알곰삼삼을 귀엽게 이르는 말로, 잘고 얇게 얹은 자국이 드문드문 있는 모양을 이른다.

38 찹쌀을 쪘서 누룩가루와 청주를 넣고 발효시켜 빚은 조선시대부터의 전통술로, 빛깔이 맑고 깨끗하여 청감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39 비벼(어떤 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어 한데 버무려)

기림<sup>40</sup>을 기렸다 유리잔에 처니<sup>41</sup>야 한쌍 권주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복순(여, 81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4)

알구마삼삼 곱은 독에 누룩을 비벼 청감주야  
기림을 기렸다 유리잔에 나비야 한쌍 권주나 하소

백입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5)

알곰삼삼 곰운 독에 누룩을 섞어 청감주요  
팔모로 기렸다 유리잔에 나비 한쌍 권주하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6)

알곰아삼삼 곱우나 단지 누룩을 질러 청감주요  
(참 맛있겠다. 이놈우 자슥)  
팔모로 깎았다 백유리잔에 나부<sup>42</sup>야 한쌍 춤을 추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40 그림의 지역말  
41 처녀의 지역말  
42 나비의 지역말

박덕순(여,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8월 26일 채록

(7)

알구마삼삼 곱은 독에 누룩을 디뎌 청감주요  
꽃을 기렸다 유리잔에 나비야 한쌍 권주한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 (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8)

알곰삼삼 곱은 독에 누룩을 넣어 청감주요  
꽃을 그렸다 유리잔에 나위 한쌍 건주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9)

알곰삼삼 곰은 독에 누룩을 디딘 청감주야  
꽃을 기렸다 유리잔에 권주 한상 나를 줌세

류종목, 성재옥 조사  
유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10)

알구마삼삼 고운 독에 누룩을 버물러 청감주야  
팔모로 깎았다 유리잔에 나비야 한쌍 권주한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립(여, 71세),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⑪

알곰삼삼 곱은 처지 누룩을 질렀다 청강주야  
팔모로 깎았다 유리잔에 나비야 한쌍 권주배야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남이(여, 69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⑫

알고마삼사 곱은 독에 꽃을 띠어 배화주라  
기름을 기렸다 유루잔에 청천 나위<sup>43</sup> 권주하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⑬

알구마삼삼 고운 독에 술을 빚어 청감주라  
금붕어 잡아 회쳐놓고 춘향이 불러 술 부어라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43 나비의 지역말

⑯

진주야 덕산 얹은 독에 수절해여서 금청주요  
팔모로 깎은 유리잔은 나비 한 쌍이 건주로 한다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6. 금실금실 영화로다

①

이 논배미에 모를 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숨가 영화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이 논뺨에다 모를 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시화연풍 조활이는 우리 마을 영화로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묘<sup>44</sup>이 훨훨 영화로다

44 장잎은 벚과에 딸린 곡식의 맨 나중에 나오는 잎으로, 이 잎이 나온 뒤에 이삭이 나온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심어 정자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이 논빼미<sup>45</sup>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심어 영화로다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⑤

이 논배미 모를 숭거 장잎이 피어 이들이들<sup>46</sup>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숭가 영화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7세, 교동) 제보  
2009년 7월 27일 채록

⑥

이 논뺨에다 모를 심어 잔잎이 훨훨 영화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땅에 솔을 심어 영화로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45 논배미의 지역말

46 번들번들 윤기가 돌고 부들부들한 모양

(7)

이 논배미다 모를 심거 잔잎이 훨훨 장할소나  
이 논 임자가 아들 두혀 갓을 씌워 영화로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8)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잎이 나와 영화로다  
삼대독자 외동아들 갓을 씌워 영화로다

이소라 조사  
신의근(남, 94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9)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잎이 너버서 장화47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심거 장화로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10)

서마지기 모를 송거 모를 송거 영화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송거 영화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47 장화(長華). 오래도록 영화를 누린다는 뜻인 듯하다.

⑪

서마지기 이 논

```
bbb
```

에 모를 심어 영화로다  
우리 형제 칠형젠데 갓을 시워 영화로다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⑫

이 논에다 모를 숭가 잎이 넓어도 정자48로다  
우리야 부모님 선산 등에 솔을 숨가도 정자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⑬

바다 곁은 이 논빼미 모를 숨가 영화로다  
우리 부모 산소등에 솔을 심어 영화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⑭

바대야 곁은 이 논빼미 모를 심어 불정자로다  
우리야 부모님 선산 등에 솔을 숨가 정자로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48 모심기 노래는 지역에 따라 등지, 모등지, 정지, 정자, 모정자라 부르기도 한다.

## 7. 모시적삼 안섶 안에

①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분통 걸은 저 젖 보소  
많이 보면 병날 끼고 쌀낱<sup>49</sup>만치만 보고 가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배필조(여, 77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분통 같은 저 젖 봐라  
많이 보면 병날 끼고 싸래기만큼만 보고 가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명팔수(여, 78세, 하남읍 수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③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연적<sup>50</sup> 걸은 저 젖 보소  
많이 보면 빙<sup>51</sup>날 끼고 쌀낱만치만 보고 가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상조(여, 73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49 쌀 한 틀

50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 두는 그릇

51 병의 지역말

(4)

모시적삼 한소바리 햄박꽃이 두던하네  
많이 보면 빛날 끼고<sup>52</sup> 사랑마추만 보고 가소

임동권, 『한국 민요집』 IV(집문당, 1979)

(5)

한삼모시 새 적삼에 연꽃 같은 저 젖 바라  
많이 보면 병날 개고 쌀알만큼 보고 보소

이상정(남, 69세, 가곡동) 제보

(6)

아춤이슬 채전밭에 분통 겉은 저 젖 봐라  
많이 보면 병만 나고 쌀날만치 보고 가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일선(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7)

모수적삼 안적삼에 연적 겉은 저 젖 보소  
많이 보면 병이 나니 담배씨만큼 보고 가소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52 병날 끼고의 오기로 보인다.

(8)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분통 걸은 저 젖 봐라  
그 젖을 보고 탐내다가 영결종천<sup>53</sup> 귀양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9)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연적 걸은 저 젖 봐라  
그 저 젖을 보고서 넘노다가 영결종천 귀양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10)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연적 걸은 젖을 봐라  
그 젖 한번 쥐었으면 영길종천 귀양 가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11)

모시적삼 흰적삼에 백옥 같은 저 젖 보소  
누 간장을 녹힐라고 저렇게도 잘생있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53 영결종천(永訣終天)은 죽어서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이다.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⑫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연적 겉은 저 젖 봐라  
오미가미<sup>54</sup> 빛만 비이고<sup>55</sup> 대장부 간장 다 녹힌다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중립(남, 57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⑬

모수적삼 안섶 안에 분통 같은 저 젖 보소  
그 젖 한번 덥석 잡으면 백년기한 이어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8. 낭창낭창 벼랑 끝에

①

낭창낭창<sup>56</sup> 저 베륵<sup>57</sup> 끝에 무정하다 울 오랍<sup>58</sup>아

54 오며 가며

55 보이고

56 가늘고 긴 막대기나 줄 따위가 자꾸 조금 탄력 있게 흔들리는 모양

57 벼랑의 지역말

58 오라비의 준말

나도 죽어서 후승에 가서 낭군님 한번 심기<sup>59</sup>볼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하선(여,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②

낭창낭창 베루<sup>60</sup> 끝에 무정하다 저 오람아  
나도야 죽어서 후승 가서 낭군님 한번 심기볼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무순(여, 7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낭창낭창 베루 끝에 무정하다 저 오람아  
나도 죽어서 후생 가서 처자권속 섬기볼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경덕(여, 89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남창남창 배루 끝에 무정하다 울 오람아  
나도 죽어 남자가 되어 처자 한번 시기볼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59 섬거  
60 벼랑의 지역말

2010년 7월 6일 채록

(5)

낭창해창 베루 끝에 무정하다 울 오랍아  
나도 죽어서 남자 되여 처자부터 섬길라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정철(남, 77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6)

낭창낭창 저 베루 끝에 무정하는 울 오래비<sup>61</sup>  
(마누라캉 동생캉 빠졌는데 동생을 먼저 안 건지고 마누래 건겼다꼬)  
나도야 죽어서 남자가 되여 처자군석 싱기볼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명말수(여, 78세, 하남읍 수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

남창남창 베루 끝에 무정하다 저 오랍아  
나도 죽어서 남자 되여 처자군신을 심기볼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보야(여, 84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61 오라비의 지역말로, 오라비는 오라버니의 낯춤말이다.

(8)

낭창복창 저 베루 끝에 무정하다 저 오랍아  
나도 죽어 남자가 되여 처자권속 섬기볼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배판세(여, 78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9)

낭창낭창 베루 끝에 무정하다 저 오랍아  
나도 죽어서 낭군이 되야 처자 한번 심기볼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수연(여, 80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10)

남창남창 베루 끝에 무정하는 저 오랍아  
나도 죽어서 황천가여 낭군님 한번 심기볼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최필조(여, 8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11)

낭창낭창 베루 끝에 무정하는 저 오랍아  
나도 죽어 황천 가서 처자권속 생기볼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배남도(여, 83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⑫

남창남창 벼루 끝에 무정하다 저 오라바  
나도 죽어 저승 가서 남자 한분 되볼란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9. 서울이라 왕대밭에

①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뼈들키<sup>62</sup>가 알을 낳여  
그 알 하나를 조왔시면 금년 과개<sup>63</sup>를 내가 할 구로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자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들키 알을 놓아  
그 알 하나만 내 주웠시면 금년 과개 내 할 꾸로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62 금비들기의 지역말

63 과거(科舉)

③

서월이라 왕대야 밭에 금비들키 알을 까네  
그 알 하나 날 쫓으면 금년 과개를 내 할 꼬데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덕순(여,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8월 26일 채록

④

서월이라 왕대밭에 은비들키 알을 낳네  
그 알 한개 나 쫓으면 금년 과개 내 할 꾸로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⑤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들키 알을 놓아  
그 알 하나만 내 주았시면 대통량도 내가 하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⑥

서월이라 금대밭에 금비들키가 알을 낳네  
그 알 하나 내 쫓으면 금년 과개는 내 할 꺼로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승기(여, 75세), 정하늬(여, 82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7)

서월이라 금대밭에 금비둘키 알을 낳아  
그 알 하나 나를 주면 올 가개는 내가 하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8)

서월이라 연대밭에 금빼들키 알을 낳와  
그 알 한 개 내 쫓으믄 금년 가개 내 할 구로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9)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키 알을 나여  
그 알 한 개 주웠으면 과개간장<sup>64</sup> 하건마는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 (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10)

서울이라 금대밭에 금비둘키 알을 나아

64 과거급제를 말하는 듯하다.

그 알 한쌍 나를 주었으만 금년 가기 내 할 킨데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⑪

서울이라 큰 대밭에 금비들기 알을 나여  
그 알 한 개 낸 주시면 금년 과게 내 할 거로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10. 명주바지 잔줄바지

①

명주바지 전줄바지<sup>65</sup> 몯 다 입고 황천 가네  
칠십에 난 부모로 두고 황천 가는 날만<sup>66</sup> 하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명지<sup>67</sup>야 바지 잔줄바지 몯 다야 입고 황천 가네

65 잔줄바지. 잘게 주름이 잡힌 바지

66 나 같기만

칠십 나는 노부모 두고 황천 가는 날만 하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복순(여, 81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명주야 바지 잔줄바지 몯 다 벗고 황천 가네  
칠십에 나는 노부모 두고 황천 가는 날만 하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무순(여, 7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명주바지 잔주름에 못 다 입고 황천 가네  
칠십에 나는 노부모 두고 황천 가는 날만 하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⑤

명주야 바지는 잔줄바지 몯다 입고 니 어데 가노  
칠십에 나는 노부모 두고 황천 가는 날만 하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67 명주(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의 지역말

(6)

명주바지 잔줄바지 몯 다 입고 어데 가노  
칠십에 나는 부모를 두고 황천 가는 날만 하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7)

명주바지 잔줄바지 몯 다 입고 황천 가네  
칠십에 나는 노부모 두고 황천 말이 웬말이고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 (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8)

명지바지 호주바지 못 다 입고 저승 가네  
칠십에 난 부모님 두고 가는 내 맘이 오즉<sup>68</sup> 하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정수(여, 80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9)

명지바지 잔줄바지 몯 다 입고 황천 갔네  
팔십 난 노부모 두고 황천 갈 길 내만하나

68 오즉

류종목, 성재옥 조사  
류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⑩

명지바지 잔줄바지 어데 첹이 다 뉘웠소<sup>69</sup>  
서울 첹은 줄을놓 고 진주 첹이 다 뉘웠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1. 알곰삼삼 고운 처녀

①

알곰삼삼 곱운 처지 물명당<sup>70</sup> 넘에 넘나드네  
오명가명<sup>71</sup> 빛만 보고 대장부 간장 다 녹는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②

알곰삼삼 곱운 처녀 이 남산골을 넘나드네  
오면가면 빛만 비고 대장부 간장 다 녹힌다

69 누비다의 지역말로,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죽죽 지게 박다는 뜻이다.

70 물명당. 풍수에서 명당자리 중 물길이 막혀 물이 찬 곳을 일러 물명당이라 한다.

71 ‘오면 가면’의 지역말로, 오면서 가면서라는 뜻이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알곰삼삼 고운 처녀 사이 골짝 넘나드니  
날면 보고 들면 봐도 대장부 간장 다 녹이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④

알곰삼삼 곱은 처녀 동산리<sup>72</sup> 고개 넘나든다  
오면가면 빛만 띠고 대장부 간장 다 녹인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⑤

월숨아삼삼 곱운 처녀 달순이 고개 넘나드네  
오민가민 빛만 비고 대장부 간장 다 녹힌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72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배죽의 남쪽 들 가운데 서쪽 야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

(6)

알곰삼삼 곱은 쳐자 달꿩이 고개로 넘어간다  
오미가미 빛만 뷔고 대장부 간장 다 녹힌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7)

알구마삼삼 곱은 쳐녀 달평대 고개 넘나든다  
가미오미 빛만 비이고 대장부 간장 다 녹이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8)

알랑살랑 고운 쳐녀 동산이 고개 넘나든다  
오민가민 빛만 비고 대장부 간장 다 녹힌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9)

머리도 좋고 실한 쳐지 위남산 고개 넘나드네  
오미가미 빛만 비고 대장부 간장 다 녹인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⑩

머리야 좋고 실한 쳐녀 달산리 고개로 넘나드네  
오면가면 빛만 뷔고 대장부 간장 다 녹이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12. 쳐녀 둘이 도망가네

①

유월이라 새벽달에 쳐녀 둘이 도망가네  
석 자 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 뒤따리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유월이라 새벽달에 쳐녀 둘이 난질<sup>73</sup>가네  
석 자 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 뒤따리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73 여자가 정을 통한 남자와 도망하는 것

③

유월이라 새빛달에 쳐자가 둘이 난질가네  
유월이라 새빛달에 총각 둘이가 찾어간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④

새벽바람 찬바람에 쳐녀 둘이가 난질가네  
석 자야 수건을 목에 걸고 총각 둘이가 뒤따리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경희(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⑤

새벽달 찬바람에 쳐녀 둘이가 도망을 간다  
석자야 수건을 목에 걸고 총각 둘이가 뒤따리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⑥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쳐녀 둘이가 도망가네  
석자 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가 따라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7)

총각아 둘이 석 자 수건 뻥 틀어쥐고 도망가네  
해 다지고 저문 날에 처녀가 서이<sup>74</sup>가 뒤따르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최필조(여, 8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8)

석자야 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 난질가네  
머리 좋고 실한 처자 총각 뒤를 따라간다

류종목, 성재우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9)

저녁을 묵고 썹 나서니 처자가 둘이 활량이네  
석 자 수건을 목에 걸고 총각 둘이가 찾어간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10)

허리야 능청 키 큰 처자 달빛 고개 넘놀 적에  
명사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 뛰따리네

74 셋의 지역말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이순학(여, 81세), 이쾌남(여, 67세), 배차순(여, 50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13. 잡나락이 절반이네]

①

이 눈빼미 모를 숨가 잡나락이 반치<sup>75</sup>로다  
등 님에다 첨을 두고 첨의 자식이 반치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이 눈배미 모를 숨어 잡나락이 반치로다  
등 님에다 첨을 두고 잡사람이 반치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이 눈빼미다 모를 숨거 잡나락이 반치로다  
둘<sup>76</sup> 넘에다 첨을 두고 잡사람이 반칠레라

75 반의 지역말

76 둑(높은 길을 내거나,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쌓은 언덕)의 지역말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④

이 논에다 모를 심어 잡나락이 절반이네  
등 넘에다 첨을 두고 첨우야 자식이 절반이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⑤

한제<sup>77</sup>야 나락 모를 부어 잡나락<sup>78</sup>이 절반이다  
독 넘에다 첨을 두니 잡사람이 절반이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⑥

한제야 한 섬 모를 부여 잡나래기 절반이네  
등 너메다가 첨을 두혀 잡사람이 절반일래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77 환자(還子)한 벼. '환자'는 나라에서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이자를 받아 거두던 일로, 달리 '환곡(還穀)'이라고도 한다.  
78 나락은 벼의 지역말

(7)

한제야 한 섬 모를 부여 잡나락이 반치로세  
등 넘에다 첨을 두어 잡사람이 반치로세

류종목, 성재옥 조사  
류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8)

한재 한 섬 모를 부여 잡나락이 반치로다  
성안에다 첨을 두니 기생첩이 절반이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립(여, 71세),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9)

이 논빼미 모를 심어 잡나락이 반치로네  
득남해라 첨을 둔디 기생첩이 반치로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10)

산전 논에다 모를 부여 잡나락이 절반이다  
등 넘에다 첨을 두고 첨의 자식 절반이다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14. 다풀다풀 다박머리

①

다풀다풀 다박머리<sup>79</sup> 해 다 진데 니 어데 가노  
우리야 어머니 산소등에 젖 둑으로 나는 가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다풀다풀 타박머리 해 다 전데 어디로 가노  
우리 엄마 산소등에 젖 도라꼬<sup>80</sup> 내가 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분주(여, 87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③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 다 전데 어데 가노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젖 둑으러 나는 가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9 다보록한 머리털을 가진 아이

80 달라고

④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 다 전대 어데 가노  
저승길에다 부모를 잃고 부모 찾어 내가 가요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⑤

다박다박 다박머리 해 다 진데 어데 가노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젖 먹으러 내가 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⑥

개야 개야 다풀개야 해 다 진데 어데 가노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젖 먹으러 나는 가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⑦

타박타박 타박네야 해 다 진데 어디 가노  
우리야 엄마 산소등에 젖 먹으로 내가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조연재 (여, 76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8)

타박타박 타박네야 해 다 진데 어디 가노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젖 묵으로 나는 갈래  
산 높으다 가지 마오 물 깊으다 가지 마오  
물 깊으몬 헤아가고<sup>81</sup> 산 높으몬 기어 갈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선수(여, 75세, 산외면 금곡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9)

타풀타풀 타박머리 해 다진데 어디가나  
우리야 어머니 산소등에 젖 묵으로 나는 가요  
산 낭께서<sup>82</sup> 물이 나지 죽은 낭께서 물이 나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5. 풍당풍당 찰수제비

①

풍당풍당 수지비<sup>83</sup> 사우야 판<sup>84</sup>에 다 오르고

81 해엄쳐 가고. 헤다는 물속에 몸을 뜨게 하고 팔다리를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82 나무에서

83 수제비의 지역말

84 상의 지역말

요노무 할미 어디 가고 딸애 동재<sup>85</sup> 시깃던고<sup>86</sup>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무임(여, 63세, 산외면 금곡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2)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 상에 다 올랐네  
우리 집에 할마이 어디로 가고 사우야 상에 다 올랐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순덕(여, 74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3)

퐁당퐁당 수지비 사우 판에 다올랐네  
요노무 할마시<sup>87</sup> 어디 가고 딸년 동재 시켰던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4)

퐁당퐁당 수지비는 사우 판에 다 올랐노  
요노무 할마이 어디 가고 딸로 동개 맷기놨노

85 동재(同齋)는 절에서 밥을 짓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집에서 밥을 짓는 것을 일컫는다.

86 시켰던고. 시기다는 시기다의 옛말이다.

87 할머니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5)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할마이는 어디 가고 딸이 동재 시켰던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강임덕(여, 74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6)

퐁당퐁당 수지비 사우판에 다 올랐네  
장모 할마이 어데 가고 딸로 동재 시켰던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자, 조정효 조사  
김정수(여, 80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7)

할마시는 어데로 가고 딸을 동께 시켰던고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8)

담방담방<sup>88</sup> 밀소지기<sup>89</sup>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88 작고 가벼운 물건이 잇따라 물에 떨어져 잠기는 소리 또는 작고 가벼운 물건이 여럿이 다 물에 약간 잠겼다가 뜨는 모양

우리 임은 어디로 가구 사우 판에 다 올랐노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9)

퐁당퐁당 수지비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요놈으 할마이 어데 가고 딸로 동재 시켰더노  
배부르다 소리는 몯 하고 배만 실실 씨답네  
부르다 소리는 몯 하고 입만 짹짜 벌리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16. 유월이라 두 달인데

①

유월이라 두 달인데 첨으야 팔아서 부채 샀디이  
구시월이 닥쳤던가 첨우야 생각 절로 나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하선(여,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89 밀수제비(수제비와 같은 말)

②

유월달이 두 달인데 첨을 팔아 부채 사고  
구시월이 닥치오니 첨우 생각 절로 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③

유월이라 두 달인데 첨을 팔아 부채 살래  
구시월이 닥쳤는가 첨의 생각이 절로 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유월달이 두 달인가 첨을 팔아 부채 살까  
구시월이 닥쳐오니 첨우 생각 절로 난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⑤

유월달이 두 달이믄 첨우야 팔아 부치<sup>90</sup> 사자  
이달 가고 흙달 가고 구시월이 닥치오믄 첨으야 생각 절로 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90 부채의 지역말

이영애(여, 78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6)

유월달이 두 달인강 첨을 팔아서 부치 산다  
칠팔월이 닥치오니 첨우 생각이 절로 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7)

유월이라 두 달이라 첨우 팔아 부채 사고  
칠팔월이 닥쳤는강 첨우 생각이 절로 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8)

유월달이 두 달일런가 첨을 팔아 부채 삼네  
칠팔월이 닥쳤는가 첨우 생각 간절하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9)

유월이라 두 달이든 첨을 팔아 부치 사지

동지선달 다가오니 첨우야 생각 절로 난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남이(여, 69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17. 찔레꽃을 살콤 데쳐

①

찔레야 꽃을 살콤<sup>91</sup> 데쳐 임오야 보선 볼<sup>92</sup>을 걸어  
임을 보고 보선을 보니 임 줄 정이 절로 없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②

찔레야 꽃을 살꼼 데쳐 임오야 보선 볼 걸어라  
임을 보고 보선 보니 임 줄 생각 전연 없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명필수(여, 78세, 하남읍 수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91 살깎의 지역말

92 ‘볼’은 벼선 밑바닥의 앞뒤에 대는 헝겊조각으로, 헝겊을 덧대는 것을 ‘볼 받는다’고 한다.

③

찔레야 꽃을 살콤 데치 임오야 버선 볼을 걸어  
임을 보고 버선 보니 버선 주자 맘이 없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하선(여,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④

찔레야 꽃을 살콤 데치 임에야 보선에 잔 볼 걸자  
임을 보고 보선 보니 임 줄 생각이 전혀 없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⑤

찔레야 꽃을 살콤 데쳐 임으야 버선 볼을 걸어  
버선 보고 임을 보니 임 줄 정이 정히 없네  
(임이 아주 못나 놓인꺼너 그 버선 줄 정이 없더란다. 하하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⑥

찔레야 꽃을 살쿠마 뒤쳐 임오야 버신 볼을 걸어  
버신<sup>93</sup> 보고 임을 보니 임 줄 뜻이 전히 없네

93 버선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7세, 교동) 제보  
2009년 7월 27일 채록

(7)

찔레야 꽃을 살콤 데쳐 님오의 버선 볼 걸으자  
버선 보고 님을 보니 님 줄 생각 전혀 없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8)

찔레야 꽃으로 살콤아 데쳐 임오야 판에 두었더니  
임오님 하는 말쌈 이 꽃은 어데서 왔노  
정든 님 줄라꼬 데쳤이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8. 머리 좋고 실한 처녀

①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올뱅낭게<sup>94</sup> 앓아 우네  
울뱅 줄뱅 내 따줄게 백년해로 내캉 사세

94 올뱅나무. ‘올뱅’은 다른 것보다 잎이 빨리 피는 뱅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②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울뽕낳게 앉아 우네  
울뽕 달뽕 내 따주마 백년하리 내캉 살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배필조(여, 77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머리야 좋고서 키 큰 처녀 울뽕낳게 앉아 우네  
울뽕 갈뽕은 내 따주마 백년가약은 내캉 살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줄뽕낳게 앉았구나  
울뽕 줄뽕 내 따줄게 백년하고 내캉 살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선조(여, 72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⑤

머리야 좋고 실한 처녀 울뽕낳게 앉아 운다

울뽕 줄뽕 내 따주께 요내 품에 잠들거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보야(여, 84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6)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올뽕낳게서 앓아 우네  
올뽕 갈뽕 내 따주께 내 품안에 잠 들거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7)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올뽕낳게 앓아 우네  
올뽕 줄뽕 내 따줄게 살림살이 내캉 하세

이상정(남, 69세, 가곡동) 제보

(8)

머리야 좋고 실한 처자 올뽕낡에 슬피우네  
울뽕 줄뽕 내 따줌세 백년계약 내캉 살자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순기(여, 60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4일 채록

## 19. 저기 가는 저 구름은

①

저게 가는 저 구름은 어떤 신선이 타고 가노  
옹천(熊川) 하고 천자봉에 노던 신선이 타고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소연(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저게 가는 저 구름 속에 어떤 신선이 타고 가나  
옹천 하고 천자봉에 놀던 신선이 타고 가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입서(여, 77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③

저게 가는 저 구름은 어떠나 신선 타고가노  
옹천 하고 천자봉에 놀더나 신선 타고 간다

류종목, 성재우 조사  
안차립(여, 71세),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④

저게 가는 저 구름에 어떤 신선 타고 가노  
옹천 하고 순자봉에 노던 신선 타고 가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5)

저게 가는 저 구름은 어데 신선 타고 가노  
영천 하고 천자봉에 노던 신선 타고 가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6)

저게 가는 저 구름은 어데 신선이 타고 가요  
명천 하고 천자봉에 노던 신선이 타고 가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

저게 가는 저 구름아 어데 신선 타고 가노  
신선 하고 처녀봉에 노던 신선 타고 가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8)

저게 가는 저 상주는 어데 신선을 타고 가노

웅천 하고도 천자봉에 노던 신선을 타고 가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 20. 남창 북창 열고 보니

①

남창북창<sup>95</sup> 열고 보니 구월이 단풍 꽃밭일세  
꽃밭 속에는 나비가 놀고 구름 속에는 신선이 논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남창북창 열고 보니 구월이라 단풍 꽃밭이라  
꽃밭 속에 나비 놀고 구름 속에 신선 노네

이소라 조사  
신의근(남, 94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③

남창북창 열고 보니 구월이 단풍 꽃밭이네  
꽃밭 앞에는 나비가 놀고 나비 앞에는 신선이 논다

95 남창북창(南窓北窓). 남쪽과 북쪽으로 나 있는 창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④

남창북창 열고 보니 구월국화 꽃밭이다  
꽃밭 속에 나비 놀고 구름 우에 신선이 논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⑤

남창문 북창문 다 열어놓고 구월이 담상 꽃밭일세  
꽃밭 속에는 나비가 놀고 나비 속에는 신선이 논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류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⑥

구월에 단풍이 피여 구월단풍 꽃밭이요  
꽃밭 속에 동자가 놓여 꽃밭 속에 신선이 논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⑦

남창북창 열고 보니 구월이 단풍 꽃밭일네  
꽃밭 안에는 나비가 놀고 나비 안에는 동자가 논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8)

남창북창 열고 보니 구월이 단풍 꽃밭일레  
꽃밭 앞에는 나비가 가고 나비야 앞에 동자가 논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21. 알쏭달쏭 유자 줌치

①

알수홍달수홍 유자 줌치<sup>96</sup> 대구 팔사(八絲)<sup>97</sup> 끈을 달아  
인지나 주까 저제나 주까 닦히 울어도 아니 준다

이소라 조사  
신의근(남, 94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②

알쏭달쏭<sup>98</sup> 무자 줌치<sup>99</sup> 대구야 팔사끈 달었네  
이제나 주까 주니나 주까 닦이 울어도 안 주더라

96 글자를 새겨 넣은 주머니. 줌치는 주머니의 지역말

97 대구팔사(帶鉤八絲). 허리띠 장식물에 매단 여덟 가지 색실로 끈 노끈

98 여러 가지 색깔이나 모양이 매우 복잡하게 뒤섞여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모양.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다운’의 뜻으로 쓰였다.

99 여러 색깔로 만든 글자를 새겨 넣지 않은 주머니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③

알쏭달쏭 무자 줌치 대구 팔아 끈을 같아  
인지 주까 전지 주까 날이 새도 아니 주네

임동권, 『한국민요집』 II(집문당, 1974)

④

알쏭달쏭 무자 줌치 대구 팔아 끈을 팔아  
인지 주까 전지 주까 날이 새도 안이 주내

이상정(남, 69세, 가곡동) 제보

⑤

알쏭달쏭 유자 줌치 행주 갓끈을 달아  
인지나 줄까 나주<sup>100</sup>나 줄까 달이 울어도 아니 주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⑥

알쏭달쏭 유자 줌치 이제나 주까 언제나 주까  
날이 새어도 아니 주네

100 나중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

알승달송 유자 줌치 인제나 줄까 저제나 줄까  
닭이 울어도 아니 주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8)

알승달송 유자 줌치 염당필랑101을 집었더니<sup>102</sup>  
그에 필랑 집을 제는 뒷집에 김도령 주실라꼬  
집은 필랑 아지락 깜짝 놀랬네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 22. 슬피 우는 송낙새야

(1)

이산 저산 양산 중에 실피<sup>103</sup> 우는 송낙새야

101 염낭과 필낭. 염낭은 허리에 차는 작은 주머니인 ‘두루주머니’를, 필낭(筆囊)은 ‘붓을 넣어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102 기웠더니

103 슬피

거제야 봉산<sup>104</sup> 어데 두고 야산 중에 실피 우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이산 저산 양산 중에 슬피 우는 송남새야  
너의 집은 어데 두고 야산 중에 앓아 우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③

이산 저산 양산 중에 실피 우는 송낙새야  
봉산을랑 어데 두고 여 산줄기 니가 우노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④

이산 저산 야산 중에 슬피 우는 송낙새야  
노랑모에 앓기가 되면 니 손목은 누가 잡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104 상록 침엽수로 유명한 거제(巨濟)의 봉산(封山)

(5)

이산 저산 야산 중에 슬퍼 우는 송나새야  
거지 봉산 어데 두고 야산 중에서 슬퍼 우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6)

이산 저산 야밤중에 슬퍼 우는 송락새야  
그지 봉산 어데 두고 야산 중에 슬퍼 우노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7)

새야 새야 종달새야 거지 봉산 어데다 두고  
야산 중에 실피 우노 야산 중에서 실피 우노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23. 찔레꽃은 장가가고

①

찔레꽃도 장가로 가고 석류야 꽃도 요객<sup>105</sup>을 간다

105 요객(繞客)은 혼인 때에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말한

만인간아 웃지를<sup>106</sup> 마소 천인간아 웃지를 마소  
씨종자를 바래서 간다<sup>107</sup>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손필희(여, 82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6일 채록

②

찔레야 꽃은 장가를 가고 석노꽃은 요각 간다  
만인간아 웃지를 따라 씨종재 바래서 내가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보야(여, 84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③

찔레꽃은 장가를 가고 석노꽃<sup>108</sup>은 배행(陪行)<sup>109</sup> 간다  
만인간아 웃지 따라 씨종재 바래 내가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④

찔레야 꽃은 요각 가고 석노야 꽃은 장개 간다  
만인간아 잇지 따라 씨종자 바래 내가 간다

다. 위요(圍繞), 상객(上客), 요객(繞客), 후배(後陪), 후행(後行)이라고도 한다.  
106 웃지를. 웃다는 웃다의 지역말

107 씨종자는 ‘씨’를 강조하는 말로, 자식두기를 바래서 간다는 뜻이다.

108 석류꽃

109 상객(上客)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최필조(여, 8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5)

찔레꽃은 시집을 가고 석노꽃은 요각 가네  
만인간아 웃지를 따라 씨종재 바래 내가 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말순(여, 81세, 상남면 평촌리) 제보  
2009년 7월 23일 채록

(6)

찔레꽃은 장개 가고 석류꽃은 상객 가네  
만인간아 웃지 따라 씨종자 하나 바래 간다

『경상남도지』 하(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7)

찔레야 꽂으는 장개를 가고 석류꽃은 요각 가네  
만인간아 웃지 마래이 씨종자 바래 내가 간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24. 우리 도련님 병이 나서

①

우리야 도련님 병환이 나서 순금씨 불러 배 깍아라  
순금씨라 깍은 배는 맛도 좋고 연할레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우리야 도련님 병환이 나서 순금씨 불러 배 깍아라  
순금씨라 깍안 배는 맛도 좋고 연할소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복순(여, 81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우리야 도련님 병환이 나서 순금씨 불러다 배 깍아라  
순금씨라 깍은 배는 맛도 좋고 연약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승기(여, 75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④

우리야 도련님 병환이 나서 정금씨야 배 깍아라  
정금씨라 깍안 배는 맛도 좋고 연할레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5)

애기야 도령님 병환이 나서 순금씨 불러 배 깎아라  
순금씨라 깎은 배는 맛도 좋고 연약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6)

아가야 도련님이 병환이 나서 순금씨 불러 배 깎아라  
순금씨라 깎안 배는 맛도 좋고 연할소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

우리야 서방님 병환이 나서 순금씨 불러다가 배 깎아라  
순금씨가 깎은 배는 맛도 좋고 연약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무임(여, 63세, 산외면 금곡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25. 반달만큼 남았구나

①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구나  
지가 무슨 반달이고 초생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양명숙(여, 70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②

서마지기 이 논배미 반달만치 남았구나  
지가 무슨 반달일까 초생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영철(남,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서마지기 이 논배미 반달같이 남았구나  
니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정철(남, 77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서마지기 요 논배미 반달 등실 떠오르네  
니가 무슨 반달이라 초생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차점(여, 79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⑤

서마지기 저 논배미이 반달 등등 떠들오네  
니가 무슨 반달이냥 초생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⑥

서마지기 논뱀이는 반달같이도 떠나간다  
네가 무슨 반달인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아래 웃논 모꾼들아  
우런 님은 길 떠날 때 춘삼월에 올라하더니  
춘삼월이 다 지내도 다시 올 줄을 모르더라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⑦

서마지기 이 논뺨이 반달같이 떠나간다  
지가 무슨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26. 장기판만큼 남았구나

①

바대<sup>110</sup>야 같은 이 모구자리<sup>111</sup> 장구야판<sup>112</sup>만침 남았구나  
장구야 판이사 좋다마는 둘 이 없어 못 두겠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순금(여, 9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바다야 같은 이 모구자리 장기판만치 남았구나  
장구판이야 좋다마는 둘 사람 없어 못 둔다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③

바대곁이 너른 모자리 장구판만침 남았구나  
장구판이야 좋다마는 장구 둘 이 전혀 없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110 바다의 지역말

111 볍씨를 뿌려 모를 기르는 놋자리의 지역말

112 장기판. 장구는 장기의 지역말

④

(아침에 지금 모찌는 노랜데요)

바대 같은 이 모구자리 장구판마침 남았구나

장구야 판이야 곱다마는 둘이 없어 못 두겠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최영규(남,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⑤

바대야 겉은 이 모구자리 장판만치 남았구나

장고야 하몬야 좋구마는 장구 돌 이가 없었구나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⑥

하그장<sup>113</sup> 같은 이 모구자리 장구판만치 남았구나

장구판이야 좋지만은 둘 이 없어 몯 두겠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배남도(여, 83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⑦

바디짱 겉은 모구자리 장구판마치 남았구나

113 화개장.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장. 경상도 하동과 전라도 구례를 잇는  
장으로 예전에는 1일, 6일에 열리는 5일장으로 다섯 손가락에 드는 큰 장이었으  
나, 지금은 상설장으로 변했다.

장기야 판이사 좋다마는 장기 둘 히 정히 없네

류종복 조사  
유영준(남, 58세, 삼문동) 제보  
1981년 채록

## 27. 영창문을 반만 열고

①

모래야 밭을 짹 같아서 물 들어오는 것 봐기 좋네  
영창<sup>114</sup>문을 반만 열고 임 들어오는 것 봐기 좋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모래야 논을 살콩<sup>115</sup> 갈아 물 덜어오는<sup>116</sup> 거 보기 좋네  
영창문을 반만 열고 임 들어오는 거 보기 좋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③

114 영창(映窓門)은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방과 마루 사이에 낸 두 쪽의 미닫이로, 영창이라고도 한다.

115 살깎의 지역말

116 들어오는

요래 논을 썩 갈아서 물 들오난 것 보기 좋고  
영창문을 반만 열고 임 들오난 것 보기 좋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남이(여, 69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④

영창문을 반만 열고 임 들어오는 것 보기 좋네  
모래야 논을 썩 갈아서 물 들어오는 것 보기 좋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⑤

유리야 영창 반만 열고 임 들어오는 거 보기 좋다  
서마지기 논배미에 물 들어가는 거 보기 좋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⑥

천수답<sup>117</sup>을 담삭<sup>118</sup> 갈아 물드는 것 보기 좋다  
영창문을 반만 열어 임오는 것 보기 좋다

117 천수답(天水畠)은 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으로, 봉답, 봉천답, 천봉답(天奉畠), 하늘바라기, 천둥지기라고도 한다.

118 담싹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7)

남산 밑에다 논을 쳐서 수양대벼들 흠을 대네  
봉답 봉답 천봉답에 물들어가니 보기 좋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28. 연줄 가네 연줄 가네

①

연줄 가네 연줄 가네 해달 따리 연줄 가네  
그 연줄을 따라가면 부모형제 보려려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연줄 가네 연줄 가네 해 다진데 연줄 가네  
그 연줄로 따라가만 황천 가신 우리부모 만내려나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수연(여, 65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③

연줄 가자 연줄 가자 해달 따로 연줄 가자  
저 연줄로 따라가몬 부모형제 만날꺼로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④

연줄 가자 연줄 가자 해달 따로 연줄가자  
그 연줄로 따라가면 그리던 부모형제 만나보지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⑤

연줄 걸자 연줄 걸어 유달산 밑으로 연줄 걸어  
이 연줄로 따라가면 부모형지 만나본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천병수(남, 77세, 부북면 무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⑥

연줄 거네 연줄 거네 해달 따라 연줄 거네  
저 연줄을 따라가면 부모처자 다 만나리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7)

연설 가네 연설 가네 해달로 따라 연설 가네  
그 연줄을 따라나가면 부모야 형지를 만나보재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29. 연약한 부시로 땔깍 쳐서

①

연약한 부새<sup>119</sup>로 다달깍 쳐서 담배 한대 피와보자  
담배맛이 요만하면 살림에 맛이 어떻겠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정자(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연약 부시로 땔각 쳐서 담배나 한 목음 먹어보자  
담배야 맛이 요만할 때 살림 맛이야 오죽하랴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119 부시의 지역말로, 부싯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첫조각을 말한다.

③

(o) 사람들아 한대 끊고 합시다이)

연한 부시를 탈깍 쳐서 담배 한대 먹어보자

담배 맛이 이럴진데 살림의 맛은 오죽하리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최영규(남,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④

연역한 부시로 탈깍 쳐서 씬 담배 한대 먹어나 보자

담배야 맛이야 요럴진대 살림의 맛은 어띠하리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⑤

연약한 부쇠 다달가 쳐여120 담배 한대 끊어보자

담배야 맛이사 좋건마는 살림 맛은 어떻겠노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 (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⑥

연약한 부시로 떨깍 쳐서 담배 한대 불 걸어라

담배 맛이 요만하면 살림 맛은 오죽할까

120 따달깍 쳐서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7)

연초<sup>121</sup>캉 부시로 달각<sup>122</sup> 켜서 담배 한대 푸어보자  
담배 맛이 요럴진데 살림 맛은 오죽하리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조수환(남, 79세, 연금리 이연) 제보  
1981년 1월 14일 채록

### 30. 서울이라 나무 없어

①

서월이라 낭기 없어 시체바늘 연목(椽木)<sup>123</sup> 거네  
서월이라 흘<sup>124</sup>키 없어 연지분<sup>125</sup>을 되배<sup>126</sup>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121 연초(煙草)는 담배를 이른다.

122 달가닥의 준말로,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를 말한다.

123 시침바늘로 서까래를 거네. ‘시침바늘’은 천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질하는 바늘이고, 연목(椽木)은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인 ‘서까래’를 이르는 말이다.

124 흘의 지역말

125 볼연지와 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

126 도배의 지역말

(2)

서울이라 낭기 없어 시침바늘<sup>127</sup> 연목 거네  
서울이라 흙키 없어 연지분을 대복하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3)

서울에는 낭기 없어 시침바늘 엿먹으자<sup>128</sup>  
서울에는 흙이 없어 연지분을 대비하자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4)

서울이라 낭기 없어 시침밥을 석가래 거네  
서울이라 흙이 없어 연지분을 벽 바르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5)

서월이라 낭기 없어 죽천바늘 연목 거네  
서월이라 흙키 없어 연지분통 되배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배남도(여, 83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127 천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시침질할 때 꽂아 두는 바늘

128 연목 결자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6)

서울에는 나무가 없어 죽절비녀로 다리 놓네  
서울에는 흙이 없어 연지분으로 도배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7)

서울이라 냇이 없어  
굵은 바늘 지동<sup>129</sup>하고 시침바늘 연못 걸고  
서울이라 흙이 없어 연지분을 알매<sup>130</sup>쳤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31. 임이 죽어서 연자 되어

(1)

임이 죽어서 연자(燕子)<sup>131</sup>가 되어 처마 끝에 집을 지어  
들면 보고 날면 봐도 임인 줄을 내 몰랐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원말연(여, 77세, 삼랑진읍 검세리 송원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129 기둥의 지역말

130 기와를 이을 때 산자(榪子) 위에 이겨서 끼는 흙

131 제비

②

우리 님 죽어서 연자 되어 쳐마 끝에 집을 짓네  
날민 보고 들민 봐도 임인 줄을 내 몰랐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③

임이 죽어서 연자가 되어 쳐마 밑에 집을 지어  
날민 보고 들민 보고 임인 줄로 몰라주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임이 죽어서 연자가 되어 춘새<sup>132</sup> 끝에다 집을 지어  
들면 보고 날면 봐도 임인 줄은 내 몰랐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⑤

니가 죽어서 연자가 되어 춘새 끝에 집을 짓네  
날면 보고 들면 봐도 임이 간 줄 제 몰랐네

132 추녀의 지역말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중립(남, 57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⑥

님이 죽어여 연자가 되여 쳐마 끝에 앓아 우네  
날민 보고 들민 보고 임 오신 줄 내가 아나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32. 저기 가는 저 구름에

①

저기 가는 저 구름은 눈 들었나 비 들었나  
눈도 비도 아니 들고 소리명창 내 들었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하뇌(여, 82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저게 가는 저 구름 속에 눈 들었나 비 들었나  
눈도 비도 아니 들고 소리명창 내 들었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③

저게 가는 저 구름은 눈 들었나 비 들었나  
눈도 비도 아니 들고 노래명창이 내 들었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저기 가는 저 구름에 눈 들었나 비 들었나  
비도 눈도 아니 들고 소리밍창 내 들었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문덕일(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⑤

저게 가는 저 구름에 눈 들었나 비 들었나  
비 안 들고 눈 안 들고 소리명창 내 들었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⑥

저게 가는 저 구름은 눈 실었나 비 실었나  
눈도 비도 아니 싣고 칠성당을 모시가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배남도(여, 83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 33. 서울 갔던 선비님요

①

(청중: 칠성관<sup>133</sup>에 실리 오네. 그거 해 주이소.)

서월 갔던 선보<sup>134</sup>님요 우리 선보 안 오던가

오기사 오더마는 칠성관에 실려 오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서울 갔던 선비들아 우리야 서방님은 아니 오나

오기사요 오지마는 칠성관에 누워 오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서울 갔던 선비님아 우리 선비 안 오더나

오기사 온다마는 칠성관에 누워 오요

133 시체를 넣는 관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으로, 북두칠성을 본떠 일곱 개의 구멍을 뚫는데, 칠성(七星)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34 선비

쌍가마는 어디 두고 칠성판에 누워 오요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설병규(남, 75세, 무안면 판곡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서울 가는 선부님요 우리야 선부 안 오시나  
오기사 오지를마는 칠성판에라 실려 온다  
타고 가는 쌍가메를 어데라 두고 칠성판이 웬일인고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⑤

서울 갔던 선부들요 우리 선부 오시던게  
오기야 온다마는 칠성판에 실리 오네  
칠성판은 어디 두고 명정<sup>135</sup>대가 우얀 일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부적(여, 86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⑥

서울 갔던 선부님아 우리야 선부 안 오든가

135 명정(銘旌)은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를 말한다. 일정한 크기의 긴 천에 보통 다흥 바탕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 지낼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에 널 위에 평文书는다.

오기사도 오지만은 칠성판에 실리 오요  
쌍가맬랑 어데 두고 칠성판이 저 웬일고  
일산<sup>136</sup>맬랑 어디 두고 명정대가 저 웬일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34. 침자질하는 저 큰아가

①

서른시 칸 마루청에 침자질<sup>137</sup>하는 저 쳐녀야  
하던 침자질 제끼놓고 고개나 실콤 들어봐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서른세 칸 마리<sup>138</sup> 우에 침자질하는 저 큰아가  
침자질도 좋지마는 고개나 살금 들어보게

『경상남도지』 하(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136 일산(日傘)은 별을 가리기 위한 큰 비단 양산을 말한다.

137 바느질하고 수놓는 일

138 마루의 지역말

③

서른세 칸 마루청에 침자질하는 저 큰아가  
하던 침자질 젖혀놓고 고개만 살큼 돌아보소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④

서로나 세 칸에 청마리 끝에 침자질하는 저 큰아가  
하드나 침자질 제치놓고 고개나 살큼 들어나 보소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⑤

서른시 칸 계와<sup>139</sup> 집 밑에 침자질 하는 저 처녀야  
침자질야 바쁘나따나 고개나 한번 살꿈 들어보소  
침자질 하기도 바쁜데 고개들 여<sup>140</sup> 어데 있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⑥

서른세 칸 청마리에 침자질 하는 저 처녀야  
침자질도 좋다마는 고개나 살콤 들어보소

139 기와의 지역말

140 여유, 틈

양수장에서 손을 잡고 주천당<sup>141</sup> 모랭이<sup>142</sup> 나는 갈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35. 유자 탱자 의논 좋아

①

유자캉 탱주캉 의논이 좋아 한 꼭따리<sup>143</sup> 둘이 열고  
처녀캉 총각캉 의논이 좋아 한 비개<sup>144</sup>를 둘이 빈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유자캉 탱자캉 의논이 좋아 한 꼭지에 둘이 열고  
처녀 총각 의논이 좋아 한 베개에 둘이 비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141 주천당(酒泉堂).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팔조령 동쪽산 8부 능선에 있었다는 술이 나는 샘으로, 누구든 단 한 잔만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고 고개를 넘을 때 화도 당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한다.

142 모퉁이의 지역말

143 꼭지(잎이나 열매가 가지에 달려 있게 하는 짧은 줄기)의 지역말

144 베개의 지역말

(3)

유자 감자 근원이 좋아 한 꼭대기서 둘이 열고  
처녀총각 근원이 좋아 한 베개를 둘이 비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4)

감자깡 유자깡 의논이 좋아 한 꼭다리 둘 열었네  
처저<sup>145</sup>깡 총각깡 의논이 좋아 한 비개 비고 잠 들었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5)

유자깡 금자깡 의논이 좋아 한 꼭다리 둘셋 여네  
처녀깡 총각깡 의논이 좋아 한 벼개에 둘이 잔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6)

처녀와 총각이 의가 좋아 한 베개를 둘이 비네  
유자와 탱자가 의가 좋아 한 꽃송이 둘이 여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145 처자의 지역말

## 36. 비 묻었네 비 묻었네

①

비 묻었네 비 묻었네 양산땅에 비 묻었네  
그것이 비 아니라 억만 군사가 눈물이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경희(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비 묻었네 비 묻었네 양산땅에 비 묻었네  
그 비가 비 아니라 억만 군사 눈물이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류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③

비 묻었네 비 묻었네 진주 덕산 비 묻었네  
그 비가 비 아니라 억만 군사 눈물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④

비 묻었네 비 묻었네 진주야 덕산에 비 묻었네  
지가 무슨 비란 말고 억만 군사 눈물이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차점(여, 79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⑤

비 불었네 비 불었네 진주 덕산 비 불었네  
그것이 비 아니라 억만 군사 눈물이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⑥

웅천 하고 한암산에 시산 등천 저기 보소  
그 비가 비 아니라 억만 군사 눈물이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 37. 물 밑에 소라고등

①

물 밑에 소라고동 반석(盤石)<sup>146</sup>에서 춤을 추고  
저기 가는 저 한량은 말등에서 춤을 추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146 넓고 평평한 큰 돌

(2)

물 밑에야 소래야 고동 반석 우에 춤 잘 추네  
저게 가는 저 한량은 말등 우에 춤 잘 추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3)

물 밑에라 소래고동 반석에 앉아서 춤 잘춘다  
저게 가는 호걸 양반 말등에 앉아서 춤 잘춘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립(여, 71세),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4)

울 밑에다 소래고동 맷방석에 춤 잘추네  
저게 가는 저 한량은 말등에 앉아 춤 잘추네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5)

저게 가는 저 한량은 말등에 앉아 춤 잘 추고  
물 밑에다 소래고동이<sup>147</sup> 반석에 앉아 춤 잘 춘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필주(여, 8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⑥

저기 가는 저 수재는 말 위에 앉아 춤을 추네  
물가에라 소라고동 반석 우에 춤을 추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38. 임의 품에 자고 나니

①

임으야 품에 잠자고 나니 아실랑살랑 추워지네  
아실랑살랑 추운 데는 신살구 두 개가 제적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서방님 동품에<sup>148</sup> 잠자고 나니 아시랑살랑 춥어오네  
아시랑살랑 춥운 데는 선살구가 지 맛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148 같은 품 안에

③

총각들 품안에 자고 나니 아스랑살랑 춥어오네  
아스랑살랑 춥은 데는 선살구 풍개<sup>149</sup>가 제맛이네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④

임 품안에 잠자고 나니 아실랑살랑 추워오네  
아실랑살랑 추운 데는 풍계 살구 지적이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⑤

지난 간밤에 잠자고 나니 아시랑살랑 침어진다<sup>150</sup>  
아시랑살랑 침은 데는 개살구가 지책이라

류종목, 성재우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 39. 파랑 부채 반보따리

①

포랑<sup>151</sup> 부채 반보따리 처갓집에 왕래하네

149 설익은 살구와 자두. 풍개는 자두의 지역말

150 추워진다. 침다는 춥다의 지역말

각시님은 날 온다고 칠보단장 곱게 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포랑 부채 반보다리 처갓집에 가는구나  
각시님은 날 온다고 칠부단장 곱기 한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포랑 부채 반보따리 처갓집을 넘나든다  
각시님은 임 온다고 칠보단장 곰게 하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정자(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④

포랑 보찜 반보따리 처갓집을 향해 가네  
아가 났네 우리 아기 칠보야 단장 곰게 한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5)

(아적<sup>152</sup> 묵읍시더. 아적을 묵고 또 모숨기 드갑시다이)

포랑부치 단보짐<sup>153</sup>에 처갓집을 왕래하네

각시만 날 온다고 칠보단장 곱게 하노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최영규(남,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40. 짜구야 짜구야 쪽지 마라

(1)

짜구<sup>154</sup>야 짜구야 쪽지 마라 죽은 낭게 물이 나나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죽은 엄마 젖이 나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2)

자꾸야 자꾸야 쪽지 마라 죽는 낭게 물이 난다

악아 악아 울지 말아 죽은 어미 젖이 나나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152 아침의 지역말

153 단봇짐은 아주 간단하게 꾸린 하나의 봇짐을 말한다.

154 자귀의 지역말. 자귀는 나무를 다듬거나 찍어낼 때 쓰는 작은 연장을 말한다.

(3)

짜구 짜구 옥짜구야 마른 낭게 물이 나나  
아가야 아가야 우지 마라 죽은 엄마 젖이 나나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4)

아가 아가 울지 마라 죽은 어미 젖이 나나  
짜구야 짜구야 쫓지를 마라 죽은 낭게 물이 나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필주(여, 8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5)

깨굴아 깨굴아 참깨굴아 묵언 낭기 물이 나나  
아가야 아가야 우지마라 죽은 엄마가 젖이 나나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41. 시누이 남편 밥 담다가

(1)

(청중: 시누 남편 밥 담다가 뿔렸단다. 받는 거는, 야야 그 말마라 나도 닷담 뿔렸다  
네.<sup>155</sup> 고는 받는 기고.)

155 제보자는 주걱을 ‘많이 부러뜨리다’는 뜻이라 하였다.

시누부 남편의 밥 담다가 쇠주개<sup>156</sup> 닷담 뿐질랐네  
아야 아가 그 말씀 마라 나도 닷담 뿐랐더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시누부 냄핀<sup>157</sup>네 밥 담다가 놋주개 닷단 뿐질랐네  
아가 아가 매늘아가 나도야 닷단 뿐질랐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③

한양낭군 밥 담다가 놋무구<sup>158</sup> 닷단 뿐질랐다  
아가 아가 며루아가 나도 닷단 뿐질랐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④

어양원님 밥 담다가 놋주기 닷단 뿐질났네  
아가 아가 미늘아가 나도 닷단 뿐질랐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156 쇠주걱. 주걱은 주걱의 지역말

157 남편의 지역말

158 놋주구의 오기인 듯하다.

(5)

애기야 도련님 밥 담다가 놋주개 담싹 뿐질렀네  
야야 며늘아 그 말 마라 나도 닷단 뿐질랐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42. 니 치마 내 치마 질반치마

①

니 치매 내 치매 질반<sup>159</sup>치매 대한질<sup>160</sup> 미금<sup>161</sup> 다 썰어 가네<sup>162</sup>  
니 얼골 내 얼골 질질이<sup>163</sup> 곱아 대장부 간장 다 녹힌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최필조(여, 8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니 쳐마<sup>164</sup> 내 쳐마 질반쳐마 대한질 미금을 다 썰어가네  
니 얼굴 내 얼굴 저리 곱아서 대장부 간장 다 녹히네

159 한 길하고 반

160 큰길

161 먼지의 지역말

162 큰길의 먼지를 다 쓸어낸다

163 결마다

164 치마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소연(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처매야 처매야 질반처매 대한질 미굽 다 썰어가네  
니 얼골 내 얼골 질질이 고와 대장부 간장을 다 녹인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④

바람이 살랑 봄비가 잣어 객사풀이 춤을 춘다  
니 처매 내 처매 걸반아 처매 대한질 미금을 다 썰어낸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⑤

알굼살굼 고운 독에 누룩 비빈 청강주에  
네 처매 내 처매 걸반 처매 한질 미금을 다 실어낸다  
네 얼굴 절절이 고와 대장부 간장을 다 놓친다

이상정(남, 69세, 가곡동) 제보

### 43. 주천당 모랭이 돌아가니

①

주천당 모랭이 돌아서니 아니 나던 술내 나네  
모수적삼 안고름에 고름마다 상내<sup>165</sup> 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칠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주천당 모랭이 썩 돌아가니 아니 묵은 술내 나네  
모수적삼 안고럼에 고럼마다 행내 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주천당 모랭이 돌아가니 아니 묵어도 술내가 나네  
임의 적삼 안고름에 고름마다 상내가 나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④

주천당 모랭이 썩 돌아가니 아니 묵던 술내 난다  
모시야 적삼 안섶 안에 고름마장 상내 나네

165 상내는 암컷의 몸에서 나는 냄새인 암내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향내라는 뜻으로 쓰였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서삼수(남, 80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⑤

주천당 모랭이 돌아서니 아니 뚝던 술내 나네  
말큰 가자고 굽우를 틀고 임은 잡고 낙루로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44. 골목골목 그물 치자

①

서월이라 한 골목에 골목골목 그물 치자  
잔 처자는 다 빠지고 굵은 쳐녀 남아 있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경희(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서울이라 한 골목에 골목골목 그물 쳤네  
잔 치자는 다 빠지고 큰 치자는 낚아쳐라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③

서울이라 한 골목에 골목골목 그물 놓자  
잔 처녀는 다 빠지고 굵은 처녀 걸리거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④

서울이라 한 골목에 그물 노아 처녀 잡자  
잔 처녀는 다 빠지고 굵은 처녀 내 차지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45. 사랑 앞에 화초 심어

①

사랑(舍廊) 앞에 화초 심어 화초밭이 둑어나네  
울 오래비 어데 가고 화초밭을 안 매는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사랑 앞에다 화초를 심어 화초밭이 둑어나네

우리야 오빠 어디 가노<sup>166</sup> 화초밭이 묵어나노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사랑 앞에다 갈대를 심어 잘게 썼다 시대삿갓<sup>167</sup>  
비단공단 선을 둘러 사촌 형부 선사하자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④

사랑 앞에다 새갈노<sup>168</sup> 심어 잘게 절은 시태바대<sup>169</sup>  
공비단을 실을 둘러 시애부한데 선물할래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46. 연밥 따는 저 큰아가

①

연밥 꼭지 연당 안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166 ‘어디 가고’의 잘못인 듯하다.

167 세대삿갓. 가늘게 쪼갠 댓개비로 만든 대삿갓으로, 여승이 주로 쓴다.

168 가는 갈대를

169 시태는 세죽(細竹), 즉 가는 대를 이르며, 바대는 바다를 말한다.

그 연밥 내 따줌세 내 품 안에 잠들거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연꼭지 연밥 따네 연밥 따는 저 큰 아가  
연밥은 내 따주께 이내 품안에 잠들고 가세  
잠들기야 어렵지마는 연밥 따기가 늦어서 온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김기조(여, 58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③

해 다 지고 다 저문 날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연밥이사 따는따나 연줄이나 끊지 마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47. 반달 둉실 떠오르네

①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반달 둉실 떠나오네  
니가 어이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②

사래 길고 광찬밭에 반달 둉실 떠오른다  
니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천병수(남, 77세, 부북면 무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사래 질고 장찬밭<sup>170</sup>에 반달 둉실 떠나오네  
지가 무슨 반달이꼬 초승달이 반달이지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48. 신 사 주소 신 사 주소

①

신 사주소 신 사주소 총각낭군 신 사주소  
신 사주면 남이 알고 돈 주꾸마 사 신아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170 이랑이 매우 긴 밭

이정자(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신 사주소 신 사주소 총각아 낭군 신 사주소  
신을 사면은 넘<sup>171</sup>이 알고 돈을 주면 내 사 신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윤태숙(여, 86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신 사주소 신 사주소 총각낭군 신 사주소  
신 사주민은 넘이 알고 돈을 살콤<sup>172</sup> 날로 주소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49. 첨아 첨아 요내 첨아

①

첨아 첨아 요내 첨아 신을 벗고 어드로 가노  
가래야 쟁기 숙마초는 따라가며 신발 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171 남의 지역말

172 살짝. 여기서는 ‘몰래’의 뜻으로 쓰였다.

박봉기(여, 88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②

첩아 첩아 요네 첩아 신을 벗고 어데 가노  
가래 갹기 송화총에 따라가며 신발 한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③

첩아 첩아 요내 첩아 신을 벗고 어데 가노  
소태 갹긴<sup>173</sup> 속말총이 따라가미 신발 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50. 동남풍이 살랑 불어

①

동남풍이 살랑 불어 도령님 부채통 널쳤다<sup>174</sup>  
아이가<sup>175</sup> 그 처녀 왈짜<sup>176</sup>로다 도령님 부채 주어 주네

173 제보자는 ‘소태나무껍질로 감은’이라고 하였다.

174 널찌다는 떨어지다의 지역말

175 아이고

176 왈째 같은 말로 말이나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수선스럽고 거친 사람을 일컫는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②

지싯골<sup>177</sup> 바람이 살랑 불어 도련님 부채 톡 널찌네  
어허 그 처녀 왈자로다 도련님 부채 날람<sup>178</sup> 줍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정수(여, 80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월매땅 바람이 내리 불어 도련님 부치가 날라온다  
아파 그 처녀 왈짜로세 도련님 부채를 조아준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보야(여, 84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51. 일천 석이나 쏟아 주소

①

이 논배마다 모를 심어 일천 석만 쏟아주소  
이 논자리에 모를 심어 삼천 석만 쏟아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177 부북면 위양리 장동을 말한다.

178 날름(날쌔게 움직이는 모양)의 지역말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이 논뺨에다 모를 심어 일천 석이나 쏟아지소  
이 논뺨에다 모를 심어 삼천 석이나 쏟아지소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이 논배마다 모를 숨겨 삼천 석만 쏟아지소  
이 논배마다 모를 심기 사천 석만 쏟아지소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52. 중아 중아 도사중아

①

중아 중아 도사중아 니 절 구경 언제 갈꼬  
소생아 절 구경 하실라거든 금강산 모랭이 돌아오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천병수(남, 77세, 부북면 무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중아 중아 도사중아 너의 절 구경 언제 할꼬

우리 절구 경 할랴거든 금강산 모랭이 올라오소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중아 중아 도사중아 니 절 귀경을 언제 하꼬  
내 절 귀경을 할라거등 머리를 깎고 중 되거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 53. 일색 처녀 들락날락

①

저 건네라 계와집에 일등 처지가 들락날락  
돌물리<sup>179</sup>로 잣아낼까 서발 낚수<sup>180</sup>로 낚아낼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문덕일(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저 건네라 기와집에 일색(一色) 처녀 들랑날랑  
돌물레로 잣아낼까 서발 낚수로 낚아낼까

179 돌물레

180 낚시의 지역말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③

서월이라 연당못에 일등처자 들락날락  
낚솟대를 낚아낼까 돌물리를 잣아 낼까  
산인도사 오시 가주 낚솟대로 낚았습니다  
할매님요 할배님요 나를 주야 영화를 받십니다  
(마, 산인도사가 가다가 마<sup>181</sup> 주더란다. 처자로)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태아(여, 87세, 청도면 이산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 54. 아리랑 춘자야 술 걸러라

①

아리랑 춘자야 술 걸러라 압록강에 배 들온다  
압록강에 배 들으면 술도 팔고 임도 보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경희(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오동추야 술 걸러라 압록강에 배 떠 온다

181 그냥의 지역말

압록강에 배 떠오면 술도 땔코<sup>182</sup> 임도 보지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55. 배꽃일래 배꽃일래

①

배꽃일래 배꽃일래 쳐녀야 수건 배꽃일래  
배꽃 같은 수건 밑에 거울 같은 치녀 봐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수연(여, 80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②

배꽃일래 배꽃일래 쳐녀 수건이 배꽃일래  
배꽃 같은 수건 밑에 거울 같은 눈매 보소  
누 간장을 녹일라고 눈매조차 저리 곱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승기(여, 75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182 따르고

## 56. 총각 처녀 장난말이

①

총각 처자 장난말이 은삼동<sup>183</sup> 대설대<sup>184</sup> 뿔랐단다  
(며느리가 그래 씨매부캉 둘이 장난하다 뿔랐다카이, 그리 씨어마이가 하는 말이,)  
아가 아가 며늘아가 나도 닷단 뿌질랐다  
(그리 뿌질랐다고 예사로 여기라 카더란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총각캉 처녀캉 장난말이 은삼동 대설대 뿔랐단네  
은삼동 대설대 십오 전 하고 처녀야 손목은 천 낭일세  
(처녀 손목이 비싸다 카더란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57. 진주 덕산 안사랑에

①

진주 덕산 안사랑에 장기 두는 처남순아

183 백동 바탕에 은은한 순은과 까만 오동(금과 은의 합금)을 박아 넣는 상감수법으로  
문양을 놓는데, 이것을 ‘은삼동구리’라 한다.

184 담배설대(담배통과 물부리 사이에 끼워 맞추는 가느다란 대)

여중일색 너거 누부 남중 호걸 나를 주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삼문동)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진주 덕산에 안사랑에 장기 두는 처남손아  
여중일색 너그 누부 남중호걸 나를 도고<sup>185</sup>  
밀큰 가자고 굽우로 치고 임은 잡고 낙루(落淚)로 하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58. 총각들 먹던 청실배는

①

총각들 묵던 청실배<sup>186</sup>는 맛도 좋고 연하도다  
(또 받는 거는)  
처녀들 짜는 북바디<sup>187</sup> 집은 소리도 높고 연하도다

185 나를 다오

186 우리나라 제래종 배의 하나로, 열매는 푸르지만 저장 중에 노란색을 띤 녹색으로 바뀐다.

187 북과 바디. 북은 베틀에서 날실의 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이고, 바다는 가늘고 얕은 대오리를 참빗살같이 세워 두 끝을 앞뒤로 대오리를 대고 단단하게 실로 엮어 만드는 것으로, 날실을 퀘어 베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의 만들고 씨실을 쳐서 베를 짜는 구실을 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원말연(여, 77세, 삼랑진읍 검세리 송원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처녀 들자 북바대 소리 좋고도 연약할소냐  
총각들 묵던 청도복승 맛도 좋고 연약하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59. 국화정자 놀러 가자

①

소주 꽂고 약주 꽂고 국화정자 놀로 가자  
우리는 언제나 신선이 되어 국화정자 놀로 가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소연(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소주 곳코 약주 떠서 국화정자 놀러 가자  
우리도 언제나 활량이 되어 국화정자 놀러 갈꼬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60. 북덕밭에 수은을 잃고

①

북덕밭<sup>188</sup>에다가 시원<sup>189</sup> 잃고 시원 찾기가 난감하네  
저승질에다 부모 잃고 부모 찾기가 난감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북덕밭에 십이 원을 잃고 십이 원 찾기도 난감하다  
저승길에 부모 잃고 부모 찾기도 난감하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수연(여, 65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61. 하늘 천자 땅 지자에

①

하늘 천자 땅 지자에 집우 집주 집을 지여  
높으락 끌이락 끌인 집에 빌<sup>190</sup>과 달이 등실 뜬다

188 타작을 하고 난 지푸라기 더미

189 제보자는 ‘수은 알갱이’라 하였다.

190 별의 지역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문덕일(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하늘 천 밑에는 따 지자야 집 우야 집 주 집을 지여  
너불 홍 거찰 황 거친나 집에 해달이 떠서 밝아온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62. 우리 엄마 재주 좋아

①

우리 엄마 재주 좋아 비<sup>191</sup> 짜다가 나를 낳고  
하늘님이 재주 좋아 별 나다가 비가 오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영애(여, 83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하나님의 조화 보소 빙 나다가 비가 오네  
우리야 엄마 조화 보소 베를 짜서 옷 해주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191 배의 지역말

### 63. 여기 꽂고 저기 꽂고

①

여기 꽂고 저기 꽂고 주인네 마누라 거게도 꽂고  
꽃기사요 꽂지마는 음산<sup>192</sup>이 깊어 될뚱 말뚱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여게 꽂고 저게 꽂고 쁜네 양반 그게 꽂고  
꽃기상 꽂지마는 음산이 쳐서 안 된다 카더마는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남이(여, 69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64. 백설 같은 흰나비는

①

백설 같은 흰나비는 부모의 몽상(蒙喪)<sup>193</sup>을 입었던가  
소복단장 곱기 하고 장다리<sup>194</sup> 밭으로 넘나드네

192 음산(陰山). 산이 두 개 나란히 있을 때, 그 가운데 한쪽의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산. 여성의 음부를 상징하는 듯하다.

193 부모상을 당하고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194 무, 배추 따위의 꽃줄기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백설 곁은 흰나부야 부모님 몽상을 입었는가  
소복단장 굽기 하고 짱다리 밭을 날아든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박현이(여, 74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 65.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

①

바람 불고요 비가 오니 만 가지 풀잎 춤 잘 추네  
만 가지 풀잎 춤추는 것은 하날님네 도술이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②

바람이 불고 비가오니 만 가지 풀잎이 춤을 춘다  
만 가지 풀잎이 춤추는 것은 하날님의 조화로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66. 세모시 삼가래 뱅 틀어쥐고

①

시모수 삼가래<sup>195</sup> 뱅 틀어지고 대청 끝에 썩 나서네  
돌아오는 달도나 보고 서울 가신 님도 보고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②

모시 가랭이 뱅 타라 쥐고 대청 끝에 썩 나가서니  
서울 가던 임도 보고 돌아오는 달도 보지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67. 장수 장수 황배장수

①

장사 장사 황배장사 니 짊어진 게 무엇이냐  
산호동곳 오등비녀 팔선녀의 낭자로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195 삼의 올들을 한 둑음으로 둑어놓은 것을 말한다.

②

장사 장사 황화 장사<sup>196</sup> 니 짊어진 것 무엇이냐  
진주가 받았다 갓끈 황화 팔도야 기생 머리댕기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68. 달이 떴네 달이 떴네

①

달이 떴네 달이 떴네 비개목<sup>197</sup>에서 달이 떴네  
달이 뜨나 별이 뜨나 싫은 님을 우야라고<sup>198</sup>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②

니모<sup>199</sup>야 반듯 장판방에 비갯모에 달 떠오네  
달이 뜨나 빌이 뜨나 싫은 님을 어야라고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196 황아장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용 잡화, 즉 끈목, 담배쌈지, 바늘, 실 따위를  
파는 사람을 이른다.

197 베갯머리

198 ‘어떻게 하라고’의 지역말

199 네모의 지역말

## 69. 농사법은 있건마는

①

농사법은 있건마는 신농대<sup>200</sup>는 어데 갔소  
대고대륵대<sup>201</sup>가 언제라고 신농대가 있단 말가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②

농사법은 있건마는 신노홍<sup>202</sup>씨는 어데 갔노  
태국왕이 언제라고 신노홍씨가 있을소나

이소라 조사  
신의근(남, 94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 70. 설설이 어디 갔노

①

써리<sup>203</sup> 어디 갔노 써리 산에 갔다  
오거들랑 보고 가세

200 신농씨의 오기인 듯하다.

201 ‘태고(太古) 때’인 듯하다.

202 신농씨

203 그리마. 지네와 가까운 종류로 다리가 여러 쌍이고 머리에 긴 더듬이가 있으며,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데, 민요현장에서는 ‘설설이’로도 나온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②

설설이 어데 갔노 설설이 산에 갔다  
설설이 오거덜랑 설설이 만내보자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71. 강남에 강대추

①

강남에 강대추 아기자기 열렸네  
충청도 충복승 주지가지 열렸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②

충청도 충복승은 주지가지 열었고  
강능땅 감대추는 아그대 다그대 달렸네  
어여어여루 상사디여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72. 남산 밑에 논 쳐 놓고

①

남산 밑에 논 치아놓고 못다 맬 논 다 매고 가니  
온동곳<sup>204</sup> 하나를 잃고 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②

남산 밑에 논을 쳐서 수양버들 형글었네  
못다 맬 논 다 매고 나니 금봉채를 잊었부니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73. 청실네 홍실네 배나무 밑에

①

청실네 홍실네 배나무 밑에 순순히 도는 저 처녀 봐라  
그 처녀 보고 얻은 병이 나날이도 질어온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204 상투를 튼 후에 풀어지지 않도록 위에 꽂는 은으로 만든 장식

(2)

청실네 홍실네 배나무 끝에 순수니 도는 저 큰아가  
널로 하그매 난는 비미<sup>205</sup> 나날이도 짙어온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74. 이 삼 삼아서 옷 해 입고

이 삼 삼아서 옷 해 입고 무등산천을 구경 가자  
무등산천 청고사리 밤이슬 맞아 춤 잘 춘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75. 산천초목이 불이 붙어

산천초목이 불이 붙어 우런 님 찾아 내가 갈래  
실걱산을 다 던지고 부모님 산소 내가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205 너로 하여 생긴 병이

## 76. 새야 새야 파랑새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디 낭게 앓지 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만 청포 장수<sup>206</sup> 울고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송옥연(여, 82세, 초동면 오방동)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 77. 미나리라 시평꽃은

미나리라 시평꽃<sup>207</sup>은 구름 속에 피어나고  
노랑화초 호박꽃은 해만 지면 잣아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복자(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78. 우리 님의 동창 밖에

우린 님은 동창 밖에 백년화초 심었더니  
백년화초 간곳없고 이별화초 심었구나

류종목, 성재옥 조사  
류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206 청포(淸泡), 곧 녹두묵을 파는 상인  
207 제보자는 미나리꽃이라 하였다.

1981년 7월 27일 채록

### 79. 사랑 앞에 중이 와서

사랑 앞에 중이 와서 졸졸 타고 떡 한다네  
떡도 싫고 밥도 싫고 임이나 살큼 보고 가자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80. 담장 안에 화초를 심어

담장 안에 화초를 심어 담장 밖에 늘어졌네  
서울 가는 선비들이 그 꽃 본다고 질 못 가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81. 사랑 앞의 배는

사랑 앞에 배일랑은 서당꾼이 휘찾았다  
장독간에 봉숭아는 나부야 한쌍 휘찾았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 (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82. 놋젓가락 세 칸 집에

노재까치<sup>208</sup> 삼 칸 집에 장개 한번 가고지라  
돈을 엮어 문 단 집에 시집 한번 가고지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83. 저기 가는 저 상주는

저게 가는 저 상주는 대명산에 뵐 썼던가  
그 뵐 썼고 삼년 만에 정상감사 장원 했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84. 너는 죽어 약쑥 되고

너는 죽어 약쑥 되고 나는 죽어 쟁피<sup>209</sup> 되고  
오월이라 단오일에 머리 물에 만내보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8 놋젓가락. 재까치는 젓가락의 지역말

209 창포의 지역말

2010년 7월 2일 채록

### 85. 연 같이 너른 들에

연 같이 너른 들에 쟁피 훑는 부인  
훑던 쟁피 다시 훑네  
날 버리고 지내가도 별 수 없는 살림 산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7세, 교동) 제보  
2009년 7월 27일 채록

### 86. 속곳 가랑이 피 묻었네

저게 가는 저 할마시 속곳 가랭이 피 묻었네  
눈 빠질 놈 쌔<sup>210</sup> 빠질 노옴 강대자지<sup>211</sup> 선 둘렀네  
(인자 잘 몬 보고 안 카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210 혀의 지역말

211 부산 동래의 자주색 천을 말하는데, 제보자는 이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자라 발음한다고 했다.

### 87. 진주 덕산 진 골목에

진주야 덕산 진 골목에 알베기<sup>212</sup> 처녀 놔 눕었네  
낚아내자 낚아내자 알베기 처녀 낚아내자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88. 우선 씨를 받아

우선 상에 씨를 받아 어머니 앞에 모 할라꼬  
서산 해가 질어 오면 어서 어떡 찾아갈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89. 산도 산도 고적산에

산도 산도 고적산에 노랑모를 쪄 앵기서  
이놈 주고 저놈 주니 산도 서산 해 다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12 알베기(겉보다 속이 알찬 상태) 또는 알짜배기(가장 중요한 물건)의 뜻이다.

2010년 7월 6일 채록

### 90. 노랑모에 짹이 나와

노랑모에 짹이 나와 만인간을 살리보자  
양산땅에 그리 와서 만인간을 내 살릴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91. 들 가운데 정자를 심어

들 가운데 정자로 심어 꽃도 피고 잎도 피네  
꽃 떨어지고 잎 떨어지니 눈 먼 새도 안 돌아 보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무순(여, 7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92. 딸을 낳아 곱게 길러

딸을 나여서 곱게 길러 월강(越江) 건네 주지 마소  
장달<sup>213</sup> 죽은 넋일랑강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운다

213 장닭. 수탉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 93. 니가 가고 나 죽게 되나

니가 가고 나 죽기 되나 내가 오믄 한번 더 보지  
당신 당신 그 말 마소 춘춘은 연록이고 왕손은 귀불귀라<sup>214</sup>

(사람은 함 죽으면 그 뿐이고, 풀은 영원히 난다고 문자를 쓰는 기라. 그니까 그 여자는 자꾸 그 남자가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너무 여자가 바보가 돼 가지고 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시기는 기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94. 삼천리를 갈 수 있나

포랑모야 안또되야<sup>215</sup> 삼천리를 갈 수 있나  
야야 쳐녀야 그 말을 마라 천지강산 너를 따린다<sup>216</sup>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214 춘초연년록(春草年年錄) 왕손귀불귀(王孫歸不歸).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시 「산중송별」(山中送別)의 한 구절로 “봄풀은 해마다 푸르러되 왕손은 다시 못 돌아 오느니라”라는 뜻이다.

215 ‘암되어서’ 또는 ‘소극적이어서’라는 뜻인 듯하다.

216 따른다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95. 우수 경첩 철 맞추어

우수 경첩 철 맞추어 저 솔밭에 내가 간다  
부산 천리 삼천리를 부모님 산소 내가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96. 이 산 저 산 다 녹으니

이산 저산 다 녹아니 곡조마장<sup>217</sup> 달리 가고  
말은 가자꼬 굽우를 치고 임은 날 잡꼬 낙루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97. 한강수에다 배를 놓고

한강수에다 배를 놓고 총각 처녀가 건너갈 때

217 곡조(曲調)마저 또는 곡조(谷鳥, 계곡의 새)마저

이산 저산 야산을 두고 무척산을 타고 가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98. 세우 살살 오는 날에

세우(細雨)야 살살 오는 날에 첨우야 집에 어이 갈꼬  
깜동 깔신<sup>218</sup> 반조롬에 갈모<sup>219</sup> 우산을 받치가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 99.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바람 불고 비오는 날 처갓집을 어찌 갈꼬  
좋다 하는 갈우산에 갓모로 바쳐 씌고 가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218 깔신은 여자들이 결혼할 때 신는 고운 신으로, 예쁘게 수(繡)를 놓은 푸른빛이 나 는 신발이다.

219 비올 때 양반들이 갓이 젖지 않게 갓 위에 얹어 쓰는 덧갓

## 100. 낫은 갈아서 바지게 담고

낫을랑 썩 갈아서 바지게<sup>220</sup> 탁 훌치 담아지고  
춘향이 무덤에 꿀 비러 가자  
꿀<sup>221</sup>일랑 비어서 옆에 탁 벼트리놓고  
악성통곡<sup>222</sup> 슬퍼 운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101. 김해 무척산에 나무를 심어

김해 무축산 남글 숨가 황천극락 배로 모아  
우리 부모 극락 갈 때 선개[船價]<sup>223</sup> 없이 극락 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220 발채(싸리나 대오리로 등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결어서 접었다 펴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끈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엎을 때 지켓가지에 끼운다)를 엊은 지게

221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

222 악성(惡聲)은 듣기 싫게 내지르는 소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대성통곡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223 뱃삯

## 102. 사래 길고 광 넓은 밭에

사래 길고 광 넓은 밭에 봉지<sup>224</sup> 빼는 저 올케야

서울 갔던 느그 오래비 춘복하복<sup>225</sup> 아니 할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103. 새문 밖 따북대는

새문 밖 따북대는 밤이슬에 스러지고

눈 맞은 처녀 총각 얼싸안고 스러지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 104.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거무<sup>226</sup>야 거무야 왕거무야 줄에 동동 왕거무야

퐁덕새 덕산중 월캐동 성밖에 미리동동<sup>227</sup> 왕거무야

224 제보자는 목화송이라 설명하였다.

225 춘복하복(春服夏服)은 목화송이를 따서 오빠에게 봄, 여름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226 거미의 지역말

227 삼한시대 변진 24개국 중 밀양에 세워진 미리미동국이라는 작은 부족국가. 앞 노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봉기(여, 88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105. 글소리 깡깡 울려 나네

서른시 칸 청계와집 밑에 글소리 깡깡 울리 나네  
시내야 갹빈<sup>228</sup> 벼들잎에 지경소리<sup>229</sup>가 울리 나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106. 뒷동산 고목나무

뒷동산 고목남계 일 피거든 오실란가  
동술에 앓힌 밥이 짹 나거든 오실란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래의 ‘줄에 동동’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 가져온 듯하다.

228 강변

229 집을 짓기 전에 난장꾼과 땅을 다지면서 부르던 노동요

### 107. 여우같은 시누이야

야시<sup>230</sup>같은 시누부야 매구<sup>231</sup>같은 시누부야

눈물 모아 한 강지리<sup>232</sup> 설움 모아 한 강지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배남도(여, 83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 108. 울타리 밑에 돌삼을 심어

울타리 밑에 돌삼<sup>233</sup>을 승가 삼 못 숭간 내 한이야

이웃집에 처녀를 두고 장개 몬 간 내 한이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109. 총각 쓰는 잔글씨는

총각아 쓰는 잔글씨는 글자마당 장완<sup>234</sup>이요

처녀들 짜는 북 받은 소리 소리마당 장완이래

230 여우의 지역말

231 천 년 묵은 여우가 변하여 된다는 전설에서의 집승

232 광주리의 지역말

233 들에 저절로 난 삼

234 장원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110. 저기 가는 선비 중에

저게 가는 선배 중에 우리 오빠 상자<sup>235</sup>로다  
물밑에야 괴기 중에 금붕어가 상자로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111. 서울이라 대청 끝에

서울이라 대청 끝에 지정<sup>236</sup> 닷 말 모를 봇네  
지정 꽂으는 꾩디마는 부모야 흔적 못 보겠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235 상좌(上佐). 불교에서 스승의 대를 이을 승려 가운데 가장 높은 이로, 여기에서는 선비 중에서 최고라는 뜻이다.

236 기장의 지역말. 기장은 벗과의 한해살이풀로, ‘황실(黃實)’이라고도 하는 얇은 누런색의 열매는 떡, 옛, 빵 따위의 원료나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 112. 저 건네 황새등에

저 건네라 황새등에 청실홍실 그네 매자  
나랑 내랑 열렸다가 떨어질까 염려로다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113. 나비야 나비야 범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범나비야 너에 고향에 안 갈라나  
우리야 고향에 갈랴 하니 이슬 맺어 못 가겠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14. 해 돋았네 해 돋았네

해 돋았네 해 돋았네 서리동천 해 돋았네  
일어나소 일어나소 잠든 낭군 일어나소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15. 봄이 오면 진달래요

봄이 오면 진달래요 가을이면 오곡이라  
기름진 땅 이내 땅을 네 아니고 누 지키리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16. 저 건너 청산 청기와집 밑에

저 건너 청산 청기와집 밑에 고운 베적삼 널렸구나  
고운 베적삼 널린 집에 장가 못 간 내 한이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17. 공명출세 부러워 말고

공명출세 부러 말고 부귀영화 쫓지 마라  
내가 같아 내 심으니 알곡식이 내 것이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18. 오실토실 잘 익은 곡식

오실토실 잘 익은 곡식 동산 밑에 춤을 추네

공존고용<sup>237</sup> 훠은 노래 한 곡조로 불러 보세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19. 양산 하고 뒷골짝에

양산 하고 뒷골짝에 알맹이 쳐녀 그네 탄다  
낚아내자 낚아내자 알백이 쳐녀 낚아내자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0. 서울이라 한량 고개

서울이라 활량 고개 청도복승 열었구나  
올라가는 삼간사도<sup>238</sup> 맛본다고 다 따묵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1. 참나무라 심은 밭에

참나무라 심은 밭에 방아 내로 가자세라

237 공존공영(共存共榮)인 듯하다.

238 신관사또

물도 좋고 정자 좋대 방아 절로 가자세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2. 반물치마 반자개미

밤물치마<sup>239</sup> 반자대미<sup>240</sup> 일상 바도<sup>241</sup> 그냥이네<sup>242</sup>  
우리 동네 한 사람은 일상 바도 그냥이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3. 일본에서 나왔다 삼나무는

일본서 나왔다 수기목<sup>243</sup>은 대한땅에 발 박았네  
대국서 나왔다 사호론<sup>244</sup>은 대한땅에 동들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39 반물치마(검은 빛을 띤 짙은 남색 치마)

240 반자개미를 말하는 듯하다. 자개미는 겨드랑이나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을 말하므로, 반자개미는 자개미가 반쯤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241 늘 보아도

242 남색 치마를 입고 겨드랑이가 다 보여도 한 동네에서 늘 보던 것이 되어서 그냥 지나친다는 뜻으로 보인다.

243 스기(杉木)는 삼나무를 말한다.

244 천의 한 종류인 듯하다.

## 124. 내 떠다 주던 궁초댕기

내 떠다 주던 공초댕기<sup>245</sup> 뭐 한다고 다 떨어졌노  
엄첩다<sup>246</sup> 놀랍다 공초댕기 저것 주고 공착하네<sup>247</sup>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5. 딸 있거든 사우 보소

저게 가는 저 할마시 딸 있거든 사우 보소  
딸이사 있건마는 나이 어려 못 보겠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6. 웅지 빠진 갓을 쓰고

웅지야 빠진 갓을 쓰고 듯가우가<sup>248</sup> 우짠 일고  
행주치마 뜰쳐 입고 강새<sup>249</sup> 보기 우짠 일고

245 궁초댕기는 궁초(엷고 무늬가 둥근 비단의 하나)로 만든 댕기를 말한다.

246 대견하다의 지역말. 하지만 여기서는 ‘어처구니 없다’에 가까운 듯한 표현이다.

247 유세를 부리다, 공치사를 하다의 뜻인 듯하다.

248 비올 때 양반들이 갓이 젖지 않게 갓 위에 얹어 쓰는 ‘갈모’와 같은 ‘덧갓’을 이르는 말인 듯하다.

249 강샘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異性)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7. 동해바다 뱃사공은

동해바다 대사고<sup>250</sup>은 심야<sup>251</sup>를 잡고 희롱하네  
하늘에라 옥항상제님 구름 타고 희롱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28. 남천수 물이 펄펄 넘어

남천수 물이 펄펄 넘어 배 두 채가 떠 돌오네<sup>252</sup>  
앞에 배는 임으 배요 뒤에 배는 자기 배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류영준(남, 58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129. 낙동강 배 선주야

낙동강에 배 선주야 우짠 배가 들어던고

250 ‘큰 뱃사공’의 뜻인 듯하다.  
251 심해(深海). 깊은 바다  
252 떠 들어오네

앞에야 배는 임을 싣고 뒤에 배는 날 실은 배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130. 한강수 푸려 하니

한강수를 풀라 하니 뚜레<sup>253</sup> 없어 못 푸겠다  
뒷동산을 짚라 하니 짐빠<sup>254</sup> 없어 못 지겠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31. 삼대독자 외동아들

삼대독자 외동아들 병들가 봐 수심이네  
물가에 수양버들 물들가 봐 수심이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32. 지포치마 소복단장

집포치마<sup>255</sup> 소복단장 담장 안에 날 속이네

253 우물에서 물을 긋는 두레박

254 짐빠(짐을 묶거나 매는 데 쓰는 줄)의 지역말

오동나무 수풀 속에 치금소리<sup>256</sup> 날 속이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33. 우리집 유임이는

우리집에 유임이는 연잎 따서 줌치 집네<sup>257</sup>  
연잎은 따서 줌치 집고 연꽃 따서 잣 색인다<sup>258</sup>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34. 병풍 치고 불 켜 방에

병풍 치고 불싼 방에 임우 손이 일어나네  
임우 손이 일어나니 유자 상내 절로 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55 지포(紙布) 치마를 말하는 듯하다.

256 굿을 할 때 땃잎을 입에 물고서 내는 소리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치금(雉禽), 곤꿩의 울음소리로 보는 편이 좋을 듯하다.

257 깁네. 집다는 깁다의 지역말

258 글자를 새긴다

### 135. 두꼽아 웅두꼽아

두꼽<sup>259</sup>아 웅두꼽아 무슨 정에 잡이 오노  
동방화촉 밝은 방에 일색 끝에 잡이 온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36. 청천 하늘에 구름 모아

청청하늘에 구름 모아 만인간의 정자로다  
우리의 누가 모았는가 네일상대<sup>260</sup> 정자로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37. 저 건너 저 산 눈이 와서

저 건너 저 산 눈이 와서 솔잎마저 백화로다  
저 건너 저 산이 명지가 되어 오동지 설달에 함박꽃 핀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59 두꺼비의 지역말

260 제일상대, 즉 ‘제일 높은’의 뜻으로 보인다.

### 138. 오뉴월에 흘린 땀이

오뉴월에 흘린 땀이 구시월에 열매 된다  
천하대본 농부님네 우리 직분 귀할세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39. 뒷동산에 썩은 나무

뒷동산에 썩은 나무 재만 많고 불답<sup>261이</sup> 없네  
남우 임을 눈에 걸고 말 많고 쓸데없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40. 밤중 밤중 야밤중에

밤중 밤중 야밤중에 슬퍼 우는 청청과부<sup>262</sup>  
너가 아무리 설피 운들 살 썩히는 날만 하나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61 불을 뗴 때 필요한 재료인 ‘불감’의 오기인 듯하다.

262 청청과부(靑靑寡婦). 청상과부(靑孀寡婦)를 이르는 말인 듯하다.

### 141. 한 칸 두 칸 떼어 놓아

한칸 두칸 떼어놓아 임이 주신 정풀련가  
말호태 곁은 은가락지 총각낭군 주시던 정풀련가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42.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진주 단성 일터전에 비빈 찹쌀 술을 해여  
떨을 보러 낭군장모<sup>263</sup> 이 술 한잔 잡수시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43. 살림살이 가난하다고

살림살이 가난타고 벗님네야 한탄마라  
근로연작<sup>264</sup> 굳은 터에 진합태산<sup>265</sup> 살아보세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63 땅을 길러 나를 준 장모를 말하는 듯하다.

264 근로연작(勤勞連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265 진합태산(塵合泰山). 티끌 모아 태산이란 뜻이다.

### 144. 거제 봉산 박달나무

거지 봉산 박달나무 홍두깨 방마치<sup>266</sup> 다 나간다  
홍두깨 방마치 팔자가 좋아 큰 얘기 손질에 다 나간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45. 밀양 상남 넓은 들에

밀양 상남 넓은 들에 논밭 치는<sup>267</sup> 저 농부야  
걱정 말고 논만 쳐라 송화보통 물 들어온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46. 울 너머 담 너머

울 넘어 담 넘에 꿀<sup>268</sup> 비는 총각 외 넘어간다 외 받아라  
받아라 하는 외<sup>269</sup> 안 받고 남의 손목 납속 쥔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66 방망이의 지역말

267 논이나 물길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내거나 고르다

268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

269 오이의 준말 또는 참외의 지역말

### 147. 별이 떴네 별이 떴네

별<sup>270이</sup> 떴네 별이 떴네 비계모에서 별이 떴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이불 밑에서 꽃이 피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48. 까마귀 깍깍 울면

까막<sup>271</sup> 짐승 깍깍 울며 임오 병은 깊어 오네  
이모 무릎 비어주어 악심통곡 하는구나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49. 산도 산도 봄철인가

산도 산도 봄철인가 만 가지 풀잎이 등을 덮네  
총각도 총각도 봄철인가 지우자 수건<sup>272</sup>을 낮을 덮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70 별

271 까마귀의 지역말

272 봄에 제비가 벅이를 먹고 그 주둥이를 아무데나 닦는 것처럼 입을 닦는 것을 “지우자 수건에 닦는다.”고 한다.

### 150. 이 등 저 등 등창 나고

이등 저등 등창 나고 이등박문 간곳없네  
우리나라 안중근이 양국 충신 되었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51. 경상감사 맏딸애기

정상감사 맏딸애기 도둑발이 뗏 뱉인고  
쐐다라카는 이 안 받고 분질 겪은<sup>273</sup> 손목 잡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52. 우리 들 너희 들에

울리 들 너긋 들에 화초 심어 반정리다  
화초야 가지를 꺾어 잡고 임오 반정 가자시라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73 분결과 같아 매우 흰

### 153. 낮에는 품에 놀고

총각아 주머니 잣나무 살적 큰애기 품에서 놀아나네  
낮으로는 품에 놀고 밤으로 머리에 눈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 154. 안개 잣은 골에

운애<sup>274</sup> 안개 잣은 골에 방울 없는 매 떠났네  
그 매가 그 아니라 천 리만큼 되어가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 155. 저 건너 나리반석

전 건네라 니리반석<sup>275</sup> 모수<sup>276</sup>야 첨첨 행궈너자<sup>277</sup>  
바람이사 불라 말컨 흘어야질까 염려로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274 운애(運靉). 구름이나 안개가 끼어 흐릿한 기운

275 내(川)의 반석(넓고 평평한 큰 돌, 너럭바위), 즉 나리반석을 말한다. 나리는 내를 뜻한다.

276 모시

277 행구어 널자

### 156. 들 가운데 정자를 심어

들 가운데라 정자로 숨궈 꽃도 피고 잎도 피네  
꽃 떨어지고서 잎 떨어지면 눈멀은 새도 안 돌아본다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157. 친한 친구 해가 지니

오늘날로 친한 친구 해가 지니 헌사<sup>278</sup>로네  
석자야 수건을 목에 걸고 새는 날로 만나보세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 158. 앵두나무 북받침은

앵두나무 북<sup>279</sup>받침은 아니 쳐도 소리 나네  
방실방실 기생첩은 앉았다 가서도 돈 돌라 카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278 헌사(虛事), 즉 헛일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279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 159. 사월이라 초파일에

사월이라 초파일에 집집마다 관등<sup>280</sup> 단다  
우리야 임은 어데로 가고 관등 달 줄 모르는고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이순학(여, 81세), 이쾌남(여, 67세), 배차순(여, 50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160. 아나 농부야

아나<sup>281</sup> 농부야 아나 농부 말 들으소  
사농공상 직업 중에 우리 농부 제일이라  
어여어여루 상사둬야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161. 도롱이 삿갓을 짊어져라

도랭이 삿갓을 짊어져라 저 달을 따고 돌아가세  
어여어여루 상사둬야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280 관등(觀燈). 사월 초파일이나 절의 주요 행사 때 등대를 세우고 온갖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일

281 옛다의 지역말

### 162. 불산 같이 더운 날에

불산 곁이 더운 날에 뵐 곁은 짓은<sup>282</sup> 밭에  
이골 저골 매어갈 때 신세타령 절로난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163. 저 건너 청산 비가 와서

석양은 펄펄 재를 넘어 나의 갈길 천 리로다  
말근 가자고 구불을 치고  
(이랴, 어서 가자.)  
임은 잡고서 아니 놓네  
적은뉘<sup>283</sup> 청산 비가 와서 꽃잎마다 낙화로다  
(담배나 한대 붙여야지.)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164. 산 높고 골 깊은데

산 높으고 골 깊은데 물소리도 처량하다  
시냇가에 벼들잎에 치경소리가 요란하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282 나무나 풀 따위가 매우 무성하게 난

283 저 건너

### 165. 금년 시절 대동하면

금년 시절 대동<sup>284</sup>하면 우리 오빠 장가갈 새  
길쌈 방자 고운 쳐자 어느 골에 크나는고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166. 해발룸해발룸 꼬장바지

해발룸해발룸 꼬장바지<sup>285</sup> 살궁둥이 싫어서 못 살겠네  
덮어주소 덮어주소 총각낭군 덮어주소

이상정(남, 69세, 밀양읍 가곡동) 제보

### 167. 서답은 벗어 놓고

서답<sup>286</sup>은 짐짐 벗어놓고 며느리 얘기 오도록만 기다린다  
양대고물<sup>287</sup> 이 쌀떡은 딸 오도록 기다린다  
풋감주지 꺾어지고는 며느리 오도록 기다리고  
앵두주지 꺾어놓고는 딸 오도록 기다린다

284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하게 됨을 일컫는 말이다. 또 ‘대풍(大豐)’의 오기로도 볼 수 있다.

285 한복에 입는 여자 속옷의 하나인 ‘고챙이’의 지역말로, 달리 ‘꼬장중우’라고도 한다.

286 빨래의 지역말

287 양대콩으로 만든 떡고물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168. 서울이라 유달아기

서울이라 유달아기 해 뜨는 거 뵈기 좋아  
서울이라 한글 못에 금봉어 노는 거 뵈기 좋아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169. 도라지 병풍 여닫이 속에

도라지 평풍<sup>288</sup> 여닫이 속에 잠들은 큰아가 문 열어 도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 몬 올 줄 알고 문 걸었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갑순(여, 9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70. 남창 북창 선창 밑에

남창 북창 선창 밑에 꾀꼬 우는 저 개굴아  
모진 독새<sup>289</sup> 일어나면 속절없이 너 죽는다

288 병풍의 변한 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설병규(남, 75세, 무안면 판곡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171. 알쏭달쏭 유자 수건

알승달승 유자 수건 수건귀가 떨어졌네  
수건귀가 다 떨어지면 임우 정도 설어지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 172. 점심참이 늦게 오네

①  
점슴<sup>290</sup>을 시깃다 술럭시<sup>291</sup>여 점슴참이 늦어 오네  
맵쌀 닷말 찹쌀 닷말 이니라꼬<sup>292</sup> 늦어 온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289 독사

290 점심

291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각시를 말함

292 이느라고

②

서월이라 남정자는 점슴참이 늦어 오네  
찹쌀 닷말 맵쌀 닷말 돌 인다꼬 더디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서월이라 남정자야 점슴참도 늦어 가네  
찹쌀 닷말 맵쌀 닷말 일고 나니 더디더라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④

늦어 오네 늦어 오네 점슴참이 늦어 오네  
찹쌀 닷말 밉쌀<sup>293</sup> 닷말 메 짓는다 늦어 오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순덕(여, 75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⑤

늦어 오네 늦어 오네 점슴참이 늦어 오네  
찹쌀 닷디<sup>294</sup> 밉쌀 닷디 미 짓는다고 늦었구나

293 맵쌀(메벼를 찧은 쌀)의 지역말  
294 다섯 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분조(여, 85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6)

서울이라 남정자는 점심참이 늦어 온다  
찹쌀 닷말 맵쌀 닷말 하니라 하고 늦어졌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마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7)

서울이라 남정자여 점슴참이 늦어 온다  
찹쌀 닷말 밑쌀 닷말 돌 인다고 늦어 오요  
미나리라 숭금채라 맛본다고 늦었더라  
오똑오똑 걷는 얘기 젖 준다고 늦었더라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8)

점슴을 시깃다 술력시여 점슴참이 늦어 온다  
미나리라 시금추<sup>295</sup>를 맛본다고 늦어 온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295 시금치의 지역말

⑨

오늘 낮에 점슴밥이 어이 아래 늦어 오노  
미나리라 시금초에 맛본다꼬 늦어 오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보야(여, 84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⑩

오늘 낮에 점심 반찬 무슨 반찬이 올랐더노  
미나리라 시금치는 맛본다고 더디더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말순(여, 81세, 상남면 평촌리) 제보  
2009년 7월 23일 채록

⑪

늦어 오네 늦어 오네 점슴참이 늦어 오네  
미나리여 시금초여 맛본다고 늦어 온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⑫

서울이라 남정자여 점슴참이 늦어 오네  
미나리야 수금초야 맛본다고 늦어 오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⑬

더디 오네 더디 오네 점심참이 더디 오네  
토란 다단 머구<sup>296</sup> 다단 짬한다고 더디 오네

『경상남도지』 하(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⑭

서울이라 남정자여 점슴참이 늦어 오네  
소괴기를 사다가여 이솔 저솔 떠끌떠끌 빽니라고 늦어 오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⑮

점슴을 시갔다 술력시여 점슴참이 늦어 온다  
서른시 칸 정지<sup>297</sup>간에 도니라꼬 늦어 오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⑯

서울이라 남정자여 점슴챔이 늦어 온다

296 머위의 지역말. 머위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잎이 연하여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다. 산과 들에 저절로 나기도 하고 밭에 가꾸기도 한다.

297 부엌의 지역말

서른세 칸 정지 안에 도느라고 늦어 오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립(여, 71세), 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⑯

(인자 점심때 카는 거는)

늦어지네 늦어지네 점심밥이 늦어지네

삼대야 사대 외동 자슥 젓 준다고 늦었어요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덕순(여,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8월 26일 채록

⑰

서월이라 남정자는 점슴참이 늦어 오네

삼대독자 외동아들 젓 준다고 늦어 오네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⑲

서울이라 남정자에 점심참이 늦어 온다

삼대독자 예동<sup>298</sup> 자식 젓 준다고 참이 늦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298 외동

㉐

오늘 낮에 점슴참이 뭐하다가 늦어 오노  
이등 저등 건너다가 녹줄에 걸려서 늦어 온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㉑

점슴을 시깃다 남정자는 어데만참 오시는공  
이등 저등 건넷등에 녹칡<sup>299</sup> 걸려 못 오는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한두임(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㉒

서울이라 남정자에 점슴참이 늦어 오네  
이등 저등 건너다가 녹칠<sup>300</sup>에 걸려 지 못 오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㉓

점슴을 시기서 술래꾼을 어데만첨 오시던고  
이등 저등 건네 등에 녹칡이 걸려 못 오더네

299 칡넝쿨, 칡덩굴  
300 칠은 칡의 지역말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㉔

점심아 시깃던 술러군은 어데만참 오시던고  
이등 저등 건네 등에 녹칠기 걸리 더디 오네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㉕

점심아 실었다 술리꾼아 나의 점심 아니 오네  
이등 저등 건네다가 녹칠에 걸려 더디 오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최영규(남,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173. 오늘 낮의 점심 반찬

①

오늘 낮우 점슴반찬 뛰슨 반찬 올랐더노  
전라도라 독간재비<sup>301</sup> 마리 반씩 올랐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301 소금독에 1개월 이상 발효시킨 간고등어

2010년 6월 29일 채록

(2)

오늘 낮에 점심반찬 뛰슨 고기가 올랐더노  
전라도라 독간재비 바리바리 올랐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안분미(여, 82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3)

오늘 낮에 점심반찬 무슨 반찬 올랐더노  
모락모락 독간재비 마리 마리 올랐더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4)

오늘 낮에 점심아 반찬 무슨 반찬이 올났더노  
전라도라 독간재비 마리 마리가 올랐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의한(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5)

오늘 나주<sup>302</sup>에 점심반찬 무엇 무엇 올랐던고

302 낮

전라도라 독간잽이 마리 반이 올랐더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이귀덕(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6)

오늘 낮에 점심반찬 무슨 고기가 올랐더노  
전라도라 독간재비 마리 마리 올랐더라  
(어이! 줄 넘가야 되거덩. “함바지 좀 봐 주소. 함바지이. 허리 아파 죽을 지경이다.  
함바지.” 함바지는 복판 보고 카거덩. 기에는 참 많이 밀리고 복판이 너르다 말이다.  
허리 아프니까 “함바지 봐 주세요.” 카거덩.)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자, 조정효 조사  
박덕순(여,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8월 26일 채록

(7)

오늘 낮에 점심반찬 무슨 반찬 올랐더노  
서울이라 두간재비 마리 마리 올랐더라

『경상남도지』 하(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8)

오늘 낮에 점심반찬 무슨 반찬 올랐더노  
서울이라 장안 안에 독간잽이 올랐더라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민선학(여, 53세), 안양이(여, 60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4일 채록

⑨

오늘날 낮에 점심반찬 무슨 반찬 올랐던고  
햄경두<sup>303</sup>라 케명태를 마리 반씩 올랐더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⑩

새별 같은 저 밥고리 반달 동실 떠나오네  
지가 무슨 반달이라 초승달이 반달이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순금(여, 9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74. 석양은 펄펄 재를 넘고

①

석양은 펄펄 재로 넘고 이내 갈 길은 천 리로다  
말큰 가자고 굽우를 치고 임은 잡고 낙루를 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303 함경도

(2)

석양은 풀풀 채를 넘고 나의 갈 길 천 리로다  
말은 가자 재촉하고 임은 잡고 낙루하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설병규(남, 75세, 무안면 판곡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3)

석양은 편편 채로 넘고 내 갈 길은 천 리로다  
말큰 가자고 굽이를 틀고 임은잡고 낙루한다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4)

석양은 편편 채를 넘고 이내 갈 길 천 리로다  
님아 님아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주게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5)

석양은 채를 넘고 내 갈 질이 만 리로다  
말은 가자고 굽우를 치고 임은 잡고 낙누를 하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⑥

술내만 풀풀 채로 넘고 임은 잡고 낙루로 하네  
말클랑 가자꼬 굽우로 치는데 임은 잡고 낙루로 하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최필조(여, 8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⑦

석양은 편편 재를 넘고 나의 갈길 천 리로구나  
임은 날 잡고 몬 가게 하고 암만 봐도 다 틀렸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175.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①

오늘 해가 다 졌는가 골짜골짜에 연기 나네  
우리야 부모님 어드로 가고 연기 낼 줄로 모르는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하선(여,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②

오늘 해가 다 졌는가 산골마다 연기 나네  
우리야 부모님 어데로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는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임채계(여, 81세, 상남면 평촌리) 제보  
2009년 7월 23일 채록

③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골목골목 연개 난데  
우리야 부모님은 어데 가고 연기낼 줄 모리더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산골마다 연기 나네  
우리 부모 어디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는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⑤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산골마다 연기 나네  
우리야 부모님 어디 가고 동재할 줄 모르던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여환순(여, 79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⑥

오늘 해가 다 졌는강 산골마다 연기 나네

우리 엄마 어데 가고 연기 낼 줄 모르시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정자(여, 8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어느 해가 다 졌는가  
우리 엄마 어데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던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8)

오늘 해가 다 졌구나 끌짝마중<sup>304</sup> 연기 나네  
우리 님은 어두루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더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9)

오늘 해가 다 졌는가 산골마저 연기 나네  
우리 님은 어디로 가고 우리 연기 낼 줄 모르던가  
이후후후후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 304 골짜기마다. 마중은 ‘마다’의 지역말

최말순(여, 81세, 상남면 평촌리) 제보  
2009년 7월 23일 채록

⑩

오늘 해가 다 졌는데 산골마당 연기 나네  
우린 님은 어데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던가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⑪

해 다지고 다 저문 날에 골목골목 연기 나네  
우린 님은 어디로 가고 연개야 낼 줄 모르던고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⑫

해 다지고 저문 날에 골목골목 연기 나네  
우리야 할마이는 어데로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던고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이순학(여, 81세), 이쾌남(여, 67세), 배자순(여, 50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⑬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양산땅에 해 다 졌네  
뻥뻥실 웃는 아기 몇다 보고 해 다 졌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무순(여, 7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⑭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양산땅에 해 다 졌네  
뻥긋뻥긋 잇는 아기 몬다 보고 해 다 졌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성세(여, 85세, 상동면 금산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⑮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양산땅에 해 다 졌네  
방긋방실 윗는 아기 몬 다 보고 해 다겼네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⑯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양산땅에 해 다 졌네  
방실방실 웃던 아기 못 다 보고 해 다 졌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⑰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밀양 굴래<sup>305</sup> 해 다 졌네

305 밀양 고을에

방실방실 웃는 아기 몬다 보고 해 다 졌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⑯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양산 골에 해 다 졌네  
양산골에 해가 지니 금동땅에도 해 다 지요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서상수(남, 80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 176.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①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우연<sup>306</sup> 행상(行喪)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 죽은 이별 행상 떠나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분주(여, 87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②

해 다 지고 저무신 날에 운 행상이 떠나오노  
이태백이 본처 죽어 인물 행상이 떠나오네

306 “무슨, 어떤, 웬”의 뜻이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③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우연 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큰오마이가 해 다 진데 떠나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문덕일(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우연한 행상 떠나가네  
누구의 행상인가 이태백이 본처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⑤

해는 쳐서 저문 날에 무슨 행상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가 죽어 이별 행상이 떠나가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⑥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이별 행상이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 철렌가 이별 행상이 떠나간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영애(여, 78세, 상남면 외산리 오산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7)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북소리 등등 울려나네  
이태백이 본처 죽어 이별 행상 떠나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8)

해가 지고 저문 날에 우연 상부<sup>307</sup> 떠나가노  
그 상부가 뉘 아닐러 이태백이 본처 죽은 이별 상부 떠나가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수연(여, 65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9)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인물 행상 떠나온다  
저 행상이 누 행상고 이태백의 본처 죽은 인물 행상 떠나오네

임동권, 『한국민요집』 II(집문당, 1974)

307 상여(喪輿)를 속되게 이르는 말

⑩

해 다 졌네 해 다 졌네 양산땅에 해 다 졌네  
이태백이 본처랑가 이물이 행상 떠나가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⑪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임으 행상 떠나온다  
임으 행상 떠나온데 수물여덟 상 됐구나<sup>308</sup>  
그 행상을 좀히 놓소 어지아리 니가 오디<sup>309</sup>  
일곱 형지 맏오랍아 이 행상 어매 아배 불라 하마

류종목, 성재우 조사  
박귀출(남, 68세), 김월분(여, 69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⑫

오늘 해님이 다 졌는데 웬아 행상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철랑은 임으 행상 떠나온다

류종목, 성재우,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308 스물여덟 살에 상을 만났구나  
309 그 행상을 조심히 놓으시오 어제 그저께 네가 오더니

⑬

해 다 지고요 저문 날에 우연 수자 울미 가네  
그 수자가 그리 가도 백년해로 잊고 간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⑭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우얀 수재가 울고 가노  
그 수재가 그래 봐도 맹자전구<sup>310</sup> 일본 간다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⑮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너도 나와 같이 임을 잊고 보고파 우는구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⑯

해 다 지고 저믄 날에 꼬갓을 씌고 어데 가요  
흰 꼬갓을 씌고서 가는 분은 자기가 좋아 어데로 간지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310 『맹자(孟子)』를 읽고'의 뜻인 듯하다.

## 177. 저녁을 먹고 썩 나서니

①

저녁을 묵고 썩 나서서 물명당 안에서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랑 밤에 가고 주모야 술집엔 낮에 가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하선(여,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②

지녁을 묵고 썩 나서니 물명당 안에서 손을 치네  
손 치는 데 밤에 가고 술 치는 데는 낮에 가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저녁을 먹고 썩 나서니 물명당 안에서 손을 치니  
손 치는 데랑 밤에 가고 주모야 집에는 낮에 가자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이순학(여, 81세), 이쾌남(여, 67세), 배차순(여, 50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④

저녁을 먹고 썩 나서니 물명당 안에서 손을 치네  
손짓하는 데는 밤에 가고 주모야 집에 먼저 가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⑤

지녁을 뚫고 썩 나서니 울명당 안에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는 지녁에 가고 술집에는 낮에 가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문덕일(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⑥

저녁을 먹고 썩 나서니 월명당 안에서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는 밤에 가고 주모야 술집은 낮에 가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⑦

지녁<sup>311</sup>을 먹고 척 나서니 월명당 안에 손을 치네  
손 치는 멜랑 밤에 가고 주모야 술집에 낮에 가세

류종목 조사  
김상용(남, 66세), 진술득(남, 68세), 김타업(남, 69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8)

저녁을 묵고 썩 나서니 월민당 고개 손을 치네  
손 치는 델랑 밤에 가고 주막술집 낮에 가자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9)

저녁을 먹고 썩 나서니 읊민당 고개서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는 낮에 가고 술집에는 밤에 가세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최영규(남,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10)

지녁을 먹고서 썩 나서니 밀동 넘에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는 밤에 가고 주모야 술집은 낮에 가세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11)

저녁을 묵고 썩 나서니 울밀동 너메 손을 치네  
손 치는 데는 밤에 가고 주모야 술집에 낮에 감세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⑫

아침을 묵고 썩 냅디서니<sup>312</sup> 물명당 안에서 손짓 하네  
손짓하는 데는 밤우로 가고 주모야 술집엔 낮을 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분주(여, 87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178. 초롱아 초롱아 영사초롱

①

초롱아 초롱아 영사초롱 초롱아 불을 누가 끄꼬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초롱아 불을 누가 끄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초롱아 초롱 영사초롱 임으야 방에 불 밝혀라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초롱에 불을 누가 끄꼬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312 ‘나서니’의 지역말

(3)

초롱아 초롱아 영사초롱아 임으 방에 불 밝혀라  
임도 눕고나 나도나 눕고 초롱아 불을 뉘가 끌꼬

류종목, 성재옥, 김현수 조사  
최점석 (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4)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임우 방에 놀러 가자  
임도 눕고 나도 눕어 초롱이불 누가 끌고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5)

초롱아 초롱아 영사초롱 영사초롱에 불 밝혀라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초롱에 저 불을 누가 끌꼬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6)

불 밝히라 불 밝히라 임으 방에 불 밝히라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저 초롱불로 누가 끌고

백임이(여, 70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1984년 채록

(7)

초롱아 초롱아 영사초롱 임오 방에 불 밝히라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저 초롱불로 누가 끌고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8)

상사초롱에 불 밝혀들고 춘향이 집으로 간다  
춘향도 눕고 날도 눕고 초롱의 불은 누가 끄리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이철(남, 75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179. 말은 가자 굽을 치고

(1)

(청중: 점심 묵고 쉴 참에)  
말클랑 가자꼬 구부로 치고 임의 갈 길은 천리로다  
말큰 가자꼬 구부로 치고 이 몸 갈 길은 천리로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최영규(남,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2)

말은 가자꼬 굽우를 치고 임은 잡고 낙루한다  
서산에 지는 해는 임 그리와 따로 가나  
산천초목 불불는데 저물녘에 잘못 들었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180. 오늘 해는 다 졌는데

을 해는<sup>313</sup> 다 졌는데 고삐 없는 소 나가네  
콩가지를 꺾어 들고 소 찾아서 가는구나

손병현(밀양시 교동) 제보  
1958년 9월 채록

313 오늘 해는

## 제2장 김매기 노래

### 제1절 논매기

#### 1. 널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이구십팔 소년들아 널널널 상사디야  
백발 되기 잠깐이다 널널널 상사디야  
어지<sup>1</sup> 청춘 오늘 백발 널널널 상사디야  
아르텍<sup>2</sup>이 코를 차네 널널널 상사디야  
선수박씨 까 봐 이가 널널널 상사디야  
아르텍을 코를 찬다 널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태산에 붙는 불은 널널널 상사디야  
산주<sup>3</sup>들이 꺼는마는 널널널 상사디야

1 어제

2 아래턱

3 산주(山主). 산의 주인

이내 가슴에 붙는 불은 널널널 상사디야  
어느 누가 꺼 줄 건가 널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널 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화살같이도 곧은 허리 널널널 상사디야  
활장같이 굽어 오고 널널널 상사디야  
어지는 청축인데 널널널 상사디야  
오늘 백발 웬말이냐 널널널 상사디야  
넓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초롱 같은 밝은 눈이 널널널 상사디야  
어느 연간에 눈물이 나고 널널널 상사디야  
넓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상사소리 잘도 한다 널널널 상사디야  
넓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어 허 허 이히히 (모두 함께)

이 히 여 이히히여 (모두 함께)

이후후후후 (모두 함께)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진철(남, 74세), 오수개(남, 71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2. 어렬렬 상사디야

(자아, 우리 인자 허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이란데 우리 노래나 한 마디 부릅시다.  
힘을 주어)

위위위 위이요 이호호호호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호호호호 위위위 위이요

오동추야 달 밝은데 위위위 위이요

무정세월 유류한데 위위위 위이요

님의 생각 절로 난다 위위위 위이요

일월동산 달 떠오네 어렬렬 상사디야

상사소리<sup>4</sup>도 잘도 한다 어렬렬 상사디야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어렬렬 상사디야

시집 삼년 살고 나니 어렬렬 상사디야

시어마씨 하는 말씀 어렬렬 상사디야

야야 아가 며늘아가 어렬렬 상사디야

진주낭군 볼랴거든 어렬렬 상사디야

진주 남강 빨래 가자 어렬렬 상사디야

진주 남강 빨래 가니 어렬렬 상사디야

4 못소리. 눈에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노래

물도 맑고 돌도 고와 어럴렬 상사디야  
흰 빨래 희게 씻고 어럴렬 상사디야  
검은 빨래 검게 씻어 어럴렬 상사디야  
집이라고 돌아올 때 어럴렬 상사디야

난데없는 말방울소리 어럴렬 상사디야  
옆눈으로 훌끗보니 어럴렬 상사디야  
하늘 같은 것을 씨고 어럴렬 상사디야  
구름 같은 말클 타고 어럴렬 상사디야

못 보듯이 지내 가네 어럴렬 상사디야  
그것이 꽤심해서 어럴렬 상사디야  
집이라고 찾어오니 어럴렬 상사디야  
시어머니 하신 말씀 어럴렬 상사디야

야야 아가 며늘아가 어럴렬 상사디야  
진주낭군 불랴거든 어럴렬 상사디야  
작은방을 들어가라 어럴렬 상사디야  
작은방을 들어가니 어럴렬 상사디야

오색 가지 수를 놓고 어럴렬 상사디야  
기생첩을 옆에 찌고 어럴렬 상사디야  
술을 들고 권주하네 어럴렬 상사디야  
그것이 꽤심해서 어럴렬 상사디야

아랫방을 내려와서 어렬렬 상사디야  
석 자 수건 명주수건 어렬렬 상사디야  
목을 잘라<sup>5</sup> 죽었구나 어렬렬 상사디야  
진주낭군 그 소리 듣고 어렬렬 상사디야

버선발로 내려와서 어렬렬 상사디야  
아야 사랑 내 사랑아 어렬렬 상사디야  
너 죽을 줄 내 몰랐다 어렬렬 상사디야  
기생첩은 석 달이고 어렬렬 상사디야

본대 쳐는 백년사랑 어렬렬 상사디야  
저 건너 저 산에 평화가 되면 어렬렬 상사디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올까 어렬렬 상사디야  
부뚜막에 훌린 밥이 어렬렬 상사디야

싹이 나면 오실란가 어렬렬 상사디야  
병풍에 그린 닭이 어렬렬 상사디야  
홰를 치면 오실란가 어렬렬 상사디야  
바닷물이 마르게 되면 어렬렬 상사디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올까 어렬렬 상사디야  
썩은 새끼 목이나 매어 어렬렬 상사디야

|| 5 졸라

너와 나와 둘이 죽자 어렬렬 상사디야  
어렬렬 상사디야<sup>6</sup>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박노적(남, 52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3. 어열렬렬 상사디야

어열렬렬 상사디야 어열렬렬 상사디야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 어열렬렬 상사디야  
고대광실 높은 집에 어열렬렬 상사디야  
사모에다 평경 달고 어열렬렬 상사디야  
동남풍이 니리 불면 어열렬렬 상사디야  
평경소리 요란하다 어열렬렬 상사디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하명득(남, 70세, 무안면 성덕리) 제보  
2010년 8월 26일 채록

### 4. 어헐렬러 상사디야

어헐렬러 상사디야 어헐렬러 상사디야

6 첫 부분은 원래 논매기 노래였고, 상사디야 후렴이 있는 부분은 시집살이 노래가 뒤에 결합된 것 같다.

전동<sup>7</sup> 같은 팔때로 앞을 땡기며 어헐렬러 상사디야  
뒤로 밀띠<sup>8</sup> 휘휘 젓어 매어보자 어헐렬러 상사디야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5. 어 허아 위위아 위여

- (메) 에이 천하지대본은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농사밖에 혜 또 있는고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높은 신농씨의 혜 본을 받아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높은 데는 밭을 쫓고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낮은 데는 논을 쳐서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오곡잡곡을 씨를 뿌려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가을 한 철 추수하면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조반석죽 들어오니

7 전동(箭筒)은 화살을 담아 두는 통으로, '살통'이라고도 한다.

8 지게를 어깨에 메는 끈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부귀영화 살아보세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양친부모 모셔놓고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오순도순 살아보세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부모봉청 하신 후에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나라에는 충성하소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우편에는 어른 동모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좌편에는 총각 동모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좌우편을 갈라서서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양대받이로 내려주소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전등 걸은 저 팔애로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양대받이로 훌치주소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명사십리 해당화요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꽃 진다고 서른 마소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명년 삼월 돌아오면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너는 다시 피거니와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인생 한번 돌아가면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다시 오긴 어려워라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아팔청춘 소년들아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백발 보고 괄세 마소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나도 어제 청춘이더니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백발 되고 잠깐이네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메) 에이 가련하고 가련하네  
(받) 어 허아 위위아 위여

이소라 조사  
(메)신의근(남, 94세), (받)산내농요 회원들(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 6. 오호해야 오호디야 오

오호해야 오호디야 오

육국유왕 소진장<sup>9</sup>은 오호해야 오호디야 오

유왕을 다 달래도 오호해야 오호디야 오

유월비상 춘향절개 오호해야 오호디야 오

춘향절개를 못 달래노

오호해야 오호해 오호디야 오

비루가음에 우금삼제라<sup>10</sup>

오호해야 오호해 오호디야 오호해

약수<sup>11</sup>삼천리 청조새는 끊어지고

오호해야 오호해야 오호디야 오

남천을 바라보니

오호해야 오호해 오호디야 오호해야

망하니 욕천<sup>12</sup>이요

오호해야 오호해 오호디야 오호해야

남천을 바라보니 망하니 욕천이요

오호해야 오호해 오호디야 오

9 중국 전국시대의 책사인 소진(蘇秦)과 장의(張儀). 소진은 합종설(合從說)을 주창하여 한(韓), 위(魏), 조(趙), 연(燕), 초(楚), 제(齊)의 여섯 나라를 합종하여 진(秦)나라에 대항케 한 인물이고, 장의는 이들 나라를 설득해 진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을 맺게 한 인물이다. 모두 뛰어난 언변을 지닌 인물을 상징한다.

10 별후광음(別後光陰)이 우금삼재(于今三載)에 『춘향전(春香傳)』의 한 구절

11 약수(弱水)는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으로, 길이가 3천리나 되며 부력(浮力)이 약해 깃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12 욕천(欲天)은 욕계에 속하는 하늘로, 욕계는 식욕(食慾), 음욕(淫慾), 수면욕(睡眠慾)에 지배받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일컫는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해는 저물어 놀은 매야 되고  
구야 구야 까마구야  
지리동산의 까마구야  
까마구를 말로 하면  
걸이야 검지마는  
속조치라 검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어이  
구야 구야 까마구야  
니 팔자나 내 팔자나  
억울해 가지고  
이놈도 죽고 나면 그 뿐이다  
산 사람도 한평상<sup>13</sup>이요  
죽은 사람도 한평상이요  
에허어 누구는고  
이 논바닥에 나는 논다

|| 13 한평생

아이고 아이고  
몬 하겠다 몬 하겠다  
숨길 가빠<sup>14</sup> 못 매겠네

아이고 아이고  
시월아 봄철아  
니 가지 마라  
알뜰한 요놈의 청춘  
다 늙어졌다 에헤이  
이팔청춘 다 보내고  
백발 되기 잠깐이세  
위후-후-후

아이고 아이고  
시월아 봄철아  
니 가지 마라  
알뜰한 요놈의 청춘  
다 늙어졌다 다 늙어졌다  
놀구 놀구 짚을 칙에  
많이 많이 놀고 놀고  
묵고 놀고 씌고 놀자  
늙어지이 그 뿐이다

14 숨길이 가빠서

열아홉 살 묵은 과부가  
스물아홉 살 묵은 딸을 잊고<sup>15</sup>  
금강산 모랭이 딸 찾아  
나는 도로 갔다가이  
울청덤<sup>16</sup>에 미끄러져  
나자빠라졌다 어이  
어데로 찔리뿐 기라  
아파가 울고 슬퍼서 울구  
어데루 가꼬 내 딸 봉덕아  
위후후후  
아이고 아이고  
니 죽어도 내 못 살고  
내 죽어도 내 못 산다  
니와 내가 만냈은께  
청실홍실 걸어놓고  
이러구로 만냈던가  
니와 내가 만날 적에  
열두 폭 치알<sup>17</sup> 밑에  
장닭 암닭 놓고 써로 만냈더나  
위후후후

아이고 아이고

15 있을 수 없는 일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한다.

16 청덤은 너덜경(돌이 많이 흘어져 있는 비탈) 또는 큰 바위를 일컫는 말인 듯하다.

17 차일(遮日). 햇빛가리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 니 죽어도 내 못 살게  
내 죽어도 니 못 살고  
백년 함께 살라했더이  
니 죽으이 허사더라  
니가 죽으니 날 생각은 뉘 하던 겄고  
내 죽어면 잊을 수 없데  
세월아 봄철아  
니 가지 마라  
이 알뜰한 요놈의 청춘  
이 다 늙어졌다 에 이  
원수야 백발 날 침노하야  
아깝은 요놈의 청춘  
다 늙어졌다 다 늙어졌다  
위후후후

짚신도 짹이 있고  
미신<sup>18</sup>도 짹이 있는데  
이 나는 우예<sup>19</sup> 짹을 잃노  
니와 내가 목을라고  
이리구로 지어난 농사  
내 혼차 목으이

18 짚신의 지역말

19 어찌, 어떤 이유로의 지역말

배가 부리나  
목이 걸리니 안 넘어간다  
동굴동굴 수박깨우<sup>20</sup>  
밥 담아 가아 기다린다  
도리동상 동굴판에  
수지 놓고 간진 놓고<sup>21</sup>  
임자 오도록 나는 나는 기다린다  
위후후후

아이고 아이고  
늙고 늙지 마자  
이팔청춘 늙지 마자  
니와 내가 설구설고  
천년만년 살아보자  
아이고 아이고  
씨룩씨룩 피는 낚이  
이 구시월 설한풍에  
꽃은 피어 만발하고  
잎은 피어 너울너울 켰노마는  
구시월 설한풍에  
떡가랑잎 떨어지고  
너와 내와 동지선달

20 수박같이 등근 식기

21 수저 놓고, 간장 놓고

긴긴 밤에 묵고 놀자  
우리 농부들이 말로 하면  
구시월 설한풍에  
지어난 농사 가지고  
동지섣달이 삼월 되도록  
편한 생활한다  
아이고 올해 지고 말까  
훗년에나 지고 말까  
그것도 안 되더라  
이 사람의 정분이라카는 것도  
매양 있는 기 아이고  
이 사람의 일이라고  
되는 일이 없네  
그것도 낙이고  
이것도 낙이야  
이 봄이 한 철 다처마<sup>22</sup>  
오던 새도 다시 오고  
금잔디도 속잎 나고  
이 우리도 살만하다  
명년 농사 새로 한번 다시 지라고  
새로 한번 지어보자

|| 22 닥쳐오면

아이고 아이고  
큰큰일이<sup>23</sup> 달이 짓고 보니  
이 농사도 이 밭농사고  
이 논농사도 지 놓인 건데  
방실방실 윗고 보니  
그것도 이  
밤낮주야 이  
보고 보니 사랑하되  
이 이러구로  
넘캉 같이 환영하자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학덕(남, 6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제2절 밭매기

### 1. 한 살 먹어 엄마 죽고

①  
한살 먹어 엄마 죽고 두살 먹어 아바 죽고

|| 23 큰일을

이십 세가 되어 오니 시집이라 가니까네  
시집갔던 사흘 만에 밭을 매로 가라 하니  
밭이라고 찾아가니 뵐걸이라 짓은 밭을  
한골 매고 집에 가까 두골 매고 집에 가까  
이삼십 골 매고 나니  
땅은 내리다 보니 먹탕강을 품은 걸고<sup>24</sup>  
하늘을 쳐다보니 밤중 새별이 송송하네  
집이라서 찾아가니 대문은 닫겼는데  
어머님요 어머님요 대문 조곰 끼라 주소<sup>25</sup>  
어라 이것 물렀거라 와 밤중에 와 댕기노  
시누우야 시누우야 대문 조곰 열어 도고  
아라이 것 물러가라 이 밤중에 어인 일고  
사랑방에 가장님이 버선발로 쫓아오디  
대문을 끼라 주네 그래 인자 들어가니  
밥이라서 주는 거는 삼년 묵은 딩기밥<sup>26</sup>에  
장이라고 주는 거는 사발굽에 빨라 준다<sup>27</sup>  
장이라고 주는 거는 삼년 묵은 꼬랑장<sup>28</sup>을  
접시굽에 빨라 주고  
술<sup>29</sup>이라고 주는 것은 삼년 묵던 통순가락<sup>30</sup>

24 먹탕강을 품은 것 같고. 검은 강물이 있는 것처럼 깜깜한 밤이 되었다는 뜻이다.

25 열어주소. ‘끼루다’는 열쇠 등으로 자물쇠를 열다라는 뜻을 지닌 지역말이다.

26 등겨(벗겨 놓은 벼의 껍질)로 지은 밥. 딩기는 겨(벼, 보리, 조 따위의 곡식을 쟁어 벗겨 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지역말이다.

27 사발굽에 빨라 주듯이 조금 주네

28 고린내 나는 간장

29 순가락

십리만치 던지 주고 오리마치 던지 주네  
개야 개야 검동개야 니나 묵고 살찌거라  
닭아 닭아 영기닭<sup>31</sup>아 니나 묵고 화를 치고  
개야 개야 꼬리 쳐라 이내 방에 들어가서  
임아 임아 가장님아 나는 다시 오던 길로 회양한다<sup>32</sup>  
농문을 열트리고 여덟폭 처매 따서  
한폭 따서 행건 짓고 두폭 따서 바랑 짓고  
또 한 폭은 고깔 짓고 중이 되로 나는 가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부모가 천년 살면 만년 사나  
내랑 하리하자<sup>33</sup> 하니  
한 고개를 한 모랭이 돌아가니 도사님이 오시는데  
중아 중아 도사중요 이내 머리 삭발하소  
나도 중 되로 갈 것이니 내 머리 삭발하소  
임자 머리 삭발하믄 뒤에 감당 누가 하리  
한 모랭이 돌아가니 또 도사중이 돌아오네  
중아 중아 도사중아 이내 머리 깎아주소  
한귀 밑에 깎고 나니 눈물이 진동하고  
두 모랭이 깎고 나니 하늘땅이 아니 비네  
바랑 하나 짚어지고 팔도강산 다 땡기다  
절을 찾아 들어가서  
바랑을 둘레 메고 이내 문전 찾아가서

30 품질이 낮은 놋쇠로 만든 숟가락

31 영계닭아

32 돌아간다

33 나와 화해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서방님도 간곳없고 어머님도 간곳없고  
검등개가 꼬리 치고 영기닭이 혜를 친다  
쑥대밭이 되었는데 개 닭은 날 온다고 꼬리치고  
혜치는데 어이 이리 되었던고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경남(여, 74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②

한살 묵어 아비 죽고 두살 묵어 어미 죽고  
이구 십팔 열여덟에 시집을 가라 하니  
시집 간 사흘 만에 밥이라고 주는 기  
삼년 묵은 밥 덩거리<sup>34</sup> 사발굽에 빌라 주고  
장이라고 주는 기 삼년 묵은 꼬랑장  
접시굽에 빌라 주고 그거로 묵고 나니  
시집간 사흘 만에 밭이라고 매려 가니  
한쪽 손에 삿갓 들고 한쪽 손은 호매이<sup>35</sup> 들고  
삼사월 진진 해에 삼시 골 거듭 매고  
미<sup>36</sup> 곁이라 지신<sup>37</sup> 밭에 삼시 골을 거듭 매고  
하늘로 쳐다보니 빌<sup>38</sup>이 세 판이 났구나  
집이라고 찾아오니 대문 닫아 났더란다

34 덩어리의 지역말

35 호미의 지역말

36 묘의 지역말

37 풀이 무척 우거진

38 별의 지역말

열어주소 열어 주소 대문 쪼금 열어주소  
여기 왔소 여기 왔소 내 여기 왔소  
(시오마이는 안 열어주고 하늘 같은 가장님은 와서 열어 주더란다)  
벼선발로 뛰어와서 이 밤중에 웬일이고  
사랑방에 가장님이 벼선발로 쫓아오니  
대문을 끄라주네]  
개야 개야 겸동개야 개야 개야 삽살개야  
내 오거든 짖지 마라 이 밥 먹고 있어라  
(그래 나왔다 카대. 나중에 와 보이 쑥대밭이 되었다 안 카던가베)  
웅글웅글 시아바시는 웅글개꽃이 피가 있고  
쪼블쪼블 쪼바리<sup>39</sup> 묵은 시어마시는 쪼바리꽃이 피가 있고  
두리넙덕<sup>40</sup> 접시꽃은 시누부 뒤에 피가 있고  
하늘 같은 가장님은 합박꽃이 피가 있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3)

한살 묵어 어미 죽고 두살 묵어 아비 죽고  
십오 세나 자라나서 시집이라고 가니  
밭 매로 가라 캐서 한쪽 어깨 호망<sup>41</sup> 걸고  
밭이라고 매로 가니 미걸이 짓은 밭을

39 조뱅이. 국화과의 두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용하고 줄기와 뿌리는 약용한다.

40 두리넓적한(모양이) 등그스름하고 넓적한)

41 호미의 지역말

한글 매고 가고지라 두골 매고 가고지라  
삼시 끌로 거듭 매고 돌아보니  
들에는 맥두산이 두른 듯고  
하늘에는 쳐다보니 별이 시퍼레이 났고  
집이라꼬 찾아오니 야시 곁은 시누부는  
그기 일이라꼬 집이라꼬 찾아오나  
엉글엉글<sup>42</sup> 시아바니 하시는 말쌈이  
그기 일이라꼬 집이라고 찾아오나  
쪼가리<sup>43</sup> 같은 시어머니  
그기 일이라꼬 집이라꼬 찾아오나  
방이라꼬 들어 앉으니 밥이라꼬 주는 것이  
엊저녁 먹은 꽁보리밥에 삼년 묵은 꼬랑장에  
통술가락 주는 거로 가지고 묵고 나이  
치매폭을 내에가  
한폭 따가 수건 하고 두폭 따가 바郎 짓고  
한쪽 머리 한쪽 귀탱이 깍고 나이 주먹 곁은 눈물이 나고  
한쪽 귀퉁이마자 깍고 나이 닭똥 같은 눈물이 나고  
(그래 인자 바郎을 집어 가지고 그래 인자 중질로 나갔는 기라. 나가이,)  
하늘 곁은 가장님이 하시는 말쌈이  
(그래 인자 “내 죽거등 뭐 뭐 앞 산에도 묻지 마고, 뒷산에도 묻지 마고, 대한질에 묻  
어 도고.” 각시가 그리 캤겠지. 응, 그래 그 카고 언자 떠<sup>44</sup>는 기라예.)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42 무엇을 속이면서 자꾸 억지로 웃는 모양

43 작은 조각 또는 아주 작고 불품없는 것

유숙이(여, 61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4일 채록

④

한살 묵어 어미 죽고  
두살 묵어서 아비 죽고  
십오 세라 자라나서 시집이라 가이  
밭 매려 가라 캐서 한쪽 어깨 호망 걸고  
밭이라고 매려 가니 미곁이 지선 밭을  
한글 매고 가고지라 두꼴 매고 가고지라  
삼십 골로 거듭 매고 돌아보니 들에는  
맥두산이 두름 듯고

김승찬 조사  
서진철(남, 47세, 상동면 우계리) 제보  
1980년 8월 12일 채록

## 2. 시집간 사흘 만에

시집간 사흘 만에  
시금시금 시어머니 밭을 매려 가라 카네  
나무 호매이 그기라사 올키<sup>44</sup> 주나 십리 밖에 던지 주매  
천접산<sup>45</sup> 자갈밭에 밭을 매니 한꼴 매고 땀을 닦고  
두꼴 매고 땀을 닦고 삼시꼴을 매고 나니

44 옳게, 바르게

45 첨첩산, 아주 깊은 산

(어두워져서)

하늘에는 빌이 송송하고 땅에는 검어서  
집이라고 찾아오니 대문조창 잠갔구나  
시금시금 시어머니 대문 쪼금 열어주소  
에라 아가 물렀쳐라 그것도 일이라꼬 삼시조석 찾아오나  
시금시금 시아버니 대문 쪼금 열어주소  
에라 니가 물리쳐라 그것도 일이라꼬 따라오나  
시금시금 시누님아 대문 쪼금 열어주소

고것도 일이라꼬 삼시세끼 찾아오나  
토굴 안에 서방님요 대문 쪼금 열어주소  
(그래, 서방님이 열어준다 아이가)

밥이라고 주는 거는 삼년 묵은 꽁보리밥  
거기라사 많이 주나 사발굽에 붙이 주네  
장이라고 주는 거는 십년 묵은 꼬랑장  
거기라사 많이 주나 접시굽에 던지 주네  
숟가락이라고 주는 거는 십년 묵은 통숟가락  
거기라사 바로 주나 십리 밖에 떨어지네

(그래, 인자 몯 살겠다고 신랑한테 캤다 아이가.)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밥 한 그릇 주거덜랑 니캉 내캉 갈라 묵고

죽 한그릇 주거들랑 니캉 내캉 갈라 묵고

(그래 가지 마라 캤단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남기(여, 84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3.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sup>46</sup>로 땖아내서  
은까락지 금까락지 찌는 손에 호망 자루 우짠 일고  
(그리 호맹이로 들고 볍에 가여 그래.)  
한골 매고 두골 매고 삼시 골로 거푸 매니  
점심때를 되었구나 저녁 때를 되어 찾아가니  
큰방에 시오마시 대문 조끔 열어주소  
에라 요년 물려쳐라 그거로 일이라꼬 조석 때로 찾아드나  
작은방에 시누부씨 대문 쪼매 열어주소  
에라 요년 그거로 일이라꼬 조석 때로 찾아드나  
사랑방에 시아바님 대문 쪼매 열어주소  
에라 요년 십리 밖에 가거라 니 걸은 거 안 본다  
아랫방 병든 가장 대문 쪼매 열어주소  
(병든 가장이 열어 주더란다, 병든 가쟁이.)  
병든 가쟁이 열어주고 그러구로  
(병든 가쟁이 열어주여 집에 들어가이 아무도 그거 안 헤거든. 이래여.)  
에라이 내 팔자야 열두 폭 처매 끊어서  
한 폭은 바랑 집고 한 폭은 장삼 집고  
중의 질로 나는 간다 중의 질로 가여

|| 46 손장난

(바가치<sup>47</sup> 삽짜 삽짜이)

동냥 쪼매이<sup>48</sup> 주소

(아이구, 동냥을 주는데, 예전에 둑을 거는 없고 지비쌀<sup>49</sup>로 주거덩. 이놈의 바가치

밀구녕이 빠져빠 가,)

바가치 밀구녕이 빠져여 이거를 우야겠노

물 한 그릇 떼 주소

(그래 인자 물 그거 적시 가지고 지비 그거 다 주워 올리고. 다 건지 올리 가지고 그

놈 쥐고, 시님<sup>50</sup>한테 갔어. 시님한테 가이,)

시님요 내 팔자가 이리 해서 시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부인요 한 번 와 보이소 그래 내 시기는 대로 할랍니꺼?

(아이구! 예 하겠십니다. 그래 그 시님 절에 가지고, 마그 심바림<sup>51</sup>을 시기는 대

로 다 하고 아래여. 아이구 또 뭐라 카노? 그것백이 모리겄다.)

(청중: 그러구로 돌아오니 시어른 묘에 가이께너 쑥대밭이 돼가 있고, 가장 미에 가  
인께너 함박꽃이 한 딩이가 피어 가 있고, 고려고로 지는 다시 절에 곰돌아가 가지  
고 형편 피이가<sup>52</sup> 살더랍니다. 허허.)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태아(여, 87세, 청도면 이산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47 바가지의 지역말

48 조금의 지역말

49 졉쌀

50 스님

51 심부름의 지역말

52 형편이 나아져서

#### 4. 미 같이 짙은 밭을

미 같이도 지슨 밭을 한꼴 매고 두꼴 매니  
하늘에는 빌이 총총 땅 밑에는 어둠침침  
(그리 늦더라고 대문을 열어 돌라카는 기라. 문을 딱 장가뿐 놓인께니<sup>53</sup>. 그리 야시  
곁은 시누부가 나오더이마는.)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어둡운 줄 몰랐더나  
(그라면서 문을 안 끼라주는 기라. 안 끼라주고, 그리 인자 신랑이 나와서 문을 끼라  
주미.)  
뭐 한다꼬 이때꺼정  
하늘에는 빌이 총총 땅 밑에는 어덥침침  
한꼴 매고 두꼴 매니 삼시골로 거듭 매니  
하늘에는 빌이 총총 땅 밑에는 어덥침침  
(이전에 우리 그런 노래는 해샀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분주(여, 87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5. 춘아 춘아 옥단춘아<sup>54</sup>

춘아 춘아 옥단춘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53 잡가버리고 나니

54 고전소설 <옥단춘전(玉丹春傳)>에 등장하는 평양기생으로, 민요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여성의 상징이 된다.

시집간 사흘 만에 밭이라꼬 매로 가니  
한골 매고 두골 매고 삼시 골로 매고 나니  
땅은 내려다 보니 먹을 같아 뿌린 듯고  
하늘은 쳐다보니 청보<sup>55</sup>로 둘런 듯고  
집이라꼬 찾아오니  
아랫방에 시아부님 대문 조끔 열어주소  
아가야 물러쳐라  
그것도 일이라꼬 집이라꼬 찾아오나  
(문을 안 열어주거덩.)  
큰방에 어머님요 대문 조끔 열어주소  
그것도 일이라꼬 집이라꼬 찾아오나  
작은방에 서방님요 대문 조끔 열어주소  
(그래 신행이 열어주거덩.)  
밥이라꼬 주는 거는  
삼년 묵은 꽁보리밥 사발굽에 벌라주네  
장이라꼬 주는 것은  
삼년 묵은 꼬랑장을 중발굽에 벌라주네  
숟가락을 주는 거는  
삼년 묵은 통숟가락 천리 만리 떤지주네  
(그런 시집도 살더란다, 옛날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55 푸른 빛깔의 보자기

## 6. 춘아 춘아 민경춘아

①

춘아 춘아 맹경춘아 시집살이 어떻드노  
시집살이 좋다마는  
접방살이 말도 많고 시집살이 말도 많네  
시집 간 사흘 만에 밭 매리 가라 하네  
뫼같이 지슨 밭에 불같이도 더운 날에  
한골 매고 두골 매고 삼시 골로 매고 나니  
하늘얼랑 치다보니 비리 시퍼래이 있고  
땅얼랑 치다보니 어둡살이 찌었구나  
집이라고 찾아가서  
아랫방에 시금시금 시아버님 대문 조금 끌라주소  
에라 물렀거라 그거로 일이라고 삼시조석 찾아드나  
큰방에 시금시금 시어마님  
끌라주소 끌라주소 대문 조금 끌라주소  
에라 요거 물렀거라  
고거로 일이라고 삼시조석 찾아드나  
작은방에 시누부야 대문 조금 끌라주소  
에라 요거 물렀거라  
고거로 일이라고 삼시조석 찾아드나  
(가장은 병이 들어 누었거든.)  
작은방에 병들은 가장임요  
끌러 주소 끌러 주소 대문 조금 끌라주소

엎어지민 자빠지민 나와서 대문을 끌라주소  
그러고로 들어가서  
밥이라꼬 들라 하니  
삼년 묵은 깅보리밥 사발굽에 벌라주네  
장이라고 들라 하니  
삼년 묵은 꼬랑장을 접시국에 발라주고  
숟가락을 줄라 하니  
삼년 묵은 동솟가락 십리 밖에 던져주네  
(그러고로 밥이캉 먹고,)  
아랫방에 나려가서  
아홉 폭 치마 밤물치마 한폭 따서 바랑 짓고  
두폭 따서 고깔 짓고 세폭 따서 전대 짓고  
다만 남은 한 폭으로  
바랑끈을 만들어서 백팔염주 만들어서  
나무 짹지 손에 들고 삽짜걸에 나오다가  
아룻방에 아버님요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중질하려 나는 가요  
에라 요거 배빼 가라 네 아니면 내 몬 살까  
큰방에 어머님요 중질갑니다 중질가요  
에라 요거 물렁거리라 네 아니면 내 몬 살까  
작은방에 병들은 가장임요  
중질가요 중질 가요 잘 있으소 나는 가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하룻밤만 자구 가고 하룻밤만 자구 가소

(그리고로 대문 밖에 중질 간다.)

한 모래이 돌아가니 도사중이 돌아온다

도사중아 도사중아 요내 머리 깎아주게

(깎기사 깎지마는 뒷감당은 어이 하리 안 깎아주고 그냥 간다.)

또 한 모랭이 돌아가니 도사중이 온다

도사중아 도사중아 요내 머리 깎아주소

(깎기사 깎지마는 뒷감당은 어이 하리 뒷감당은 내가 할란다.)

한쪽 머리 깎고 나니 초매 한 폭 다 젖었고

두 쪽 머리 깎고 나니 눈물이 한강수라

(이래 중질하려 들어간다.)

열 삽짝을 지내치고 한 삽짝을 호아들어

저거 아부지 음성소리 사랑방에 울려나고

저거 엄마 음성소리 큰방으로 울려난다

저거 오빠 음성소리 장채<sup>56</sup> 밖으로 울려나고

동냥 왔소 동냥 왔소 산골 중놈 동냥 왔소

저거 엄마 거동 바라 동냥 이삭 가져오며 하는 말이

그 중의 손발씨는 우리 딸 손발 같다

애고 답답 울 엄마야 머리를 깎았다고 손발조차 변할소냐

(이래 모녀가 만난 기라.)

저거 올게 이말 듣고

먹던 밥을 개로 주고 위리워리 밥 먹어라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이삼 년이 흘렀구나

56 작은 집 또는 벽장을 말하는 듯하다. ‘채’는 집을 세는 단위이다.

(그래 그거로 이제 시집곳에 돌아온다.)  
집이라꼬 돌아오니 미기든<sup>57</sup> 개가 살아 있어  
공글공글 우리 개야  
내 밥주던 우리 개야 우리 어른 어디 갔니  
(그래 꼬랑뎅이 실실 흔들면서 갈퀴준다.)  
시아바님 미에는 쑥대밭이 되어 있고  
시어머님 미에는 야시꽃이 피어 있고  
시누이 미에는 앵두꽃이 피어 있고  
신랑 미에는 함박꽃이 피었구나  
일어나소 일어나소 맹경춘이 내가 왔소  
일어나소 일어나소 가장님요 일어나소  
조그만 집의 방에  
찌께칼<sup>58</sup>을 품에 끼고 자는 듯이 죽어지라  
(맹경춘이 아래 죽은 게 아이라 통곡하고 나와 가주 이때까지 잘 산다 소문 오더구  
나.)

예씨(여, 58세, 부북면 대항리) 제보  
1984년 채록

②  
춘아 춘아 민경춘아  
민경춘이 시집갔던 사흘 만에  
불같이 더운 날에 뫼같이 짙은 밭을

57 먹이던

58 접칼(접을 수 있게 만든 칼)

한글 메고 두골 메고 삼세 골을 거듭 메고  
하늘에는 쳐다보니 별이 송송 나셨구나  
땅 밑에는 내려다보니 이슬이 송송 맺혔구나  
앞밭에 동무들아 뒷밭에 동무들아  
저녁 먹으러 안 갈라요 집이라고 찾아가니  
시금시금 시어머니 대문이나 열어주소  
어라 이거 물러 가거라  
그것이 일이라고 삼시 세 때 찾아오나  
시금시금 시어머니 저녁이나 주옵소서  
밥이라고 주는 것은  
엊저녁의 식은 밥을 사발국으로 빌라주고  
장이라고 주는 것은  
삼년 묵은 꼬랑장을 접시국으로 빌라준다  
물이라고 주는 것은  
엊저녁에 꾸중물로 사발국으로 넘쳐준다  
숟가락을 주는 것은  
뒷집에 똥구덕이 나무 가래 갖다가  
이모저모 빼겼부고 그것으로사 던져준다  
개야 개야 검동개야 이 밥 먹고 살 찌거라  
소야 소야 누렁소야  
이 장 먹고 눈물 한 상 전해다고  
아랫방에 내려가서 아홉 폭 밤물치마  
한폭 따서 고깔 짓고 세폭 따 바랑 짓고  
다만 한폭 남은 거로 바랑 끈을 따 두르고

백발 염주 목에 걸고 구정 짹지 손에 들고  
삼짝거래<sup>59</sup> 나오다가 주초돌에 바쳐놓고  
사랑문을 반만 열고  
시금시금 시아버지 날 간다고 한탄마소  
어라 이거 물러가라 너 같은 것 가나마나  
큰 방문을 반만 열고  
시금시금 시어머니 날 간다고 한탄마소  
어라 이거 물러가라 너 같은 것 가나마나  
정지문을 반만 열고  
시금시금 시누부야 날 간다고 한탄마라  
어라 이것 물러가라 너 같은 것 가나마나  
방문을 반만 열고  
활량활량 김활량아 날 간다고 한탄마소  
들은 치도 안 할레라 보던 체도 안 할레라  
삼짝거래 나오다가  
백발 염주 목에 걸고 구정 짹지 손에 들고  
화살같이 곧은 길로 솔개같이 나는 간다  
한 모퉁이 돌아가니  
만났구나 만났구나 김활량아 만났구나  
김활량이 하는 말이 내려가자 우리집을 내려가자  
너 좋거든 신선 잡고 묻어 줄게 구산<sup>60</sup> 잡고 묻어 줄게  
신선도 내야 쉽고 구산도 내야 쉽다

59 대문 앞에, 삼짝은 사립문의 지역말

60 구산(求山). 좋은 뒷자리를 잡으려고 찾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열 삽짝을 지내치고 한 삽짝을 호아들어  
저가부지<sup>61</sup> 음성소리 사랑방으로 울려나고  
저 엄마 음성소리 큰방으로 울려난다  
저거 오빠 음성소리 장채 끝으로 울려나고  
동냥 왔소 동냥 왔소 산골 중놈 동냥 왔소  
저거 엄마 거동 빠라 동냥 이삭 가져오며  
그 중의 손발씨는 우리 딸 손발 같다  
아이고 답답 우리 엄마야  
머리조차 변할소냐 손발조차 변하겠소  
저거 올케 이 말 듣고  
먹던 밥을 개로 주고 우리 개야 밥 먹으라  
너도 가니 그렇더라 나도 오니 그렇더라  
내 안 불런<sup>62</sup> 전동시도 날 불렀다 하시더라<sup>63</sup>  
내 안 먹은 붕어알도 날 먹었다 하시더라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삼석 달 거듭 가고  
시가곳<sup>64</sup>에 동냥 가니  
시아버지 죽은 데는 쑥대밭이 되었구나  
시어머니 죽은 데는 땅까시밭이 되었구나  
시누부라 죽은 데는 앵두꽃이 피는구나  
김활량아 죽은 데는 함박꽃이 피는구나  
조그마한 집의 방에 찍계칼로 품에 찌고

61 자기 아버지

62 내가 부러뜨리지 않은

63 내가 부러뜨리지 않은 전통(箭筒) 속의 화살도 내가 부러뜨렸다 하시더라

64 시댁

자는 듯이 죽어지라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7. 성아 성아 올케성아

성<sup>65</sup>아 성아 울키<sup>66</sup>성아 시집살이 어렵더노  
도리도리 도리판<sup>67</sup>에 수저 놓기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아제비<sup>68</sup> 말하기도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개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사래 질고 장찬밭에 밭 매로 가라 하네  
밭을 매러 가이꺼네  
미 겉이 짙은 밭에 불 겉이 덥운 날에  
한꼴 매고 돌아보니 점섬<sup>69</sup>때가 아니 되네  
두꼴 매고 돌아보니  
하늘은 쳐다보니 빌이 새파랗고  
땅은 내리다 보니 놋종자를 두른 듯고  
집이라고 찾아오니 삽작을 닫아뿌네  
시금시금 시며슴아 삽작 조금 열어다고  
삽작 열고 들어가니 밥이라고 주는 거는

65 형의 지역말

66 올키(올케의 지역말)

67 두리반. 여러 사람들이 둘러 앉아 먹을 수 있게 만든 크고 둥근 상

68 바지 벗은 시숙, 즉 어린 시숙을 말한다.

69 점섬의 지역말

삼년 묵은 꽁보리밥 사발굽에 빨라주고  
장이라고 주는 거는  
삼년 묵은 꼬랑장을 접시굽에 빨라주고  
숟가락이라고 주는 거는  
삼년 묵은 통숟가락 사발굽에 빨라주고 걸어주네  
못 살겠소 못 살겠소 나는 정말 못 살겠소  
시금시금 시어마시 오던 질로 가나이다  
니 갈 데는 니가 가고 내 갈 데는 내가 가지  
시금시금 시아바씨 오던 질로 가나이다  
니 갈 데는 니가 가고 내 갈 데는 내가 가지  
빈대 닷되 시누부야 벼룩 닷되 시누부야 나는 간다  
가고 싶거든 가고 말고 싶거든 말지  
그 말 누가 하라 하노  
하늘 곁은 가장님요 나는 가요 나는 가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밥 한 그릇 해였으마 니와 나와 묵고 사지  
그것도 뿌리치고 산 넘을 넘어가니  
아홉 폭 처매 폭을 시 폭 따서 바랑 짓고  
한 폭 따서 고깔 짓고 두 폭 따서 행건 짓고  
산 넘을 넘어가서  
즈그 친정 어마니가 미영<sup>70</sup>을 밭에 따네  
저 건너 저 밭에라 미영 따는 저 할마씨

한짐 주만 작게 주고 두짐 주만 많이 주네  
차츰 차츰 들어가니  
미영 따는 어마님은 집으로 돌아가고  
숙모님이 내다보고  
아씨님요 내다보소 짊은 아씨 방사하다<sup>71</sup>  
어라 이년 물러서라 짊은 아씨 우짠 일고  
그러나따나 내다보소 그래 내다보이꺼네  
딸님이 분명하다 니가 정말 우째 왔노

(여기서부터는 숨이 차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구술하였다.)

(그래, 인자 꼬꾸랑 소에다가 미영 한 마리 살고, 많이 살어 가지고 인자 보낸다 밀입  
니더. 시가집으로 보내이, 시가집에 들어가이 시어마님 미에는 개살구꽃이 핀고, 사  
아바이 미에 가이 용심꽃이 핀고, 가장(家長) 미에 가이 함박꽃이 핀고, 시누부 미에  
가니 개살꽃이 핀고, 마 그 집안에는 쑥대밭이 되 뿐이고 마 그렇더랍니더.)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71 비슷하다

## 제3장 보리타작 노래

### 1. 오해야 오해야

①

오해야 오해야

종도루깨<sup>1</sup> 오해야 이내 말씀 오해야  
들어보소 오해야 없는 신명 오해야  
있는 듯이 오해야 어깨춤을 오해야  
우쭐우쭐 오해야 신명나게 오해야  
소리 하니 오해야 먼 데 사람 오해야  
구경하고 오해야 절<sup>2</sup>에 사람 오해야  
춤을 추네 오해야 여보시오 오해야  
종도루깨 오해야 오뉴월 염천 오해야  
두덕더위<sup>3</sup> 오해야 더운 것도 오해야  
무릅쓰고 오해야 이와 같이 오해야

1 종도리깨. 도리깨는 곡식의 날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로, 도리깨질은 먼저 도리깨 질을 하는 목도리깨와 뒤따라 도리깨질을 하는 종(從)도리깨로 나뉜다.

2 결의 지역말

3 무덕더위의 오기인 듯하다. 무더위의 지역말

잘도 하네 오해야 목도루깨 오해야  
신명 나네 오해야 이럭저럭 오해야  
다나왔네 오해야 물러서자 오해야  
너무 가네 오해야 어제 봄도 오해야  
갓<sup>4</sup> 본 듯이 오해야 달라 들면 오해야  
때려주자 오해야 얼씨구나 오해야  
잘도 하네 오해야 여보시오 오해야  
종두루깨 오해야 배고프면 오해야  
밥을 주마 오해야 목마르면 오해야  
술을 주네 오해야 여보시오 오해야  
농부들아 오해야 이내 말씀 오해야  
들어보소 오해야 넘날 적에 오해야  
나도 나고 오해야 내날 적에 오해야  
넘도 났건만 오해야 어떤 사람 오해야  
팔자 좋아 오해야 고대광실 오해야  
높은 집에 오해야 사모에다 오해야  
평경 달아 오해야 동남풍이 오해야  
더리불어<sup>5</sup> 오해야 평경 소리 오해야  
절로 나네 오해야 우리 걸은 오해야  
농부들은 오해야 전생에 무슨 죄로 오해야  
오뉴월 무덕더위 오해야 더운 것도  
무릅쓰고 오해야 죽기 살기 오해야

4 이제 막

5 들어불어

달려더니 오해야 어디더노 말도 없네  
오해야 아 이후후 오해야  
어차 어차 어차 어차  
두줄 넘어가네 에화에어야  
에어야 에화 넘어간다 에화  
얼시고 에화 잘도 한다 에화 한바지<sup>6</sup>야 에화  
때리라 에화 끝바지야 에화 때리라 에화  
요놈의 보리가 에화 양반에 보린가 에화  
수염이도 길구나 에화 때리라 에화  
없는가 여기지 말고 에화 전신만신<sup>7</sup> 날보리<sup>8</sup>다 에화  
보리풍년 졌구나 에화 삼천리 강산에 에화  
우리에 이 강토 에화 보리가 근본이다 에화  
때리라 에화 두 팔에 힘을 주어 에화  
다리 들고 때리주소 에화 연해연방<sup>9</sup> 에화  
넘어간다 에화  
에이야 에화 때리라 잘도 하네 에화  
아하 에화

이우석(남, 62세, 무안면 고사동) 제보  
1984년 채록

6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 중 타작마당 입구에서 도리깨질을 하는 이를 첫바지(최받이), 가운데 서서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을 한바지(한받이), 첫바지와 반대편에 서서 도리깨질을 하는 이를 끝바지(끝받이)라 이른다.

7 천지사방 또는 전부인 듯하다.

8 날보리(갓 베어내어 아직 마르지 아니한 보리)

9 연해연방(連方). 잇따라 자꾸

(2)

오해야 오해야 한바지도 오해야  
잘두 하고 오해야 끝바지도 오해야  
잘도 하네 오해야 칙바지도 오해야  
잘도 한다 오해야 어떤 사람 오해야  
팔자 좋아 오해야 고대광실 오해야  
높은 집에 오해야 사모에 오해야  
평경 달아 오해야 동남풍이 오해야  
드리부니 오해야 평경소리 오해야  
요란하다 오해야 한바지야 오해야  
끌바지야 오해야 첫바지야 오해야  
두 주먹을 오해야 불끈 쥐고 오해야  
때리주소 오해야

(넘어간다. 어허.)

곰배팔이<sup>10</sup> 어허 사람 치고 어허  
심많사람<sup>11</sup> 어허 땅을 치고 어허  
우리들의 어허 농부들은 어허  
보리 치고 어허 에헤 에헤  
잘도 에헤 한다 에헤  
잘도 에헤 한다 에헤  
에헤 에헤

10 팔이 꼬부라져 붙어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1 힘 센 사람. 심은 힘의 지역말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강일석(남, 53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③

오해야 오해야 어쭈 때려라 오해야  
연해연축 또 나간다 오해야  
보호밭에 비 묻어 온다 오해야  
지수씨<sup>12</sup>도 때리주소 형수씨도 때리주소 오해야  
보호산에 비 묻어 온다 어쭈 오해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2. 옹해야 옹해야

①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오뉴월 옹해야  
보리타작 옹해야 어느 누가 옹해야  
내였던고 옹해야 신농씨가 옹해야  
농사법을 옹해야 고쳐시고 옹해야  
이 법을 옹해야 내실 적에 옹해야

12 제수씨(弟嫂氏)

우리 일꾼 옹해야 땀을 뺀다 옹해야  
보리타작 옹해야 땀이 나고 옹해야  
목마른데 옹해야 술을 주소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얼씨구나 옹해야  
한밭이도 옹해야 잘도 하고 옹해야  
칙밭이도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끌밭이도 옹해야 잘도 친다 옹해야  
여기 보소 옹해야 때리주소 옹해야  
양반에 옹해야 보릴란가 옹해야  
수염도 옹해야 장히 좋다 옹해야  
어쭈 어쭈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예화 옹해야 잘도 친다 옹해야  
어먼<sup>13</sup> 들에 옹해야 비 묻었다 옹해야  
보리 보고 옹해야 때리주소 옹해야  
얼씨구나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보리타작 옹해야 시작하면 옹해야  
우리 일꾼 옹해야 땀을 빼고 옹해야  
농갓집에 옹해야 소득 보아 옹해야  
보신을 옹해야 하올 적에 옹해야  
이 타작을 옹해야 하여 서서 옹해야  
어느 누가 옹해야 잘 먹을꼬 옹해야

13 애면(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의 지역말

첫째는 옹해야 부모봉양 옹해야  
둘째는 옹해야 처자권속 옹해야  
일문권속 옹해야 잘사자꼬 옹해야  
온몸에 옹해야 땀을 뺀다 옹해야  
후유 하고 옹해야 한숨 쉬니 옹해야  
끌이 났네 옹해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진술득(남, 68세), 이휘달(남, 67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②

옹해야 옹해야  
넘어간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때리주소 옹해야  
저기 가는 옹해야  
저 구름에 옹해야  
비가 들었나 옹해야  
눈이 들었나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때리주소 옹해야  
비가 오면 옹해야  
못 쓰게 된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잠시 중단)

옹해야 옹해야  
제추씨<sup>14</sup>도 옹해야  
내 손만 바래고 옹해야  
형수씨도 옹해야  
내 쫓만 바래고<sup>15</sup>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넘어간다 옹해야  
때려주소 옹해야  
여기도 옹해야  
때려주고 옹해야  
저기에도 옹해야  
때려주고 옹해야  
넘어간다 옹해야  
넘어간다 옹해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영무(남, 73세), 남명희(남, 67세), 손이철(남, 75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옹해야 옹해야 때리도고 옹해야  
사람은 적고 옹해야 소리는 많다 옹해야

14 제수씨

15 혀가 짧은 사람이 ‘손’을 ‘쫓’으로 발음하는 것을 빗대어, 노동현장을 흥겹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옹해야 옹해야 양반의 옹해야  
보린가 옹해야 시염<sup>16</sup>도 옹해야  
길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한받이야 옹해야 끝받이야 옹해야  
얼씨고 옹해야 때리도고 옹해야  
얼씨고 옹해야 잘도 넘어간다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옹해야

류종목 조사  
진술득(남, 68세), 권태목(남, 50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년 30일 채록

### 3. 예화 예화

①

예화 예화 때리라 예화  
양반네 예화 보린가 예화  
쉬염도 예화 지다<sup>17</sup> 예화  
때리라 예화 때리라 예화  
칙받이 예화 때리고 예화  
한받이 예화 때리라 예화  
끌받이 예화 들어 오너라 예화  
닥 때려라 예화 나간다 예화

16 수염

17 길다의 지역말

보리가 애화 나간다 애화  
단단히 애화 보고서 애화  
보리만 애화 때리라 애화  
애화 애화 애화 애화  
어주 애화 잘한다 애화  
한밭이 애화 니 둑어라 애화  
또 나간다 애화 어주 애화  
엉허 애화 한밭이 애화  
물러서고 애화 끝받이 애화  
때리라 애화 또 나간다 애화  
막 나간다 애화 어주 애화  
어허 애화 애화 애화  
퐁년이다 애화 보리 풍년이다 애화  
때리라 애화 어허 애화  
어주 애화 또 때리라 애화  
인자 고만<sup>18</sup> 애화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민영곤(남, 57세, 상동면 매화리 바깥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2)

자 한잔 먹었으니 시작해 볼까 애화  
여기 간다 한밭이야 힘껏 때리고 때리고 애화

|| 18 이제 고 정도로 하고

여기도 저기도 에화  
때리고 끌받이 뜯이라 때리고 에화  
또 나간다 여기도 저기도 에화  
때리고 때리고 에화  
한마당 끝났으니 중참<sup>19</sup> 먹고 쉬어 하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3)

에화 에화 에화 에화  
저기 가는 저 손님아 에화 에화  
여기 같이 도와주소 에화 에화  
칙받이야 때리라 에화 에화  
한받이야 뛰하노 에화 에화  
끌받이야 때려주소 에화 에화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천병수(남, 77세, 부북면 무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4. 엉혜이야 엉혜이야

엉혜이야 엉혜이야 연방연축 엉혜이야

19 새참(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

또 나간다 업헤이야 우리 군사 업헤이야  
참 잘한다 업헤이야 한받이야 업헤이야  
어싸디야 업헤이야 짊어 가미 업헤이야  
연방연축 업헤이야 또 나간다 업헤이야  
얼씨구나 업헤이야 절씨구나 업헤이야  
우리 구미<sup>20</sup> 업헤이야 참 잘한다 업헤이야  
한받이도 업헤이야 참 잘하고 업헤이야  
칙받이도 업헤이야 참 잘한다 업헤이야  
끌받이도 업헤이야 참 잘한다 업헤이야  
목도리깨 업헤이야 힘이 난다 업헤이야  
연방연축 업헤이야 또 나간다 업헤이야  
덜먹덜먹 업헤이야 올라서니 업헤이야  
군데군데 업헤이야 굴리시믄<sup>21</sup> 업헤이야  
목도리깨 업헤이야 힘이나요 업헤이야  
연방연축 업헤이야 또 나간다 업헤이야  
이 한 줄은 업헤이야 다 했구나 업헤이야  
얼씨구나 업헤이야 참 잘한다 업헤이야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박정석(남, 76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20 우리 패거리를 뜻하는 ‘조(組)’의 일본음  
21 힘주어 내리치면

## 5. 엉혜야 엉혜야

엉혜야 엉혜야  
허쩍 해야 엉혜야  
잘도 한다 엉혜야  
요것 바라 엉혜야  
요게 때리라 엉혜야  
잘도 한다 엉혜야  
넘어간다 엉혜야  
요것 봐라 엉혜야  
요게 때리라 엉혜야  
자 한받이야 니도 묵고  
곁바지<sup>22</sup>야 니도 묵고  
요게 때리라 핫바지  
저게 때리라 곁바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6. 어화 어화

어화 때리보고 어화 한마디야  
어화 어화 어화 어허

22 ‘칙받이’를 ‘곁에서 받아주는 이’라는 뜻으로 요약한 말이다.

때리보고 끝바디야 때리 보고 칡바지  
어화 어화 어화 애해  
때리보고 작은머슴 골<sup>23</sup> 먹었나 와 아래  
어화 어화 어화 애해  
못 때리노 신문정이 딱 패듯이 들고 패라 버버리<sup>24</sup>  
애화 애화 애화 애화 애화  
소 패듯이 종남산에 비 묻었다 큰머슴 잘한다  
애화 애화 애화 어화 어화  
이 보고 때리봐라 엊쥬 열싸 잘한다  
애화 애화 어어 어어 애화  
(보리타작 메김구)  
끌바지야 들구 쳐라 주인 양반 거동 봐라  
벙글벙글 웃는단다 얼씨구 잘한다  
절씨고 잘한다 연에연총 또 나간다  
칡바지야 이것 봐라 보리 봐라 아깝다  
나가마 썩어진다 때리보고 알뜰살뜰  
보리 갈아 안 때리면 헛곡식이다 엊쥬  
잘한다 절시고 잘한다 절시고 잘한다

이소라 조사  
(매)신의근(남, 94세), (받)김봉길 기타 산내농요회원(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23 비위에 거슬리거나 언짢은 일을 당하여 벌컥 내는 화  
24 병어리의 지역말

## 7. 예 혜

넘어가네 히호호호호 넘어간다

(메) 넘어 (받) 예

(메) 넘어 (받) 예혜

(메) 넘어간다 (받) 예혜

(메) 넘어 (받) 화

(메) 간다 (받) 예화

(메) 때려라 (받) 예화

(메) 진다 (받) 예화

(메) 넘어 (받) 예화

(메) 간다 (받) 예화

(메) 때려라 (받) 예화

권오성 조사

1985년 채록

## 8. 열씨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열씨구 잘한다

열씨구 잘한다 끝바지 잘하고

한바지도 잘한다 칙바지도 잘한다

또 나간다 찹쌀보리 또 나간다

때리라 때리라 어해야 잘한다

떡대산에 비 묻었다 얼씨구 잘한다  
어떡<sup>25</sup> 하고 술 묵자 얼씨구나 잘한다  
얼씨구 잘한다 에야에야 에헤야  
에헤헤헤 에헤에 에에엥헤 어야어야  
에헤헤이 에이야 때린다 때린다  
때리라 때리라 얼씨구 잘한다  
얼매든동<sup>26</sup> 때리라 때리는 거는 싫다 안 칸다  
얼매든동 때리라 때리라  
에에에헤 헤이야 어어어허 허이야  
어허어허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 9. 여기 때려라

여개 때리라 저게 때리라  
요게도 때리고 조게도 때리고  
(시작할 적에는 아래 하거든.)  
얼씨구 저게도 때리고 좋다!  
여게도 때리고 조게도 때리고 좋다!  
동지선달 서단풍<sup>27</sup>에

25 빨리 하고. 어떡은 빨리의 지역말  
26 얼마든지의 지역말

개똥망태<sup>28</sup> 둘러매고

골목골목 땅기민서

개똥 주아서

(카는 노래도 있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덕연(여, 7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0. 앞집에 제수씨도

앞집에 제수씨도 내 손만 바래고

뒷집에 형수씨도 내 손만 바랜다

엇따 좋다 날보리<sup>29</sup> 뚜딜라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경덕(여, 89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1. 에어 헤이여

에어 헤이여 둘러 매기여

27 서리 맞은 단풍을 이르는 듯하다.

28 개똥을 주워 담는 망태기. 망태는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인 망태기의 준말이다.

29 날보리(갓 베어 내어서 아직 마르지 아니한 보리)

이 단<sup>30</sup> 놓고 저 단 들고 두러 매기 때려보자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30 짚, 뱃나무, 채소 따위의 끓음

## 제4장 작두 노래

### 1. 오호호 작두야

오호호 작두<sup>1</sup>야 오호호 작두야  
작두소리도 잘도 한다 오호호 작두야  
하나 두얼<sup>2</sup> 모은 소리 오호호 작두야  
먼 데 사람 듣기 좋게 오호호 작두야  
곁에 사람 구경 좋게 오호호 작두야  
하나 두얼 모은 사람 오호호 작두야  
오늘 저녁에 여께서 놀고 오호호 작두야  
내일 저녁에 어데서 놀고 오호호 작두야  
작두소리도 잘도 한다 오호호 작두야  
사람은 많고 소리는 적다 오호호 작두야  
작두소리 울려주소 오호호 작두야  
이 논에다 모를 숨기<sup>3</sup> 오호호 작두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오호호 작두야

1 작두는 소나 말의 먹이를 써는 연장으로, 작두를 썰면서 부르는 노래를 ‘작두소리’ 또는 ‘풀 써는 소리’라 한다.

2 들을 길게 빼면서 부른 말

3 심어

칭칭시하<sup>4</sup> 다 먹는 소리 오호호 작두야  
얼씨구나 잘도 논다 오호호 작두야  
절씨구나 잘도 논다 오호호 작두야  
얼씨구 절씨구 오호호 작두야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오호호 작두야  
요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오호호 작두야  
하나 두얼 모안 소리 오호호 작두야  
기운 있기도 울려주소 오호호 작두야  
작두소리 잘도 하네 오호호 작두야  
포롬포롬<sup>5</sup> 봄배추는 오호호 작두야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 오호호 작두야  
옥 안에 갇힌 춘향이는 오호호 작두야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오호호 작두야  
석 자 수건 목에 매니 오호호 작두야  
삼흔<sup>6</sup>이 흘어지고 오호호 작두야  
칠백리 나는도다 오호호 작두야  
금낭<sup>7</sup>에 옥지환<sup>8</sup>은 오호호 작두야  
정절하고 정절하다 오호호 작두야  
정배한<sup>9</sup> 이내 마음 오호호 작두야

4 쟁층시하(層層侍下). 부모와 조부모 등의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처지를 말한다.

5 파릇파릇. 포롬하다는 파릇하다의 지역말

6 삼흔(三魂)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영혼, 즉 태광(台光), 상령(爽靈), 유정(幽精)을 이른다.

7 금낭(錦囊)은 비단 주머니를 말한다.

8 옥가라지

9 정배(正配)한. 정배는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맞은 아내로, 장가치와 같은 말이다. 또

옥지환 짹을 지어 오호호 작두야  
천년인들 변할소냐 오호호 작두야  
원수로다 원수로다 오호호 작두야  
옥락목이 원수로다 오호호 작두야  
제 욕심만 채울라꼬 오호호 작두야  
남에 정을 끊단 말가 오호호 작두야  
석 자 수건 목에 매니 오호호 작두야  
삼흔이 훑어지고 오호호 작두야  
칠백리 나는 도다 오호호 작두야  
금낭에 저 줄배는 오호호 작두야  
정정한도<sup>10</sup> 정절하다 오호호 작두야  
정풍(靜風)에 오락가락 오호호 작두야

김위갑(남, 68세, 산내면 용전리 오치) 제보  
1992년 2월 11일 채록

## 2. 어허허어 작두야

예해 작두야 어허 작두야 어허어허 작두야  
이 작두가 보배로구나 어허허어 작두야  
짚 쌍걸며<sup>11</sup> 여물 되고 어허허어 작두야  
풀 쌍걸며 모풀<sup>12</sup> 되고 어허허어 작두야

는 정배(定配), 곧 ‘짜을 정한’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0 정절하기도

11 짚을 썰면. 쌍글다는 썰다의 지역말

꼴 쌍걸며 거름 되고 어허허어 작두야  
거름짐은 돈이 되고 어허허어 작두야  
비는 오며 밥이 된다 어허허어 작두야  
이 작두가 돌로 씹어 어허허어 작두야  
어금니가 빠졌구나 어허허어 작두야  
이 빠진 작두 제쳐놓고 어허허어 작두야  
작두날 하나 얻어보자 어허허어 작두야  
박부자 집에 가서 어허허어 작두야  
작두나 조금 빌리주소 어허허어 작두야  
작두는 아니 주고 어허허어 작두야  
서럼<sup>13</sup>만 잔뜩 주는구나 어허허어 작두야

신의근(남, 78세, 산내면 임고리 벌례) 제보  
1992년 2월 9일 채록

### 3. 어허 작두야

(메) 예허어어 작두야  
(받) 어허 작두야  
(메) 뒷집 양반 거동 보소 거름이 부른 보고<sup>14</sup>  
대주양반 신명이 나서 후줄후줄 춤을 춘다  
(받) 어허 작두야

12 못자리의 거름 풀

13 설움

14 ‘불어난 것을 보고’를 축약한 듯하다.

(메) 이집 대주 거름 빛깔이  
(받) 어허어 작두야

(메) 물 봇듯이 불어난다  
(받) 어허 작두야

(메) 이집 대주 거름 빛깔이  
(받) 어허 작두야

(메) 초승달에 달 봇듯이  
(받) 어허 작두야

(메) 무럭무럭 불어난다  
(받) 어허 작두야

(메) 작은 머슴 들어봐라  
(받) 어허 작두야

(메) 당그랑 풀로 답싸 가라  
(받) 어허 작두야

(메) 거름 빛깔이 올려 재라  
(받) 어허 작두야

(메) 아차 하면 큰일난다  
(받) 어허 작두야

(메) 열손가락도 날라간다  
(받) 어허 작두야

(메) 조심해서 먹이주소  
(받) 어허 작두야

(메) 어허어 작두야  
(받) 어허어 작두야

(메) 얼씨구나 잘도 한다 어허 작두야  
당그랑그름 채이지면 올이 잘 안드간다

이소라 조사  
(메)신의근(남, 94세), (반)민종렬 기타 산내농요회원(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 제5장 길쌈 노래

### 제1절 삼 삼기

#### 1. 진주낭군 노래

①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살이를 삼년 하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메늘아가  
진주야 낭군 보실라커녕 진주야 남강에 빨래 가게  
시어머님 그 말씀 듣고 진주야 남강에 빨래 가니  
물도 좋고 돌도 좋아 오동통통<sup>1</sup> 빨래를 하니  
어더메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얼각찰각  
옆눈으로 힐끔 보니 하늘 같은 말을 타고  
구름 같은 것을 씌고 돌아도 안 보고 지나가네  
검은 빨래 껌게 씻고 흰 빨래는 희게 씻어  
집이라꼬 돌아오니

1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시늉말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진주야 낭군을 볼라커덩 사랑문을 열고 보게  
시어머니 그 말씀 듣고 사랑문을 열어보니  
꽃 같은 기생첩을 옆에 끼고 열두 가지 안주를 놓고  
너 먹어라 내 먹어라 권주가를 하는구나  
에헤라 내사 그 꿀 못 봐 웃방으로 올라와서  
석자야 수건을 목에다 걸고 자는 듯이도 죽었구나  
진주야 낭군 거동을 보소 벼선발로 뛰어올라  
첩우야 정은 이삼 년이요 본처야 정은 백 년인데  
너 죽을 줄 내 몰랐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춘자(여, 65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년 살고 나니  
시오마시 하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진주양반 볼라 카거든 진주 남강에 빨래로 가라  
진주 남강에 빨래로 가서 희문<sup>2</sup> 빨래는 희게 씻고  
껌운 빨래 껌기 씻고 톡닥톡닥 씻거 놓으니  
난데없는 발대중<sup>3</sup> 소리 펄뜩펄뜩 치다보니  
하늘 같은 갓을 씨고 구름 같은 말을 물고  
몬 본 체로 집에 가네

2 흰

3 발걸음으로 거리를 대략 짐작하는 일. 여기서는 발자국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그러고로 셋거 가주 집이라고 찾아오니  
시오마시 하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진주양반 볼라거든 사랑방 문을 열어봐라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청주 약주 술을 놓고  
니 묵어라 내 묵어라 권주가로 하는구나  
몬 볼래라 몬 볼래라 그 꼬라지 몬 볼래라  
작은방이 내 방이라 작은방에 들어오서  
집게칼로 품에 꽂고 석 자 수건 목에 걸고  
자는 듯이 죽었구나  
진주양반 그 소리 듣고 벼선발로 뛰어와서  
와 죽었소 와 죽었소 그만 일에 와 죽었어  
첩으야 정은 삼년이고 본처야 정은 백년인데  
그만 일에 와 죽었소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문덕일(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3)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접살이 삼 년을 사니  
시어머님 하신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한양낭군 볼라커덩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니 돌도 좋고 물도 좋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깜은 빨래 깜기 씻고  
(씻거이)

난데없는 발자국 소리 뒤로 히딱<sup>4</sup> 들어보니  
한양낭군 거동 보소 하늘 걸은 갓을 써고  
구름 걸은 옷을 입고 비호 걸은 말를 타고  
본체 만체도 지내가네  
집이라꼬 찾아오니 시어머님 하신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한양낭군 불라커덩  
사랑방에 들여다봐라  
한양낭군 거동 보소 기생첩 옆에 놓고  
소주 약주 받아놓고 은잔 놋잔에 술을 부여  
니 묵이라 내 묵이라 하는 꼴을 보니  
금시<sup>5</sup>라도 죽고지라 웃방에 올라와여  
명지수건 석 자 수건 목을 매여 죽어뻤다  
한양낭군 거동보소 웃방에 버선발로 쫓아와여  
와 죽었소 와 죽었소 내 말 없이 와 죽었소  
첩우야 정은 삼 년이요 본처 정은 백 년인데  
내 말없이 원통하기 와 죽었소  
(그리 죽고 나이, 원통타 카더란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④

울도야 담도 없는 집에 시집을 삼 년을 살고 나니

4 히딱(언뜻 휙돌아보는 모양)

5 바로 지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진주 낭군을 볼라거등  
진주 남강에 빨래 가세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니 돌도 좋고 물도 좋네  
터벅터벅 오는 소리  
(서방님이 태산 같은 말을 타고 구름 같은 갓을 씌고 본체 만체 지나간다 안 카나.)  
껌던 빨래는 껌기 빨고 흰 빨래는 희기 빨아  
집이라고 찾아오니 저 서방님 거동 보소  
열두 가지 술에다가 아홉 가지 안주를 놓고  
기생 첨을 옆에 찌고 권주가 하기가 일관이네<sup>6</sup>  
그 꼬라지<sup>7</sup> 볼라 하니 안방에라 들어가서  
명주천에 목을 매여 숨이 깔딱 질라 하니  
서방님이 보선발로 쫓아와서  
첨의 정은 좋다 해도 삼 년이면 끝나는데  
본처 정은 백 년이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5)

담도 울도 없는 시집살이를 삼 년을 하고 나이  
아가 아가 며늘아가 진주 압록강 빨래 가라  
진주 압록강 빨래 가니 돌도 좋고 물도 좋고

6 일관하네. 일관(一貫)은 일이판지(一以貫之)의 준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함을 이르는 말이다.

7 꼬락서니. 꿀을 낮잡아 이르는 지역말

껌동 빨래 껌게 씻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얼그려 철그려 씻니라니 낭군님이  
(말글 타고 얼그려철그려 오는 기라. 그리 껌동 빨래 껌기 씻고 인자 집으로 어서 돌  
아갔는 기라. 낭군님이 오는 거 보고. 그래 가인께네.)  
아가 아가 며늘아가 사랑방을 드다봐라<sup>8</sup>  
사랑방에 들어가니 기상 침을 무릎에 놓고  
당신 잣소<sup>9</sup> 니 묵어라  
큰방을 뛰어올라 와여 석 자 수건 목에 걸고  
자는 듯이 죽었구나  
서방님이 보선발로 뛰어올라  
예 요고 요모한<sup>10</sup> 것 침은 삼 년이고 본댁은 백 년인데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⑥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니  
흰 빨래는 희기 씻고 껌동 빨래는 검기 씻고  
아가 아가 며늘아가  
서방님을 보실라거든 아랫방<sup>11</sup>을 드다봐라  
아랫방에 드다보니

8 들여다 보아라

9 자시소. 잣다는 자시다의 지역말

10 요망한인 듯하다.

11 아랫방

(신랑이라 카는 기)

기생첩을 옆에 두고 열두 가지 술을 놓고  
(허허낙락하고 묵고 있거든. 간이 얼마나 디비지겠노<sup>12</sup>? 그래 가지고 각시가 망지수  
전 목에 감고 껽끼칼<sup>13</sup>로 목을 찔러 죽어뿐기라. 죽고 나니 신랑이 한단 말이,)  
첩우 정은 삼 년이요 본처 정은 백 년인데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분조(여, 78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⑦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너거 낭군님 볼라거든 진주야 남강을 빨래로 가라  
진주 남강 빨래로 가니 물도 좋고 돌도 고와  
오동통통 두드리니  
난데없는 말구덕<sup>14</sup> 소리가 철그득 철그득 나는구나  
앞눈<sup>15</sup>을 허뜩 보니 하늘 겉은 갓을 씌고  
못 본 체하고도 지내가네  
껌등 빨래 껌기 씻고 흰 빨래는 희게 씻고  
천동지동(天動地動)<sup>16</sup> 쫓아오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너거 낭군 볼라거든

12 뒤집어지겠니. ‘디비지다’는 ‘뒤집어지다’의 지역말

13 집게칼. 주머니칼을 이르는 말인 듯하다.

14 말굽

15 앞눈(곁눈)

16 천동지동(天動地動). 하늘과 땅이 움직일 정도로 급히 바쁘게 가는 모양

아랫방을 내리 가라  
천동지동 쫓아가서 방문을 털컥 여니  
열두 가지 술을 놓고 기생첩을 옆에 두고  
권주가를 권하구나  
천동지동 쫓아와서 석 자 수건 목에 걸고  
찝게칼로 품에 품고 목을 잘라서 죽었구나  
낭군님 하시는 말씀  
보소 보소 여보세요 니 그럴 줄 내 몰랐다  
첩우야 방은 꽃밭이고 본처 방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변할 수가 있는데 금붕어는 못 변한단다  
맹동맹동<sup>17</sup> 하더라도 니 그럴 줄 내 몰랐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석기연(여, 78세),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8)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어마시 하시는 말삼 야야 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 볼라거든 진주 남강에 빨래로 가라  
시어마시 말삼을 듣고 검은 빨래 흰 빨래를  
주섬주섬 주워 이고 진주 남강에 빨래로 가니  
물도 좋고 돌도 좋네 난데없는 말자죽 소리  
얼그렁 절그렁 들려온데 야한 눈을 거떠보니

17 맹종맹동(盲從盲動). 맹종맹동은 원칙과 중대 없이 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하날 같은 말클 타고 구름 같은 갓을 쓰고  
본치 만치 돌아가네 그 꼬라지 보고 나서  
검은 빨래 검기 씻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마시 하시는 말씀  
야야 아가 며들아가 진주 낭군님 볼라거든  
사랑방을 들어가라 시어머시 말삼을 듣고  
농밀 옷을 내여 입고 명지수건을 목에 걸고  
사랑문을 반만 여니 오색 가지 술을 넣고  
기생첩을 앞에 두고 권주가를 불르시네  
그 꼬라지 보고 나서 내 방을 들어가미  
명지수건<sup>18</sup> 목을 매고 찌깨칼을 품에 품고  
자는 듯이 죽었다네 시어마시가 하시는 말씀이  
기생첩은 삼 년이고 본택 정은 백 년인데  
죽단 말이 당한 말가

임복임(여, 67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1981년 채록

(9)

진주 남강 물도 좋고 돌도 좋은데 빨래 가니  
검등 빨래 검게 씻고 흰 빨래는 희게 씻고  
앙게당게 모아 갖고 사랑 앞에 들어오니  
얼른 펴뜩 거터보니<sup>19</sup> 진주 낭군 사랑 앉아

18 명주수건

19 훌깃 쳐다보니

은잔놋잔 유리잔 기생첩을 앞에 두고  
잡아시오 잡아시오 권주 한상 띄우는데  
말 한마디 심장 상코<sup>20</sup> 거북하네  
큰방에 들어가서 열두 가지 약을 놓고  
명지천대<sup>21</sup> 절에 놓고 누워 생각 앓아 생각  
명주천대 목을 매네 시어마니 거동 보소  
야야 야야 진주 야야 큰방에 들어 볼래  
버선발로 뛰올라서 올라가니 며느리가  
열두 가지 약을 놓고 명주천대 목을 매네  
본처 사랑 백 년이요 첩의 사랑 삼 년이요  
우이 그리<sup>22</sup> 우이 그리 맘을 갖다 조급하게  
그리 그리 묵었는고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⑩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오마니 하는 말씀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  
어덕턱 더덕턱<sup>23</sup> 빨래로 하니  
구름 같은 말을 타고 하늘 같은 갓을 쓰고

20 ‘상하고’의 준말

21 명주로 만든 전대를 절에 놓고, 전대(纏帶)는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매거나 어깨에 두르기 편하도록 만든 자루

22 어찌 그렇게. ‘우이’는 ‘어찌’의 지역말

23 급하게 빨래를 씻는 모양을 이르는 말

껌은 빨래 껌기 하고 흰 빨래는 희기 하고  
옆눈으로 쳐다보니 화살같이 곧은 질에  
못 본 체하고 지나가니  
집이라고 들어오니 시오마니 하는 말씀  
아가 아가 미늘아가 사랑방을 들어가라  
사랑방을 들어가니 기생첩을 옆에 두고  
맛 좋다고 동배주<sup>24</sup>고 동배주로 술을 놓고  
니 묵어라 내 묵어라  
열두 가지 맘을 묵고 아홉 가지 약을 묵고  
작은방에 뛰어와서 죽을라고 단정하니  
사랑방에 낭군님이 보신발<sup>25</sup>로 뛰어와서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본처의 부부는 백 년이요  
첩우의 사랑은 석 달이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순덕(여, 74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11)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듭 삼 년을 살고 보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느리 아가  
한양낭군을 볼라거든 진주 남강에 빨래로 가라  
진주 남강에 빨래로 가니 구름 같은 갓을 쓰고

24 동배주(同杯酒)는 하나의 술잔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란 뜻으로, 신랑 신부가 함께  
마시는 술을 이르는 말이다.

25 버선발. 보신은 버선의 지역말

본체 만체 지나가니 진주 남강에 빨래를 하여  
집이라고 찾아오니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느리 아가 한양남군을 볼라나거든  
사랑방으로 내려가라 사랑방에 내려가니  
기생첩은 옆에 끼고 여보 여보 여보나 당신  
기생첩은 삼 년이요 본첩은 백 년이라  
명지수건 석자 석치 목을 매어서 죽을라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이경자(여, 37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 2. 첫날밤 얘기 낳은 신부 노래

①

(각시가 뭇났거덩 못나 놓으이 또 이혼을…… 또 장개<sup>26</sup>로 가도 안 되고, 또 장개로  
가도 안 되고 온다. 각시 이혼을 하고,)

김해땅 김선부<sup>27</sup>가 동래 돌천 장개가니

연마때마<sup>28</sup> 다 지내고

(연마때마 그려구로 수가 다 넘어갔는가이 인자 또 좋다 캐서 장개로 가는 기라. 장  
개로 가이,)

연마때마 다 지내고 장개 가던 첫날밤에

26 장가의 지역말

27 김선비. 선부는 선비의 지역말

28 연마시마(年魔時魔). 일종의 액년(厄年)과 같은 것으로 운수가 사나운 해나 때를  
일컫는다.

방문 안에 연꽃이요 방문 밖에 일월이라  
(어띠기<sup>29</sup> 잘나 났든지 각시가. 방문 안에 연꽃이 피고, 방문 밖에는 일월이 지고 좋더란다. 그래 가만히 보인께네 젖이 흘러 샀거덩. 젖이 흘러 샀는디 뒷 대밭에서 이<sup>30</sup> 가을이 샀거덩. 각시가 마 잘난 값 한다고 총각을 삼아 가지고 그만 아로 낳아서 뒷 대밭에 내비렸거덩. 이 사람들이 장개로 가인께네 잘난 값해서,)  
아해 좋아 말 몰아라 어른 좋아 짐 실아라  
오던 질로 회향하자  
(카이, 그래 저거 장모가 하는 말이, 사우도 비단사우<sup>31</sup>로 봤거덩. 사우가 얼마나 잘 났든지,)  
사우 사우 내 사우야 사우 사우 비단사우  
안주 나빠 가시느냥 술이 나빠 가시느냥  
(장모는 모르는 기라. 아 우는 것도 모르고, 젖 흐르는 것도 모르고, 그래 와 갈라 카노 그기라 장모는.)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장모딸이 나빠 가요  
(그래 각시가)  
하늘 곁은 서방님요 구름 곁은 갓을 씌고  
그믐 밤중 집은 벼선 빨목에나 걸고 가소  
물명지<sup>32</sup> 한삼 소매 이내 허리 착 걸칠 때  
천년 살자 기약하고 만년 살자 기약하디이  
그만 하면 이별이요  
(그만 그리 이별하고 가더라이.)

29 얼마나의 지역말

30 아이의 지역말

31 비단같이 꼽고 잘 생긴 사위라는 말이다.

32 물명주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장모딸이 나빠 가요  
한 모랭이<sup>33</sup> 돌아지니  
낙동강 흐른 물에 상추 씻는 저 큰아가  
잎은 똑딱 광저리 담고 줄기 한쌍 전해주소  
유월 유두에 송간<sup>34</sup> 상추 칠월 칠석 뽑아내니  
잎이사도 좋단마는 줄기 없어 몯 전하요  
질로 가는 행인들은 질만 보고 아니 가고  
날 걷은 아해 잡고 희롱하기 웬말이냐  
두 모랭이 돌아지니  
사래 질고 장찬밭에 누름 받아<sup>35</sup> 품에 엉고  
두 모랭이 돌아가니 얹고 검은 저 큰아가  
목화도 좋지마는 고개나 살푼 들어보소  
말씀이사 좋다마는 목화 따기 늦어가요  
아이 꺾고 후이 꺾고<sup>36</sup> 아이 사랑을 내 따오매  
(인자 그리 자꾸 꺾어 보이 그 못난 것도 고개로 들어보라 카이, 그리 목화 따기 바쁘  
다카미 들어 안 보이, 이 신랭이 인자 회개로 하더란다. 본댁을 못나도 본댁을 데리  
고 살았으몬, 본댁 그 못난 그거로 내가 데리고 살았으몬 될 께로 뭐할라꼬 이별을  
했노. 그래 회개로 하더란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33 모롱이. 산모통이의 휘어 둘린 곳을 이르는 말이다.

34 심은

35 무안을 당하다.

36 먼저 꺾고 뒤에 꺾고. ‘아이’는 ‘애벌’의 지역말로, 애벌은 한 물건에 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의 첫 번째 차례를 이르는 말이다.

②

김해땅 김선부가 동래 돌천 장개 가니  
연마때마 다 지내고 장개 가던 첫날밤에  
방문 안에 연꽃이요 방문 밖에 일월이요  
뒷대밭에 대올애기<sup>37</sup> 아글아글 울어샀네  
출태<sup>38</sup> 밑에 앓인 각시 물같이 흔한 젖을  
자랑 말고 한통 주소  
아해 좋아 말 물아라 어른 좋아 짐 실아라  
오던 길로 회향하자  
(장모) 사우사우 비단사우  
안주 나빠 가시느냐 술이 나빠 가시느냐  
(사위) 나빠 가오 나빠 가오 장모 딸이 나빠 가오  
(각시) 하늘 같은 서방님은 구름 같은 것을 씌고  
검은 밤중 집은 벼선 빨목에나 걸고 가소  
(사위)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장모 딸이 나빠 가요  
한 모랭이 돌아지니 낙동강 흐른 물에  
상추 심는 저 큰 아가  
잎을 뚝딱 광주리 담고 줄기 한쌍 전해주소  
유월 유두 숨간 상추 칠월 칠석 뽑아내니  
잎이사 좋다만은 줄기 없어 몯 전하요  
질로 가는 행인들은 질만 보고 아니 가고  
날 같은 아해 잡고 희롱하기 웬말이냐

37 버려진 얘기를 이르는 듯하다.

38 햇대. 햇대는 옷을 걸 수 있게 벽에 달아 만든 긴 막대

누름 받아 품에 엉고 두 모랭이 돌아지니  
사래 질고 장찬밭에 엉고 검은 저 큰아가  
목화도 좋지마는 고개나 살倨 들어보소  
말씀이사 좋다마는 목화 따기 늦어가요  
아이 껌고 후이 껌고 아이 사랑을 했더라도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3)

한살 묵어 엄마 잃고 두살 묵어서 아바 잃고  
호부<sup>39</sup> 닷살 서재에 땅기 십오 세에 출옥<sup>40</sup>하니  
서른 청기<sup>41</sup> 청기집에 쉰두 칸 도부방<sup>42</sup>에  
매새끼를 놀린 방<sup>43</sup>에  
(부잣던 모양이제.)  
앞문에는 용 기리고 뒷문에는 먹 기리라  
평풍<sup>44</sup> 넘에 울긋불긋 저 봉숭아 왜 저리 실피 우노  
(아를 낳는데 와, 그걸 결혼을 했던지 모르지.)

39 겨우 또는 그것 밖에

40 출입(出入)

41 청기와 또는 층(層)의 뜻인 듯하다.

42 장사치가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파는 것을 도부(到付)라 하는데, 이 들을 위한 방을 52칸이나 유지하고 있으니 대단한 부자임을 알 수 있다.

43 매새끼를 잡아 놀리며 길들이다. 또는 매새끼 놀이를 하던 방으로 볼 수도 있다.  
매새끼 놀이는 손바닥으로 콩주머니로 만든 제기를 친 후 벽으로 달아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이로, 그 만큼 방이 넓다는 말이다.

44 평풍(屏風)

젖 도라고 슬피 우네

처남 처남 내 처남아 장인 장모 오라 해라

말 한마디 하고 가자

(카이)

어지<sup>45</sup> 왔던 새 사위야 오늘 왔던 새 사위야

술이 나빠 갈라 하나 안주 나빠 갈라 하나

시청곁이<sup>46</sup> 맑은 술에 이 술 한잔 잣고 가게

허 그것 물리치소

큰종아 말 몰아라 작은종아 짐 실어라

활대곁이 굽은 질에 살대<sup>47</sup>곁이 내 갈란다

(카인께네, 그 아 낳은 사람이)

여보 여보 아기 이름 짓고 가소

(카이께네,.)

에! 못된 요망한 것 얘기 아빠 어데 두고

질 가는 행인 잡고 아기 이름 짓고 가라이

가소 가소 당신 가소 당신 가면 내 못 살까니이

뒷동산 너른 밭에

떳짠대기<sup>48</sup> 홀로 살고 뜻짠대기<sup>49</sup> 홀로 산다

(카더란네. 하하하.)

45 어제의 지역말

46 제보자는 ‘앵두 같은’으로 설명하였지만, 경남 지역에서는 아주 맑은 물을 ‘시청 겸 은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47 화살대

48 떠는 떼(잔디)의 지역말, 잔대기는 잔디의 지역말로, 모두 잔디를 이르는 말이다.

49 묘 위에 난 잔디. 미는 묘(무덤)의 지역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3. 혼렛날 신부 죽는 노래

①

이구나 십팔 열여덟에 첫 장가를 갈라 하니  
앞집에 궁합 보고 뒷집이라 책력 보니  
책력에도 못 갈 장가 궁합에도 못 갈 장가  
이왕에 꿈인 장가 내 한번 가 볼까  
한 모랑이 돌아가니 까막까치<sup>50</sup> 진동하고  
두 모랑이 돌아가니 황새 덕새가 진동하네  
서른 세 모랭이 돌아가니  
오른손에 씨인 글씨 왼손으로 받아들고  
이팔청춘 젊은 놈이 대짝지<sup>51</sup>를 질질 끊고  
부골레라<sup>52</sup> 부골레라 신부 죽은 부골레라  
동네 안을 썩 들어서니 곡소리가 진동하네  
첫 대문을 열고 보니  
앞집이라 김대목이 널<sup>53</sup> 짠다고 야단이고

50 까마귀와 까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

51 큰 지팡이. 짹지는 지팡이의 지역말로, 예전에 부고를 알리러 가는 사람이 짚고 가던 작대기를 말한다.

52 부고(訃告)일레라

53 시체를 넣는 관이나 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두 대문을 열고 보니  
뒷집이라 박대목이 꽃 만든다고 야단이네  
서른 세 대문을 열고 보니  
서른 서이 상도꾼이 줄 들인다고 야단이네  
마당 복판 쪽 들어서니 재인<sup>54</sup> 어른 하는 말씀  
구야 구야 내 사우야 큰방으로 들어온나  
안 갈라요 안 갈라요 작은방을 들어가요  
작은방 문을 열고 보니 (아이고)  
둘이나 비자<sup>55</sup> 지은 비개<sup>56</sup> 혼자 비고 누웠이니  
둘이 덮자 지은 이불 혼자 덮고 누웠이니  
둘이 깔자 지은 요때기<sup>57</sup> 혼자 깔고 누웠이니  
삼대 같은 저 머리는 형클형클 하였구나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왔던 길을 나는 가요  
대문 밖을 쪽 나서니 사촌처녀 하는 말씀  
형부 형부 우리 형부 누 형부가 되실랑고  
마당 끝을 쪽 나서니  
자형 자형 우리 자형 누 자형이 되실랑고  
(아이고 끄티이 안죽<sup>58</sup> 한마디 더 있는데,)  
대문 밖을 쪽 나서니 서른 서이 상도꾼이  
(서른 서이 상도꾼이)

54 장인(丈人)의 지역말

55 베자. 비다는 베다의 지역말

56 베개의 지역말

57 사람이 앓거나 누울 때 바닥에 까는 요를 속되게 이르는 말

58 아직의 지역말

##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왔던 길을 나는 가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기환(남, 72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2)

서른 하고 열일곱에 첫 장개를 가이꺼네  
앞집에는 궁합 짚고 뒷집에는 육갑 짚고  
서른 하고 열일곱에 첫 장개를 가이꺼네  
이내 나는 앞을 서고 아버님은 뒤를 서고  
한 모랭이 돌아가니 까막깐치가 진동하네  
질<sup>59</sup> 우로 갔던 깐치 질 밑을 니리서네  
또 한 모랭이 돌아가니  
질우로 갔던 여우 길 밑을 지내가네  
한 모랭이 돌아가니  
덩치 신 놈<sup>60</sup> 널름하니 편지 한 장 전해주네  
아버님요 뒤를 서고 이내 나는 앞을 서고  
아버님요 오던 길로 휘향하소<sup>61</sup> 신부 죽은 편지 왔네  
이내 나는 이리 가면 신부 죽은 구경하요  
대문 밖에 들어서니  
김대목은 널을 짜고 박대목은 텁질하네  
앞대문에 용 기리고 뒷대문에 범 기리고

59 길의 지역말

60 덩치 큰 놈

61 회향(回向)하소, 돌아가소

용길 범길<sup>62</sup> 희롱하네

장모님이 내다 서서 청 안에서 빙빙 돌미  
돌아서 서게 돌아서게 저 손님은 돌아서게  
그래도 모르시고 방으로 들어가니  
아홉 폭 처매 폭을 입을 듯이 걸어놓고  
명지야 시목 저고리<sup>63</sup> 자지 고름<sup>64</sup> 살꼼 달아  
입을 듯이 걸어놓고 자는 듯이 누웠구나

류종목, 성재우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3)

앞집에는 궁합 보고 뒷집에는 책력 보고  
책력에도 못 갈 장개 궁합에도 못 갈 장개  
이것저것 제치놓고 장가 한번 가 볼라요  
아버지도 말클 타고 요내 나도 말클 타고  
한 고개 넘어가니 까막깐치 진동하고  
또 한 고개 넘어가니 메초리<sup>65</sup>란 놈이 진동하고  
또 한 고개 넘어가니 신부 죽은 부고 오네  
아버지는 돌아가소 요내 나는 가 볼라요  
대문 밖에 척 들어서니 상두꾼이 우물쭈물  
또 한 대문 열고 보니 과 갖춘 놈이 꽂을 매고

62 용 그림과 호랑이 그림

63 세모시 저고리

64 자주색 고름

65 메추리의 지역말

또 한 대문 열고 보니 깍깍 대목이 널을 짜고  
또 한 대문 열고 보니 사춘 처남이 앓아 있네  
사춘 처남이 한단 말이 자형 자형 새 자형요  
누 자형이 되실란지 눈매조창 고래<sup>66</sup> 곱소  
또 한 대문 열어보니 사춘 처지<sup>67</sup>가 앓아 있네  
형부 형부 새 형부요 누 형부가 되실란지  
눈매조창 고래 곰소  
또 한 대문 열고 보니 장인 장모 앓아 있네  
장인 장모 한단 말이 사위 사위 새 사위야  
누 간장을 녹힐라고 눈매조창 고래 곰소  
또 한 대문 열고 보니 신부 죽은 방일레라  
열두 폭 지은 이불 두자 두치 지은 비개  
한채<sup>68</sup> 덮고 한채 비고 자는 듯이 누워 있네  
일어나소 일어나소 백년 친구 일어나소  
오늘 곁이 좋은 날에 무슨 잡이 그리 오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앞집에도 궁합 보고 뒷집에도 책력 보고  
궁합에도 몬 같 장개 책력에도 몬 같 장개

66 그렇게

67 처제의 지역말

68 혼자의 지역말

한 모랭이 돌아가니 까막깐치 진동하네  
두 모랭이 돌아가니 신부 죽은 부고 왔네  
세 모랭이 돌아가니 곡소리 진동하네  
언덕 우에 올라 선 상두꾼아  
질가 밑에 내리 선 상두꾼아  
그 생이<sup>69</sup> 나려라  
땅내<sup>70</sup> 맡고 일어나소 인내<sup>71</sup> 맡고 일어나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영계(여, 81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5)

첫 대문을 척 열고 보니 산골 중놈이 염불하고  
두 대문을 척 열고 보니 대목이 널 짠다고 환장이네  
시 대문을 열고나 보니 고구소리<sup>72</sup>가 진동하네  
작은방에나 척 들어가서 빼담<sup>73</sup>에 보니  
온비녀는 빼다가 책상에 두고  
온가락지는 빼 가주 장모 빼담에 두고  
일어나소 일어나 나소 우짠 잠을 깊이 자요  
날 줄라고 해양 술은<sup>74</sup> 상두꾼이나 많이 주소

69 사람의 시체를 실어 묘지로 나르는 상여(喪輿)의 지역말

70 땅 냄새

71 사람 냄새

72 곡소리

73 서랍에. 빼담은 서랍의 지역말

74 해 온 술은

날 줄라고 해얀 떡은 평토지<sup>75</sup>나 지내 주소  
가오 가오 나는 가오 임을 바리고 나는 가오  
야 이 늙은아 그 말씀마소  
당신 땀만 살아났다면 큰방 차지도 내 차지  
둘이 비자 두토나비개<sup>76</sup> 혼자 비기가 웬말이냐  
가오 가오 나는 가오 우리야 집을 나는 가오  
한 들을 척 넘어서니 까막까치가 진동을 하고  
두 고개를 척 넘어서니 야시<sup>77</sup>란 놈이 야단이오  
삼더 고개 넘어나 서니 호랑이란 놈이 길을 막네  
기박하고 기박하네 짊은 놈 신세가 와 이렇노  
이놈의 팔자가 야단이네 요놈의 신세가 조지는구나<sup>78</sup>

임동권, 『한국민요집』 V(집문당, 1980)

#### 4. 김선달네 맏딸 잘났다 소문 듣고

①

김선달네 맏딸얘기 하 잘났다 소문 듣고  
한번 가도 몬 볼래라 두번 가도 몬 볼래라  
삼시 번을 거듭 가니

75 평토제(平土祭). 장례 때 무덤을 만든 뒤에 지내는 제사로 달리 봉분제(封墳祭)라 부르기도 한다.

76 갓 혼인한 부부가 함께 베는 긴 베개인 ‘두동달이베개(두동베개)’를 말하는 듯하다.

77 여우의 지역말

78 망치는구나. 조지다는 자기 몸이나 일 등을 망치다의 지역말

(아이고 처자가)

명지 주단<sup>79</sup> 처매 극락비단 말<sup>80</sup>을 달고  
백비단 끈을 달고 맵시 있기 잘라 입고  
삼선버선 꽂댕기에 열두 칸 마루청에 썩 나서니  
(하도 잘났거든.)

저게 가는 저 수자<sup>81</sup>는  
분통 걸은 이내 방에 잠 한 심<sup>82</sup> 자고 가소  
말씀은 좋구만은 과개 날도 받아놓고  
장개 날도 받아놓고 질이 바빠 안 되겠소  
아이고 저게 가는 저 자슥은 장개 망개 가거들랑  
질 밑에 앓인 야시 질 우에 올라서고  
두 모래이 돌거들랑 까막깐치 진동하고  
시 모래이 돌거들랑 가매채가 내려 앓고  
첫상이라 받거들랑 상다리가 내려 앓고  
초례청에 들거들랑 사모각대<sup>83</sup> 내려 앓고  
첫날밤에 들거들랑 눈살배살 곧아지소  
(청중: 고놈의 가시나 못됐다.)

(아이고 고놈의 가시나 내가 절에 있으면 빼말때기<sup>84</sup> 때렸으면 좋겠다.)

79 주단(紬綵)은 명주와 비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80 한복치마의 어깨끈을 다는 맨 윗부분. '말'은 장음으로 발음한다.

81 수재(秀才).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 또는 예전에 미혼 남자를 높여 이르던 말이다. 또한 더벅머리 총각도 수자(豎子)라 한다.

82 한숨

83 사모관대(紗帽冠帶). 전통 혼례나 퍼백 때 쓰는 검은 사(紗)로 만든 쓰는 모자와 옷을 일컫는다.

84 맵을 상스럽게 이르는 지역말

빙풍 넘에 앉은 각시 요내 머리 짚어주소  
언제 봤던 수자라고 머리조창 짚어주리  
빙풍 넘에 앉은 각시 요내 대님 풀어주소  
언제 봤던 수자라고 다님<sup>85</sup>조창 풀어주리  
(고놈의 가시나 그것도 못됐고 뭐 좀 그것 좀 풀어주면 어떻노? 그것 좀 풀어주면 될  
긴데, 고 몬됐다 카이.)  
아리방<sup>86</sup>에 아버님요 어제 왔던 새 손님이  
우예 보니 죽은 듯고 우예 보니 자는 들판  
(그래 마 죽었더란다. 죽으라고 축(祝)을 해 놓이 축한 대로 되더란다. 가시나 얼매  
나 못됐는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②

김선달네 맏딸애기 허 잘났다 소문났네  
저기 가는 저 수자는 하룻밤만 자고 가소  
(길이 바빠 못 간다고 하니까.)  
한 고개 넘어가거든 까막까치 진동하고  
한 고개를 넘거들랑 말다리가 뿌러지고  
한 고개를 넘거들랑 가매채가 뿌러지고  
(그리고 갔는 기라. 그 남자가 죽고 여자가 소복을 채리입고, 가매채가 딱 붙어버려  
서, 김선달네 맏딸애기 이기 썩 나서면서 속적삼 벗어서 던지면서,)

85 한복 바지를 입은 뒤에 그 바짓가랑이 끝을 다리에 올라매는 끈인 대님의 옛말  
86 아랫방

땀내 맡고 돌아가소

(그러니까네 가마채가 떨어졌다 카던가 그러더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여환순(여, 79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김선달네 봉천<sup>87</sup>애기 하 잘났다 소문 듣고  
한번 일색 보러가니 아프다고 기시드네<sup>88</sup>  
두번 일색 보러가니 없다고도 기시드네  
삼단걸이 좋은 머리 늘성늘성 접어 땋고  
대문간에 썩 나서니  
저게 가는 저 종내기<sup>89</sup> 장개라고 가거들랑  
한 모랭이 돌거들랑 말다리가 뿐어지고<sup>90</sup>  
두 모랭이 돌거들랑 가매채가 뿐어지고  
정방청에 들거들랑 수제까치<sup>91</sup> 뿐어지고  
행례청<sup>92</sup>에 들거들랑 사모관대 뿐어지고  
첫날밤에 들거들랑 걸머리야 속머리야 숨이 딸꾹 넘어가소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박점숙(여, 55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87 봉친(奉親)의 잘못이다.

88 속이려 드네. 기시다는 속이다, 숨기다의 지역말

89 종내기는 놈을 뜻하는 지역말

90 부리지고

91 숟가락과 저. 제까치는 젓가락의 지역말

92 행례청(行禮廳). 혼례식을 치르는 초례청(醮禮廳)의 다른 말

## 5. 시앗<sup>93</sup> 본 노래

①

달 떠온다 달 떠온다 동문고개 달 떠온다  
저 달영은 뉘 달영고 달 떠는 줄 모르던고  
홍상문이 책을 들고 첨의 방에 놀러 갔네  
큰어마시 분이 나서 짜박머리 집어 얹고  
행주치마 탈쳐<sup>94</sup> 입고 째깨칼을 품에 품고  
첨의 방을 찾어가니 만고절색 고운 얼굴  
누구 간장 녹일려고 저리 고이 생겼는고  
아내 눈에 이만한데 임의 눈에 어떻겠노  
웃맵시는 보자 하니 조선국의 바느질에  
유누국<sup>95</sup>의 물을 디려 옴팍좁과 해서 입고  
앵두같이 고운 얼굴 만고절색 고운 얼굴  
뉘의 간장 녹일려고 저리 고이 생겼는고  
큰어마니 오셨다고 청동화로 불을 담어  
화죽설대<sup>96</sup> 매어놓고 오죽설대<sup>97</sup> 내어놓고  
큰어마시 따신<sup>98</sup> 자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선비님은 어디 갔나 시대삿갓 옆에 찌고

93 남편의 첨

94 떨쳐

95 유구국(琉球國). 유구국은 동중국해 남동부에 있었던 섬나라로, 15세기 이전부터 19세기까지 류큐(琉球) 제도에 있었던 왕국이다.

96 화죽으로 만든 담뱃대

97 오죽으로 만든 담뱃대

98 따뜻한. 따시다는 따뜻하다의 지역말

깜두까신<sup>99</sup> 밤자갈에 갈무우산 받치고서  
우당못에 은어 잉어 낚시질을 하러갔소

임동권, 『한국민요집』 II(집문당, 1974)

②

짬방머리<sup>100</sup> 집어 얹고 앞 없는 치매 입고 칙<sup>101</sup> 없는 신을 신고  
(첩 직이로<sup>102</sup> 간다. 그날 첩을 직일라고 가인께네, 그만 이 첩이 마 어뚱기 잘 해 가  
지고 막,)  
청동화로 불 떠 담고 화죽설대 뻔치놓고  
큰어마님 오신다고 질로 걸어 오신다고  
노독<sup>103</sup>이나 아니 났소 노독이나 아니 났소  
자갈밭에 오신다고 발병이나 아니 났소  
큰어마님 여 앓이소 담배 한대 잡으시오  
(막 영 칙사 대접을 하더란다, 첩사이<sup>104</sup>가. 그래 그 큰어마이가 잘 묵고 오미,)  
이내 눈에 저만한데 군자 눈에 오죽 하리  
(카며 몬 직이고 오더란다. 저거 신랑 눈에는 오직이 좋겠나 싶어 몬 직이고오더란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99 검정 깔신. 깔신은 여자들이 결혼할 때 신는 고운 신으로, 예쁘게 수(繡)가 놓인 푸른빛이 나는 신발이다.

100 짧은 머리

101 신발의 뒷부분에 높게 댄 축(築)을 이르는 말

102 죽이러

103 노독(路毒). 먼 길에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을 이른 말

104 첩의 지역말

## 6. 액운애기 노래

앞냇물에 셋기가주<sup>105</sup> 뒷냇물에 히아가주<sup>106</sup>  
새별 같은<sup>107</sup> 백솔에다 밥을 지어  
쇠 한 바리 잡아가주 열두 상을 갈라놓고  
시금시금 시어마시  
지녁<sup>108</sup> 진지로 자시고 내 대신을 가실란게<sup>109</sup>  
니의 대신은 니가 가고 내 대신은 내가 가고  
염불도 각각이고 소뿔도 목목<sup>110</sup>이다  
시금시금 시아바시 내 대신을 가실란교  
니 대신은 니가 가고 내 대신은 내가 간다  
살강<sup>111</sup>밑에 흐른 물이 강 되거등 내 옵니더  
살강 밑에 흐른 밥이 짹 나거든 내 옵니더  
병풍에 기린 닭키 해치거든 내 옵니다  
저승차사 들어온다  
시도리깨 시방마치<sup>112</sup> 날 잡아려 저게 온다  
어린 자석 나야두고 한 고개 넘어서니  
어린 아해 젖 주던 거 통통 불어

105 셋어 가지고

106 행구어 가지고

107 새별 같은. 새별은 새별의 옛말

108 저녁의 지역말

109 저승차사가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나를 대신하여 가시렵니까?

110 각각의 뜻을 뜻하는 뜻. 제각각의 뜻

111 그릇 따위를 얹어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

112 쇠망방이는 쇠로 만든 도리깨와 방망이로 무서운 연장을 말한다.

## 야야여기 내 젖 무라 저승차사 잡아간다

액운애기가 어떻기 칙하고 잘하는지 저승서 소문이 나 가지고 (청중: 썰라고 잡으러 왔다) 썰라고 잡으러 왔는기라. 썰라고 잡으러 가인께네, 그래 어린이에 젖 묵던 거를 놔 두고, 참 가장은, 가장은 참 아까 (노래할 때) 가장은 빼졌다, 가장은 지가 갈라 카는 기라. 이거는 이바구였고, 자꾸 가장은 갈라 카이 가장은, 자기가 간다고. 그래 어린 아이, (청중: 가장이 제일 낫다 쿠더라) 응, 저 어린 아아 젖 묵는 걸 놔 두고 갈라 카이께네, 시어마시하고 시아바시가 대신 가도 안 되겠나? 그래 영을 받으이, (청중: 대신 가라 카이 안 갈라 카더라는 기라) 그안 갈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저승 차사, 지는 잡으러 오는 줄 알거든. 그래 인자 더라는 기 저 앞 넷물에 빨래 씻거 가둬 내물에 허아 가지고 다 해놓고, 더라는기 카는기라. 해서 쇠 한 바리 잡아 가지고 열두 상을 갈라놓고, 그래, 아 참, 시아바, 시어마시한테 가서 그래, 진지 잡듯고. 그래 시어른, 시도리깨 시방마치 가지고 날 잡으러 오이, 그래, “내 대신 가실란교?” 카이 시어마시가, “니 대신은 니가 가지고 내 대신은 내 가지고, 염불도 각각이고 소뿔도 목목 인데…….” 시아바시는 아, 시아바시도 또 그러 카고, 그래 인자 신랑은 갈라 카고. 그래 인자 지가 가는 기라. 신랑은 놔두고 지 가는데, 그리께네 요새는 대신 죽으면, 옛날에 그랬이몬 대신 죽으면……. (청중: 옛날에 액운애기 때문에 대신 죽음이 없다 하는 그 뜻이라) 응, 그 뜻이라.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권연조(여, 57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9일 채록

## 7. 못난 신부 노래

①

얽빠들빠<sup>113</sup> 공단지하 어느 정에 쌤<sup>114</sup> 오노

석상에는 임을 승가 심(心)미덥아 챌이 오요  
뒷동산천 네기 좋아 방이 뜨시 챌이 오요  
(뒷동산천에 나무를 해다가 때이 방이 뜨시이 챌이 오고, 석상에 신랑을 만내 가지고  
신랑을 곁에 놔 두이 심미덥아 챌이 오는 기라 그래. 그렇다고 각시가 그 카는 기라.  
그 카이 마 이놈이)

아해종아 말 몰아라 어른종아 짐 실어라  
오던 질로 회향하자  
(그만 갈라 칸다. 신랑이 갈라 칸다 인자. 못 났다고 갈라 카이, 각시가 하는 말이.)

삼동 칠십 새별손<sup>115</sup>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늘에 해달님이 암만 높이 달리어도  
지하 개똥밭에 비치더라  
한강물이 회다 해도 오만<sup>116</sup> 개기<sup>117</sup> 다 나더라  
까마구가 검다 캐도 속속들이 아니 검고  
참비천대<sup>118</sup> 이승 들고 명지천대<sup>119</sup> 베통 들고  
비단에는 수실 놓고 공단에는 외울 뜨고  
명지비<sup>120</sup> 필 반으로 나잘<sup>121</sup> 반에 맷잖이요  
(그렇기 재주가 있더란다. 명지비 필 반을 나잘 반에 맷잖다꼬 그 카이까네 그만 신  
랑이 갈라 카다가.)

113 얼굴이 얹은 모양을 시늉한 말

114 챌의 지역말

115 새별은 샛별을 뜻하므로, 아주 귀한 손님이라는 뜻인 듯하다.

116 매우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를 이르는 말

117 고기의 지역말

118 삼베전대를 일컫는 듯하다.

119 명주전대

120 명주배

121 하루의 어떤 절반이 되는 동안을 뜻하는 나절의 지역말

이근<sup>122</sup> 있다 이내 택아 시근<sup>123</sup> 있다 이내 택아  
백년하리<sup>124</sup> 내랑 살자  
(카며 그만 사더란다. 하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얼빠덜빠 저 각시야 무슨 정에 잠이 오노  
거제 봉산 남기 좋아 방이 뜨시 잠이 온다  
물 위에는 이끼<sup>125</sup>라도 물 밑에는 청청하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세,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칠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③

두껍 두껍 원두껍<sup>126</sup>아 어느 녘에 잠이 오노  
여보 여보 그 말 마소  
함함 땅 남기 좋아 방이 뜨시 잠이 오오

서정매 조사  
이필호(여, 82세, 청도면 구기리 당숲마을) 제보  
2002년 1월 9일 채록

122 시근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123 철들다, 의젓하다, 분별력 있다의 뜻을 지닌 지역말  
124 백년해로(百年偕老)  
125 이끼의 지역말  
126 왕두꺼비인 듯하다.

## 8. 쌍금쌍금 쌍가락지

①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sup>127</sup>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처널래라  
그 처녀라 자는 방에 숨소리가 들일래라  
홍들바신<sup>128</sup> 오라버니 거짓 말쌈 하지 마소  
풍지 떠는 소릴래요 쪼꼬만한 재피방<sup>129</sup>에  
물리<sup>130</sup> 놓고 비틀<sup>131</sup> 놓고 열두 가지 약을 놓고  
석 자 수건 목을 매어 자는 듯이도 죽고지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순금(여, 93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처녀랠라  
그 처녀라 자는 방에 숨소리가 들일래라  
홍달밧은 오라바시 거짓 말쌈 말으시소  
쪼그만한 재피방에 물리 놓고 베틀 놓고  
열두 가지 약을 놓고 명지수건 목에 걸고

127 손장난으로 광(光)을 내어

128 제보자는 당돌하고 인정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129 쪼그마한 방

130 물레

131 베틀

자는 듯이 죽고지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남기(여, 84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③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땄아내여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처널래라  
그 처자라 자는 방에 숨소리는 둘일래라  
홍달바신 오라버니 거짓 말씀 말아시오  
쪼끄만한 재피방에 물레 놓고 베틀 놓고  
열두 가지 약을 놓고 비상 불로 피와 놓고  
자는 들큰 죽고지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④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땄아내여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처널래라  
그 처녀 자는 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홍달밭은 오라바님 거짓말쌈 말아시소  
쪼고만한 제피방에 물레 놓고 비틀 놓고  
비틀 뒤에 열두 가지 약을 놓고 혼차<sup>132</sup> 자도 비잡더라<sup>133</sup>

132 혼자의 지역말

명지수건 목을 메여 자는 듯이 죽고지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5)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뛰아내야  
먼 데 보니 달일레요 곁에 보니 처널레요  
그 처녀라 자는 방에 숨소리가 다를레요  
홍달바님 오라바님 거짓 말씀 말으시소  
동남풍이 디리 불어 풍지 떠는 소릴레요  
쪼코만한 재파방에 물리 놓고 베틀 놓고  
열두 가지 약을 놓고 너는 듯이 쟈이 들어  
무심해라 꿈을 꾸고  
(마, 그 질로 죽어뿔더란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6)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금도끼로 닦아내어  
먼 데 보니 달일래라 곁에 보니 처널래라  
그 처녀 자는 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133 비좁더라. 비좁다는 비좁다의 지역말

홍달바신 오라바님 거짓 말씀 말으시소  
동남풍이 들이불어 풍지 떠는 소리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7)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처잘래라  
그 처녀 자는 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홍돌바신 오라버니 거짓 말씀 말아주소  
장풍이 디리부니 풍지 떠는 소리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서해출(여, 78, 삼랑진읍 율동리 무곡동 찰기점)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8)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았더니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처잘래라  
그 처자 자는 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홍달박산 오라버니 거짓 말씀 말으시소  
쪼그만은 지피방에 물레 놓고 비틀 놓고  
풍지 떠는 소리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⑨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쳐질래라  
그 쳐지라 자는 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홍지홍지 오라버님 거짓 말쌈 마라씨소  
남풍이 들이부니 풍지 떠는 소릴래라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⑩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 데 보니 달일래라 절에 보니 쳐잘래라  
그 쳐자 자는 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홍달밭은 오라바님 거짓 말쌈 말아시소  
동남풍이 드리불어 풍지 떠는 소릴래라  
쪼고마한 제피방에 물레 놓고 비틀 놓고  
흔차 자도 비잡더라  
열두 가지 옷을 놓고 아홉 가지 약을 놓고  
명지수건 목에 걸고 자는 듯이 죽고지라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요네 나는 죽거들랑  
앞산에는 묻지 말고 뒷산에도 묻지 말고  
연대밭에 묻어주소

연꽃이라 피거들랑 날인줄 알아주고  
비라도 오거들랑 떡갈 한잎 덮어주고  
눈이라도 오거들랑 덕석 한잎 덮어주고  
우리 친구 날 찾거든 탁주 한잔 대접하소

김만조(여, 64세, 청도면 소태리) 제보  
1981년 채록

⑪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 삼칸 집을 지어  
한 칸을랑 옥녀 주고 두 칸을랑 선녀 주고  
옥녀야 잠들거라 선녀방에 놀로 가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9. 양산백과 축영대<sup>134</sup>

복아 복아 남산복아  
남산복이 아니던들  
시영대 배필이 누 될란고

134 축영대. 「양산백과 축영대(梁山伯與祝英台)」는 양산백(梁山伯)과 축영대(祝英台)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남산복은 양산백을 이르고, 시영대는 축영대를 이른다.

복아 복아 남산복아  
한 서당에 글로 일러도<sup>135</sup>  
남자 여자로 몰랐구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10. 성아 성아 사촌성아

①  
성<sup>136</sup>아 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렵더노  
시집살이 좋더마는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 놓기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게오 밥 담기도 어렵더라  
성아 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렵더노  
시집살이 좋더마는  
중우 벗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135 글을 읽어도  
136 형의 지역말

②

성아 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좋더마는  
미끈미끈 장판방에 걸음걷기 어렵더라  
조끄마한 도리판에 수저 놓기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아버지 말하기도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깍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연대(여, 5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③

히야<sup>137</sup> 히야 사촌히야 시집살이가 어떻더노  
시집살이 좋더만은  
동골동골 도래판에 수제 놓기도 어렵더라  
중우 벗인 시동상에 말하기도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게우 밥 담기도 어렵더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후순(여, 80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성아 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좋다마는

137 형의 지역말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 놓기 어렵더라  
동글동글 수박게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동생은 말하기도 어렵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남기(여, 84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5)

성아 성아 사춘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두리두리 두리판에 수지 놓기도 어렵더라  
등글등글 수박게우에 밥 퍼기도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차금(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6)

성아 성아 사춘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옹골동골 도리판에 수제 놓기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아지바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분주(여, 87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7)

성아 성아 올키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 놓기 정 어렵고  
동실동실 수박게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동상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8)

중우 벗은 시동상은 말하기도 어렵더나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지 놓기 어렵더라  
동굴동굴 수박게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엉글깨<sup>138</sup> 나물을 뜯어 가지고 시아바시 판에 엉걸시 놓고  
쪼바리 나물을 뜯어 가지고 시어미 판에 쪼불시 놓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배남도(여, 83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9)

히야 히야 사촌히야 시접살이 어떻더노  
시접살이 좋더마는  
도리도리 도리반에 수지 놓기도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네모빤듯 장판방에 걸음 걷기도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게우 밥 담기도 어렵더라

138 엉겅퀴

야시 곁은 시누부야 매구 곁은 시누부야  
건덜건덜 수싯개<sup>139</sup>꽃은 시동상 꽃일레라  
언덕 밑에 패랭이꽃은 우리 시누부 꽃일레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분조(여, 78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⑩

형아 형아 올키형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말도 많고 승<sup>140</sup>도 많고  
콩낱 같은 시누부야 팔낱 같은 시누부야  
줄때무리<sup>141</sup> 앓은 째글째글 제비 곁은 시누부야  
고치단치<sup>142</sup>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고  
중우 벗은 시동생도 말하기도 어렵더라  
둥글둥글 둉글판에 수저 놓기 어렵더라  
시금시금 시숙 앞에 말하기도 어렵더라  
야시 곁은 시누부야 매구 곁은 시누부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최필조(여, 83세, 부북면 퇴로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139 수수를 이르는 말

140 흥의 지역말.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를 이르는 말

141 제보자는 빨랫줄이라 하였다.

142 고추당초

⑪

성아 성아 사촌 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야 좋더라마는 (잘 모리겼다)  
성아 성아 사촌 성아 쌀 한 되만 재겼으면<sup>143</sup>  
내만 뚝나 너도 뚝고 나도 뚝고 배부르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명말수(여, 78세, 하남읍 수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11. 엄마 엄마 울 엄마

①

엄마 엄마 울 엄마야  
우리 엄마 날설 직에<sup>144</sup> 덕석 굽우<sup>145</sup> 앉았던가  
굽우 굽우 보고지라  
우리 엄마 날설 직에 소개기<sup>146</sup>를 자셨던강  
속속들이 보고지라  
우리 엄마 날설 직에 달개기<sup>147</sup>를 자셨던강  
달달이도 보고지라

143 밥을 짓었으면. 재지다는 ‘뜰들이다’의 지역말로, 여기에서는 ‘밥을 짓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44 나를 가질 적에. 아이를 배는 것을 경남에서는 ‘아기 서다’라고 한다.

145 명석 굽이. 덕석은 명석의 지역말이고, 굽이는 휘어서 구부러진 곳을 이르는 말

146 소고기의 지역말

147 닭고기의 지역말

수솟개야 망경대야 망경대 울 아배야  
전처로 상처하고 후처 장개 가지 마소  
전처 자슥 설음 빈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②

엄마 엄마 울 엄마야 날설 젝이  
덕석 굽우 앉았던강 굽이굽이 생각나네  
엄마 엄마 울 엄마야 날 설 젝이  
달고기로 자셨던강 달달이도 보고지라  
엄마 엄마 울 엄마야  
소고기로 자셨던강 속속딜이<sup>148</sup> 보고지라  
엄마 엄마 울 엄마야 날설 젝이  
시락나물 자셨던강 시리시리 보고지라  
엄마 엄마 울 엄마야  
죽신<sup>149</sup>나물 자셨던강 마디마디 보고지라  
엄마 엄마 울 엄마야  
이슬 구듸이<sup>150</sup> 눕었던강 이슬 푸서서  
(그것도 잊어舛고.)

148 속속들이(깊은 속까지 살샅이)

149 죽순의 지역말

150 이슬 구덩이. 구디기는 구덩이(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의 지역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하선(여,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③

우리야 부모님 날 설 적에 죽신나물 즐기이시다  
그 죽신이 왕대가 되어 왕대 끝에 학이 앉아  
학은 점점 짚어지고 나 청춘은 늙어진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④

포랑 포랑 저 대밭에 노랑 노랑아 새가 앉아  
그 새 구경을 할라다가 엄마 간 줄 내 몰랐네  
실피 등등 울 엄마요 철대 같은 나를 두고  
임의 정도나 좋지는만은 자식의 정을 떠고<sup>151</sup> 가요  
얼시고시고 좋을시고 가슴이 답답해 못 살겠네

임동권, 『한국민요집』 V(집문당, 1980)

## 12. 아황여영 죽은 곳에

아황영녀<sup>152</sup> 죽은 곳에 무산선녀<sup>153</sup> 노던 곳에

151 떠고

152 아황(娥皇)과 여영(女英). 아황과 여영은 요(堯)임금의 딸이자 순(舜)임금의 두 부

만고절색 곱운 얼굴 이명가<sup>154</sup>가 새로 났다  
이공쟁이<sup>155</sup> 따님인강 초쾌왕의 부인인가  
미인 얼굴 고울싸고 미인 태도 비상하다  
어와 우리 종놈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얼촉한<sup>156</sup> 나의 집안 이리 될 줄 누가 알꼬  
가소롭다 여자 유행  
부지타가 남의 집에 내 집같이 찾아가서  
앉아 공양 서서 공양 공양살이 못 하겠대  
성아 성아 사춘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살라카이 산도 설도 물도 설고  
중우 벗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에립더라  
동글동글 수박게우 밥 담기도 에립더라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 놓기 에립더라  
아가 아가 며늘아가 그런 말씀 말아시라  
살고 짚은<sup>157</sup> 남의 집은 살고 나면 그 뿐이고  
살기 싫은 시집살이 살고 나면 끝이 있어  
명년 시절 좋거들랑 야편 자편<sup>158</sup> 한 당세기<sup>159</sup>

인이다.

153 무산선녀(巫山仙女). 무산은 중국 사천(泗川)에 있는 산으로, 중국 초나라 양왕(襄王)이 양대(陽臺)에서 잠을 자다가 신녀(神女)와 인연을 맺은 꿈을 꾼 곳이다. 보통 얼굴이 몹시 곱고 아름답다는 선녀를 이르는 말이다.

154 우미인가. 우미인(虞美人)은 우희(虞姬)라고도 불리는 중국 진나라 무장 항우(項羽)의 애첩으로, 항우가 사면초가의 막다른 상황에 다다랐을 때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155 우공자를 일컫는 듯하다.

156 부자로 잘 살던

157 짚은의 지역말. 여기서는 짚은의 잘못인 듯하다.

쪼코만한 암소 그게 허리 낭창 싣고 간다  
걱정 근심 하지 마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13. 우리 엄마 나를 키워

우리 엄마 나를 키아 곱기 곱기 키와 가  
가문 좋고 이름 좋고 성 좋고 나를 보내  
시집이라고 가니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지 놓기 어렵더라  
동글동글 수박게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중우 벗은 시동상캉 말하기도 어렵더라  
담 넘에도 시숙 있고 울 넘에도 시숙 있고  
시삼춘도 시집 살고 시숙모도 시집 살고  
가지 가지 높이 들고 오만 소리 다 하고  
귀에 듣고 따끼리<sup>160</sup> 앉아 친정이라고 가이까네  
어머니가 시집 몯 살고 왔다고 후차<sup>161</sup> 보내고  
집이라고 돌아오이끼네 밤도 어둡고 낮도 어둡고

158 떡이름

159 당세기는 고리(키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으로  
주로 옷을 넣어 두는 데 쓴다)의 지역말

160 맙지(헌데나 상처에서 피, 고름, 진물 따위가 나와 말라붙어 생긴 껍질)의 지역말

161 ‘쫓아’의 지역말

대문조차 잡가놔서 문을 끼라 돌라 하니<sup>162</sup>  
너거 집은 여계가 아니니까네 돌아가라 카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14. 처자 노래를 하여 볼까

처자 노래로 하여 볼까  
살고 싶은 친정살림으로 열질팔 세가 한도로구나  
살기 싫은 시집살이는 몇백 년이 한도가 없고  
뒷동산 호랑이 무섭다 해도 시아방이만치 더 무섭겠나  
뒷동산 풀잎이 푸리다 해도 맨동시<sup>163</sup> 낮만치 더 푸리겠나  
제비달이 밝다 해도 시누브 눈만치 더 밝겠나  
세미 콩이 굽다한들 시동상만치 더 굽겠나  
함박꽃이 좋다 해도 낭군님만침만 더 좋겠나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162 열어 달라고 하니

163 맨동서

## 15. 시집살이 말도 많고

시집살이 말도 많고 접방살이<sup>164</sup> 승도 많고  
시내 강변 돌도 많고 헌 두디기<sup>165</sup> 이도 많고  
대밭에는 마디 많고 청천하늘 잔별 많고  
이내 가슴 수심 많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16. 만리풍상 울 아버지

수십 개야 수만 개야 만리풍상 울 아버지  
전처에 자석 두고 후처 장개 가지 마소  
서름 받아 한 당새기<sup>166</sup> 눈물 받아 두 당새기  
잔 벼들은 외 당새기 굵은 벼들 두 당새기  
시집을 가이꺼네 시집살이 어떻더노  
후추 생강 맵다 해도 그 보다가 더 맵더라  
전라도라 깊은 골에 도래 더덕<sup>167</sup> 나던 골에  
움도 짹도 안 나더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164 셋방살이

165 낡은 누더기. 두디기는 누더기(누덕누덕 기운 헌 옷)의 지역말

166 고리

167 도라지와 더덕. 도래는 도라지의 지역말

## 17. 딸을 낳아 곱게 길러

딸을 낳여 곱게 길러 월강<sup>168</sup> 건네 주지 마소  
장달 죽은 넋일랑강 밤에도 울고 낮에 울고  
나날이 울음 우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18. 원수로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삼팔선 전쟁이 원수로다  
월이 가고 달이 가고 우리 님을 다리가고<sup>169</sup>  
우리 님 가신 석달 만에 입고 간 옷이 돌아왔네  
이럭저럭 살다가 보니 삼년 세월이 흘렀구나  
편지 왔네 편지 왔네 전사 편지가 돌아왔네  
전사 편지를 받아들고  
천 리도 뛰는 기상 만 리도 뛰는 기상  
우리 님 빨래 강에 가서 곱기 곱기 씻거 와서  
거울 걸은 따님기<sup>170</sup>와 반달 같은 짓다리<sup>171</sup>와  
농에 엉자<sup>172</sup> 하고 보니 오곰사리<sup>173</sup>가 질 거 걸고

168 월강(越江). 강을 건너다

169 데려가고

170 다듬이질

171 짓 달기와. 짓은 짓의 지역말

줄대불<sup>174</sup>에 걸어놓고 오민 가민 보고 나니  
떨어졌네 떨어졌네 눈살이 맞아서 떨어졌네  
얼쑤절쭈 할 수 없구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사자 하니 고생이라  
임아 임아 우렁님아 언제 다시 한번 오꼬  
병풍에 그리난 닭이 화를 치면은 오실라요  
아르<sup>175</sup>솥에 앉히난 개가 명명 짖으면 오실라요  
큰솥에 앉히난 밥이 쑹이 나면은 오실라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의한(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 19. 독수공방 더욱 쉽다

인간 설음 많은 중에 독수공방 더욱 쉽다  
상사불견<sup>176</sup> 이내 진정 어느 누가 짐작하리  
이렁저렁 혼턴<sup>177</sup> 근심 다 풀쳐 이별 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 못 보아 가심<sup>178</sup> 답답  
비나이다 비나이다 진정으로 비나이다  
진정으로 비난 것은 임 보기를 비나이다

172 넣어. 옹다는 넣다의 지역말

173 주름

174 횃대(옷을 걸 수 있게 방안에 달아 매어두는 막대)의 지역말

175 아래. 여기서는 ‘작은’의 뜻이다.

176 상사불견(想思不見).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함

177 혼하던

178 가슴의 지역말

산은 첨첩 천봉이요 물은 중중(重重) 소해로다  
오동추야 달 밝은데 임으 생각이 새로워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20. 산천이라 무덤골에

까마귀는 깍깍 하고 까치는 짹짹 하고  
빈 사랑에 눕혀놓고 죽 쓸 거리가 정이 없어  
아랫방에 내려가서 연해 놓을 덤석 니라<sup>179</sup>  
비녀 매고 달비 매고 산천이라 무덤골에  
다문<sup>180</sup> 석 냥 받아 가지고  
유자 사고 감자 사고 천통고통 기리오니  
한 모퉁이 돌아오니 복소리가 진동하고  
두 모퉁이 돌아오니 좋은 소리 진동하고  
유자 쪼개 판에 놓고 감자 쪼개 판에 놓고  
천수박<sup>181</sup>에 칼을 찔러 맛도 없이 얹어놓고  
너는 죽어 길이 되고 나는 죽어 약이 되어  
오월이라 단오날에 약방이나 맛나보자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179 덤썩 내려. ‘니라’는 ‘내려’의 지역말

180 단지의 지역말

181 선수박. 덜 익은 수박

## 21. 갑오년 흥년에

가오년 승년에<sup>182</sup>

보리갱죽<sup>183</sup>도 한 그릇 몈다 자시고  
북망산천 가신 낭군 금년 겉은 대풍년에  
쌀밥 한 그릇 몈다 자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지나는 밤바람에 문을 흔들어서  
눈물에 얹힌 잠이 깨고 말았소  
삼 년을 지나올 때  
남몰래 훌린 눈물자욱은 벗어논 소복마다 아롱이 졌오  
문밖에 발소리가 들릴 듯하오  
바람 치는 소래에도 오시는 들향오  
이 몸을 혼자 두고 훌로서 가신 무정한 님아  
이 밤도 깊었는데 꿈도 잠도 안 줍니까

박대중(남, 62세, 삼랑진읍 율동리) 제보  
1984년 채록

## 22. 석탄 백탄 타는 데

석탄 백탄<sup>184</sup> 타는 데 연기만 풍퐁 나고요  
요내 가슴 타는 데는 연기도 짐<sup>185</sup>도 아니 난다

182 갑오년(甲午年) 흥년에. 승년은 흥년의 지역말

183 보리에 시래기 따위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

184 빛깔이 맑지 못하고 흰 화력이 매우 센 참숯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손일선(여, 82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23. 저 건너 고목나무는

저 건너 고목나무는 날과 같이도 속이 썩어  
속이 썩어 넘이나 아나 걸이 푹 썩어 남이 알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선수(여, 75세, 산외면 금곡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24. 전라도라 계명산에

전라도라 계명산에 주초<sup>186</sup> 캐는 저 큰아가  
너거 엄마 어디 갔노 동해 동천 배를 타고  
숙사영국<sup>187</sup>에 구경 갔다 언제 새나 올라더노  
신이라도 돈반더리<sup>188</sup> 처마라도 지포처마  
시경불명<sup>189</sup> 올라더라  
살강 밑에 숨간 대가 왕대 되면 올라더나

185 김의 지역말

186 지초(芝草). 뿌리는 자근(紫根)이라 하여 한약재로 쓰는 산과 들에 자라는 여러해 살이풀

187 지상에 없는 나라, 죽음의 땅인 듯하다.

188 업전 한 돈에 다섯 푼을 더한 돈이 드는 보잘 것 없는 신발

189 시경불명(時竟不明). 시간은 끝내 분명하지 않아도

왕대 끝에 잎이 피어 이연 앉아서 학이 되면  
그때 새는 오실란가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8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25. 두령 밑에 나시꽃은

두롬<sup>190</sup> 밑에 나시꽃<sup>191</sup>은 나실나실 잘 크는데  
우리 엄마 어디 가고 날 크는 줄 모르는 공  
포롬포롬 저 대밭에 노랑 노랑 새가 앉아  
그 새 구경 내 하다가 부모님 간 줄 내 모르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26. 첨의 집은 꽃밭이요

①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옷 갖춰 입고서 어디 가요  
첨우 집에 가실라거든 나 죽는 끌이나 보고 가소

190 두령(논이나 밭가에 들러쌓은 작은 둑이나 언덕)의 지역말  
191 냉이꽃. 나시는 냉이의 지역말

첩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요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고 연못의 고기는 사시장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인숙(여, 7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②

해 다 지고 저무신 날에 옥갓을 쓰고서 어드로 가요  
첩으야 집에 놀러 가니  
첩으야 집은 꽃밭이요 본처야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요 연못에 고기는 사시장천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③

해 다지고 저무신 날에 옥갓을 하고 어디를 가요  
첩우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요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요 연못가 금붕어는 사시절이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복자(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④

물길랑 청청 헐어나 놓고 주인네 양반아 어디 갔노  
등 님에 첨을 두고 첨으야 집에 놀로 갔소  
첨의 집은 꽃밭이요 본처야 집은 연못이라  
첨의 집에 가실라거든 본처 죽는 꿀 보고 가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의한(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 27. 거제 봉산 높은 정기

거지 봉산 높은 정기 명기 백산 진 삼가래  
어양장 체강지리<sup>192</sup> 거지 봉산 높은 정기  
달에 삶고 불에 삶고 석 달 열흘 삶은 삼이  
베를 짜서 재보니 석자 서치가 훈훈하다<sup>193</sup>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192 채광주리(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가는 나무오리로 만든 광주리)의 지역말  
193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 28. 죽일 년아 살릴 년아

직일 년아 살릴 년아 대동강 물에 목 칠 년아  
병든 가장 밀치놓고 어린 자식 잠 딜이놓고  
새벽바람 찬바람에 단붓짐<sup>194</sup> 싸는 저 잡년아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인숙(여, 70세, 삼랑진읍 임천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29. 너와 내가 만날 적에

너와 나와 만날 적에 열두 포장 새알 일이<sup>195</sup>  
장닭 암닭 마주 놓고 동방나무 가지 꺾어  
청실홍실 인전을 맺고 반대천은 주천 피고  
연낭수 물 떠놓고 상투 불을 높이 켜니<sup>196</sup>  
구평풍 둘러치고 쪽두릴랑 니가 씨고  
사모관델랑 내가 씨고 하늘 두고 맹세커니  
물을 보고 탄식하니 백년 친구 안 산단 말이  
어는 친구 웬말이냐

임동권, 『한국민요집』 V(집문당, 1980)

194 아주 간단하게 꾸린 하나의 볏짐(등에 지기 위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꾸린 짐)  
195 ‘열두 포장(布帳) 차일(遮日) 밀에’라는 뜻인 듯하다. 결혼할 때 별이나 비 등을 가리기 위해 마당에 치는 가리개 포장 아래라는 말이다.

196 황촉(黃燭)을 높이 켜니

## 제2절 물레질

### 1. 오로롱보로롱 물레야

오로롱보로랑<sup>197</sup> 물레야  
앞동산 네 쪼가리 뒷동산 네 쪼가리  
스물네 줄 대등 줄에 이십 살 이영을 하고  
물레씨가 병이 나서 괴물씨한테 물었으니  
참깨국이 약일레라 참깨국을 낫있으니<sup>198</sup>  
회딱회딱 돌아간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립(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2. 물레야 빙빙 돌아라

①  
물리야 뻥뻥<sup>199</sup> 니 돌아라  
뒷집에 김도령 밤이슬 맞네  
청천에 빛내는 소주병 달고  
이 골목 저 골목 김도령 찾네

197 오로롱 보로롱.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를 흉내낸 말

198 끓였으니. 끓이다는 끓이다의 지역말

199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으로, 빙빙보다 센 느낌을 주는 말이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남이(여, 69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②

물레야 뻥뻥 니 돌아라  
어서 잣고 밥을 먹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제3절 베짜기

#### 1. 월하에 놀던 선녀

월하에 노던 선녀 지하에 나리 오니  
할 일이 전혀 없어 금자 한 틀 찰라 하니  
비틀 놀 데 전혀 없어  
좌우 한편 살펴보니 옥난간이 비었구나  
옥난간에 비틀 나여  
비틀다리 사형지는<sup>200</sup> 북도칠성 둘러놓고

■ 200 베틀다리 사형제는. 베틀다리가 네 개라는 말이다.

엉가릿새<sup>201</sup> 벌어져여 안질개<sup>202</sup> 앓은 양은  
우리나라 상감님이 용상좌게 앓은 듯고<sup>203</sup>  
부터<sup>204</sup> 한쌍 두른 양은  
금강산 깊은 골에 허리 안개 둘런 듯고  
바대집<sup>205</sup> 치는 소리  
백옥쌍쌍 깊은 골에 벽력(霹靂)<sup>206</sup>치는 소리로다  
북 나드는 기상으는  
하늘에 봉학이 알을 안고 구름 속에 넘나드는 기상이오  
쪼작쪼작 챗발<sup>207</sup>으는  
남아선생 박을 들고 국화선생 박 안 들고  
강랫대 지질개<sup>208</sup>는 누수물에 띄아놓고  
찌곡찌곡 용두머리<sup>209</sup>  
동지선달 외기러기 이 기러기 짹을 찾아오는 듯고  
나푼나푼 나위손<sup>210</sup>은  
이내 반전 잔을 들고 동이 앞에 노는 듯고  
잉앗대<sup>211</sup> 삼형제는

201 가로대(가리새). 베틀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지른 나무

202 앓을깨(베 짜는 사람이 앓는 나무판)의 지역말

203 용상(龍床)자리에 앓은 것 같고

204 베 짜는 사람과 베틀을 연결시키는 허리띠

205 바디집(바디를 끼우는 테)의 옛말

206 벼락

207 채활. 베를 짤 때, 폭을 조절하는 것

208 저질개(막대기 끝에 형겼 조각을 매어 그릇에서 물을 찍어 날실을 적시는 것)의  
지역말

209 베틀 앞 다리의 끝에 없는 나무

210 눈썹대(나부산대). 용두머리의 양쪽 끝에서 베를 찌는 사람 쪽으로 뻗어있는 가느  
다란 막대기 두 개. 눈썹줄로 잉앗대에 연결된다.

삼도빙장 육도빙장<sup>212</sup> 칠자 진을 치는 듯고  
사침<sup>213</sup> 이치는 양은  
칠월이라 초칠월에 은하수 다리 밑에 백모래 고인 듯고  
벼김이<sup>214</sup> 끼운 양은  
혹무년<sup>215</sup> 큰 잔친가 흐느적기 벌어졌네  
절로 굽은 신나무는 헌신짝 목을 매어  
지집<sup>216</sup> 방에 넘나드는 기상이오  
랩대<sup>217</sup> 한쌍 쥐는 양은  
강낭살도 화살인강 이리 지고 저리 지고  
얹을 고개 도투마리<sup>218</sup> 천길 곡을 넘어가네  
형아 형아 우리 형아 그 비 짜여 누 줄라노  
서울 갔던 느그 오빠 도포 비고 바지 비고  
그 남태기<sup>219</sup> 남는 것은  
요내 적삼 비였더니 깃도 없고 셜도 없고  
맨두래미 깃을 달고 봉숭아 셜을 달아  
올라가는 신관사또 내려오는 구관사또

211 잉앗대( 베틀에서 위로는 눈썹줄에 대고 아래로는 잉아를 걸어 놓은 나무)의 지역말

212 중국 고대 병법서(兵法書)인 『육도(六韜)』와 『삼략(三略)』을 일컫는 듯하다.

213 사침대( 베틀의 비경이 옆에서 날의 사이를 띠어 주는 두 개의 나무나 대)와 같은 말.

214 비경( 날실을 조절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된 날실 속에 끼는 삼각형으로 된 것). 달리 비계미라고도 한다.

215 홍문연(鴻門宴).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다툴 때 항우가 베풀 연회를 말한다.

216 계집, 집사람, 여편네의 뜻을 지닌 비속어

217 랩댕이( 베를 짤 때에 날이 서로 붙지 않게 사이에 지르는 막대)와 같은 말

218 베를 짜기 위해 날실을 감아 놓은 틀로, 베틀 앞다리 너머의 채머리 위에 얹어 두고 날실을 풀어 가면서 베를 짠다.

219 나머지의 지역말

서울 기경 고만하고 요내 적삼 보고 가소  
그 적삼 지은 솜씨 은도 천냥 돈도 천냥 삼천 냥이 지 값이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지 절골)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2. 천상에 놀던 각시

천상에 놀던 각시 지하로 왔던 그녀  
부르나니 베틀가요 배우나니 길쌈이라  
명주 한필 짤라 하니 베틀 놓을 자리 없어  
좌우 한편 살피 보니 옥난간이 비었구나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세 옥난간에 베틀 놓세  
낮에 짜면은 일광단 밤에 짜면은 월광단  
옥난간에다 베틀을 놓으니 베틀다리 네 다리라  
앞다리라 두 다릴랑 동해 동창 비겨놓고  
뒷다리라 두 다리는 남해 남창 받쳐놓으니  
낮은 목에 새가 앉아 우니  
김정승은 어디 가고 저 새 우는 줄 모르던강  
앉을깨랑 돋움 놓아 그 우에라 앉는 각시  
부테220라 두른 양은  
절로 생긴 산길슭에 허리 안개 두른 듯고

220 부터(베틀 짤 때, 베틀의 말코 두 끝에 끈을 매어 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의 잘못된 말

말코<sup>221</sup>라 감은 양은  
청춘과부 유복자가 명복을 감안 듯네  
칩다리라 노는 양은  
강태공의 굽은 낙수<sup>222</sup> 이수강<sup>223</sup>에 띄운 듯고  
드나드는 저 기상은  
이수강도 건넌 기상 대동강도 건넌 기상  
잉앗대는 삼형제요 놀룻대<sup>224</sup>는 호부래비<sup>225</sup>  
용두마리 우는 양은 쪼꾸만한 외기리기 벗을 잊고 슬퍼 우는 듯고  
황새 같은 도투마리 청룡 황룡이 여의주를 다투는 듯  
배배라 치는 양은  
구시월 시단풍에 낙엽이 지는 듯네  
금자로 갖다 채어 옥자로 채어 보니 서른 네 자로다  
옥색 물을 반만 놓아  
서울 갔던 서방님의 청도포나 지어볼까  
찾아올 리 없건마는 옷이라도 지어보세  
데리갈 사람도 없는 인생  
짜기 좋은 베틀에 상기 있는<sup>226</sup> 무명초 같은 요내 신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하늬(여, 82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21 부티끈이 걸리고 짜여진 베가 감기는 막대기

222 낙시의 지역말. 강태공(姜太公)은 주(周)나라 정치가로 무왕을 도와 은(殷)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고, 제(齊)나라 시조가 된 강상(姜尚)이다.

223 위수(渭水)강. 주나라 문왕이 낚시를 하고 있던 강태공을 만난 곳

224 놀림대(비경이와 잉앗실 사이의 실을 놀려주는 막대기)의 지역말

225 홀아비의 지역말

226 언제나 있는

2010년 7월 2일 채록

### 3. 월광전에 베틀 놓자

베틀 놓자 베틀 놓자 월강전<sup>227</sup>에 베틀 놓자  
베틀다리 네 다리는 월강전에 걸어 두고  
나풀나풀 나비 손은 먼 데 있는 우리 엄마  
날 본듯이 손을 치네 바디집 치는 양은  
우황연 짚은 골에 홍학이 우는 소리로다  
북 나드는 저 지상은  
홍학이가 알을 낳고 넘나드는 지상이다  
잉앳대는 삼형제요 눈썹대는<sup>228</sup> 외동이요  
부띠 차는 저 지상은<sup>229</sup> 경상감사 핸<sup>230</sup> 겉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227 월광전(月光前). 달빛 앞에

228 베틀의 용두머리 두 끝에서 베를 짜는 사람 쪽으로 내뻗친 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그 끝에 눈썹줄이 달린다. 나부대라고도 한다.

229 부띠를 두른 저 기상은

230 한 것

#### 4. 베틀 노래를 하여 볼까

베틀 노래를 하여 볼까 뒷동산에다 낭글 숨겨  
저 나무 한 그루 비어다가 비틀 한 개를 맞쳤더니  
비틀 다리는 니 다린데 큰 애기 다리는 두 다리라  
두 다리 니 다리 합하더니 여섯 다리가 분명하다  
단지깨미를 놓고나 보니 일등 결생이 거게로다<sup>231</sup>  
부티를 차고 보니 동남산 허량재 두른 듯고  
마포를 차고 보니 연당못에 금붕엔가  
북노리는 왔다갔다 지질개는 삼베 떴다에 누물<sup>232</sup>인가  
이리 가도 누물이요 저리 가도 누물이라  
잉어떼는 삼헹지<sup>233</sup>요  
가래질치는 소리는 베락 치는 행곡과 같고  
나부송이야<sup>234</sup> 노는 양은  
등 너메다 첨을 두고 첨 오라고 손치는 듯  
허리 곱상 신나무는 헌신짝에다 목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듯고  
잉어떼는 삼힝지고 능기떼<sup>235</sup> 호부래비고  
모질이 용두마리 끄트마리 풀리는 양은  
단풍들어서 호트는 굿고<sup>236</sup>

231 일등 결생이 거기로다

232 눈물

233 잉앗대는 삼형제요

234 눈썹대, 나부대

235 누름대

236 흘어지는 것 같고

제빌탈을 콩잎사구<sup>237</sup>가 단풍 들어서 흐르는 긋고  
선보름도 한 펄<sup>238</sup>이요 후보름도 한 펄이요  
샐샐이도 짜내어서 연당못에다 씻겨다가  
금줄에다 바랬더니 백옥같이도 바래가주  
서울 가시는 선보님의 창옷 짓고 활옷 짓고  
풀보리도 쟁어놓고<sup>239</sup> 나누 없이도 기다리니  
첩아 넘창 다 들어온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5. 달 가운데 계수나무

달 가운데 계수나무 동쪽으로 뻗은 나무  
금도끼를 쫓아 내어 은도패를<sup>240</sup> 밀어내어  
모았도다 모았도다 베틀 한채 모았도다  
베틀치장 볼깍시면 좌우 한편 둘러보니  
옥난간이 비었구나  
앞다리는 동에 동쪽 돋기 놓고  
뒷다리는 남에 남쪽 낫기 놓고  
가리새라 디린 양은 황희정승 지도하여  
앉을깨라 돋은 상은 금우강산 돌다린가

237 제 빛 잃은 콩잎사귀

238 한 펄인 듯하다.

239 ‘별별이도 지어 놓고’의 잘못인 듯하다.

240 은대패로

그 우계<sup>241</sup>라 앓은 얘기 이 공자님 딸님인강  
황부자님 딸님인강 초폐운하<sup>242</sup> 부인인강  
화관을랑 숙이쓰고<sup>243</sup> 전통<sup>244</sup> 걸은 저 다리는  
주야로 흐르는 매화산을 에워싸고  
부텐양 두린 양  
곤륜산<sup>245</sup> 제일봉에 허리 안개 두린듯다  
잉앳대 삼형지 목도치를<sup>246</sup> 이은 듯다  
눕웃대<sup>247</sup> 호불애비 강태공아 낙숫댄가  
나풋나풋 나붓 손은 먼 손 보고 절로 하네  
찌국찌국 용두머리  
쌍기레기 외기레기 벗 보는 지상이다  
철철이 저질개는  
구시월 시단풍에 시가랑<sup>248</sup>이 뿌린듯다  
바대집 치는 소리  
백옥천상 깊은 골에 벽락 치는 소리로다  
신나무라 땅긴 양은  
앞발로 목에 걸고 백운강에 냉기는 지상이다

241 위에라. 우계는 위의 지역말

242 초(楚) 패왕(霸王) 항우

243 화관(花冠)을 숙여 쓰고. 화관은 칠보로 꾸민 여자의 관

244 화살 넣는 통인 전통(箭筒)

245 곤륜산(崑崙山).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 처음에는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  
또는 아름다운 옥(玉)이 나는 산으로 알려졌으나, 전국시대 말기부터 서왕모가 살  
며 불사의 물이 흐르는 신선경이라 일컬었다.

246 나무도끼를

247 누름대

248 가랑비를 일컫는 듯하다.

쿵절쿵절 도투머리 정절통 뛰는 지상이다  
나뺏대라 지는 양은<sup>249</sup>  
구시월 시단풍에 시가랑이 지는 지상이네  
천하에 덕지<sup>250</sup> 짓고 천하에 노던 선녀  
천하에 덕지 짓고 물명주 금소비단<sup>251</sup>  
똑딱 한 필 짜 냈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박현이(여, 74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6. 천상에 놀던 앵화

천상에 노든 앵활란가  
할 일이 전혀 없이 베틀 한쌍 놓았더니  
좌우 한편 둘러보니 베틀놀 데 전혀 없네  
옥난간이 비었도다 옥난간에 베틀 낳여  
베틀다리 네 다리는 뒷다리는 높이 놓고<sup>252</sup>  
앞다리는 도와주고 앉일까 돋이 놓고  
우리나라 금상님이<sup>253</sup> 용상직에 하신 듯고<sup>254</sup>  
부티라 두른 양은 허리안개 둘른 들포

249 나부대 치는 모습은

250 득죄(得罪)

251 아름다운 수를 놓은 금수비단(錦繡緋綾)

252 ‘낮게 놓고’를 잘못 불렀다.

253 임금님의

254 용상(龍床)에 앉은 것 같고

눌림대 호부래비 잉앳대는 삼형제요  
자질개 지는 양은  
강태공의 곧은 낙수 여수강<sup>255</sup>에 뇌룬 듯고  
청학이<sup>256</sup> 알을 안고 백옥강에 들락날락  
신나무 굽힌 양은 새붓을 그린 듯고  
용두머리 우는 양은  
외기러기 쌍기러기 짹을 잃고 우는 듯고  
현신짝이 목을 매어 지옥강에 왕래하고  
배벗대 듣는 양은  
구시월 시단풍에<sup>257</sup> 가랑닢 듣는 듯다  
베바닥을 도아 보니  
얼음에는 논일래라 논 우에논 얼음일래  
그 베를 짜 가지고 앞냇물에 씻거다가  
뒷냇물에 헤아다가 백옥걸이 바래 갖고  
서울 갔던 서방님을 직령 비고 도복 비고<sup>258</sup>  
다문대자<sup>259</sup>남았더니  
요내 적삼 비어보니 짓도 없고 셋도 없네  
앞집에라 동시들아 서반달에 출한무등  
그 재주가 그만하믄 텁발머리 돌아가믄  
가짓 잎을 훑어다가 셋을 달아 못 입으리

255 위수(渭水)강

256 청학(靑鶴)이

257 설한풍(雪寒風)에. 시단풍은 설한풍의 와음(訛音)

258 직령(直領)감 베고 도복(道服)감 베고

259 다만 다섯 자

뒷집에라 동시들아 지난 달에 줄에 매던  
그 재주가 그만 하믄 텃밭머리 돌아가서  
수신<sup>260</sup> 잎을 훑어다가 짓을 달아 못 입으리  
그 소리로 듣고 치는 듯이 설은 정이라  
집이라고 돌아와서 요내 밥수건 덜어보니<sup>261</sup>  
정절비단 셋에다가 수절비단 짓에다가 해 놓이  
어떻기 좋던지 입었다가 벗었다가

정성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태영(여, 68세), 김점분(여, 68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7. 베틀 다리는 사형제

하두 오늘도 심심해여 베틀 노래 한 장을 불러볼까  
비틀 다리는 사형진데  
앞다리는 높게 놓고 뒤에 다리는 낮기 놓고  
잉앳대란 놈 삼형진데  
하야지야 생각을 하니 도투마리는 여계 있고  
칠나무는 호부래비고 잉앳대란 놈 삼형지고  
아야지야 앉을깨는 편키 앉으라고 주었는데  
허릿대는 띠어 가주 허리마다 힘을 주고  
주야장창 비 짜봤자 누가 나를 좋다카리

260 수수. 수시는 수수의 지역말

261 살펴보니

아야지야 비틀에는

주야장천 갖인 나무 언제 하고 뚜드렁까  
에야지야 하는 말은 용두마리는 듣고 보니  
뒷다리는 올라 서민 째그락 카고 내리 서민 째그락 카고  
도투마리 허는 말은  
어깨만 뿍쭉 내리다 보민 내 아니면 비 못 짠다  
두굴두굴 구부리는 나무 잉앳대가 다르더라  
칠나무는 드덧나는 고기에다 미신<sup>262</sup> 달아  
땡기면은 입 벌리고 나아뿌면<sup>263</sup> 입 벌린데  
임의 중춘 아뢰려니<sup>264</sup>  
아야지야 짜지 마라 네 아니면 비 몯 짜나  
너거 다가<sup>265</sup> 허는 말이 아이고 답답 안 되겠네  
쳇발이<sup>266</sup>가 허는 말이  
내부터 주야<sup>267</sup> 비를 짜제 너거 다가 거짓말이다  
철컥철컥 지은 말은 비를 주이 주일자리  
내 안 벗해 주면 비 못 짜고  
아야야야 생각하니 언제라도 베를 짜나  
쳇발이는 벗 해주고 지질개가 하는 말은  
이런 쪘그만 베 못 짜는데

262 짚신의 지역말

263 놓아 버리면

264 임에게 봄이 한창인 때라고 알리려고. 중춘(仲春)은 음력 2월의 다른 말

265 너희들 모두가. 너거는 너희의 지역말

266 베틀에 딸린 기구의 하나. 짜 낸 피륙이 구김살이 지거나 너비가 들락날락하지 못  
하게 양쪽으로 팽팽히 벼티게 하는 데 쓴다.

267 주어야

너거 다가 허뻥이다 어그러지면 우엘 것고  
푸고치<sup>268</sup>가 하는 말은  
내 아니면 베 못 짠다 푸고치가 장땡이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성태(남, 90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8. 베 짜는 아가씨

베 짜는 아가씨 베틀 노래 수심만 지노라  
낮에 뜨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때리 모아 정든 님 와이샤쓰나 지어나 보자  
어화 좋다 절씨구나 좋다 당코 노래<sup>269</sup>를 전히 가니  
숨벅숨벅 웃는 소리가 총각 귀에도 허허진다  
얼씨고절씨고 지화자 좋다 술집 가면 내 사랑인가  
순만각<sup>270</sup> 술 걸러놓고 이거 잡소 저거 잡소  
양산강에서 걸러놓고 수산강에서 술을 치니  
아무가 가는 저 항구야 인생살이가 이렇던강  
요리 보고 조리 보아도 내 사랑 금은 사랑이다  
이만 가면 너도 좋고 너도 좋으면 나도 좋다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아라 알뜰한 내 청춘 다 늙는다

268 어린 고치

269 당코(당시 유행하던 외국가수)의 노래

270 술집이름인 듯하다.

청춘만 늙기 아니라 완성풀잎도 봄을 타서  
우리 간장이 다 녹힌다  
왜색<sup>271</sup>을 전부 하니 임은 가고 내만 남고  
춘초는 연록이요 왕순은 귀불귀라  
너 손지는 너가 좋고 내 손지는 내가 좋고  
일천에 간장 녹는 줄은 정든 님이나 알아줄까  
어느 누가 알아주리 (언제 올지 모르거든)  
고곡산천<sup>272</sup> 넘어가니  
말은 가자꼬 굽우를 치고 임은 날 잡꼬 낙루한다  
우째해서 알아나 보노 굽이 간장을 다 녹힌다<sup>273</sup>  
아주끼리 노는 데는 참깨 들깨는 못 노는가  
암소 숫소 노는 데는 시껍소는 와 못 노노  
비둘키 산천 국화피고 만리강산을 환경을 보니  
우수 경첩에 나를 찾어 굽이 간장을 다 녹힌다  
환송하는 한숨 안에 사발 사천 술이 오니  
잡소 잡소 이거 잡소 이 술을 자시고 돌아가소  
대단히 반갑아서  
삼 년 만에 처음 생긴 저 술을 내가 마시야지  
(마시며 안주를 넣어 주어 좋아서 양산도를 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장선자(여, 80세, 하남읍 백산리)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 271 외색. 오이빛으로 푸른 빛  
272 구곡산천(九曲山川).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천  
273 구곡간장(九曲肝腸)을 다 녹인다

## 9. 낮에 짜는 일광단

하도 일기가 하심심하야 베를 노래나 불러보자  
낮에 짜는 일광단이요 밤에 짜는 월광단  
일광단 월광단 다같이 놓고 서방님 와이셔츠나 지어보자  
들창 밑에 나리난 비는 임에 소식이 올라는가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밀순(여, 81세, 상남면 평촌리) 제보  
2009년 7월 23일 채록

## 10. 그 베 짜서 누 줄랑고

춘아 춘아 옥단춘아 버들잎에 새단춘아  
그 비 짜서 누 줄랑고  
이 비 짜서 서울 갔던 우리 오빠 도복 베아  
남는 베는 이내 적삼 베었더니 셋도 없고 짓도 없네  
앞집에 사촌형아 셀 한 타래 빌리 주소  
없다 하니  
찔레꽃은 주워다가 셋을 달고  
석류꽃은 주워다가 짓을 달아  
그해 옷을 지었더니  
앞집에 모개닭에<sup>274</sup> 걸어놓고

274 모과나무에. 모개는 모과[木瓜]의 지역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입살<sup>275</sup> 맞아 다 떨어졌네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경남(여, 74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11. 옥황님께 죄를 짓고

외누에<sup>276</sup> 눈을 흘려 옥황님께 죄를 짓고  
인간으로 귀양 와서 사외<sup>277</sup>를 둘러보니  
할 일이 전히 없어 금사 한 필을 짜자 하고  
월궁에 치치달라 짤 것 없네  
계수나무 동편으로 솟은 가지  
옥토끼를 질러 내여 금도끼를 보를 쳐서

『한국의 민속음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12. 놓고 짜고 들고 짜고

아가 아가 문 열어라 비단 짜는 귀경하자  
놓고 짜고 들고 짜고 의심 없이 잘도 짠다  
앉은 얘기 밥 돌란다 눕은 얘기 젖 돌란다

275 악다구니가 세거나 센 입심

276 견우에게. 견우의 와음(訛音)인 듯하다.

277 사위(四圍), 사외(四隈) 또는 사해(四海)

말만한 강생이]278 꿀 돌란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김기조(여, 58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 278 강아지의 지역말

제2부 일터에서 부르는 노래 473

## 제6장 어사용

### 1. 예 흑쭈구여

(그리 인자 나무 해 가지고, 떡 아래 한 짐 지고 산에서 내리오면 씻는 데가 있거  
등, 군데군데. 그러몬 인자 앞에 막대기 공기<sup>1</sup> 놓고, 자기 인자 짊어진 지게에서 나와  
밖에 나와 가지고 좀 쉬야 되거등. 그리 인자 쉬고 내리 오면서 인자 부르는 노래가  
있지. 그리 인자 일날<sup>2</sup> 때는 인자,)

예 흑쭈구여

(카면 인자 지게를 짊어 일나제.)

옛쭈구여 이 후후후후

(이카던가여. 그리 인자 내리오면서 다담다담 짹지 짚고 내리오면서,)

지리동산 갈가마구야

해는 쳐서 더운데 너는 너는 어디 가노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말라 불이 불네

(그래 가지고 온갖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리 인자 내리오다가 또,)

잇쭈구여 이 후후후후

1 괴어 놓고. 공구다는 괴다(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의 지역말

2 ‘일나다’는 ‘일어나다’의 지역말

(그리 인자 논 맬 때도 그런 노래로 많이 합니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우택(남, 70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 2. 지리동산 갈가마구야

지리동산 갈가마구야  
내 갈가마구야  
이산 저산 갈가마구야  
이내 가슴 답답한 줄  
어느 누가 알아주노  
갈가마구야 갈가마구야  
기리동산 갈가마구야  
이산 저산 다 땡기도<sup>3</sup>  
지리동산 내 갈가마구야  
이후-후-후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오수개(남, 71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3 다녀도. 땡기다는 다니다의 지역말

### 3. 가자 가자 백로 가자

가자 가자 이수 가니 백로 가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구야 구야 가마구야  
기리동산 가마구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푸고  
태산 곁은 짐을 지고 갈수록 높아지고  
이후후후  
청산리 벽개수야 수이 간다 자랑마라  
천정세월 인정수<sup>4</sup>야 춘만건곤 복만가라<sup>5</sup>  
서풍에 뜯구름아 비단에 문채<sup>6</sup> 같고  
서풍에 뜯구름아 꽁풍에 기름<sup>7</sup> 같네  
이후후후  
송죽같이 곧은 허리 활짱같이 굽어지고  
활살 곁은 곧은 허리 활짱같이 굽어지고  
삼단 곁은 이내 머리 호소백발<sup>8</sup> 되었구나  
이후후후  
망두석<sup>9</sup>도 짹이 있고 미신짜<sup>10</sup>도 짹이 있고  
낡이라도 행자목은 둘이 서로 마주 있고

4 천연세월인연수(天延歲月人延壽)의 오기인 듯하다. 하늘은 세월을 늘이고 사람은 나이를 늘인다.

5 춘만건곤복만가(春滿乾坤福滿家)라. 봄이 온 천지에 가득하고 복은 집에 가득하네

6 문채(文彩). 무늬

7 그림

8 호소(縞素)와 같은 백발. 호소는 흰 빛깔의 비단을 이르는 말

9 망두석(望頭石). 무덤 앞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여덟모가 진 돌기둥으로 망주석(望柱石)이라고도 한다.

10 짚신짜

채싹<sup>11</sup> 같은 내 팔자야 내 팔자 와 이령노  
이후 후 후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삼랑진읍 용성리 세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 4.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에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으아  
샛별 같은 가는 허리에 어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으으으  
활짱같이 굽은 길로 오으으  
화살같이 빠져간다 으아아

이소라 조사  
민종렬(남, 78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 5. 마귀야 마귀야 가마귀야

히호호호호호 마귀야 마귀야  
아아 가마구야  
어으 어어어 지리 동산  
가마귀야 아아

|| 11 쟁이싹. 쟁이싹은 키(곡식을 까불리 고르는 기구)의 지역말

검으마 걸마 검지 이  
이 속속들이 검을소냐 허호

『한국의 민속음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6. 구야 구야 갈가마구야

구야 구야 깔가마귀야  
너무 높이 뜨지 마라  
야차 한번 실수하면 속새피기 눈 찔린다  
이후후후후  
(그래 가지고 시대에 따라 뭐 또 그거 하면 인자 갈까마구로 위주로 하거등. 나무할 때 그때 배도 많이 고팠다 아입니까? 풀을 비가 내리오면 막 땅이 흐르고 이리 하는데, 배도 고프고 이리 하는데. 내리오면,)  
못 가겠네 못 가겠네 배가 고파 못 가겠네  
(카면 옆에 사람들이 모두 이후후후 다 옆에서 다 덩달아 다 불러주요.)  
이호호호호  
(카면 다 끝났다. 숨소리가 좀 한심한 뜻이 된다. 그래 가지고 희포로 풀어준다. 고런 뜻이건마는.)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경호(남, 81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2010년 8월 6일 채록

## 7.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좋은 집에  
사모에 총궁<sup>12</sup> 달고 호의호식 하건마는  
우리는 언제 이후후  
너 날 때 나도 태어났건만  
이내 팔자 기박하여 이후후  
기리동산 갈가마구야  
너는 하늘에서 조선팔도 다 가는데  
나는 어찌 나무 산길만 오가는가 이후후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지쾌(남, 75세, 상남면 기산리)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 8. 아이고 정강이야 다리야

아이고 장갱이<sup>13</sup>야 다리야  
빼골<sup>14</sup>이 쑥쑥 쑤신다  
울 오매가 날 와 넣았노  
내가 다리 아파 몯 가겠네  
두리동산 갈가마구야  
날 살리 주소 오호호호호

12 종경(鐘磬). 풍경(風磬)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듯하다.

13 정강이의 지역말

14 빼골의 지역말

태산 만뎅이<sup>15</sup> 여계 와서 우애 가꼬  
우애 가꼬 우리 엄마 울 아부지요  
날 살리주소 날 살려주소  
태산 같은 이 짐을 지고  
어찌 가란 말이요  
눈물 갈려 몬 갈시다 오호호호호  
시우동창<sup>16</sup> 꽃가지는  
너 죽은 줄 알았는가  
몬 가겠네 몬 가겠네  
다리 아파서 몬 가겠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이 앓아  
핀키<sup>17</sup> 사는마는  
내 팔자가 와 이런노  
내 팔자가 와 이런노  
못 살겠네 못 살겠네

김위갑(남, 68세, 산내면 용전리 오치) 제보  
1992년 2월 11일 채록

## 9. 어화 친구 벗님네여

어화 친구 벗님네여

15 산마루(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의 지역말

16 세우동창(細雨東窓). 가랑비가 내리는 동쪽 창에

17 편하게

이내 말삼 들어보소 오호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에이  
고대광실 좋은 집에  
부귀영화 살건마는  
이내 팔자 무슨 죄로  
에이 태산 중에 넘나드노  
태산 바늘 겉은 이내 몸에  
태산 겉은 짐을 지고  
고국 태산 넘나드니  
목은 말라 불이 붙고  
배는 고파 등에 불네  
우리 부모 나를 낳서  
제왕<sup>18</sup>에 못 빌었나  
조상에 못 빌었나 허허이이이

이소라 조사  
신의근(남, 94세, 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 10. 헤헤이 헤이 내 팔자야

헤헤이 헤이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으  
사대광실 높은 집에

18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신령인 삼신. 삼신에게 임신은 물론 아이의 무병장수를 비는 굿을 삼신굿 또는 제왕굿이라 한다.

사모에 평경 달고  
동남풍이 디리부니  
평경 소리 요란하데  
이내팔자 기박하여  
노사일<sup>19</sup> 몬 민하고<sup>20</sup>  
장가 한문 몬 가보고  
이내 팔자 왜 이렇노

류종목, 김현수 조사  
권태목(남, 50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 11. 후추어 에이호호호호

후추어 에이호호호호  
아이구 허리야 허리야 허리 아파 못 하겠네  
남 날 적에 나도 났고 내 날 적에 남이 났네  
이내 팔자 왜 이렇노 에이호호호호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 웃지 마라  
아이고 허리야  
우리도 어제그제 이팔청춘 소년이었건만  
내 팔자 왜 이렇노 에이호호호호

19 농사일

20 못 면하고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강일석(남, 53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4일 채록

## 12. 허허 팔자야 내 팔자야

허어 팔자야 내 팔자야  
미신짝도 짹이 있고  
방아가래도 만물 짐승도 짹이 있는데  
신짝 같은 내 팔자야  
칭이<sup>21</sup> 칭이 우짜다가 이리 되었노  
광 넓은 눈이 있나 사라진 밭이 있나  
궁동이 넓은 계집이 있나  
허허 이 일이 웬일인고 한심하기도 짹이 없네  
칭이짝 같은 내 팔자야 형님 제사는 파이고<sup>22</sup>  
자식은 뱡 울어 쌩고 계집은 팽 달아나고  
칭이 짹 같은 내 팔자야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13. 은행나무 황장목도

은행나무 황장목도 둘이 쌍쌍 부부가 되고

21 체(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뺏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구)의 지역말

22 지낼 수 없고. 파이다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나, 싫을 때 쓰는 지역말

은가락지 옥가락지 둘이 쌍쌍 부부가 되고  
구리촛대 놋촛대도 쌍쌍이 짹이 있네  
현신짝도 짹이 있고 나무짝도 짹이 있고  
현신짝도 짹이 있네 키<sup>23</sup> 같은 내 팔자야

서정매 조사  
이필호(여, 82세, 청도면 구기리 당숲마을) 제보  
2002년 1월 9일 채록

#### 14.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아

①

아이구 영감아 우리 영감아  
병자년 승년에 콩지름 갹죽 열아홉 그륵 묵고  
뒷들 논에 새 보러가서  
메뜨기 뒷달가지<sup>24</sup> 채이 죽은 우리 영감아  
아이구 우리 영감아 이후후후후후  
여보시오 벗님네요 이내 말쌈 들어보소  
오뉴월 삼복더위 논도 매고 밭도 매여  
땀이 난다 땀이 난다 구실 같은 땀이 난다  
열심으로 농사지어 부모에게 봉양하고  
나라에게 충성하자

23 곡식 따위를 까불러 쪽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키버들이나 대를 납작하게  
쪼개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긋하게 엮어 만든다.

24 뒷다리. 달가지는 다리의 지역말

위위위 위여어어어 위 후후후후후후<sup>25</sup>

류종복 조사  
김상용(남, 66세, 삼문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2)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  
팔월이라 대보름날  
올나락<sup>26</sup>밭에 새 보러가서  
에이 메뛰기 뒷달가지한테  
양복창채이<sup>27</sup> 죽은 영감  
아이고 원통하다  
영감아 영감아 우리영감  
와 죽었노 와 죽었노 원통하기  
약한 메띠기한테 채이 죽은 영감  
허허허허이야 허야라님차 혜혜이요

류종복, 김현수 조사  
최점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년 30일 채록

25 제보자는 어사용이 아니라 어산영(於山咏)이라고 풀이해 주었다. 또 ‘이후후’는 날  
아 다니는 짐승으로, 범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다. ‘이후후’를 소리냄으로써 범  
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할 때 이런 소리를 낸다고 설명하였다.

26 올벼. 나락은 벼의 지역말

27 배 양쪽 창자를 차여서

## 15. 높은 산에는 눈 날리고

높은 산에는 눈 날리고 옥은 산에는 비 날릴 때  
구름이 찌야 비 올 직엔 누구라고 아니 될까<sup>28</sup>  
아야지야 하지 마라 배 아프만 눈물 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성태(남, 90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28 힘들까

## 제7장 나물 캐는 노래

### 1. 서산 밖에 서처자야

①

서산 밖에 서처자야 쾌지나침침나네  
남산 밑에 남도령아 쾌지나침침나네  
나물 캐로 가자시라 쾌지나침침나네  
첫닭 울어 밥해 묵고 쾌지나침침나네  
두 회<sup>1</sup> 울어 신발(晨發)하고 쾌지나침침나네  
세 회 울어 당도해서 쾌지나침침나네  
올라가니 올고사리 쾌지나침침나네  
내리가니 늦고사리 쾌지나침침나네  
아곰자곰 꺾었더니 쾌지나침침나네  
맛도 좋다 곤대수<sup>2</sup>야 쾌지나침침나네  
맛도 좋다 곤대수야 쾌지나침침나네  
빛도 좋다 참나물아 쾌지나침침나네  
무덕무덕 호모초<sup>3</sup>야 쾌지나침침나네

1 헤는 새벽에 닭이 올라앉은 나무 막대를 치면서 우는 차례를 세는 단위를 말한다.

2 곤달비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는 부인병 치료에 쓴다.

결쾌 좋다 미역주야 쾌지나칭칭나네  
그러구로 쳐다보니 쾌지나칭칭나네  
점심참이 돌아왔네 쾌지나칭칭나네  
서처자 밥은 옥수 겉은 쌀밥이요 쾌지나칭칭나네  
남도령 밥은 삼년 묵은 꽁보리밥 쾌지나칭칭나네  
서처자 반찬은 소과기 육장인데 쾌지나칭칭나네  
남도령 반찬은 삼년 묵은 꼬랑장에 쾌지나칭칭나네  
서처자 솔목은<sup>4</sup> 은지옥지 놀아나고 쾌지나칭칭나네  
남도령 솔목은 삼년 묵은 통숟가락 쾌지나칭칭나네  
남도령 밥은 서처자 묵고 쾌지나칭칭나네  
서처자 밥은 남도령 묵고 쾌지나칭칭나네  
그러구로 갈라 묵고 쾌지나칭칭나네  
서처자 거동 보니 보소 쾌지나칭칭나네  
처매 벗어서 치알 치고 쾌지나칭칭나네  
허리띠 벗어서 병풍을 둘라 쾌지나칭칭나네  
팔복도 벗어서 팔비게 하고<sup>5</sup> 쾌지나칭칭나네  
두 몸이 한 몸 되어 쾌지나칭칭나네  
하늘이라 쳐다보니 쾌지나칭칭나네  
해를 보니 일모가 되어 쾌지나칭칭나네  
그러구로 내리오미 쾌지나칭칭나네  
송기 꺾여여 작지 짓고<sup>6</sup> 쾌지나칭칭나네

3 쌍떡잎식물로 명아주과의 한해살이풀. 푸른뎁싸리라고도 하는데, 어린잎은 식용한다.

4 서처자의 손목에는

5 속치마를 벗어서 베개 하고

6 소나무 가지 꺾여 지팡이로 삼고. 원래 송기(松肌)는 쌀가루와 함께 섞어 떡이나 죽

꽃은 껌여 머리에 꽂고 쾌지나칭칭나네  
잎은 뚝 따 입에 물고 쾌지나칭칭나네  
꼬불꼬불 산골길로 쾌지나칭칭나네  
집으로 당도 했네 쾌지나칭칭나네  
시어마니 거동 보소 쾌지나칭칭나네  
삼사월 진진 해에 쾌지나칭칭나네  
무슨 나물로 그리 뜯노 쾌지나칭칭나네  
어린 얘기 배고프다 쾌지나칭칭나네  
동시 거동을 정히 보소 쾌지나칭칭나네  
입수구리<sup>7</sup> 푸렸다가 붉었다 쾌지나칭칭나네  
삼사월 진진 해에 쾌지나칭칭나네  
무슨 나물로 그리 뜯노 쾌지나칭칭나네  
어린 얘기 배고프다 쾌지나칭칭나네  
씨누부 거동 정히 보소 쾌지나칭칭나네  
빈대 닷되 끊는 방에 쾌지나칭칭나네  
벼룩 닷되 끊는 방에 쾌지나칭칭나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쾌지나칭칭나네  
해쪽빼쪽 걸으면서 쾌지나칭칭나네  
털이치락 내치락 그럴씨라 쾌지나칭칭나네  
오골오골 올고사리 쾌지나칭칭나네  
너불너불 늦고사리 쾌지나칭칭나네

을 만들어 먹는 소나무의 속껍질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소나무 가지로 해석하는 편  
이 맞을 듯하다.  
<sup>7</sup> 입술의 지역말

주섬주섬 쥐 영어다가 쾌지나칭칭나네  
새빌 걸은 저 동솔에 쾌지나칭칭나네  
알콤달콤 데치네여 쾌지나칭칭나네  
앞냇물에 뺄어다가 쾌지나칭칭나네  
뒷냇물에 히아다가 쾌지나칭칭나네  
새빌 걸은 저 동솔에 쾌지나칭칭나네  
아닥타닥 볶어다가 쾌지나칭칭나네  
열 두 상을 갈러놓고 쾌지나칭칭나네  
뒷동산에 지치달아 쾌지나칭칭나네  
부지깽이 총알하야 쾌지나칭칭나네  
꽁한마리 잡아다가 쾌지나칭칭나네  
새빌 걸은 저 동솔에 쾌지나칭칭나네  
아리살살 끊은 물에 쾌지나칭칭나네  
네 활개를 발기태어<sup>8</sup> 쾌지나칭칭나네  
두장 두칼 네발 도매 쾌지나칭칭나네  
연 난도질 시깃다가<sup>9</sup> 쾌지나칭칭나네  
새빌 걸은 저 동솔에 쾌지나칭칭나네  
열두 접시 내어놓고 쾌지나칭칭나네  
한지까치<sup>10</sup> 남은 것은 쾌지나칭칭나네  
앞집 동시 줄라 카니 쾌지나칭칭나네  
뒷집 동시 성낼 끼고 쾌지나칭칭나네

8 꿩의 두 날개와 두 다리를 중심으로 찢어서

9 네 발 달린 도마 위에서 두 자루 칼로 연이어 난도질을 하여

10 한 젓가락. 지까치는 젓가락의 지역말

뒷집 동시 줄라 카니 쾌지나칭칭나네  
앞집 동시 성낼 끼고 쾌지나칭칭나네  
이 입에도 옅자 하니 쾌지나칭칭나네  
도매 끝에 앉은 아기 쾌지나칭칭나네  
매구 곁은 시누부가 쾌지나칭칭나네  
말썽 많애 못 엉겄고 쾌지나칭칭나네  
앞산에도 해가 돋고 쾌지나칭칭나네  
뒷산에도 해가 돋고 쾌지나칭칭나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쾌지나칭칭나네  
개밥통에 낮을 씻고 쾌지나칭칭나네  
치매귀에 털치 닦고<sup>11</sup> 쾌지나칭칭나네  
도매 끝에 나 앉아서 쾌지나칭칭나네  
요물조물 다 묵었네 쾌지나칭칭나네  
매자구 짜자구<sup>12</sup>를 쾌지나칭칭나네  
열두 접시 내여놓고 쾌지나칭칭나네  
은쪽배기<sup>13</sup> 손에 들고 쾌지나칭칭나네  
은따뱅이<sup>14</sup> 입에 물고 쾌지나칭칭나네  
은동울랑<sup>15</sup> 앞에 끼고 쾌지나칭칭나네  
대문 밖에 썩 나서니 쾌지나칭칭나네

11 치마 자락에다 대충 닦고, 치매는 치마의 지역말

12 ‘매자구 짜자구’는 산나물 이름이다. 아주 가는 풀로 이것을 요리하여 잘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 하는 것으로 부녀자의 손재주를 평가하기도 한다.

13 쪽박, 바가지. 쪽배기는 쪽박, 바가지의 지역말

14 땅리(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의 지역말

15 동이랑. 동우는 동이(물을 길는데 쓰는 손잡이가 달린 질그릇)의 지역말

애운 얘기 어 잘한다 쾌지나칭칭나네  
저승꺼정 소문났네 쾌지나칭칭나네  
저승차사 소문나여 쾌지나칭칭나네  
쇠방마치<sup>16</sup> 둘러메고 쾌지나칭칭나네  
쇠도리깨 둘러메고 쾌지나칭칭나네  
털이치락 내에치락 쾌지나칭칭나네  
사랑방에 조부조모 쾌지나칭칭나네  
저 대성을<sup>17</sup> 갈랍나이까 쾌지나칭칭나네  
니 뜬에는 니가 가고 쾌지나칭칭나네  
내 뜬에는 내가 가지 쾌지나칭칭나네  
큰 방에 엄마 아빠 쾌지나칭칭나네  
저 대성을 갈랍나이까 쾌지나칭칭나네  
니 뜬에는 니가 가고 쾌지나칭칭나네  
내 뜬에는 내가 가지 쾌지나칭칭나네  
못방에 서방님요 쾌지나칭칭나네  
어린 얘기 울거들랑 쾌지나칭칭나네  
신 돌라고 울거들랑 쾌지나칭칭나네  
신을 조여 달개내고 쾌지나칭칭나네  
물 돌라고 울거들랑 쾌지나칭칭나네  
물을 조여 달개내고 쾌지나칭칭나네  
밥 돌라고 울거들랑 쾌지나칭칭나네  
밥을 조여 달개 내고 쾌지나칭칭나네

16 쇠방망이. 방마치는 방망이의 지역말

17 나 대신을

병풍에 기린 닦이 쾌지나칭칭나네  
홱치거든 내 오꾸마 쾌지나칭칭나네  
살강 밑에 보리밥떼기 쾌지나칭칭나네  
싹 나거든 내 오꾸마 쾌지나칭칭나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쾌지나칭칭나네  
나는 나는 바로 가네 쾌지나칭칭나네  
이리 가마 하직이다 쾌지나칭칭나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2일 채록

(2)

치나칭칭나아네  
서산 밑에 서처자야 치나칭칭나아네  
남산 밑에 남도령아 치나칭칭나아네  
나물 캐러 가자스라 치나칭칭나아네  
신이 없어 못 가겠네 치나칭칭나아네  
나에 신 갈라 신고 치나칭칭나아네  
지질궂다 진 등으로<sup>18</sup> 치나칭칭나아네  
올라가면 올고사리 치나칭칭나아네  
내리가면 늦고사리 치나칭칭나아네  
나물 이름을 지어나 보세 치나칭칭나아네  
이름 좋다 참나무라 치나칭칭나아네

18 험하다 긴 등으로

요리조리 곤달비며 치나칭칭나아네  
쫄쫄빼는 미역초며 치나칭칭나아네  
칭기 칭기 칭계 짜구 치나칭칭나아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설삼출(남, 67세), 류영준(남, 58세), 류영수(남, 60세, 삼랑진읍 청학리 골안)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2. 남산 밑에 남도령아

남산 밑에 남대롱아  
서산 밑에 서처자야 나물 캐로 가자시랴  
신이 없어 못가겠네 내 신 갈라 신고가자  
칼이 없어 못가겠네 내 칼 갈라 씌고 가자  
광주리 없어 못 가겠네 내 광주리 갈라 씌자  
밥이 없어 못 가겠네 내 밥 갈라 묵고 가자  
중품에<sup>19</sup> 올로 가니 풍처질령<sup>20</sup> 폭포로다  
물도 좋고 반석 좋고 처매 벗어 채알 치고  
허리띠 벗어 병풍치고 속곳 벗고 치알 치자  
우리 둘이 이러다가 얘기나 들며 어찌 할꼬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립(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19 산의 중허리에

20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시늉말인 듯하다.

### 3.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케지나칭칭나네 케지나칭칭나네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케지나칭칭나네  
요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케지나칭칭나네  
갱빈 돌이 돌 곁으면 케지나칭칭나네  
어느 친구가 날마다 하꼬 케지나칭칭나네  
한강물이 술 곁으면 케지나칭칭나네  
어느 친구가 날마다 하꼬 케지나칭칭나네  
올라가는 올고사리 케지나칭칭나네  
내려가는 닐고사리 케지나칭칭나네  
아금자금 끙커다가 케지나칭칭나네  
새별 곁은 저 동솔에 케지나칭칭나네  
아글다글 뽕아다가 케지나칭칭나네  
아부님 상에 한상 놓고 케지나칭칭나네  
우리 친구들 갈라 먹자 케지나칭칭나네  
니가 죽고 내가 살면 케지나칭칭나네  
어느 친구가 날마다 하나 케지나칭칭나네  
돌아가는 돌 손님아 케지나칭칭나네  
오는 손님 받아주소 케지나칭칭나네  
이산 저산 양산 중에 케지나칭칭나네  
슬퍼 우는 두견새야 케지나칭칭나네  
니가 무슨 소원이 있어 케지나칭칭나네  
올라가민 우는구나 케지나칭칭나네

내려가면 널고사리 캐지나칭칭나네  
올라가면 올고사리 캐지나칭칭나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남웅(여, 85세, 청도면 구기리), 김태아(여, 87세, 청도면 이산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 4. 뒷동산천 올라가서

뒷동산천 올라가서 엉구캐<sup>21</sup>는 뜯어다가  
엉글 씻어 시아바시 판에 놓고  
쪼바리는 뜯어다가 쪼불 씻어 시오마님 판에 놓고  
야시 곁은 시누부야 매구 곁은 시누부야  
보름달이 밝다 캐도 시누부 눈끼리만침 밝을소냐  
야시 곁은 시누부야 매구 곁은 시누부야  
빈대 닷되 시누부야 벼룩 닷되 시누부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소연(여, 81세, 교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5. 광주리야 농 되거라

광주리야 농 되거라 논두름<sup>22</sup>아 말 되거라

21 엉경퀴

호맹이<sup>23</sup>야 종 되거라 시집 한번 가고 지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 6. 영동아 지신아

①

영등<sup>24</sup>야 지석<sup>25</sup>야

영동아 지석아

지천구<sup>26</sup>라 삶은 물에

나물죽을 낫이 갖고

울 아자씨는 주라한데

울 아주무이 안 주더라

울 아주무이 끌어가고

울 아자씨는 천장 만장<sup>27</sup> 불아주고<sup>28</sup>

영등아 지석아

22 논두렁(물이 괴어 있도록 논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의 지역말

23 호미의 지역말

24 영동 혹은 영둥이라고 하는 이월의 풍신(風神). 할머니신으로 생각하여 영동할마씨라고도 한다.

25 제석신(帝釋神). 무당이 모시는 신이기도 하지만, 가신제(家神祭)의 대상으로 집안 사람들의 수명과 무사태평을 관장하기도 한다.

26 지칭개(국화과의 두해살이풀)

27 아주 많이

28 불려 주고

내 나물은 천장 만장 불아주소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2)

영두야<sup>29</sup> 지신아 바람아 구름아  
울 아지매 나물랑 손톱만침 불어주고  
내 나물은 천리 만리 불어주소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임복임(여, 67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3)

이모야 짓신아 바람아 구름아  
우라짐에<sup>30</sup> 나물랑 손톱만침 부러주고  
내 나물은 천리 만리 부러주소

정상박 조사  
임복임(여, 67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29 영동아

30 우리 아주머니. 아지매는 아주머니의 지역말

## 7. 어화 처정청 고사리 꺽자

①

어화 처정청 고사리 꺽짜 어화 처정청 고사리 꺽짜  
앞에 가는 저 처녀야 방구나 통통 끼지 마라  
내일 모레 느그 신랑 보리야 동냥 하러 온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이부적(여, 86세, 가곡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②

(우리 그전에 왜 나물이나 뜯고, 오새<sup>31</sup>는 왜 글로 왜 가르쳐 주나? 저 들에 나물이나  
뜯어오라 카고, 그래 나물 광주리 이리 이고 소쿠리 이고 저 모두 죽 가거덩, 아들이.  
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리 사미, 이리 이고 뭐 하는 소리는)

앞에 가는 저 가스나<sup>32</sup> 방구 탱탱 끼지 마라  
내일모레 너거 서방 방구 동냥 하러 온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태아(여, 87세, 청도면 이산리)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③

오동통통 가시내야 방구 통통 뀌지 마라

31 요사이(이제까지의 매우 짧은 동안)의 지역말  
32 계집아이의 지역말

내일모레 너거 신랑 터럭장군 짊어지고  
방구동냥 하러온다

임동권, 『한국민요집』 III(집문당, 1975)

## 제8장 나락 가는 노래

### 1. 어허허 목매야

①

- (메) 어허허 목매야  
(반) 어허허 목매야  
(메) 이목매가 누 목매고  
(반) 어허허 목매야  
(메) 어 참봉의 목매로다  
(반) 어허허 목매야  
(메) 큰머슴아 들어온나  
(반) 어허허 목매야  
(메) 작은머슴 불러온나  
(반) 어허허 목매야  
(메) 앞집 목매 얻어놓니  
(반) 어허허 목매야  
(메) 허 양 나와 못 씨겠고  
(반) 어허허 목매야  
(메) 뒷집 목매 얻어놓니

|| 1 벼를 갈아 곁겨를 벗기는 데 쓰는 농기구

(받) 어허허 목매야  
(메) 쌀이 치서 못 씨겠다  
(받) 어허허 목매야  
(메) 삼년 묵은 우리 목매  
(받) 어허허 목매야  
(메) 내여놓니 제일이라  
(받) 어허허 목매야  
(메) 조반석죽<sup>2</sup> 갈아놓니  
(받) 어허허 목매야  
(메) 부귀영화 여겄구나  
(받) 어허허 목매야  
(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전에 효도하소  
아가 아가 며늘아가 쌀이나 실거보자  
도고방아<sup>3</sup> 실거볼까 연자방아 실거볼까  
디딜방아다 실거보자 시어마시는 실어 옹고  
시누부 올케야 디더라 보자  
알케동 달케동 실거내니 백옥 같은 쌀이 된다  
아가 아가 며늘아가 점심밥이나 지어보자  
며늘아기 그 말 듣고 백옥 같은 쌀을 담아  
은하수 좋은 물에 보기 좋기 씻거다가  
검은 솥에 밥을 안치니 우르륵 푸르륵 넘는구나

2 조반석죽(朝飯夕粥).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한 살림을 이르는 말

3 절구(곡식을 뿹거나 찧으며 떡을 치기도 하는 기구)의 지역말로 달리 도구방이라고도 함

첫째로 담는 밥은 할배 할매 밥이로다  
둘째 번에 담는 밥은 아버지 엄마 밥이로다  
셋째 번에 담는 밥은 내 밥이고 네 밥이다  
앙글앙글<sup>4</sup> 우는 얘기 젖을 주서 달래주고  
조작조작<sup>5</sup> 걷는 얘기 밥을 주서 달래주고  
준달적은 저 머슴아 돈을 줘서 달래주고  
심통궂은 시아바시 술을 디려 위로하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반달 같은 얘기 업고  
얼아보자<sup>6</sup> 얼어보자 등실등실 얼어보자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인간의 보배동아  
온을 준들 너를 사며 돈을 준들 너를 사나  
태산 겉이 높은 거라 황해 같이 짚으거라  
솔잎 같이 싱하거나 대잎 같이 정하거라  
챙반 같이 둥글거라 세상 겉이 너리거라<sup>7</sup>  
그 얘기가 자라나서 밀양원님 되겠구나  
그 얘기 자라나서 경주부윤 되겠구나  
그 얘기가 자라나서 투영통기사<sup>8</sup> 되겠구나  
그 얘기 자라나서 전라감사 되겠구나  
그 얘기 자라나서 평양감사 되겠구나  
그 얘기 자라나서 대구판사 되겠구나

4 어린아이가 소리 없이 자꾸 귀엽게 웃는 모양

5 처음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자꾸 배틀거리며 귀엽게 걷는 모양

6 어루어(달래) 보자

7 넓거라

8 통영통제사를 지칭하는 듯하다.

그애기 자라나서 동래부사 되겠구나  
그애기 자라나서 알성급제 도장원에  
팔도어사가 되겠구나  
그애기 자라나서 일인지하에다가 만인지상이 되겠구나<sup>9</sup>

이소라 조사  
(메) 신의근(남, 94세), (반) 산내농요 회원들(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②

이 목메<sup>10</sup>가 누 목멘고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우리 대주 목메로다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큰머슴만 들어온나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작은머슴 불러온나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목메 한 틀 차려 봐라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이서방아 들어온나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너도 조금 멀어도고

9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이 되겠다. 재상을 뜻하는 말이나 여기선  
귀한 사람이 됨을 이르는 말

10 목매 또는 매통. 벼를 갈아 곁겨를 벗기는 데 쓰는 농기구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한 섬 같고 두 섬 같고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석 섬으로 거듭 같아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백옥 같은 쌀이 난다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검은 솥에 밥을 앉혀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처음에라 담는 밥은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할매 할배 밥이로다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둘째뿐<sup>11</sup>에 담는 밥은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아매 어매 밥이로다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셋째뿐에 담는 밥은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나 밥이고 니 밥이다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앙글앙글 우는 얘기

|| 11 번(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의 지역말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밥을 주어 달래보자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여보아라 머슴들아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배고프면 밥을 묵고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목마르면 술을 묵고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힘차게나 당겨주고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힘차게나 밀어주소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열 맷 섬을 갈아내어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부귀영화 여기구나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부모님께 효성하고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나라님께 충성하여  
어허어 목메야 어허어 목메야  
부귀영화 살아보세 부귀영화 살아보세

『내 고장 초동』(초동중학교 동창회, 2006)

## 2. 어허 목마야

어허어 목마야 어허 목마야  
이 목마가 누 목마냐 어허 목마야  
대주양반 목마로다 어허 목마야  
큰머슴아 들어온나 어허 목마야  
작은머슴 불러온나 어허 목마야  
여보아라 머슴들아 어허 목마야  
목마 한 틀 차려 보아라 어허 목마야  
이서방도 불러온나 어허 목마야  
너도 조곰 밀어주고 어허 목마야  
한 섬 같고 두 섬 같아 어허 목마야  
백옥 같은 쌀이 난다 어허 목마야  
검은 솥에 밥을 앉혀 어허 목마야  
처음에라 담는 밥은 어허 목마야  
할매 할배 밥이로다 어허 목마야  
둘째번에 담는 밥은 어허 목마야  
아배 엄마 밥이로다 어허 목마야  
셋째번에 담는 밥은 어허 목마야  
나 밥이고 너 밥이다 어허 목마야  
아글아글 우는 아기 어허 목마야  
젖을 주어 달래보고 어허 목마야  
여보아라 머슴들아 어허 목마야  
배고프면 밥을 먹고 어허 목마야

목마르면 술을 먹고 어허 목마야  
힘차게나 땅기주고 어허 목마야  
힘차게나 밀어주소 어허 목마야  
열맺 섬을 갈아내니 어허 목마야  
부귀영화 여기로다 어허 목마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허 목마야  
나라에는 충성하세 어허 목마야  
부귀영화 살아보자 어허 목마야  
부귀영화 살아보세 어허 목마야

김경호(남, 64세, 산내면 송백리) 제보  
1992년 2월 11일 채록

### 3. 오호오호 방아야

오호오호 방아야 이 방아가 뉘 방안고  
강태공의 조작방아<sup>12</sup> 알게동 덜게동 찧어보자  
큰 가래는 맨동서 올라서고  
작은 가래는 끝에 동서 올라서고  
중간 동서는 우겨엿차  
삼동시 알게동 덜게동 찧어 가지고  
첫째는 부모 봉천 대접하고 남은 것은  
우리도 먹고 오호오호 방아로구나

12 손으로 당기고 발로 밟아 찧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남지방의 방아

정영선 엮음, 『무안면 문화사료』(무안중학교, 1973)

#### 4. 오호호 방애야

오호호 방애야 오호호 방애야  
이 방애가 누 방애고 오호호 방애야  
강태공에 조작방애 오호호 방애야  
강태공은 어데 가고 오호호 방애야  
방에 치장을 못 했던가 오호호 방애야  
흔자 짹는 외걸이방애 오호호 방애야  
둘이 짹는 갈이방애<sup>13</sup> 오호호 방애야  
방애 짹는 삼꾼들아 오호호 방애야  
하리<sup>14</sup> 샵품 열매 받노 오호호 방애야  
삼시 묵고 돈반반씩<sup>15</sup> 오호호 방애야  
방애 샵품이 그래 가지고 오호호 방애야  
딩기죽<sup>16</sup>도 못 묵겠네 오호호 방애야  
방아 방아 잘 돌으라 오호호 방애야  
가래방애 가고나니 오호호 방애야  
화륜방애<sup>17</sup>가 나왔구나 오호호 방애야  
택택걷는<sup>18</sup> 화륜방애 오호호 방애야

13 가래방아의 지역말

14 하루의 지역말

15 한 돈 반씩

16 등겨로 끓인 죽. 딩기는 등겨(벗겨 놓은 벼의 껍질)의 지역말

17 화륜(火輪) 방아

그 방애도 가고 나니 오호호 방애야  
전기장채가 되었구나 오호호 방애야  
얼씨구나 좋은 방애 오호호 방애야  
세상천지 만물 중에 오호호 방애야  
그런 방애가 또 있던가 오호호 방애야  
강태공의 소문 듣고 오호호 방애야  
디딜방애 찢다가는 오호호 방애야  
방애 찢다가 다 죽는데이 오호호 방애야  
오호호 방애야 오호호 방애야  
북만주가 머다 캐도 오호호 방애야  
핀지<sup>19</sup> 기차는 왕래하고 오호호 방애야  
하날이 넓다 캐도 오호호 방애야  
삼사오경에 찬이슬 오고 오호호 방애야  
저승길이 얼맨 멀어 오호호 방애야  
하문 가면 못 오시노 오호호 방애야  
노자 노자 짊어 노자 오호호 방애야  
늙고 병들면 못 노니라 오호호 방애야  
이팔청춘 소년들아 오호호 방애야  
백발 보고 괄시마라 오호호 방애야  
나도 어지 청춘이디이 오호호 방애야  
백발 되기가 잠깐이다 오호호 방애야  
오호호 방애야 오호호 방애야

18 택택 소리를 내는

19 편지

류종목,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 5. 아호호 방아야

아호호 방아야 아호호 방아야  
이 방아가 누 방아고 아호호 방아야  
강태공의 조작방아 아호호 방아야  
혼자 짧는 도꾸방아<sup>20</sup> 아호호 방아야  
둘이 짧는 디딜방아 아호호 방아야  
빙빙 돈다 물레방아 아호호 방아야  
물 심으로 돌아가네 아호호 방아야  
달개동 달개동<sup>21</sup> 짧는 방아 아호호 방아야  
언제나 다 짧고 마실<sup>22</sup>을 갈꼬 아호호 방아야  
한 섬 두 섬 짧어내니 아호호 방아야  
백옥 같은 흰쌀이라 아호호 방아야  
이 방아를 짧어 가주 아호호 방아야  
누구하고 노나 묵을꼬 아호호 방아야  
첫째 섬은 나라보양 아호호 방아야

20 절구(곡식을 빻거나 짧으며 떡을 치기도 하는 기구로, 통나무나 돌, 쇠 따위를 속이 우묵하게 만들어 곡식 따위를 넣고 절굿공이로 빻거나 짧는다.)

21 덜커덩 덜커덩

22 마을의 지역말. 원래 뜻은 이웃의 일을 돋는 것이지만 보통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을 이르는 말

둘째 섬은 형제부모 아호호 방아야  
일문권솔<sup>23</sup> 묵고 산다 아호호 방아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 6. 오호 방아야

오호 방아야 이 방아를 짧어서  
연연히 천 석하여 군데군데 되어서  
이집 성주 많이 많이 되어서  
우리 외가 부자를 많이 맨들어 주세요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승임(여, 76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 7. 쿵더쿵 쿵더쿵

쿵더쿵 쿵더쿵 짧는 방애  
운제나<sup>24</sup> 다 짧고 마실가꼬  
마실에 간다고 강세 말고<sup>25</sup>

23 일문권솔(一門眷率). 한 집안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이르는 말로 달리 일가권속(一家眷屬)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24 언제나. 운제는 언제를 뜻하는 지역말

얇은뱅이 데리고 살림 사소  
말대척<sup>26</sup> 한다꼬 강세 말고  
버부리<sup>27</sup> 데리고 살림 사소  
아롱아롱 아롱아롱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자  
물 이러 간다고 강세 말고  
살강아 밑에다 새미<sup>28</sup> 파소  
아롱아롱 아롱아롱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자  
아리랑 고개는 열두 고개  
정든 님 고개는 단고개요  
시집을 못 살만 못 살았지  
양골용<sup>29</sup> 술 안 묵고 내 못 살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자  
시집을 못 살면 못 살았지  
간지리<sup>30</sup> 똑 불라 옛 사목고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김경남(여, 74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 25 질투하지 말고
- 26 말대꾸의 지역말
- 27 병어리의 지역말
- 28 샘의 지역말
- 29 양궐련(洋巻煙). 얇은 종이로 말아 놓은 담배를 이르는 말
- 30 광주리

## 제9장 터다지는 노래

### 1. 에이러 룻차<sup>1</sup>

정월이라 대보름에 에이러 룻차  
망월 보자는 명월인데 에이러 룻차  
망월도 좋다마는 에이러 룻차  
강남 갔던 강남새<sup>2</sup>는 에이러 룻차  
옛집을 찾건마는 에이러 룻차  
주인 보고 반겨한다 에이러 룻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룻차  
사월이라 초파일에 에이러 룻차  
앞집 선봉<sup>3</sup> 광등 달고 에이러 룻차  
뒷집 선봉 광등 달고 에이러 룻차  
우리 선봉 어데 가고 에이러 룻차  
광등 달 줄 모르는고 에이러 룻차  
서울 갔던 선비님요 에이러 룻차

1 이 고장에서는 터를 닦아 땅을 다질 때 주로 달 밝은 밤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 노래를 부르며 역사를 한다.

2 제비를 이르는 말

3 선비

우리 선비 안 오시나 에이러 롯차  
오기사야 온다마는 에이러 롯차  
칠성판에 얹혀 온다 에이러 롯차  
금등옥등 엇다 두고 에이러 롯차  
칠성판이 웬말일고 에이러 롯차  
일산대난 엇다 두고 에이러 롯차  
연정대<sup>4</sup>가 웬말일고 에이러 롯차  
그달 그믐 다 넘어가고 에이러 롯차  
오월이라 단오날에 에이러 롯차  
머리물로 만나보자 에이러 롯차  
그달 그믐 다 넘어가고 에이러 롯차  
유월이라 유듯날은 에이러 롯차  
유두명절이 이 아니냐 에이러 롯차  
천주적벽에 찧은 떡은 에이러 롯차  
올기풀기도 맛도 좋다 에이러 롯차  
혼자 먹기가 아득하다 에이러 롯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롯차  
칠월이라 칠석이라 에이러 롯차  
견우직녀 만나는 날에 에이러 롯차  
일 년에 한 번씩 에이러 롯차  
상봉하건마는 에이러 롯차  
우리야 님은 어데 가고 에이러 롯차

4 명정(銘旌)대. 명정은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씨를 기록한 천을 매단 긴 장대를 이르는 말

일 년에 한 번도 못 만나네 에이러 룻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룻차  
팔월이라 추석날에 에이러 룻차  
망월보자는 명월인데 에이러 룻차  
청춘남녀 짹을 지어 에이러 룻차  
망월상봉 가건마는 에이러 룻차  
우리야 님은 어데 가고 에이러 룻차  
망월보자는 말이 없네 에이러 룻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룻차  
구월이라 구일날은 에이러 룻차  
왜땅에 간 기러기 에이러 룻차  
옆땅을 찾건마는 에이러 룻차  
한번 가신 우리 님은 에이러 룻차  
다시 올 줄 왜 모르노 에이러 룻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룻차  
시월이라 상달일은 에이러 룻차  
집집마다 고사침석 에이러 룻차  
재수대통 발원하는데 에이러 룻차  
우리 님 명복도 빌어보자 에이러 룻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룻차  
동짓달을 잡아드니 에이러 룻차  
계절은 내년일세 에이러 룻차  
나이는 한살 더 안 먹나 에이러 룻차  
님도 한살 안 생겼소 에이러 룻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뒷차  
섣달은 마짓달<sup>5</sup>인데 에이러 뒷차  
어진 사람 안 쫄릴가 에이러 뒷차  
엄동설한 긴긴밤에 에이러 뒷차  
쌀 건지는 조래 팔건마는 에이러 뒷차  
님 건지는 조래는 아니 파어 에이러 뒷차  
그달 그믐 다 보내고 에이러 뒷차

이겸호(남, 67세, 밀양시) 제보  
1959년 8월 10일 채록

## 2. 천 근 들어 망깨는

천근 두려<sup>6</sup> 망깨는 에이러 뒷차  
공중에서 놀고요 에이러 뒷차  
열두 자 말목<sup>7</sup>은 에이러 뒷차  
용왕국에 가고요 에이러 뒷차  
천근짜리 망깨는 에이러 뒷차  
천자는 올라간다 에이러 뒷차  
일심협력 당겨주소 에이러 뒷차  
부귀영화 다 누리고 에이러 뒷차  
천년만년 살고 지고 에이러 뒷차

5 마지막 달

6 들어

7 가늘게 다듬어 깎아서 무슨 표가 되도록 박는 나무 말뚝

이겸호(남, 67세, 농업, 밀양읍) 제보  
1959년 8월 10일 채록

### 3. 어이야라차아

①

어이야라차아

줄 많이 땅기면 돈 많이 준다 어이야라차아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sup>8</sup> 어이야라차아

수지조종은 황해수라<sup>9</sup> 어이야라차아

지난 간밤에 부던 바람 어이야라차아

금성이 완연하고 어이야라차아

침단금<sup>10</sup>에 상사몽을 어이야라차아

후려쳐서 깨어보니 어이야라차아

죽창을 반개하고<sup>11</sup> 어이야라차아

막막히 앉아보니 어이야라차아

청명강산 찬 기운은 어이야라차아

만리창공에 황혼이 흩어지고 어이야라차아

8 산지조종(山之朝宗)은 곤륜산(崑崙山)이요. 산의 근원은 곤륜산이란 뜻. 곤륜산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 처음에는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 또는 아름다운 옥(玉)이 나는 산으로 알려졌으나, 전국시대 말기부터 서왕모가 살며 불사(不死)의 물이 흐르는 신선경이라 일컬었다.

9 수지조종(水之朝宗)은 황하수(黃河水)라. 황하(黃河)는 중국 북부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으로 중국문명의 요람지이기도 하다.

10 석침단금(石枕單衿). 돌베개와 훌이불이란 뜻으로 가난한 삶을 이르는 말

11 죽창(竹窓)을 반개(半開)하고. 창살을 대나무로 만든 창문을 반쯤 열고

심사도 창연한데 어이야라차아  
월색도 유감하고 어이야라차아  
정수(庭樹)<sup>12</sup>에 부는 바람 어이야라차아  
추국(秋菊)<sup>13</sup>에 맷힌 이슬 어이야라차아  
벼루<sup>14</sup>를 머금은 듯 어이야라차아  
그 대문은 제치놓고 어이야라차아  
또 한 대문이 나오는구나 어이야라차아  
화란춘색 만화방창<sup>15</sup> 어이야라차아  
때는 좋다 벗님네야 어이야라차아  
산천경개 구경 가자 어이야라차아  
죽장 짚고 단표자<sup>16</sup>로 어이야라차아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어이야라차아  
만산에 초목들은 어이야라차아  
일년 일도<sup>17</sup> 다시 피여 어이야라차아  
색색이라 다 붉었네 어이야라차아  
장송채중<sup>18</sup>은 울울창창 어이야라차아  
화림요초 난만중에<sup>19</sup> 어이야라차아

12 뜰에 심은 나무

13 가을에 피는 국화

14 별

15 화란춘성 만화방창(花爛春成 萬化方暢). 꽃은 무르익어 봄이 완연하고, 따뜻한 봄 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흐드러진다는 뜻. 여기서부터는 경기 잡가인 「유산가(遊山歌)」의 내용을 가져온 듯하다.

16 단사표음(簞食瓢飲).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란 뜻으로 소박한 생활을 일컫는 말이다.

17 일년일도(一年一度). 일 년에 한 번씩

18 창송취축(蒼松翠竹).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꽃 속에 잠든 나비 어이야라차아  
자취 없이도 날아든다 어이야라차아  
제비는 물을 찾고 어이야라차아  
기러기는 물에 젖어 어이야라차아  
거지중천<sup>20</sup>에 높이 떠서 어이야라차아  
천리강산 먼먼 길을 어이야라차아  
어이 가꼬 슬피 운다 어이야라차아  
이 대문을 젓히놓고 어이야라차아  
또 한 대문이 나오는구나 어이야라차아  
만고강산 유람할 제 어이야라차아  
삼신산<sup>21</sup>이 어데뇨 어이야라차아  
일봉래 이방장과 어이야라차아  
삼영주가 이 아닌가 어이야라차아  
죽장망혜 단표자로 어이야라차아  
천리만리 들어가니 어이야라차아  
경포 동정호는 어이야라차아  
명월을 구경하고 어이야라차아  
천간적락 낙산사는 어이야라차아  
초석정<sup>22</sup>을 구경하고 어이야라차아

19 화림요초 난만중(花林瑤草 燮漫中)에,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만발하여 흐드러진 가운데 「유산가」에는 기화요초(琪花瑤草)로 되어 있다.

20 거지중천(居之中天). 텅 빈 공중

21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 등 세 신산(神山)을 이르는 말. 금옥(金玉)으로 지은 누각이 있고 주옥(珠玉)으로 된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불로불사(不老不死)한다고 알려져 있어 진시황(秦始皇)과 관련지어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단발령 얼른 넘어 어이야라차아  
천봉만학 부용들은 어이야라차아  
하날 같이 솟아 있고 어이야라차아  
백천폭포 급한 물은 어이야라차아  
은하수를 기울인 듯 어이야라차아  
잠든 안개 끼어 있고 어이야라차아  
맑은 안개 끼었으니 어이야라차아  
선경일시 분명쿠나 어이야라차아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어이야라차아  
춘광춘색 자랑한다 어이야라차아  
봉래산 좋은 경치 어이야라차아  
지척에다 던져두고 어이야라차아  
못 본 제가 몇몇 해냐 어이야라차아  
오늘이 다행이라 어이야라차아  
이곳으로 당도하니 어이야라차아  
옛일이 새로워라 어이야라차아  
서산에 지는 해는 어이야라차아  
양유사<sup>23</sup>로 잡아매고 어이야라차아  
동정<sup>24</sup>에 걸린 달은 어이야라차아  
기수<sup>25</sup>에다 머물러라 어이야라차아

22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인 강원도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23 양유사(楊柳絲). 베드나무 가지

24 동정호(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제2의 담수호로, 악양루(岳陽樓) 등  
이 일찍이 소상팔경(瀟湘八景)의 하나로 꼽힌 이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다. 여기  
서는 강원도 통천의 동정호를 지칭한 듯하다.

젊은 춘에 마음대로 놀고 가자 어이야라차아

류종목, 성재옥 조사

박귀출(남, 68세), 서삼수(남, 80세, 삼랑진읍 용성리 새터) 제보

1981년 7월 28일 채록

(2)

어 소리 참 잘한다 어이야라차아  
사람은 많아도 소리는 적네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청개망개<sup>26</sup>는 공중에 놀고 어이야라차아  
열두 자 말목은 물속에 논다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어이야라차아  
명주베 짜는 저 쳐녀야 어이야라차아  
누 간장을 녹일라구 어이야라차아  
요리저리 따꾸짜누 어이야라차아  
낚으니라 낚으니라 어이야라차아  
베짜는 쳐녀를 꼬아내자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낚아내면 열녀 되고 어이야라차아  
못 낚아내면 상사로다 어이야라차아

25 기산영수(箕山穎水)의 준말. 기산과 영수는 요임금 때의 선비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속세를 등지고 살았던 곳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순수한 경지를 흔히 일컫는 말이다.

26 천근망깨

상사고로 매려놓고 어이야라차아  
부자가 되도록 잘살아보자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어이야라차아  
시집 삼년 살고 나니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시모님이 하신 말씀 어이야라차아  
여야 아가야 며눌아가 어이야라차아  
진주야 남강을 볼라거든 어이야라차아  
진주야 남강에 빨래 가서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진주야 남강 빨래 가니 어이야라차아  
물도 좋고 돌도 좋네 어이야라차아  
검은 서답<sup>27</sup> 검게 싣고 어이야라차아  
흰 서답 희게 싣고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 어이야라차아  
옆눈을 히끗 들려보니 어이야라차아  
하늘 같은 갓을 쓰고 어이야라차아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어이야라차아  
못 본 체하고 지나간다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27 검은 빨래 . 서답은 빨래의 지역말

그 꼴을 보니 심장이 상해 어이야라차아  
검고 흰 것은 간 곳 없고 어이야라차아  
집이라고 찾아가니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시어머님 하신 말씀 어이야라차아  
여야 아가야 땀눌아가 어이야라차아  
너의 낭군을 볼라거든 어이야라차아  
너 방으로 드가보세 어이야라차아  
내 방으로 썩 들어서니 어이야라차아  
열두 가지 안주 놓고 어이야라차아  
기생아 첨 옆에 앉혀 어이야라차아  
너 먹어라 내 먹었거나 어이야라차아  
권주가하며 야단났네 어이야라차아  
그 꼴을 보니 심장이 상해 어이야라차아  
아랫방으로 내려와서 어이야라차아  
석자 여섯 치 명주수건 어이야라차아  
목에 졸라 죽었다네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낭군님이 내려와서 어이야라차아  
어허둥둥 내 사랑아 어이야라차아  
기생아 첨은 삼 년이요 어이야라차아  
본댁이는 백 년인데 어이야라차아  
요렇게 될 줄 내 몰랐다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냉정하고 사자고개<sup>28</sup> 어이야라차아  
김정승 딸래미<sup>29</sup> 맏딸애기 어이야라차아  
하 잘났다 소문 듣고 어이야라차아  
한 번 가도 못 볼리라 어이야라차아  
두 번을 가도 못 봤구나 어이야라차아  
삼세 번 거듭 가니 어이야라차아  
서른세 칸 대청 끝에 어이야라차아  
삼내야 버선 저 버선을 어이야라차아  
외씨 같이도 접어 신고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너홀명단<sup>30</sup> 단소곳<sup>31</sup>은 어이야라차아  
기러기 주름을 잡아 입고 어이야라차아  
인주야 비단<sup>32</sup> 겹저고리 어이야라차아  
대저야 고름을 달아다가 어이야라차아  
어깨 너멀 던졌구나 어이야라차아  
거울로 거듭 보니 어이야라차아  
아홉 가락 땅은 머리 어이야라차아  
궁추야 댕기 대사댕기 어이야라차아  
썩은 새끼로 반만 물려 어이야라차아

28 지명으로 보인다.

29 딸을 귀엽게 이르는 말

30 얇은 비단

31 단속곳(여라 속옷의 하나로, 속바지 위에 덧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음)

32 사람이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인 인조비단(人造緋綾)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허리야 능청 땅았구나 어이야라차아  
그것을 보고 병이 나서 어이야라차아  
죽자 하니 청춘이요 어이야라차아  
사자 하니 고생이네 어이야라차아  
적어도 대장부가 어이야라차아  
그것보고 병날소냐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어이야라차아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 4. 열두 자 말목은 물밑에 놀고

에이여라차 에이여라차  
열두 자 말목은 물밑에 놀고 에이여라차  
천근 망깨는 공중에 노네 에이여라차  
여러분의 말씀들이 에이여라차  
줄만 뱉끈 뻥기주소 에이여라차  
줄 많이 뱉걸만<sup>33</sup> 돈 많이 준다 에이여라차  
에이여라차 에이여라차  
저게 가는 저 할마씨 에이여라차  
딸이나 있거등 사우나 보소 에이여라차

33 당기면. 뻥기다는 당기다의 지역말

딸이사 있다마는 에이여라차  
나가 어려서 못 보겠네 에이여라차  
뱁새가작아도 알을 놓고 에이여라차  
참새가 작아도 돈을 하네 에이여라차  
에이여라차 에이여라차

류종목,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조학중(남, 61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 5. 망깨는 공중에 놀고

어야라차 청께망깨는 공중에 놀고  
어야라차 저게 가는 저 할머니  
어야라차 딸이나 있거등 사우나 삼소  
어야라차 딸이사 있다마는 나이 어려서 못 삼겠소  
어야라차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가고  
어야라차 시초가 작아도 서쪽산에 오르요  
어야라차 청께망깨는 공중에 놀고  
어야라차 망깨 소리는 잘도 한다  
어야라차 사람은 많애도 소리는 적다  
어야라차 청께망깨 공중에 논다.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순기(여, 60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4일 채록

## 6. 에이여라 망깨놀이

에이여라 망깨 에이여라 도야  
에이여라 망깨놀이 에이여라 도야  
합창으로 하여 보자 에이여라 도야  
열두 자 말목은 땅 밑을 가고 에이여라 도야  
천근 망깨는 천당을 간다 에이여라 도야  
저게 가는 저 할마시 에이여라 도야  
딸이나 있거든 사위나 정하소 에이여라 도야  
딸이사 있다마는 나이 어리서 못 보내겠다 에이여라 도야  
(메) 어허 할마시 그 말 마소  
뱁새가 작아도 알을 놓고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간다  
아서라 모도 지됨이라<sup>34</sup>  
놀러가세 놀러가세 아이 방에 놀러가세  
머리 순 데 먹칠 하고 아이 방에 놀러가세  
이 빠진 데 박씨 박고 아이 방에 놀러가세  
얽은 낮에 분칠하고 아이 방에 놀러가세  
언니 누나 손을 잡고 아이 방에 놀러가세  
아빠 등집<sup>35</sup>이 엎이어서 아이 방에 놀러가세  
엄마 품에 엉기어서 아이 방에 놀러가세  
불근돛띠<sup>36</sup> 둘러매고 아이 방에 놀러가세

34 아서라 모두 자기 됨됨이라

35 등의 지역말

36 붉은 돌띠. 돌띠는 돌을 맞은 아이의 허리에 매 주는 띠로, 남자 아이는 남색띠, 여자 아이는 홍색 띠를 두르는데 장수와 만복을 기원하는 십장생 무늬를 새겼다.

꽃신 삼아 발에 신고 아이 방에 놀러가세  
먼 데 사람은 구경하고 절에 우리 줄을 지서  
이 줄이 줄 아니라 은줄이요 돈줄이라  
술만 자꾸 지고 놀면 은 나오고 돈 나온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자 참 좋구나  
시오 시오<sup>37</sup> 부저 때라 다시 점지 우려워라  
기산영수 별건곤<sup>38</sup>에 소부허유 놀아있고  
적벽강 추야월에 소자첩<sup>39</sup>이 놀아있다  
어화 친구 벗님네요 이내 말씀 들어보소  
동방예의 우리나라 삼강오륜 잊지 마소  
군이신강 잊지 말고 부이자강 잊지 마소  
부이처강 잊지 마소 삼강오륜 안 잊으면  
천인지신이 복을 준다 줄아 줄아 망깨줄아  
니 어디서 태어났노 오방신장에 태어났나  
천신지신에 태어났나 용왕님전에 태어났나  
옥황님전 명령받고 북두칠성에 태어났나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구실 잘하라고  
우리 한국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날 제  
이내 줄을 다시 지면<sup>40</sup> 소원성취 될 수 있다  
이내 줄을 다시 지면 부귀영화 살 수 있다  
이내 줄을 다시 지면 나라충성도 할 수 있고

37 시호시호(時乎時乎). 좋은 때를 만나 기뻐하여 감탄할 때에 하는 말이다.

38 기산영수별건곤(箕山潁水別乾坤). 요임금 때 선비 소부와 허유가 살았다는 기산과 영수가 인간세계와 달랐다는 뜻.

39 북송시대의 시인으로 자가 자첨(子瞻) 호는 동파(東坡)인 소식(蘇軾). 황주(黃州)에 유배되어 있던 소식이 1082년에 적벽에서 놀다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

40 다시 쥐면

이내 줄을 다시 지면 부모효성도 할 수 있다  
이내 줄을 다시 지면 부부화목도 할 수 있고  
이내 줄을 다시 지면 부자간에 인정 생기고  
이내 줄을 다시 지면 일가친척도 반기한다  
줄아 줄아 망깨줄아 내 팔자도 좋지만은  
니 팔자도 참 좋구나

이소라 조사  
(메)신의근(남, 94세), (반)박재출 외 산내농요회원(산내면 임고리) 제보  
1985년 8월 31일 채록

## 7. 오호 땔꾸야

어어여루 땔꼬<sup>41</sup>야 오호 땔꼬야  
다지보자 다지보자 오호 땔꼬야  
이리저리 여물게 다지보자 오호 땔꼬야  
먼 데 사람 구경하고 오호 땔꼬야  
곁에 사람 춤을 춘다 오호 땔꼬야  
어어여루 땔꼬야 오호 땔꼬야  
다지보자 다지보자 오호 땔꼬야  
여물게도 다지보자 오호 땔꼬야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오호 땔꼬야  
많이많이 모이도록 오호 땔꼬야  
어어여루 땔꼬야 오호 땔꼬야

41 달구(땅을 다지는 데 쓰는 기구)의 지역말로 흔히 ‘딸꾸’라 한다.

다지고도 또 다진다 오호 딸꼬야  
어어여루 딸꼬야 오호 딸꼬야  
신명 난다 신명 난다 오호 딸꼬야  
달구소리 신명 난다 오호 딸꼬야  
어어여루 딸꼬야 오호 딸꼬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신영무(남, 73세), 신진철(남, 74세), 오수개(남, 71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8. 어이야루 망깨야

천개 망깨는 공중에 놀고 어이야루 망깨야  
저게 가는 저 할마씨 어이야루 망깨야  
딸 있거든 사우 삼소 어이야루 망깨야  
딸이사 있다마는 어이야루 망깨야  
키도 작고 나도 작소 어이야루 망깨야  
어마니 그 말 마소 어이야루 망깨야  
참새가 작아도 알을 놓고 어이야루 망깨야  
뱁새가 작아도 알을 놓고 어이야루 망깨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순이(여, 74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9. 목도 노래<sup>42</sup>

어 어여  
어여차 어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 어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어여차치여차.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42 이 민요는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목도꾼이 반씩 나누어 부르는데, 제보자는 혼자서 불렀다.

## 제10장 아기 보는 노래

### 제1절 아기 어르기

#### 1. 금자동아 옥자동아

①

금자동아 옥자동아 칠십 평상<sup>1</sup> 보배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일가 간에 화목동아  
나라에 충신동아 친구 간에 유신동<sup>2</sup>아  
어허동등 내 손자냐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살까 어허동등 내 손자야  
느그는<sup>3</sup> 얼른자라 정상감사 점지하라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귀조(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1 평생의 지역말

2 유신동(有信童)은 신의가 있는 아이란 뜻이다.

3 너희는. ‘느거, 너거’는 너희의 지역말

②

금자동아 옥자동아 만첩산천 보배동아  
나라에 충신동아 부모에게 효자동아  
일가친척 우애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살까 은을 준들 너를 살까  
금도 은도 다 싫고 우리 손자가 최고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복자(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③

금자동아 옥자동아 만첩산중 보배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사리 금을 준들 너를 사리  
어화동등 내 사랑아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④

은자동아 금자동아  
나라에 충신동아 부모형제 효도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일가친척 화복동아  
친구간에 의리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사리 금을 준들 너를 사리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원생(여, 85세, 무안면 다례동)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5)

은자동아 금자동아 칠기청산 보배동아  
나랫님 앞에는 충신동아 가장님 앞에 열녀동아  
부모님 앞에 효자동아 이내 나는 효자동아  
은을 주믄 너를 살까 돈을 주믄 너를 살까  
은도 돈도 내사 싫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6)

은자동아 금자동아 칠기청산에 보배동아  
부모님 그게 효자동아 나라님 그게 충신동아  
형지간에 우애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사나 돈을 준들 너를 사나  
동아 동아 금자동아

한태문, 이순우,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사  
박두기(여, 90세, 상동면 신곡리 신지마을) 제보  
2010년 8월 3일 채록

(7)

은자동아 놋자동아 칠기동산 보배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사나 돈을 준들 너를 사나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친구간에는 유신동아 어서어서 잘 커거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8)

은자동아 놋자동아 만첩산중 귀하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친척간에 화목동이  
동네사람 인심동이 은을 주서 니로 사나  
금을 주서 니로 사나 어허둥둥 내 사랑아  
요리 봄도 내 효자네 저리 봄도 내 효자네  
어허둥둥 내 사랑아

정상박, 최미호, 박상복, 유순지, 박수열 조사  
정수연(여, 65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1981년 1월 21일 채록

(9)

금자동아 금자동아  
은을 주고 너를 사까 금을 주어 너를 사까  
칠기동산에 보배동아  
은자동아 보배동아 우리 귀한 은자동아  
은을 사까 돈을 사까 칠기동산 보배동아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노필순(여, 81세, 단장면 태동리)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⑩

은자동아 은자동아 내 유정 구실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도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동네방네 귀염동아  
은을 주만 너를 사냐 금을 준들 너를 살까  
만대유전 구슬동아

한태문, 이순옥,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⑪

동아 동아 보배동아 나라에 충신동아  
부모한테 효자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일가간에 화목동아 만인간에 위<sup>4</sup> 되거라  
칠기칠산 감긴동아 니 얼굴로 볼짝시면  
굴리<sup>5</sup> 벗은 말키로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오갑순(여, 71세, 산동면 가곡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4 만인지상(萬人之上)

5 굴레의 지역말

⑫

동아 동아 일천동아 천세만세 일천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나 옥을 준들 너를 사나  
옥도 싫고 금도 싫고 아무것도 내사 싫다  
얼음 궁계는 수달피 눈비 산에는 고치씨  
만첩산중 백옥동 동아 동아 일천동아  
자다가도 우리 동아 노다가도 우리 동아  
니를 내가 세울라꼬  
삼천갑자 동방삭<sup>6</sup>을 세울라꼬 빌었구나  
너를 내가 놓알라꼬 공을 딜이 삼천갑자 동방삭에  
백일홍 띠를 들어  
천세만세 일천동아  
한 때에 술 닷단 백미 서말  
떡을랑 팔매질 치고 술은 양개질을 쳐시고  
동아 동아 우리 동아  
명을랑 삼천갑자 동방삭을 매린하소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윤희(여, 77세, 교동) 제보  
2009년 7월 27일 채록

6 『한서(漢書)』 「동방삭전(東方朔傳)」에 나오는 말. 한무제(漢武帝) 때 동방삭이란 사람이 무려 삼천갑자(三千甲子) 곧 18만 년이나 살았다고 하여, 오래 사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 2. 불매 불매 불매야

①

불미<sup>7</sup> 불미 불미야 불어라 딱딱 불어라  
경상도라 대불미 전라도라 소불미  
불미 불미 불미야 불꾼 딱딱 불미야  
어떡 밟고 술 묵자  
작은아들은 소불미 큰아들은 대불미  
불미 불미 불미야 불꾼불꾼 밟아라  
펴똑 밟고 술 묵자  
불미 불미 불미야 높은 남게는 한가지<sup>8</sup>  
낮은 남게는 절가지<sup>9</sup> 담부락 궁게는 조애기<sup>10</sup>  
술밭<sup>11</sup>에는 팽이<sup>12</sup>  
대밭에는 마대<sup>13</sup>가 많고 청이 끝에는 싸래기  
불미 불미 불미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손상년(여, 82세, 상남면 외금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7 풀무(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의 지역말

8 큰가지

9 결가지

10 담벼락 구멍에는 족제비. 조애기는 족제비의 지역말

11 술밭

12 삶쾡이

13 마디

②

불미 불미 불미야 이 불미가 누 불미고  
경상도는 대불미 전라도는 소불미  
불미 불미 불미야 불꾼불꾼 디더라  
어떡 밟고 술 묵자 작은아들 작은 미 들고  
큰아들은 큰 미 들고 불꾼불꾼 밟아라  
어떡 밟고 술 묵자  
불미 불미 불미야 높은 낚에는 한가지  
낮은 낚에는 절가의<sup>14</sup> 담부락 굽에는<sup>15</sup> 생쥐  
옹기전에는 반애기  
불미 불미 불미야 우리 아기 잘 잔다  
어떡 밟고 술 묵자 불꾼불꾼 디더라  
무엇을 채우꼬 황로촛대로 채우자  
채아서 불 쓴 대초<sup>16</sup> 지사집<sup>17</sup>에 불도 쓰고 향도 피우자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귀조(여, 70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③

불매 불매 이 불매가 누 불매고  
경상도 대불맨가 어서 불고 술 묵자

14 절가지

15 담벽의 구멍에는

16 불 켜는 대축(大燭)

17 제사집. 지사는 제사의 지역말

한잔 술도 많은 듯이 갈라 묵고  
반잔 술도 많은 듯이 갈라 묵자  
불매 불매 불매야 열씨구나 대불매  
절씨구나 소불매 불끈불끈 디더라<sup>18</sup>  
불매 치고는 바람도 세다 불끈불끈 디더라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손필희(여, 82세, 산내면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6일 채록

(4)

불매 불매 불매야 이 불매가 누 불매고  
경상도 대불매 전라도는 소불매  
불매 값이 열만공 양 닷돈 오 푼에  
술 한 동에 닦 한 마리 불석불석 뿜아라  
어서 뿜고 술 묵자 어서 치고 술 묵자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5)

불매 불매 불어라 이 불매가 누 불매고  
전라도라 대불미요 경상도라 소불매라  
불어라 딱딱 불어라 한 다리 들고 불어라  
불어라 딱딱 불어라 딱딱 어서 불고 술 묵자

18 풀무를 뿜아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신남기(여, 84세, 상동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⑥

밀양 상동면 매화불매  
보끈보끈 디더라<sup>19</sup>  
얼른 해놓고 술 묵자  
조피국에 짐난다<sup>20</sup>  
담배쌈지 불탄다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박현이(여, 74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⑦

불매불매 불매가 어데 불매고  
경상도는 놋불매  
일월쌍두는 대불매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어어 그 불매 잘도나 분다  
조피국에는 짐 나고  
며르치<sup>21</sup>국에는 맛 난다  
한 다리 들고 춤추고

19 불끈불끈 힘을 주어 밟아라.

20 두부국에 김이 난다. 짐은 김의 지역말

21 멸치의 지역말

두 다리 들고 춤추고  
수캐다리는 듣다고  
에헤 그 불매 잘도나 분다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8)

불미 불미 불미야 경상도 대불미  
이 불미가 누 불미고 경상도 대불미  
불어라 딱딱 불미야 어허 불미 잘 분다  
이리 가도 내 불미 저리 가도 내 불미  
어허 닥닥 다 불미<sup>22</sup>  
우리 강생이 잘 분다 불어라 딱딱 불미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9)

불미 불미 불미야 이 불미가 아래도  
은을 준들 너를 사미 돈을 준들 너를 살까  
금도 옥도 내사 싫고 요러나 사랑이 또 있을까

22 불면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⑩

불매 불매 불매야 이 불매가 누 불매냐  
김생원네 대 불매지 푸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⑪

등개 등개 등개야 이 불매가 누 불매고  
김씨네 대불매 등개 등개 등개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갑연(여, 65세, 교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 3. 알강달강 서울 가서

①

알강달강<sup>23</sup> 서울 가서 밤을 한되 주와다가  
쳇독<sup>24</sup> 안에 여어났디<sup>25</sup> 머리 감은 새양쥐가

23 알콩달콩(특정한 의미가 없는 모양시늉말)

24 채독(싸릿개비 따위로 독 모양을 만들어 안팎으로 종이를 바른 그릇으로 산촌에서  
곡식을 갈무리 할 때 씀)

날민들민<sup>26</sup> 다 까묵고 내 모가치<sup>27</sup> 전히 없다  
겹디기는 애비 주고 벼닐랑<sup>28</sup> 애미 주고  
알키<sup>29</sup>는 니캉 내캉 갈라 둑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②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 되 주웠더니  
살강 밑에 묻어 노니  
새양쥐가 올러 가미 내려 가미<sup>30</sup> 다 까묵고  
다문 한박 남은 걸랑 부엌에다 여옇놓고  
니캉 내캉 둘이 둑자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귀조(여, 88세, 상동면 매화리 매화마을)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③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 되 구해다가  
부석<sup>31</sup>에다 묻어놓고 새양쥐가 물고 가고

- 25 넣어 놓았더니. 옇다는 넝다의 지역말  
26 날면들면(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모양)  
27 뜻으로 돌아오는 물건  
28 보너는. 버니는 보너(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에 있는 얇은 껍질)의 지역말  
29 알맹이는. 알키는 알맹이의 지역말  
30 올라가며 내려가며  
31 아궁이의 지역말. 부엌을 이르기도 함

한 틀이 남은 것은 껍질은 애비 주고  
부니는 애미 주고 알키는 니캉 내캉  
갈라 묵자 알강달강 알강달강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순덕(여, 74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④

알강달강 서월 가서 밤을 한틀 쫓아다가  
독안에다 여옇더니 머리 깎은 시양쥐가  
날민들민 다 까묵고 한 틀이 남은 것은  
껍디기는 아비 주고 버니기는 어미 주고  
살찌미<sup>32</sup>는 니캉 내캉 갈라 묵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⑤

알강달강 알강달강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 한 되로 사가지고 챗독 밑에 옇여놨디  
머리 까만 새양쥐가 날민들민 다 까묵고  
다문<sup>33</sup> 한 틀 남안 것을 아비는 껍지 주고  
어미는 부늬 주고 니캉 내캉 알키 묵자

32 살이 있는 알맹이인 듯하다.

33 다만의 지역말

## 알강달강 알강달강

류종목, 성재옥, 김인순, 김성녀, 이계환, 송동곤 조사  
이순기(여, 60세, 연금리 외금) 제보  
1981년 1월 14일 채록

(6)

밤을 한되 줗어다가 찰독 안에 여여났디  
머리 감은 생쥐가 날민들민 다 까묵고  
다문 하나 남은 것을  
껍디기는 아부지 주고 부닐랑 엄마 주고  
알키는 니캉 내캉 갈라 묵자  
알강달강 알강달강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복자(여, 78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7)

서울 가서 밤을 한되 사왔는데  
쳇독 안에 넣었더니 생쥐가 다 까먹고 한톨 남았는데  
껍데기는 아빠 주고 부니는 엄마 주고  
알땡이는 너랑 나랑 갈라 먹자 갈라 먹자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양명숙(여, 70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8)

알강달강 알강달강 우리아기 잘도 노네  
아가 아가 잘도 논다 알강달강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되 쫓어다가 길목에 묻어 두었더니  
뒷집에 생쥐가 불 떠로 댕기면서  
오며가며 다 까묵고 한 때기<sup>34</sup> 남안 것은  
껍데기는 애비 주고 보늬는 애미 주고  
알김일랑 똑 띠가주<sup>35</sup>니캉 내캉 갈라 묵자  
알강달강 알강달강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9)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되 주와다가  
이가 빠진 칠독 안에 엉어놨디  
머리 감은 생쥐가 들민날민 다 까묵고  
다문 두개 남안 거로 부석에라 엉어놨디  
뒷집 할머니가 불 담아로 와서 하나 내서 까 쳐묵고  
다문 한개 남안 거는 벌거지<sup>36</sup>가 묵었구나  
껍데길랑 애비 주고 부늬는 애미 주고  
알키밀랑 니랑 내랑 갈라 묵자 알강달강

34 한 톨

35 알맹이는 똑 떼어 가지고

36 벌레의 지역말. 달리 벌기라고도 한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정하늬(여, 82세, 상남면 인산리) 제보  
2010년 7월 2일 채록

⑩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 한 톤풀을 사 가지고  
살강 밑에 묻었더니 내리 오는 생쥐가  
올라가며 다 까묵고 올라가는 생쥐가 내려오면 다 까묵고  
한 쪼가리 남은 것은 부석에다 묻었더니  
이웃집 할머니가 불 담으러 와 가지고  
반 쪼가리 똑 따 먹고 반 쪼가리 남은 것은  
머리는 어미 묵고 껍지는 애비 주고  
알키는 니캉 내캉 싸움 말고 갈라 묵자

김영조(밀양군 용평리) 제보  
1936년 8월 채록

⑪

알강달강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되 주웠더니  
쌀독 안에 넣었더니 머리 깨운 생쥐가  
날면들면 다 까묵고 밤은 한개 남안 것을 부석에 엉여놨디  
이웃집 할머니가 불 딩구로<sup>37</sup> 와 가지고 한 쪼가리 똑 떠묵고 한 쪼가리  
남안 것을  
도끼뿔로 딱 때리서 껍질랑 아비 주고  
부닐랑 어미 주고 별길랑 할매 주고

37 불 땡기리

## 살키<sup>38</sup>는 니캉 내캉 갈라 목자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림(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 4. 금을 주어 너를 살까

덩덩 덩더쿵 엉계도 덩계도 덩더쿵  
등 넘에 고모가 알았으마 소깝<sup>39</sup> 한 바지<sup>40</sup> 사올 끼고  
마산 고모가 알았으마 꼬막 한 단지 사올 끼고  
기장에 고모가 알았으마 미역 한 단을 사올 끼고  
덩덩 덩더쿵 (엉계도 덩계도 덩더쿵: 다시 부를 때)  
외조부로 닮았는가 이망<sup>41</sup>이 헐떡 까겼네  
증조부로 닮았는가 나름대<sup>42</sup>가 질啐허네<sup>43</sup>  
덩덩 덩더쿵 (엉계도 덩계도 덩더쿵)  
금을 주여 너를 살까 은을 주여 너를 살까  
더덩덩덩 덩더쿵 엉계도 덩계도 덩더쿵  
더덩덩덩 덩더쿵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덕순(여, 67세, 무안면 무안리) 제보

38 살(사람이나 동물들의 몸에서 뼈를 감싼 부드러운 부분)의 지역말

39 솔가지의 경북 지역말

40 바지계

41 이마의 지역말

42 다리

43 길啐하다(시원스레 조금 긴 듯하다)의 지역말

2010년 8월 26일 채록

## 5.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르마등등 내 사랑 어화동등 내 사랑  
앞을 봐도 내 사랑 뒤로 봐도 내 사랑  
모모이도 내 사랑 부모 앞에는 효자 사랑  
형제간에는 우애 사랑 일가친척 화목 사랑  
하늘 같이 높은 사랑 지하 같아도 깊은 사랑  
동옹두옹 내 사랑아 요런 사랑이 또 있을까  
이리 봐도 요런 사랑 또 있을까 어르마등등 내 사랑아

정상박, 김현수, 이정희, 구관순, 하정숙 조사  
예학주(여, 70세, 상동면 매화리 안매화) 제보  
1981년 1월 13일 채록

## 제2절 아기 재우기

### 1. 자장자장 자장자장

①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앞집 개도 짓지 말고 뒷집 개도 짓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나라에 충성되고 부모에게 효자 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동기간에 우애 있고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갑연(여, 65세, 교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②

자장자장 자장자장

앞집 개도 짖지 말고 뒷집 개도 짖지 말고  
우리 개도 짖지 마라 금자동아 은자동아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땅에서 푹 솟았나  
부모한테 효도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무겁잖은 복은 징기자이<sup>44</sup>  
무럭무럭 아무따나 커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임종연(여, 69세, 교동) 제보  
2010년 7월 3일 채록

③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44 지녀서. ‘징기자’는 ‘지니다’의 지역말

앞집 개야 짖지 마라 뒷집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짖지 말고 꼬꼬닭아 우지마라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박말선(여, 77세, 삼랑진읍 내송동) 제보  
2010년 7월 6일 채록

④

자장자장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앞집 개도 짖지 말고 뒷집 개도 짖지 말고  
자장자장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잘도 잔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상조(여, 73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30일 채록

⑤

자장자장 우리 자장 우리 애기 잠 잘 잔다  
개야 개야 우리개야 앞집 개도 짖지 말고  
뒷집 개도 짖지 마라 우리 애기 잠 잘 잔다  
머리끝에 맷한 잠아 눈썹 끝을 쏟아지소  
자장자장 우리 자장

이보명(여, 77세, 단장면 구천리 시저마을) 제보  
1992년 2월 19일 채록

⑥

자장자장 우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앞집에라 껌등개야 뒷집에라 참삽살이<sup>45</sup>  
쾅쾅 높이 짓지 마라 우리 아기 깜짝 놀래 깨어난다  
뒷동산 잔솔밭에 잔솔팽이 나리온다<sup>46</sup>  
자장자장 우리 자장

류종목, 성재옥 조사  
안차립(여, 71세, 삼랑진읍 청학리 가정) 제보  
1981년 7월 27일 채록

(7)

앞집 개도 짓지 말고 뒷집 개도 짓지 말고  
고공개야 짓지 마라 우리 얘기 잡 잘 잔다  
우리 자장 우리 자장 앞집 개야 짓지 말고  
뒷집 개도 짓지 말고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김귀조(여, 88세, 상동면 매화리 매화마을)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2. 자장자장 워리자장

①

자장자장 워리자장 우리 아기 잡 잘 잔다  
명점인강 복점인강<sup>47</sup> 자장자장 워리 자장

45 청삽살개. 삽살개 중 털이 푸른빛을 띠는 품종

46 작은 살팽이가 내려온다.

47 명점(命點)인가 복점(福點)인가

지리동산 갈가마구 대밭으로 내리거라  
우리 아기 잠 잘 잔다 워리자장 워리자장  
명점인강 복점인강 워리자장 워리자장  
앞집 개야 짖지 마라 뒷집 개야 짖지 마라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김연이(여, 80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6일 채록

②<sup>1)</sup>  
자장자장 워리자장 워리 개야 워리 개야  
양산 하고 풍덕개야 물밑에 조개야  
하늘에 불개야 우리집에 청삽살아  
자장개야 워리 자장 금자동아 옥자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자장개야 워리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정상박, 김현수, 강문순, 김인순 조사  
이쾌남(여, 67세, 송백리 양송정) 제보  
1981년 7월 26일 채록

### 3. 자장자장 자는구나

자장자장 자는구나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잠자는 데 아무 개도 짖지 마라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잔다 우리아기 잠든 얼굴  
곱게 곱게 비치 주는 저기 저기 반달이라  
저녁노을 사라지고 돌아오는 밝은 달이  
우리 아가 잠든 얼굴 곱게 곱게 비쳐주네  
자장자장 자는구나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며 금을 준들 너를 사나  
국가에는 충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부모한테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친구간에 유신통이 어서 어서 잘 커거라  
우리 아기 잠 잘 자네 우리 아기 잠자는데  
동네사람 잠 잘 자네

류종목, 성재옥 조사  
이상정(남, 68세, 가곡동) 제보  
1981년 7월 31일 채록

#### 4. 자장자장 물레자장

자장자장 물레자장 꼬꼬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애가 잠든 얼굴 곱게 곱게 비춰주네  
돌아오는 밝은 달이 곱게 곱게 비춰주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말순(여, 81세, 상남면 평촌리) 제보  
2009년 7월 23일 채록

## 5. 아가 아가 울지 마라

①

아가 아가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잠든 얼굴  
생글생글 꿈나래로 끊쳤다가 또 하면서  
돌아오는 밝은 달이  
우리 아기 잠든 얼굴 곱게 곱게 피워주네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김순덕(여, 82세, 삼문동) 제보  
2010년 6월 29일 채록

②

아가 아가 우지 마라 니가 울면 날이 새나  
닭키 울어야 날이 새지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죽은 낭게 물이 나나  
아가 아가 우지마라 죽은 애미 젖이 나나

한태문, 류경자, 조수미, 정은영, 김남희, 노경자 조사  
최송금(여, 91세, 초동면 범평리) 제보  
2010년 7월 1일 채록

## 6. 자장자장 우리 개야

①

자장자장 우리 개야 자장자장 우리 개야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뒷집에 공공 짓는 개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자장자장 우리 개야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자장자장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높은 낚에 한가지요 낮은 낚에 절가지야

자장자장 우리 개야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앞집 개도 짓지 말고 뒷집 개도 짓지 마라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개야 개야 우리 개야

공공공 짓지 마라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류종목, 김현수 조사  
최점석(남, 66세, 교동) 제보  
1981년 7월 30일 채록

②

자장자장 자장개야

앞집 개도 짓지 말고 뒷집 개도 짓지 말고

우리 개야 잠 잘 자자 자장자장 자장개야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박순선(여, 82세, 무안면 고라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③

알강달강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뒷집 개도 짓지 마라 앞집 개도 짓지 마라

우리 얘기 잠 잘 잔다

한태문,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정효 조사  
이후순(여, 80세, 무안면 중산리) 제보  
2010년 7월 7일 채록

## 7. 개야 개야 검정개야

개야 개야 껌덩개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디낳게 앓지 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은 청포장사 울고 간다  
새는 새는 낳게서 자고 쥐는 쥐는 궁계 자고  
한살 묵은 어린 아기는 어머님 품에서 잠을 자고  
납딱납딱 송낙새끼는 방구<sup>48</sup> 틈에 잠을 잔다

한태문, 이순옥, 정훈식, 류경자, 김민지 조사  
박성세(여, 85세, 상동면 금산리) 제보  
2010년 7월 9일 채록

## 민요 죽보기

1. 『密陽民謡集』에 수록된 노래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 1) 김소운, 『諺文 朝鮮口傳民謡集』, 동경: 제일서방, 1933.
- 2) 성경린 · 장사훈 공편, 『조선의 민요』, 국제음악문화사, 1949.
- 3) 신학상 편저,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
- 4) 『慶尙南道誌』 下, 경상남도지 편찬위원회, 1963.
- 5) 정영선 엮음, 『(향토교육과정을 위한) 무안면 문화사료』, 무안중학교, 1973(유인본).
- 6) 임동권, 『韓國民謡集』 I ~ V, 집문당, 1961 ~ 1980.
- 7) 김성배, 『香頭歌 · 成造歌』, 정음사, 1973.
- 8) 김태감 · 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 9) 중국음악가협회연변분회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
- 10) 정상박 · 류종목, 『韓國口碑文學大系』 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11) 정상박 · 류종목, 『韓國口碑文學大系』 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12) 밀양군, 『미리벌의 열』, 경상남도 밀양군, 1983.
- 13) 이소라, 『韓國의 農謠』, 현암사, 1985.
- 14) 『韓國의 民俗音樂』,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15) 『密陽誌』, 밀양문화원, 1987.

- 16) 『密陽文學』 4집, 밀양문학회, 1991.
- 17) 『密陽文學』 5집, 밀양문학회, 1992.
- 18) 『密陽文學』 6집, 밀양문학회, 1993.
- 19)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
- 20) 『한국민요대전』, (주)문화방송, 1994.
- 21) 『밀양문학』 15집, 밀양문학회, 2002.
- 22) 『밀양문학』 19집, 밀양문학회, 2006.
- 23) 『내고향 初同』, 초동중학교 총동창회, 2006.

2. 각 권에 수록된 노래들의 서지사항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밝혀  
독자의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

- 1) 노래의 출처와 제목, 인용쪽수를 밝혀 두었다.
- 2) 『諺文 朝鮮口傳民謡集』은 『口傳民謡』, 『(향토교육과정을 위한) 무  
안면문화사료』는 『무안문화』, 『慶尙南道誌』下는 『道誌』, 『韓國  
民謡集』은 『民謡集』, 『香頭歌·成造歌』는 『香頭歌』, 『韓國口碑文  
學大系』8-7은 『大系 8-7』, 『韓國口碑文學大系』8-8은 『大系 8-8』,  
『미리별의 얼』은 『미리별』, 『경남민속자료집』은 『경남민속』, 『한  
국민요대전』은 『민요대전』, 『韓國의 民俗音樂』은 『民俗音樂』, 『韓  
國의 農謡』는 『農謡』, 『내고향 初同』은 『初同』으로 표기하였으  
며, 한두 편의 노래를 수록한 원전의 책이름은 그대로 두었다.
- 3) 이번에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한 민요는 ‘현지 채록’으로 표시하였다.

## 제1권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제 1 부  밀 양 의  노 래	제1장 밀양아리랑	1.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 를 감돌고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밀양아리랑 (2)	『道誌』, 231쪽
		⑥	밀양아리랑 ②	『慶南民俗』, 438쪽
		⑦	아리랑타령 10	『民謡集』III, 420-421쪽
		⑧		현지 채록
		⑨	밀양아리랑	『大系 8-7』, 225-226쪽
		2.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①	밀양아리랑 (1)	『민요집성』, 237쪽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3. 내 마음에 편 꽂은 올긋 불긋 ①	밀양아리랑 (1)	『道誌』, 231쪽
		②	밀양아리랑	『조선의 민요』, 227-230쪽
		4. 영 글렀네 영 글렀네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5. 아리 놓고 쓰리 놓고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6.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①	밀양아리랑 (3)	『민요집성』, 238쪽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7. 금선아 옥선아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8. 니 잘났나 내 잘났나 ①	밀양아리랑 (2)	『민요집성』, 237-238쪽
		②	밀양아리랑	『민요곡집』, 276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③		현지 채록
		9. 가는 님 허리를 담싹 안고		현지 채록
		10. 우리 님 살던 곳이라서 여기 왔지		현지 채록
		11. 제비란 둠이 재주가 좋아		현지 채록
		12. 아리아리랑 열씨구 노 다 가세	아리랑타령9 (밀양아리랑2)	『民謡集』 I, 275쪽
제2장 밀양의 경관		1. 밀양의 고적 ①	밀양의 고적을 소개하는 노래	『향토문화』 창간호, 82-84쪽
		②		현지 채록
		③	밀양고적노래	『慶南民俗』, 439-440쪽
		④		현지 채록
		2. 밀양의 승경-영남루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국농습 ①	모심기 노래 (2) [오후노래]	『大系 8-7』, 228쪽
		②		현지 채록
		③	모노래 (4)	『大系 8-7』, 679쪽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모노래(III) 오후	『密陽誌』, 299쪽
		⑧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⑨		현지 채록
		⑩		현지 채록
		⑪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191쪽
		⑫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1쪽
		⑬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⑭		현지 채록
		⑮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438쪽
		⑯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438쪽
		⑰	移秧謡 25	『民謡集』 II, 22쪽
		⑲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3장 밀양의 민속	밀양백중놀이	⑯		현지 채록
		무안 ①	무안의 자랑가	『무안문화』, 60쪽
		②	무안(武安) 노래	『大系 8-7』, 656-657쪽
		수산 ①	밀양 수산 다리 (2)	『大系 8-7』, 662쪽
		②		현지 채록
		③	밀양 수산 다리 (1)	『大系 8-7』, 657-658쪽
		④	수산 다리	『大系 8-8』, 221-222쪽
		⑤	밀양 수산 다리	『大系 8-8』, 428-429쪽
		단장	단장면 이동가	『밀양문화』 15, 34-37쪽
		1. 밀양백중놀이-모십기소리		현지 채록
2부 일터에서 부르는 노래	1장 모내기 노래	논펴김고리		현지 채록
		2. 무안용호놀이-지신밟기		현지 채록
		3. 법흥상원놀이-지신밟기		현지 채록
		헌신랑 다루기		현지 채록
		널뛰기		현지 채록
		윷놀이		현지 채록
		달맞이		현지 채록
		어사용		현지 채록
		다리밟기		현지 채록
		축문		현지 채록
제1절 모밟기와 모찌기	2. 한강에 모를 부어 ①	4. 감내개줄당기기-지신밟기		현지 채록
		줄 디리기		현지 채록
		밀양아리랑		현지 채록
		1. 청명곡우 돌아왔다	밀양 모밟는 소리	『민요대전』, 158-159쪽
		②	모노래 (1) 모찌기 노래	『大系 8-8』, 444쪽
		③	(노동요)	『무안문화』, 57쪽
		④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89쪽
		⑤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6)		현지 채록
		(7)		현지 채록
		3. 하늘에 목화를 심어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정자) (모찌기)	『무안문화』, 54쪽	
		④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4. 일월 해님이 돌아 와도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3쪽	
		③ 모노래 (III) 모찌기	『密陽誌』, 297쪽	
		④ 모심기 노래 (2) 모찌는 노래	『大系 8-7』, 227쪽	
		⑤ 모노래 (1)	『大系 8-8』, 444쪽	
		5. 이 못자리 조르자 ①	모노래 (III) 모찌기	『密陽誌』, 298쪽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6. 이 못자리 잡아 가소		현지 채록
		7. 이 못자리 들어내자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8. 이 못자리 둘러싸자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9. 새야 새야 청조새야 ①	모심기 노래 (2) [모찌는 노래]	『大系 8-7』, 227쪽
		②	모노래 (III) 모찌기	『密陽誌』, 297쪽
제2절 모심기		1. 편편 뛰는 금붕어야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모심기 노래 (5)	『大系 8-7』, 450쪽
		⑤	모심기 노래 (2) [오전노래]	『大系 8-7』, 227쪽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모심기 노래 (2)	『大系 8-8』, 223쪽
		⑨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⑩		현지 채록
		⑪		현지 채록
		⑫ 移秧謠 29	『民謠集』IV, 51-52쪽	
		⑬ 모정자	『무안문화』, 59쪽	
		⑭		현지 채록
		⑮ 모노래 (III) 모심기 오전	『密陽誌』, 298쪽	
		⑯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438쪽	
		⑰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⑲ 밀양 모심기 소리	『민요대전』, 175쪽	
		⑳ 移秧謠 8	『民謠集』V, 18쪽	
	2. 물꼬는 청청 헐어 놓고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⑩		현지 채록
		⑪		현지 채록
		⑫		현지 채록
		⑬ (모정자)	『무안문화』, 59쪽	
		⑭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0쪽	
		⑮ 모노래 (1)	『大系 8-8』, 446쪽	
		⑯ 모노래 (1)	『大系 8-8』, 690쪽	
		⑰ (모심기)	『무안문화』, 55쪽	
		⑱ 모노래 (3)	『大系 8-7』, 664쪽	
	3. 모야 모야 노랑모야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④		현지 채록
		⑤ 모심기 노래 (1)	『大系 8-8』, 218-219쪽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⑩	현지 채록	
		⑪ 모노래 (1) 점심	『大系 8-8』, 448-449쪽	
		⑫	현지 채록	
		⑬	현지 채록	
		⑭	현지 채록	
		⑮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4. 아침이슬 채전밭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모심기 노래 (1)	『大系 8-8』, 218쪽	
		⑦ 移秧謠 25	『民謠集』II, 22-23	
		⑧	현지 채록	
		⑨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⑩	현지 채록	
		⑪ 모내기 노래	『道誌』, 232쪽	
		⑫	현지 채록	
		⑬	현지 채록	
		⑭ 모노래 (1) [모찌는 노래]	『大系 8-8』, 443-444쪽	
	5. 알곱삼삼 고운 독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모노래 (III) 오후	『密陽誌』, 299쪽	
		⑤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⑥		현지 채록
		⑦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1쪽	
		⑧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⑨ 모심기 노래 (1)	『大系 8-8』, 218쪽	
		⑩ 모심기 노래 (2)	『大系 8-8』, 222쪽	
		⑪ 모노래 (2)	『大系 8-7』, 660쪽	
		⑫ 모노래 (1) 저녁	『大系 8-8』, 450쪽	
		⑬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89쪽	
		⑭ (노동요)	『무안문화』, 57쪽	
	6. 금실금실 영화로다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③	현지 채록	
		④ 모심기 노래 (2) [오후노래]	『大系 8-7』, 228쪽	
		⑤	현지 채록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⑦ 모노래 (III) 모심기 오전	『密陽誌』, 298쪽	
		⑧ 모노래(모찌기) 모심기)	『農謡』, 94쪽	
		⑨ 밀양 모심기 소리	『민요대전』, 174쪽	
		⑩	현지 채록	
		⑪ (모정자)	『무안문화』, 59쪽	
		⑫	현지 채록	
		⑬	현지 채록	
		⑭ 모노래 (1)	『大系 8-8』, 445쪽	
	7. 모시적삼 안설 안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移秧謡 31	『民謡集』IV, 53쪽	
		⑤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⑥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⑦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⑩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⑪		현지 채록
		⑫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438쪽
		⑬		현지 채록
	8. 낭창낭창 벼랑 끝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⑩		현지 채록
		⑪		현지 채록
		⑫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9. 서울이라 왕대밭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⑩		현지 채록
		⑪	모노래 (2)	『大系 8-8』, 456쪽
	10. 명주바지 잔줄바지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⑧		현지 채록
		⑨ 과부 타령 모심기 노래	『大系 8-8』, 215쪽	
		⑩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1. 알곰삼삼 고운 처녀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모심기 노래 (3)	『大系 8-7』, 251쪽	
		⑤		현지 채록
		⑥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1쪽	
		⑦ 모노래(III) 오후	『密陽誌』, 299쪽	
		⑧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⑨		현지 채록
		⑩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5쪽	
	12. 처녀 둘이 도망가네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노래 (2) [해 질녁에 부르는 노래]	『大系 8-8』, 455쪽	
		④		현지 채록
		⑤ 밀양 모심는 소리	『민요대전』, 175쪽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모심기 노래 (3)	『大系 8-7』, 252쪽	
		⑨ 모노래 (2) [해 질녁에 부르는 노래]	『大系 8-8』, 455-456쪽	
		⑩ 모노래 (1)	『大系 8-8』, 691쪽	
	13. 잡나락이 절반이네 ①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1쪽	
		④		현지 채록
		⑤ 모 숨기 노래	『道誌』, 223쪽	
		⑥ 모노래 (III) 모찌기	『密陽誌』, 297쪽	
		⑦ 모심기 노래 (1)	『大系 8-8』, 218쪽	
		⑧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5쪽	
		⑨ 모노래 (1)	『大系 8-8』, 445쪽	
		⑩ (모정자)	『무안문화』, 59쪽	
	14. 다풀다풀 다박머리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移秧謡 30	『民謡集』IV, 52쪽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15. 풍당풍당 칠수제비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⑧ 모노래 (1)	『大系 8-8』, 450쪽	
		⑨	현지 채록	
	16. 유월이라 두 달인데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⑤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모노래 (4)	『大系 8-7』, 679쪽	
		⑨ 모노래 (2)	『大系 8-7』, 661쪽	
		17. 껌래꽃을 살콤 데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18. 머리 좋고 실한 처녀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5쪽	
		⑧ 모심기 노래 (3)	『大系 8-7』, 442쪽	
		19. 저기 가는 저 구름은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5쪽	
		④ 밀양모심는소리	『민요대전』, 175쪽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20. 남창 북창 열고 보니 ①		현지 채록
		②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③		현지 채록
		④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⑤ 모심기 노래(1)	『大系 8-8』, 218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⑦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⑧ 모노래(III) 오후	『密陽誌』, 298쪽	
	21. 알쏭달쏭 유자 줍치 ①	모노래(모찌기 모심기 )	『農謡』, 93-94쪽	
		② 모노래 (1)	『大系 8-8』, 446쪽	
		③ 移秧謡 25	『民謡集』II, 22쪽	
		④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⑤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2쪽	
	22. 슬피 우는 송나새야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⑦ 모노래 (4)	『大系 8-7』, 680쪽	
	23. 찔레꽃은 장가가고 ①	찔레꽃은 장가 가고	『大系 8-8』, 684-685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32쪽	
		⑦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24. 우리 도련님 병이 나서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7)		현지 채록
		25. 반달만큼 남았구나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노동요)	『무안문화』, 57쪽	
		⑦ (모정자)	『무안문화』, 59쪽	
		26. 장기판만큼 남았구나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모노래 (1)	『大系 8-7』, 655쪽	
		모노래 (2)		
		⑤ [모쩔 때 부르는 노래]	『大系 8-8』, 453쪽	
		⑥		현지 채록
		⑦ 모심기 노래 (1)	『大系 8-8』, 218쪽	
		27. 영창문을 반만 열고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노래 (2)	『大系 8-7』, 660쪽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⑦ 모노래 (III) 저녁	『密陽誌』, 299쪽	
		28. 연줄 가네 연줄 가네 ①		현지 채록
		② 모노래 (3)	『大系 8-7』, 664쪽	
		③		현지 채록
		④ 모심기 노래 (3)	『大系 8-7』, 251쪽	
		⑤		현지 채록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⑦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2쪽	
		29. 연약한 부시로 떨까 쳐서 ①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③	모노래 (1)	『大系 8-7』, 655쪽
		④	모노래 (III) 모 심기 오전	『密陽誌』, 298쪽
		⑤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89쪽
		⑥		현지 채록
		⑦	모심기 노래 (2)	『大系 8-7』, 440쪽
	30. 서울이라 나무 없어 ①			현지 채록
		②	모노래 (III) 모찌기	『密陽誌』, 298쪽
		③	移秧謡 13	『民謡集』IV, 42쪽
		④	移秧謡 31	『民謡集』IV, 53쪽
		⑤		현지 채록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⑦	모노래 (1)	『大系 8-8』, 450쪽
	31. 임이 죽어서 연자 되어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438쪽
		⑥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32. 저기 가는 저 구름에 ①			현지 채록
		②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89쪽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33. 서울 갔던 선비님요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3쪽
		⑤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⑥		현지 채록
	34. 침자질하는 져 큰아가 ①			현지 채록
		② 모내기 노래	『道誌』, 231쪽	
		③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④ 모노래 (III) 오후	『密陽誌』, 298쪽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35. 유자 땅자 의논 좋아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밀양 모심기 노래	『민요대전』, 175쪽	
		⑤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2쪽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36. 비 묻었네 비 묻었네 ①			현지 채록
		② 모심기 노래 (1)	『大系 8-8』, 219쪽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모노래 (4)	『大系 8-7』, 680쪽	
		⑥ 밀양 모심기 노래	『민요대전』, 175쪽	
	37. 물 밑에 소라고등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4쪽	
		④ 모심기 노래 (2) [저녁노래]	『大系 8-7』, 228쪽	
		⑤		현지 채록
		⑥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38. 임의 품에 자고 나니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2) [저녁노래]	『大系 8-7』, 228쪽	
		④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⑤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1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39. 파랑 부채 반보따리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③	현지 채록	
		④ 모심기 노래 (3)	『大系 8-7』, 252쪽	
		⑤ 모노래 (1)	『大系 8-7』, 655쪽	
		40. 짜구야 짜구야 쪼지 마 라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③	모노래 (III) 모찌기 노래	『密陽誌』, 298쪽
		④		현지 채록
		⑤	移秧謡 30	『民謡集』IV, 52쪽
		41. 시누이 남편 밥 담다가 ①		현지 채록
		②	밀양 모심는 소리	『민요대전』, 174쪽
		③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④	모노래 (III) 모심기 오전	『密陽誌』, 298쪽
		⑤	애기야 도련님	『大系8-8』, 227-228쪽
		42. 니 치마 내 치마 질반치 마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노래 (III) 오후	『密陽誌』, 299쪽
		④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0쪽
		⑤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43. 주천당 모롱이 돌아가 니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③	밀양 모심는 노래	『민요대전』, 174쪽
		④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1쪽
		⑤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1쪽
		44. 골목골목 그물 치자 ①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②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3쪽	
		③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4쪽	
		④ 모 숨기 노래	『道誌』, 227-228쪽	
	45. 사랑 앞에 화초 심어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3쪽	
		③ 모심기 노래 (2)	『大系 8-8』, 223쪽	
		④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46. 연밥 따는 저 큰아가 ①		현지 채록	
		② 연밥 따는 저 큰아가	『大系 8-8』, 411쪽	
		③	현지 채록	
	47. 반달 등실 떠오르네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4쪽	
	48. 신사주소 신사주소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노래 (4)	『大系 8-7』, 680쪽	
	49. 첩아첩아 요내 첩아 ①		현지 채록	
		② 모심기 노래 (3)	『大系 8-7』, 251쪽	
		③	현지 채록	
	50. 동남풍이 살랑 불어 ①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51. 일천 석이나 쏟아 주소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③ 모노래 (III) 모심기 오전	『密陽誌』, 298쪽	
	52. 중아 중아 도사중아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③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1쪽	
	53. 일색 쳐녀 들락날락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③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54. 아리랑 춘자야 술 걸려 라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5~226쪽
		55. 배꽃일래 배꽃일래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56. 총각 처녀 장난말이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57. 진주 덕산 안사랑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58. 총각들 먹던 청실배는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59. 국화정자 놀러 가자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60. 부더밭에 수은을 잊고 ①		현지 채록
		②	모노래 (3)	『大系 8-7』, 664쪽
		61. 하늘 천자 땅 지자에 ①		현지 채록
		②	천지풀이 모노래	『大系 8-8』, 215쪽
		62. 우리 엄마 재주 좋아 ①		현지 채록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63. 여기 꽂고 저기 꽂고 ①		현지 채록
		②	모노래 (2)	『大系 8-7』, 660쪽
		64. 백설 같은 흰나비는 ①		현지 채록
		②	나비 노래	『大系 8-8』, 409쪽
		65.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 ①	모심기 노래 (3)	『大系 8-7』, 252쪽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66. 세모시 삼가래 뻥 틀어 꺾고 ①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1쪽
		②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67. 장수 장수 황배장수 ①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3쪽
		②	모노래 (III) 저녁	『密陽誌』, 299쪽
		68. 달이 떴네 달이 떴네 ①	밀양 모심는 소리	『민요대전』, 174쪽
		②	모노래 (III) 저녁	『密陽誌』, 299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69. 농사법은 있건마는 ①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②	모노래 (모찌 기 모심기)	『農謠』, 93쪽
		70. 설설이 어디 갔노 ①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②	모노래 (III) 저녁	『密陽誌』, 300쪽
		71. 강남에 강대추 ①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②	移秧謠 1	『民謠集』IV, 26쪽
		72. 남산 밑에 눈 쳐 놓고 ①		현지 채록
		②	移秧謠 31	『民謠集』IV, 53쪽
		73. 청실네 홍실네 배나무 밑에 ①		현지 채록
		②	移秧謠 13	『民謠集』IV, 42쪽
		74. 이 삼 삼아서 옷 해 입고		현지 채록
		75. 산천초목이 불이 붙어		현지 채록
		76. 새야 새야 파랑새야		현지 채록
		77. 미나리라 시평꽃은		현지 채록
		78. 우리 님의 동창 밖에	과부 타령 모심기 노래	『大系 8-8』, 215쪽
		79. 사랑 앞에 중이 와서	移秧謠 1	『民謠集』IV, 16쪽
		80. 담장 안에 화초를 심어		현지 채록
		81. 사랑 앞의 배는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82. 놋젓가락 세 칸 집에		현지 채록
		83. 저기 가는 저 상주는		현지 채록
		84. 너는 죽어 약쑥 되고		현지 채록
		85. 연 같이 너른 들에		현지 채록
		86. 속곳 가랑이 피 묻었네		현지 채록
		87. 진주 덕산 진 골목에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4-225쪽
		88. 우선 씨를 받아		현지 채록
		89. 산도 산도 고적산에		현지 채록
		90. 노랑모에 싹이 나와		현지 채록
		91. 들 가운데 정자를 심어		현지 채록
		92. 딸을 낳아 끊게 길러		현지 채록
		93. 니가 가고 나 죽게 되나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94. 삼천리를 갈 수 있나		현지 채록
		95. 우수 경침 철 맞추어		현지 채록
		96. 이 산 저 산 다 녹으니		현지 채록
		97. 한강수에다 배를 놓고		현지 채록
		98. 세우 살살 오는 날에		현지 채록
		99.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현지 채록
		100. 낫은 같아서 바지게 답고		현지 채록
		101. 김해 무척산에 나무를 심어		현지 채록
		102. 사래 길고 광넓은 밭에		현지 채록
		103. 새문 밖 따복대는		현지 채록
		104.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현지 채록
		105. 글소리 깡깡 울려 나네		현지 채록
		106. 뒷동산 고목나무		현지 채록
		107. 여우같은 시누이야		현지 채록
		108. 울타리 밑에 돌삼을 심어		현지 채록
		109. 총각 쓰는 잔글씨는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110. 저기 가는 선비 중에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0쪽
		111. 서울이라 대청 끝에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2쪽
		112. 저 건너 황새등에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2쪽
		113. 나비야 나비야 범나비야	모 숨기 노래	『道誌』, 223쪽
		114. 해 돋았네 해 돋았네	모 숨기 노래	『道誌』, 223-224쪽
		115. 봄이 오면 진달래요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116. 저 건너 청산 청기와 집 밑에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117. 공명출세 부러워 말고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118. 오실토실 잘 익은 곡식	모 숨기 노래	『道誌』, 224쪽
		119. 양산 하고 뒷골짜에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120. 서울이라 한량고개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121. 참나무라 심은 밭에	모 숨기 노래	『道誌』, 225
		122. 반물치마 반자개미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123. 일본에서 나왔다 삼나무는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124. 내 떠다 주던 궁초댕기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125. 땔 있거든 사위 보소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126. 웅지 빼진 갓을 쓰고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127. 동해바다 벗사공은	모 숨기 노래	『道誌』, 226쪽
		128. 남천수 물이 펄펄 넘어	모심기 노래 (1)	『大系 8-8』, 218쪽
		129. 낙동강 배 선주야	移秧謡 1	『民謡集』IV, 12
		130. 한강수 푸려 하니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1. 삼대독자 외동아들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2. 지포치마 소복단장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3. 우리집 유임이는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4. 병풍 치고 불 켜 방에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5. 두껍아 웅두껍아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6. 청천 하늘에 구름 모아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7. 저 건너 저 산눈이 와서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8. 오뉴월에 흘린 땀이	모 숨기 노래	『道誌』, 227쪽
		139. 뒷동산에 썩은 나무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140. 밤중 밤중 야밤 중에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141. 한 칸 두 칸 빼어 놓아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142.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모 숨기 노래	『道誌』, 229쪽
		143. 살림살이 가난하다고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44. 거제 봉산 박달나무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45. 밀양 상남 넓은 들에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46. 울 너머 담 너머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47. 별이 떴네 별이 떴네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48. 까마귀 각각 울면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49. 산도 산도 봄철인가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150. 이 등 저 등 등창 나고	모 숨기 노래	『道誌』, 231쪽
		151. 경상감사 말뜰애기	모 숨기 노래	『道誌』, 231쪽
		152. 우리 들 너희 들에	모 숨기 노래	『道誌』, 231쪽
		153. 낮에는 품에 놀고	밀양 모심는 소리	『민요대전』, 174쪽
		154. 안개 잣은 골에	밀양 모심는 소리	『민요대전』, 175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155. 저 건너 나리반석	모노래 (III) 모심기 오전	『密陽誌』, 298쪽
		156. 들 가운데 정자를 심어	모노래 (III) 오후	『密陽誌』, 298쪽
		157. 친한 친구 해가 지니	모노래 (III) 저녁	『密陽誌』, 300쪽
		158. 앵두나무 북받침은	모노래 (4)	『大系 8-7』, 680쪽
		159. 사월이라 초파일에	모노래 (1)	『大系 8-8』, 691쪽
		160. 아나 농부야	移秧謡 1	『民謡集』IV, 18쪽
		161. 도롱이 쟈갓을 짚어져라	移秧謡 1	『民謡集』IV, 13쪽
		162. 불산 같이 더운 날에	移秧謡 1	『民謡集』IV, 16쪽
		163. 저 건너 청산 비가 와서	移秧謡 31	『民謡集』IV, 52-53쪽
		164. 산 높고 골 깊은 데	移秧謡 31	『民謡集』IV, 53쪽
		165. 금년 시절 대동하면	(모정자)	『무안문화』, 59쪽
		166. 해발룸해발룸 꼬장바지	모심기 노래	『미리별』, 386쪽
		167. 서답은 벗어 놓고	(모정자)	『무안문화』, 59-60쪽
		168. 서울이라 유달아기	모노래 (1)	『大系 8-8』, 450쪽
		169. 도라지 병풍 여단이 속에		현지 채록
		170. 남창 북창 선창 밑에		현지 채록
		171. 알쏭달쏭 유자 수건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172. 점심참이 늦게 오네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밀양 모심는 소리	『민요대전』, 174쪽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모노래 (1)	『大系 8-8』, 448쪽
		⑦	모노래 (III) 모심기 오전	『密陽誌』, 298쪽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⑩		현지 채록
		⑪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12)	모노래 (2) [점 심전에 부르는 노래]	『大系 8-8』, 453쪽
		(13)	모 숨기 노래	『道誌』, 232쪽
		(14)	모노래 (2) [점 심전에 부르는 노래]	『大系 8-8』, 453-454쪽
		(15)		현지 채록
		(16)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4쪽
		(17)		현지 채록
		(18)	모심기 노래 (2) [오전 노래]	『大系 8-7』, 227쪽
		(19)	모 숨기 노래	『道誌』, 225쪽
		(20)		현지 채록
		(21)		현지 채록
		(22)		현지 채록
		(23)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89쪽
		(24)	밀양 모심는 노래	『민요대전』, 174쪽
		(25)	모노래 (1)	『大系 8-7』, 656쪽
	173. 오늘 낮의 점심 반찬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모심기 노래 (3)	『大系 8-8』, 224쪽
		⑥		현지 채록
		⑦	모 숨기 노래	『道誌』, 232쪽
		⑧	모심기 노래 (5)	『大系 8-7』, 450쪽
		⑨	모노래 (1)	『大系 8-8』, 448쪽
		⑩		현지 채록
	174. 석양은 펄펄 재를 넘고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2) [저녁 노래]	『大系 8-7』, 228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④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1쪽	
		⑤ 모 숨기 노래	『道誌』, 228쪽	
		⑥	현지 채록	
		⑦ 移秧謡 32	『民謡集』IV, 54쪽	
	175. 해다쳤네 해다쳤네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⑩ 모심기 노래 (2) [저녁노래]	『大系 8-7』, 191쪽	
		⑪ 밀양 모심는 노래	『민요대전』, 175쪽	
		⑫ 모노래 (1)	『大系 8-8』, 690쪽	
		⑬	현지 채록	
		⑭	현지 채록	
		⑮ 모심기 노래 (2) [저녁 노래]	『大系 8-7』, 228쪽	
		⑯ 移秧謡 1	『民謡集』IV, 24쪽	
		⑰ 移秧謡 1	『民謡集』IV, 51쪽	
		⑲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1-242쪽	
	176. 해다지고 저문 날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모노래 (3)	『大系 8-7』, 664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⑨ 移秧謠 26	『民謡集』II, 23쪽	
		⑩ 모노래 (2)	『大系 8-8』, 454쪽	
		⑪ 모심기 노래 (4)	『大系 8-8』, 242쪽	
		⑫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2쪽	
		⑬ 모심기 노래(3)	『大系 8-7』, 252쪽	
		⑭ 모숨기 노래	『道誌』, 229쪽	
		⑮	현지 채록	
		⑯ 移秧謠 32	『民謡集』IV, 54쪽	
	177. 저녁을 먹고 씩 나서니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노래 (1)	『大系 8-8』, 690쪽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모심기 노래 (2) [저녁 노래 ]	『大系 8-7』, 229쪽	
		⑧ 모노래 (4)	『大系 8-7』, 680쪽	
		⑨ 모노래 (1)	『大系 8-7』, 656쪽	
		⑩ 모노래 (III) 저녁	『密陽誌』, 299쪽	
		⑪ 모노래 (1)	『大系 8-8』, 451쪽	
		⑫	현지 채록	
	178. 초롱아 초롱아 영사초 통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모심기 노래 (1)	『大系 8-7』, 192쪽	
		④ 모숨기 노래	『道誌』, 228쪽	
		⑤ 밀양모심는 소리	『민요대전』, 175쪽	
		⑥ 모노래(III) 저녁	『密陽誌』, 300쪽	
		⑦ 모노래 (1)	『大系 8-8』, 452쪽	
		⑧	현지 채록	
	179. 말은 가자 굽을 치고 ①	모노래 (1)	『大系 8-7』, 656쪽	
		②	현지 채록	
	180. 오늘 해는 다 졌는데	모 숨기 노래	『道誌』, 230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제2장 김매기 노래	제1절 논매기	1. 널널널 상사디야		현지 채록
		2. 어렬렬 상사디야	논매기 노래	『大系 8-7』, 681-685쪽
		3. 어얼珥珥 상사디야		현지 채록
		4. 어헐珥러 상사디야	(논매기)	『무안문화』, 55쪽
		5. 어 허아 위위아 위여	논매기	『農謡』, 94-95쪽
		6. 오호혜야 오호디야 오	김매기 노래	『大系 8-8』, 244-245쪽
		7. 아이고 아이고	논매기 노래	『大系 8-8』, 457-462쪽
	제2절 밭매기	1. 한 살 먹어 엄마 죽고①	며느리 신세한 탄가	『大系 8-7』, 674-678쪽
		②		현지 채록
		③	시집살이 노래	『大系 8-7』, 446-448쪽
		④	밀양 신세한탄 가(2)	『民俗音樂』, 217
		2. 시집간 사흘 만에		현지 채록
		3.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현지 채록
		4. 미 같이 짙은 밭을		현지 채록
		5. 춘아 춘아 옥단춘아		현지 채록
		6. 춘아 춘아 민경춘아 ①	민경춘 노래	『密陽誌』, 314쪽
		②	민경춘 노래	『무안문화』, 62-63쪽
		7. 성아 성아 올케성아	시집살이 노래①)	『大系 8-8』, 232-235쪽
	제3장 보리타작노래	1. 오혜야 오혜야 ①	보리타작 노래	『密陽誌』, 300-301쪽
		②	보리타작 노래	『大系 8-7』, 706-709쪽
		③	보리타작 노래	『大系 8-8』, 231-232
		2. 웅혜야 웅혜야 ①	보리타작 노래 (2)	『大系 8-7』, 239-244쪽
		②		현지 채록
		③	보리타작 노래 (1)	『大系 8-7』, 235-236쪽
		3. 예화 예화 ①	보리타작 노래	『大系 8-8』, 463-466쪽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4. 엉혜이야 엉혜이야	보리타작 노래	『大系 8-7』, 434-437쪽
		5. 엉혜야 엉혜야		현지 채록
		6. 어화 어화	보리타작	『農謡』, 99-100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제5장 길쌈 노래	제4장 작두 노래	7. 예혜	밀양 보리타작 소리(2)	『民俗音樂』, 92쪽
		8. 열씨구 잘한다	보리타작 노래 (2)	『大系 8-8』, 243-244쪽
		9. 여기 때려라		현지 채록
		10. 앞집에 제수씨도		현지 채록
		11. 에어 헤이여	공산타작	『무안문화』, 55쪽
	제1절 삼삼기	1. 오호호 작두야	밀양 작두소리	『민요대전』, 171-172쪽
		2. 어허허어 작두야	밀양 작두 소리	『민요대전』, 160쪽
		3. 어허 작두야	작두소리	『農謡』, 98쪽
	제1절 삼삼기	1. 진주낭군 노래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진주낭군	『密陽誌』, 313쪽
		⑨	시집살이(2)	『大系 8-8』, 440-442쪽
		⑩		현지 채록
		⑪	시집살이(1)	『大系 8-8』, 407-408쪽
		2. 첫날밤 얘기 낳은 신부 노래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3. 혼례날 신부 죽는 노래 ①		현지 채록
		②	노총각 노래	『大系 8-8』, 228-230쪽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改嫁한 어머니 謠 F 12	『民謡集』V, 292쪽
		4. 김선달네 맘딸 잘났다 소문 듣고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③	김선달네 맏딸 얘기	『大系 8-8』, 713-714쪽
		5. 시앗 본 노래 ①	妾謠 4	『民謠集』II, 287쪽
		②		현지 채록
		6. 액운애기 노래	액운애기	『大系 8-8』, 722-724쪽
		7. 못난 신부 노래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첫날 밤 노래	『밀양문학』19, 28쪽
		8. 쌍금쌍금 쌍가락지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쌍금쌍금 쌍가 락지	『大系 8-8』, 223-224쪽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쌍금쌍금 쌍가 락지	『大系 8-7』, 665쪽
		⑩	쌍금쌍금 쌍가 락지	『密陽誌』, 302-303쪽
		⑪		현지 채록
		9. 양산백과 축영대		현지 채록
		10. 성아 성아 사촌성아 ①		현지 채록
		②	시집살이 노래	『大系 8-7』, 666쪽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현지 채록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현지 채록
		⑨		현지 채록
		⑩		현지 채록
		⑪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11. 엄마 엄마 울 엄마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改嫁한 어머니 謠 F 13	『民謠集』V, 293쪽
		12. 아황여영 죽은 곳에		현지 채록
		13. 우리 엄마 나를 키워		현지 채록
		14. 처자 노래를 하여 불까	시집살이謠 C 32	『民謠集』IV, 284쪽
		15. 시집살이 말도 많고	시집살이謠 K 5	『民謠集』IV, 313쪽
		16. 만리풍상 읊 아버지	시집살이 노래 (2)	『大系 8-8』, 235-236쪽
		17. 딸을 낳아 곱게 길러		현지 채록
		18. 원수로다 원수로다		현지 채록
		19. 독수공방 더욱 깊다		현지 채록
		20. 산천이라 무덤골에	(남편 약방문)	『무안문화』, 63-64쪽
		21. 갑오년 흥년에	과부타령	『密陽誌』, 315쪽
		22. 석탄 백탄 타는 데		현지 채록
		23. 저 건너 고목나무는		현지 채록
		24. 전라도라 계명산에		현지 채록
		25. 두렁 밑에 나시꽃은	두릅 밑에 나실이	『大系 8-7』, 670쪽
		26. 껌의 집은 꽃밭이요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27. 거제 봉산 높은 정기		현지 채록
		28. 죽일 년아 살릴 년아		현지 채록
		29. 너와 내가 만날 적에	婚姻謠 3	『民謠集』V, 391쪽
	제2절 물레질	1. 오로동보로롱 물레야	물레노래	『大系 8-8』, 230쪽
		2. 물레야 빙빙 돌아라 ①	물레 노래	『大系 8-7』, 661쪽
	제3절 베짜기	②		현지 채록
		1. 월하에 놀던 선녀		현지 채록
		2. 천상에 놀던 각시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제6장 어사용		3. 월광전에 베를 놓자 ①	베를 노래	『무안문화』, 61–62쪽
		②		현지 채록
		4. 베를노래를 하여 볼까	베를 謠 6	『民謠集』 IV, 136–137쪽
		5. 달 가운데 계수나무	베를 노래	『大系 8–8』, 433–436쪽
		6. 천상에 놀던 앵화	베를 노래	『大系 8–7』, 666–670쪽
		7. 베를 다리는 사형제		현지 채록
		8. 베 짜는 아가씨		현지 채록
		9. 낮에 짜는 일광단		현지 채록
		10. 그 베 짜서 누 줄랑고	베짜기 노래	『大系 8–7』, 673–674쪽
		11. 옥황님께 죄를 짓고	밀양 베를소리	『民俗音樂』, 139
		12. 놓고 짜고 들고 짜고	베짜는 노래	『大系 8–8』, 423–424쪽
		1. 에 흑쭈구여		현지 채록
		2. 지리동산 갈가마구야		현지 채록
		3. 가자 가자 백로 가자	어사용	『大系 8–8』, 245–246쪽
		4.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오며 부르는 노래 혹은 풀베기謠	『農謠』, 101
		5. 마귀야 마귀야 가마귀야	밀양 나무꾼 신세타령	『民俗音樂』, 120–121쪽
		6. 구야 구야 갈가마구야		현지 채록
		7. 어떤 사람 팔자 좋아		현지 채록
		8. 아이고 정강이야 다리야	밀양 어산영	『민요대전』, 173쪽
		9. 어화 친구 벗님네여	산에서 나무하고 내려오며 부르는 노래 혹은 풀베기謠	『農謠』, 100쪽
		10. 혜헤이 혜이 내 팔자야	어사용(1)	『大系 8–7』, 208–209쪽
		11. 후추어 에이호호호호	나무꾼 신세 한탄가	『大系 8–7』, 705–706쪽
		12. 허허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무안문화』, 58–59
		13. 은행나무 황장목도	짝 없는 신세 한탄 소리	『밀양문화』 19, 25쪽
		14.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	어사용(2)	『大系 8–7』, 229–230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제7장 나물 캐는 노래		감아 ①		
		②	어사용[갈가마 구 타령]	『大系 8-7』, 209쪽
		15. 높은 산에는 눈 날리고		현지 채록
		1. 서산 밖에 서쳐자야 ①	나물 캐는 노래	『大系 8-8』, 412-423쪽
		②	나물 캐는 노래	『大系 8-8』, 216-217쪽
		2. 남산 밑에 남도령아	나물 캐는 노래	『大系 8-8』, 225-226쪽
		3.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현지 채록
		4. 뒷동산천 올라가서		현지 채록
		5. 광주리야 농 되거라		현지 채록
		6. 영동아 지신아 ①	영동아 제식아	『大系 8-8』, 442-443쪽
		②	나물 불이는 노래	『大系 8-8』, 710-711쪽
		③	밀양 나물뜯기 노래(4)	『民俗音樂』, 224쪽
		7. 어화 쳐정청 고사리 꺾자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방귀요 2	『民謡集』 III, 744쪽
제8장 나락 가는 노래		1. 어허허 목매야 ①	목매노래(나락 가는 노래)	『農謡』, 96-97쪽
		②	목매노래	『내고장』, 87쪽
		2. 어허 목마야	밀양 목매소리	『민요대전』, 169-170쪽
		3. 오호오호 방아야	(방아타령)	『무안문화』, 54쪽
		4. 오호호 방애야	방아 타령	『大系 8-7』, 222-225쪽
		5. 아호호 방아야	방아 노래	『大系 8-7』, 248-250쪽
		6. 오호 방아야		현지 채록
제9장 터다지는 노래		7. 쿵더쿵 쿵더쿵	방아 타령	『大系 8-7』, 671-673쪽
		1. 에이러 릇차	망깨노래	『香頭歌』, 247-249쪽
		2. 천 근 들어 망깨는	망깨노래	『香頭歌』, 246쪽
		3. 아이야라차아 ①	망깨 노래	『大系 8-8』, 247-252쪽
		②	말밖기謠 2	『民謡集』IV, 105-109쪽
		4. 열두 자 말목은 물밑에 놀고	망깨 노래	『大系 8-7』, 207-208쪽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5. 망개는 공중에 놀고 6. 에이여라 망깨놀이 7. 오호 딸꾸야 8. 어이야루 망깨야 9. 목도 노래	망깨 노래 망깨 현지 채록 현지 채록 목도노래	『大系 8-7』, 443-444쪽 『農謠』, 101-102쪽 현지 채록 현지 채록 『大系 8-7』, 252-253쪽	
제10장 아기 보는 노래	제1절 아기 어르기	1. 금자동아 옥자동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2. 불매 불매 불매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알강달강 서울 가서 ① ② ③ ④	애기 어르는 노래	『大系 8-8』, 227쪽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풀무노래 불매 노래 풀무 노래(1) 현지 채록 불매 노래(1) 불매 노래(2)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현지 채록 현지 채록	『大系 8-8』, 662-663쪽 현지 채록 현지 채록 『大系 8-8』, 238-239쪽 『大系 8-8』, 683-684쪽 『大系 8-8』, 236-237쪽 현지 채록 『大系 8-8』, 427-428쪽 『大系 8-8』, 430쪽 현지 채록 현지 채록

영역	세부영역	제목	원제목	출전
		⑤	알강달강	『大系 8-7』, 444-445쪽
		⑥		현지 채록
		⑦		현지 채록
		⑧	아기 달래는 노래	『大系 8-7』, 250-251쪽
		⑨		현지 채록
		⑩	밤 한톨	『道誌』, 232쪽
		⑪	알강달강	『大系 8-8』, 237-238쪽
	제2절 아기 재우기	4. 금을 주어 너를 살까		현지 채록
		5.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손자 노래	『大系 8-8』, 429-430쪽
		1. 자장자장 자장자장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④		현지 채록
		⑤	밀양 자장가	『민요대전』, 177쪽
		⑥	자장가	『大系 8-8』, 238쪽
		⑦		현지 채록
		2. 자장자장 워리자장 ①	자장가(1)	『大系 8-8』, 683쪽
		②	자장가(2)	『大系 8-8』, 689쪽
		3. 자장자장 자는구나	자장가(2)	『大系 8-7』, 245-246쪽
		4. 자장자장 물레자장		현지 채록
		5. 아가 아가 울지 마라 ①		현지 채록
		②		현지 채록
		6. 자장자장 우리 개야 ①	자장가(1)	『大系 8-7』, 221-222쪽
		②		현지 채록
		③		현지 채록
		7. 개야 개야 검정개야		현지 채록

#### | 편집위원

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밀양지역문화연구회 회장)  
이순우 (문학평론가, 부산대학교 강사)  
정훈식 (부산대학교 강사)  
류경자 (부산대학교 강사)

#### | 참여연구원

조수미 (부산대학교 강사)  
정은영 (부산대학교 강사)  
김남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노경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김민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조정효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 연구보조원

정문채, 손정경, 김성미, 구홍진, 장지수 (이상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 밀양민요집 1

2010년 12월 20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편집 밀양지역문화연구회  
발행처 밀양시  
인쇄처 세종문화사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2가 72-26번지  
전화 463-5898, 253-2213~5  
팩스 248-4880  
E-mail sjpl@chollian.net

등록 제02-01-96

#### 비매품

이 책의 무단전재 및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